

중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권영필 · 정수일 · 최광식 · 지배선 · 장준희
유리F. 부라코프 · 루스탐 X. 슬레이마노프

간행사

이번에 발간하는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는 우리 재단이 기획하고 후원한 정책연구과제 ‘중앙아시아의 고구려 관련 유적 학술조사 및 연구—아프라시아(Afrasiab) 궁전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와 고선지(高仙芝)의 석국(石國) 원정을 중심으로—’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고구려는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활발하고 강건한 기상을 떨쳤습니다. 그와 같은 고구려의 활발한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 이미 상당한 양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역과 고구려의 문화교류나 중앙아시아의 고구려 관련 유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출간되는 것은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고선지 장군의 타슈켄트(石國) 원정,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 보이는 고구려 사절 그리고 고구려와 서역의 문화 교류에 대한 국내의 학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중앙아시아에 남아 있는 고구려인의 발자취와 그들의 폭넓은 문화 교류 양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에 참여한 중앙아시아 학자들의 연구논문에서 참신한 시각으로 고구려인들의

활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현지답사에서 직접 촬영한 중앙아시아의 고구려 관련 유적 사진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의 고구려 사절단이나 고선지 장군이 이끈 당군(唐軍)이 아브 무슬림(Abe Muslim)과 최후의 사투를 벌인 탈라스(Talas) 전장(戰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고구려의 대외 문화교류나 고구려인의 활약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고구려인의 발자취를 좇아 폭염의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연구자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이처럼 훌륭한 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연구가 고구려의 대외교류 연구에 의미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 12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 응 덕

저자 서문 ... 10

아프라시아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권영필

- I. 머리말 ... 14
- II. 6~7세기 북·동 아시아와 소그드 ... 16
 - 1. 6~7세기 북·동 아시아의 국제정세 ... 16
 - 2. 중국의 소그드 인식-발굴 출토품을 중심으로 ... 20
 - 3. 소그드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통로 ... 23
- III. 고구려인의 서역관 ... 24
 - 1. 6~7세기 고구려의 대외교섭 ... 24
 - 2. 미술품을 통해 본 서역관 ... 28
- IV. 아프라시아 벽화의 세계상과 고구려 사절 ... 36
 - 1. 아프라시아 벽화의 특징 ... 36
 - 2. 벽화의 편년과 고구려 사절의 문제 ... 43
- V. 맺음말 ... 57

고선지의 서역원정이 갖는 문명교류사적 의미-종이의 전파를 중심으로 정수일

- I. 머리말 ... 62

- II. 종이의 개념과 발명 ... 63
- III. 종이의 초전 ... 69
 - 1. 종이의 동전 ... 70
 - 2. 종이의 신장 전파 ... 75
- IV. 사마르칸드지 ... 76
 - 1. 아랍 사학자 아부 오스만 알 자히즈(Abū Othmān al-Jāhiz) ... 77
 - 2. 페르시아 출신의 사학자이자 시인인 아부 만수르 이스마일 앓 사알리비(Abū Mansūr Ismāil al-Tha'libi) ... 79
 - 3. 아랍 철학자인 까즈위니(Zakriyā Ibn Mohammad al-Qazwīnī) ... 81
 - 4. 독일의 무스타쉬리끄(Mustashriq, 아랍학 연구가)인 카라바체크(J. Karabacek, 喀拉巴塞客) ... 81
- V. 종이의 서전 ... 85
 - 1. 종이의 아랍-이슬람 세계 전파 ... 86
 - 2. 종이의 유럽 전파 ... 90
- VI. 맺음말 - '종이의 길' 설정 ... 96

고구려와 서역의 문화교류-고분벽화를 중심으로 최광식

- I. 머리말 ... 102
- II.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문화 ... 103
- III. 아프리카시압 궁전벽화의 고구려인 ... 118
- IV. 맺음말 ... 133

고구려 유민 고선지의 석국 원정의 문헌학적 고증 지배선

- I. 머리말 ... 138
- II. 고선지 장군의 석국 정벌 배경 ... 139
- III. 고선지 장군의 제2차 석국 정벌 배경과 그 영향 ... 174
 - 1. 고선지 장군과 아랍 연합세력과 탈라스 전투 배경 ... 174
 - 2. 고선지 장군이 아랍 연합세력에 패퇴한 후 그 영향 ... 179
- IV. 맺음말 ... 189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해석 장준희

- I.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발견과 연구 경향 ... 194
- II.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시대적 배경과 종족적 특성 ... 199
 - 1. 중세 중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벽화 ... 199
 - 2. 중앙아시아의 종족적 다양성과 특성 ... 203
- III.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해석 ... 207
 - 1. 서벽 벽화 속 한반도 사신의 조우관에 대한 신화적 해석 ... 207
 - 2. 남벽과 북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 213
- IV. 맺음말-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압 벽화 연구를 위한 제안 ... 219

중세 초기 차치의 역사—문화적 국제 관계 유리 F. 부랴코프 ... 227

Историческо-культур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м Чаче Буряков Ю.Ф. ... 265

7세기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에 대한 40년간의
연구결과 루스탐 X. 술레이마노프 ... 307

Результаты 40-летнего изучения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а 7 в. Рустам X. Сулейманов ... 335

도판 ... 369

Abstract ... 403

찾아보기 ... 416

저자 서문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으로 권영필, 정수일, 최광식, 지배선 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중앙아시아의 고구려 관련 유적 학술 조사 및 연구-아프라시아 궁전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와 고선지의 석국원정을 중심으로-」라는 과제의 연구를 하게 되었다. 연구팀은 중앙아시아의 고구려 관련 유적 학술 조사와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하기 위해 2006년 8월 1~16일 현지답사를 하였다. 이때 본 연구를 돕기 위해 재단의 김진순 박사가 동행하였다.

연구책임자들은 중앙아시아의 고구려 유적 관련 지역을 답사하고 현지 학자들과 학술세미나를 하기 위해 중앙아시아를 방문하였다. 우리는 중국 신장(新疆)성의 텐산(天山) 산맥 남쪽 지역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의 고구려 관련 유적을 돌아보았다. 8,000km가 넘는 대장정이었다. 첫 관문은 중국에서 키르기스스탄의

국경으로 가기 위해 험준한 토루카르트 계곡(3,600여 m)을 넘는 것이었다. 전 답사코스는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인 험로였는데 이는 고선지의 원정로를 실제로 답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힘든 여정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고구려 유민 고선지 장군의 행적에 대하여 동·서양에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된 이유였다.

대장정의 답사 중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의 고고학연구소 부소장인 압들하미드 아나르바예프로부터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대한 중앙아시아의 연구 현황과 아시아와 유럽의 연구 상황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도 큰 수확이었다. 아프리카시압 언덕에서 7세기 중엽 이곳을 찾은 고구려 무사들을 떠올린 우리는 때마침 기울어가는 긴 석양빛 아래 무척이나 숙연하였다. 우리는 또한 중앙아시아에서 고구려와 관련된 사실의 연구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

켄트에서 역사학자들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진지했던 토론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이 토론에서 타지키스탄 판치켄트의 고분벽화의 동양화 기법은 고선지 장군 휘하에 있었던 화공에 의한 작품이라는 현지 연구자의 주장을 들었다. 중앙아시아 현지 학자들과의 토론 개최는 현지에서 합류한 장준희 박사의 도움이 컸다.

중앙아시아의 고구려 관련 유적 학술 조사 및 연구를 하는 데 한국 학자 시각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의 역사학 교수 루스탐 X. 술레이마노프와 유리 F. 부라코프를 유적 학술 조사에 포함시켰다. 카자흐스탄의 남카자흐스탄 국립대학 교수도 함께 연구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연구 논문 작성이 무리였는지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애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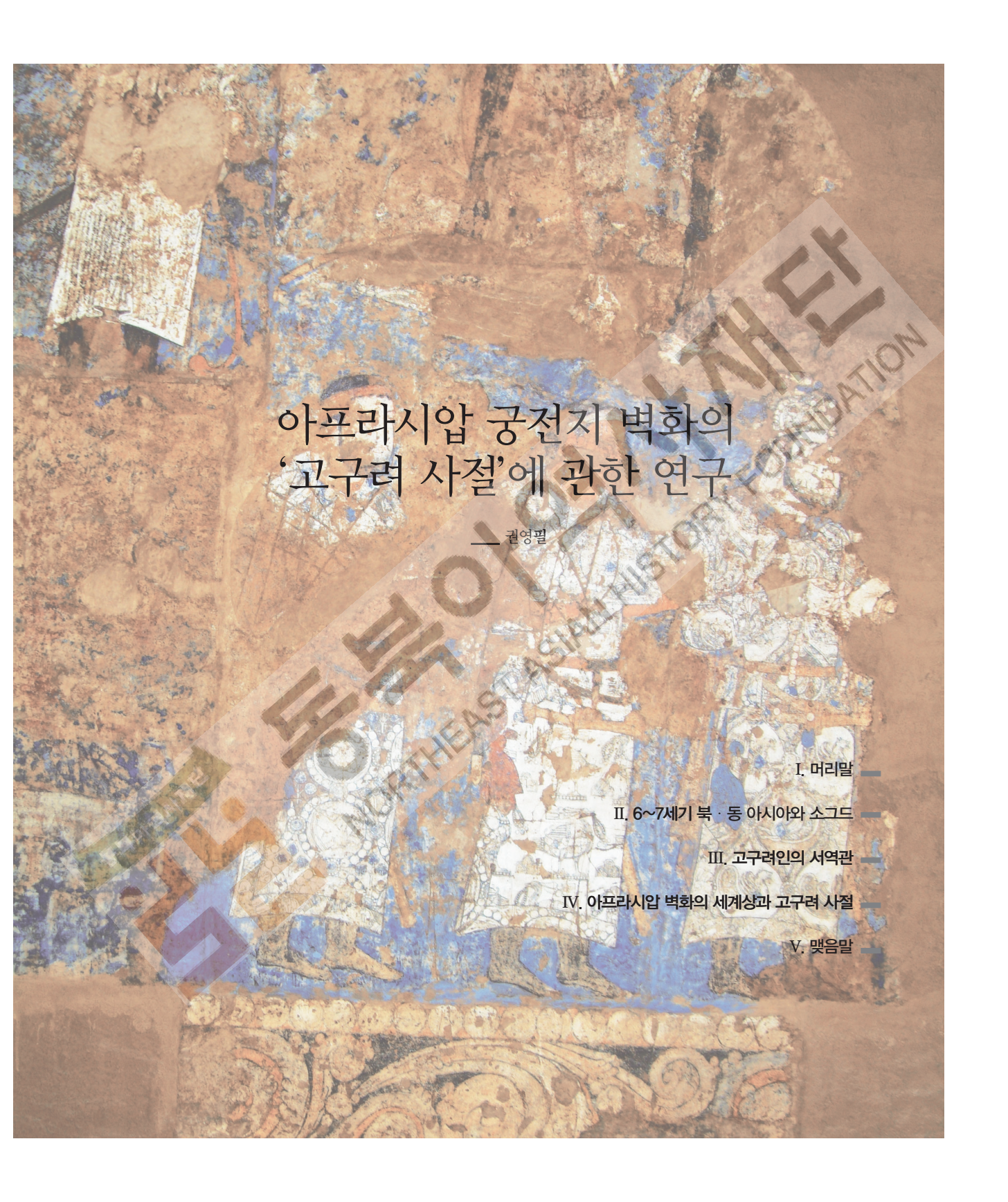
연구 논문 7편의 성과물을 한 권의 책으로 출간하도록 아낌없이 배려해 주신 동북아

역사재단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연구기간은 2006년 4월 1일~11월 30일이었으나, 그 후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계속 수정해 주신 책임연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이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중앙아시아의 고구려 관련 학술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는 이정표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중앙아시아의 고구려 관련 유적 학술 조사 및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심을 재삼 감사드린다.

2007년 12월

지배선



아프라시압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에 관한 연구

— 권영필

- I. 머리말
- II. 6~7세기 북·동 아시아와 소그드
- III. 고구려인의 서역관
- IV. 아프라시압 벽화의 세계상과 고구려 사절
- V. 맺음말

I. 머리말

주지하듯이 소그드의 사마르칸드 왕국의 옛 수도 아프라시압에서 1965년의 발굴을 통해 7세기 중엽의 궁전지가 확인되고, 놀랍게도 거기에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는 벽화가 남아 있어 세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6세기 이래 돌궐과 중국은 경제적 이권 확보와 영토 확장, 세력 균형 유지라는 대제국의 전략 차원에서 수시로 상호 개입하고 충돌하는 양상으로 역사를 점철해간다. 이 과정에 끼어들게 된 것이 소그드이다. 이 드라마를 그림으로 엮은 것이 아프라시압 벽화이다. 더욱이 그 벽화의 일부에는 ‘고구려 사절’로 보이는 인물들이 있어 우리의 각별한 관심을 끌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활동상은 현지 사료보다는 중국 문헌과 아랍 문헌을 통해 복원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현지에서는 주로 고고 발굴품에 의해 연구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아프라시압 벽화는 발굴 당시 일부가 파괴된 채로 수습되었기에 그 벽화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벽화의 조성 연대를 밝혀내는게 관건이다. 그동안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혀 대체로 7세기 3/4기라는 데 공감하고 있고, 이제

는 그 기간 내에서 몇년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성 연대의 편년에 따라 역사 해석과 문화 실상은 천변만화의 지경으로 바뀐다. 당시는 동서의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한 시기였기에 그러하다. 따라서 고구려의 경우도 그 편년의 지배 속에 다양한 해석을 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화가가 벽화를 실제 사철이 온 것을 보고 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자료·그림자료·구전 등을 바탕으로 벽화를 완성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술품을 포함한 고대 사료 해석에 따르는 미학적 원리까지도 고려해야 하기에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 환경의 제약 하에서 지금까지 이 분야 연구에 몰두한 러시아의 보리스 마르샤크(Boris Marshak)를 비롯한 주된 연구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고, 그것들의 합당성에 입각한 최적의 편년을 설정하여 그것이 고구려 시절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동·서 미술문화 교류 속에서 고구려의 역사적 입장과 국제적 위상이 어떠했던가가 어느정도 밝혀진다면 다행일 것이다.

덧붙여 연구 방법론의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역사 연구에서는 대체로 고대 문헌 검토가 기본이지만, 사실상 이 소그드 분야는 이미 선행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기에 필요에 따라 선행의 연구 성과를 인용하는 정도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미술품을 통한 ‘역사 읽기’에 치중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고구려인의 서역관’이라는 항목에서 보면, 그것을 문헌만 가지고는 구성할 수 없으므로 고구려의 미술품을 분석함으로써 그 주제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구려와 소그드의 관계를 최소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법론의 각도에서 현지 답사에 대해 첨언하고자 한다. 역사와 미술사 연구에서 답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특히 동·서 미술 교섭에서는 오가는 통로 개념이 중요하다. 이 연구를 위해 올해 현지를 다시금 답사하여 지리적 환경을 새롭게 체험하고, 현지 학자들을 만나 토론함으로써 많은 자료를 섭렵하여 연구에 큰 도움

이 되었음을 여기에 밝혀둔다.¹

II. 6~7세기 북·동 아시아와 소그드

1. 6~7세기 북·동 아시아의 국제정세

7세기 중엽의 소그드 벽화에 중국인과 돌궐인이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은 그 당시 당시국 소그드와 중국, 돌궐 삼자가 복잡한 정치, 외교적 국면에 얽혀 있었던 상황을 암시해준다. 이러한 상황이 외교사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단적인 예는 중국이 행한 영휘(永徽) 연간(650~655)의 소그드 책봉(册封)²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벽화의 조성과의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자의 국제관계는 일찍이 5세기 말부터 발생한다. 북위 태화(太和) 14년(490)에 당시 준가리아에 근거하여 세력이 강해진 돌궐족 고차(高車)가 상호(商胡) 사절을 경사(京師)에 파견한 바 있다.³ 또한 이보다 반세기 후인 6세기 중엽에도 유사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돌궐 국가의 개막기에 지배씨족인 아사나(阿史那)씨가 서위(西魏)와의 통상을 원해 서위는 대통(大統) 11년(545), 간쑤(甘肅) 주취안(酒泉)에 있는 소그드인 취락의 안락반타(安諾槃陀)라는 부하라 출신의 상인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⁴

1 동북아역사재단에 감사하며, 특히 사마르칸드 고고학연구소 부소장 압둘하미드 아나르바예프(Abdulhamid Anarbaev) 박사와 현지의 장준희 박사에게 이 기회에 감사를 전한다.

2 『唐書』 卷221下, 列傳146下, 西域下, 康條, “高帝永徽時以其地爲康居都督府即授其王拂呼縵爲都督.”

3 羽田 明(1982), 『中央アジア史研究』, 東京: 臨川書店, 340~341쪽. 원출: 『魏書』 卷3, 高車傳, “太和十四年阿伏至羅遣商胡越者至京師.”

소그드 상인이 고국을 떠나 돌궐과 중국 사이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동안 돌궐은 소그드 본토를 차지한다(565년 무렵). 또한 돌궐은 그 발전 과정에서 580년대에 동·서로 나뉘고, 그후 수(隋)·당(唐)의 번흥(翻弄)에 자주 시달린다. 예컨대 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630년에는 동돌궐이 막을 내리고 이후 반세기 가까이(630~682) 중국에 복속된다.⁵

특히 서돌궐은 7세기 초에 소그드(康國) 왕 굴출지(屈朮支)를 부마(駙馬)로 맞아 복속관계를 한층 굳건히 만든다.⁶

서돌궐과 중국은 교역의 요충지 확보를 놓고 사이가 원만치 못했다. 7세기 들어 서돌궐이 성장하면서 고창국과 사돈을 맺고, 628년 고창으로부터 다량의 선물을 받는 등⁷ 친밀해진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 당조는 매우 불편해하였을 것이다. 더욱이 당 태종은 초기부터 서돌궐이 거의 매년 조공사절을 보내오긴 하지만,⁸ 대외관계를 넓히며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눈엣가시처럼 거북해했음에 틀림없다.

4 護雅夫(1981), 「遊牧國家の『文明化』」, 護雅夫外編, 『北アジア史』, 東京: 山川出版社, 81쪽. 원출: 『北史』 卷99, 突厥傳.

5 르네 그루세, 김호동 외 역(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153~154쪽.

6 Edouard Chavannes(1903), "Documents sur les Tou-kiue(Turcs) occidentaux," *Сборниовъ Трудовъ ОрхонскойЭкспедицији*, 6, St. Petersburg, p. 135. 원출: 『舊唐書』 卷198, "隋煬帝時其王屈朮支娶西突厥葉護可汗女 遂臣於西突厥."

7 돌궐의 세력을 크게 일군 統葉護可汗의 장남 昶度設은 高昌國王 麴文泰의 누이와 결혼한다. 또한 玄奘이 서돌궐의 可汗浮圖城을 거쳐 서돌궐 지배하의 중앙아시아를 여행할 수 있는 편의를 돌궐에 부탁할 것을 고창국 麴文泰에게 원했다. 이에 麴文泰는 돌궐 可汗에게 絹 500匹, 두르판 특산과일 二車를 선물로 보냈다. 嶋崎昌(1987), 「西突厥と唐朝の西方進出」, 江上波夫 編, 『中央アジア史』, 東京: 山川出版社, 388~389쪽.

8 돌궐사, 특히 중국관계에 집중한 자료로서는 『册府元龜』를 분석한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Edouard Chavannes(1904), "Notes additionnelles sur les Tou-kiue(Turcs) occidentaux," *T'oung Pao*, Série II, Vol. V(Leide, E. J. Brill), pp.1~18.

승승장구하던 서돌궐의 통엽호가한(統葉護可汗, 재위 617?~630)⁹이 암살당함으로써 서돌궐의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 틈을 타 당 태종은 서돌궐의 세력을 양분하여 혼미한 정국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¹⁰

한편 고창(高昌)은 서돌궐의 실력자 옥곡설(欲谷設)과 함께 상리(商利) 관계로 632년 당의 후원을 받고 있는 언기(焉耆)를 공격하여 당과 적대관계에 서게 되었다. 더욱이 636년 고창은 당으로 가는 소그드 상인들을 가로막고 그 재화를 챙기려 이저우(伊州)를 습격하였다. 이 사건의 장본인은 옥곡설이었다. 그는 638년에 당의 지원을 받았던 회리실가한(噶利失可汗)을 무너뜨리고 이듬해 서돌궐의 을비둘룩가한(乙毗咄陸可汗)이 되었다.¹¹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의 긴장 속에서 태종은 640년 고창국을 공격하여 복속시켰다. 실크로드의 요충지를 손에 넣은 중국은 다시 서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쿠차를 정복(648)하고, 후에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를 그리로 옮긴다(658).¹² 한편 친당파(親唐派)를 제압하고 칸이 된 을비둘룩은 자체내의 내분과 강력한 중국 세력의 압박에 박트리아로 도망하였고(651),¹³ 이어서 아사나하로(阿史那賀魯, 후에 沙鉢羅可汗)에 의해 서돌궐은 잠시 세력을 회복하는 시기(651~657)를 갖는다.¹⁴ 이후 아사나하로를 폐망시킨 당이 두 사람의 새로운 괴뢰적인 칸(阿史那彌射와 阿史那步真)을 세워 서돌궐을 제어했으나, 고종(高宗)의 치세 후반기인 665~683년 사이에 지배 세력이 약화된 것을 틈타 서돌궐의 두 집단(弩失畢과 咄陸)이 665년부터 이들에 반기를 들고 다시 독립을 회복하였다.¹⁵

9 『舊唐書』卷194下, 突厥傳; 『新唐書』卷215下, 突厥傳에는 “統葉護可汗勇謀, 攻戰善, 遂北鐵勒, 西波斯拒, 南鬪賓接.”이라 하여 統葉護可汗 당시의 돌궐의 영역을 짐작케 한다.

10 嶋崎昌(1987), 앞의 책, 389~391쪽.

11 嶋崎昌(1987), 앞의 책, 390~391쪽.

12 嶋崎昌(1987), 앞의 책, 398쪽.

13 르네 그루세, 김호동 외 역(1998), 앞의 책, 158쪽.

14 르네 그루세, 김호동 외 역(1998), 앞의 책, 168쪽; 嶋崎昌(1987), 앞의 책, 398쪽.

한편 사마르칸드 왕 굴출지는 무덕(武德) 10년(627)에 처음으로 당에 조공을 바쳤다. 나아가 631년에 태종에게 신하되기를 청했다.¹⁶ 635년에 다시 사절을 보내 사자를 조공한다.¹⁷ 이후 태종의 치세(627~649) 후반기에 사마르칸드는 거의 매년 당에 조공사절을 보낸다.¹⁸

태종의 뒤를 이은 고종은 상호 정책을 더욱 구체화시킨다. 서역 여러 나라에 '기미주부(羈糜州府)'를 설치하였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당의 '백성'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¹⁹ 따라서 소그드의 오아시스 제국의 사람들도 율령(律令) 지배의 논리상에서는 기미주부의 백성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²⁰

이처럼 역사적 상황이 복잡화된 가운데 중국의 소그드에 대한 책봉(650~655)이 내려진 것이다. 중국은 책봉을 통해서 소그드를 더 확실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였을 것이고, 이 책봉은 아직도 세력회복의 여운이 있는 서둘궐을 의식한 외교적 행위였을 것으로 보인다. 책봉 시기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돌궐이 아사나하로에 의해 세력을 회복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소그드가 양대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양자택일보다는 둘을 이용한 등거리 외교의 입장을 취했던 게 아닌가 싶다.

7세기 중엽의 국제정세 속에서 고구려 사절의 서역행은 돌궐의 대외관계와 무관치 않

15 르네 그루세, 김호동 외 역(1998), 앞의 책, 169쪽.

16 Edouard Chavannes(1903), p.135. 원출: 『唐書』 卷221下, “武德十年始遣使來獻 貞觀五年遂請臣.”

17 Edouard Chavannes(1903), p.135. 원출: 『冊府元龜』 卷47; 『舊唐書』 卷198, “貞觀九年又遣使貢獅子.”

18 Edouard Chavannes(1903), p.135. 사마르칸드는 637, 639, 642, 643, 644, 648년에 각각 당조에 조공한다. 원출: 『冊府元龜』 卷47.

19 荒川正晴(1997), 「唐帝國とソグド人の交易活動」, 『東洋史研究』 56권 3호, 京都: 京都大學校 東洋史研究會, 192~193쪽. 원출: 森安孝夫(1984), 「吐藩の中央アジア 進出」, 『金澤大學文學部論集 史學科編』 4, 52쪽.

20 荒川正晴(1997), 위의 논문, 192~193쪽.

을뿐더러, 더 직접적으로는 돌궐과 고구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중국의 소그드 인식-발굴 출토품을 중심으로

발굴 유물을 통해 나타나는 가시적 자료들은 문헌이 침묵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준다. 출토 미술품으로서 소그드의 풍물을 전해주는 가장 오래된 사례는 고원(固原, Ning'an[寧安] 자치구)의 북위시대묘에서 출토된 녹유편호이다. 이 항아리 표면에는 소그드 춤인 호선무(胡旋舞)가 표현되어 있다. 이보다 후인 북주시대에도 고원[李賢墓]에서 은제 오이노코에병이 출토되었고, 더 시대가 내려가면서 시안 지역에서도 은기들이 출토되어 이들을 실어 나른 소그드 상인의 역할을 짐작케 한다.²¹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그드와 중국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근년에 발굴을 통해 밝혀진 소그드인들의 장의(葬儀)제도와 부장품들이다. 이들의 출토지와 연대를 참고하면 당시 소그드인의 활동상을 짐작하게 된다.

- ① 산둥(山東)성 칭저우(靑州) 부가묘(傅家墓) 출토 화상석, 북제 무평 4년(573).
- ② 시안(西安) 안가묘(安伽墓) 석탑(石榻), 북주 대상 원년(579).
- ③ 시안 사군묘(史君墓) 석곽(石槨), 북주 대상 원년(579).
- ④ 일본 미호(Miho) 박물관 석관상병풍(石棺床屏風), 북제.
- ⑤ 안양 출토 석관상병풍, 북제.
- ⑥ 태원 우홍묘(虞弘墓) 석곽, 수 개황 12년(592).
- ⑦ 간쑤성 천수 석마평(石馬坪), 석관상, 수당(隋唐).

21 齊東方(2004), 「輸入模倣改造創新—粟特器物與中國文化」, 榮新江 主編, 『從撒馬爾干到長安』,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7~33쪽.

이들의 분포는 서쪽의 간쑤에서 동쪽의 산둥, 중부의 산시[山西], 산시[陝西], 허난[河南] 등 모두 5개 성에 이른다. 대체로 중심 연대는 6세기 말에서 7세기에 해당된다.

이들 무덤의 내부구조는 중국의 전통적인 가옥 형태, 또는 동한(東漢) 이래의 벽화에 보이는 탐상(榻床) 형식에 병풍을 친 절충식의 이른바 ‘위병석탑(圍屏石榻)’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구조의 벽면에 그네들의 소그드 고향 풍속이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돌을새김 방식으로 표현된 이 일련의 풍속도는 소그드인들이 상업을 위해 방문한 외국 취락지에서도 자기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그드인 묘장 도상은 ‘소그드 저본(底本)’을 가지고 현지 소그드인 화가가 제작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²

이 가운데 태원 우홍, 시안 안가, 사군 등의 묘들은 소그드의 귀족묘장을 따랐으며, 실제로 묘주들은 신분이 비교적 높았음이 밝혀졌다. 위진남북조 이래, 특히 수당 시기에 중국에 들어온 소그드인들과 그 후예들의 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³

알려진 것처럼 조중달(曹仲達)은 조국(曹國, 소그드)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북제(北齊)에서 봉사하였다.²⁴ 그의 영향은 화단에 국한되지 않았다. 조각에서도 소위 조중달의 ‘조의출

22 張慶捷(2004), 「入鄉隨俗與雜忘故土—入華粟特人石葬具概觀」, 『從撒馬爾干到長安』, 10~11쪽.

23 楊軍凱(2004), 「入華粟特聚落首領墓葬的新發見—北周涼州薩保史君墓石槨圖像初釋」, 『從撒馬爾干到長安』, 25쪽.

24 張彥遠은 『歷代名畫記』에서 화가 曹仲達를 소개하면서 그의 출신지를 曹國으로, 그리고 그가 ‘梵像’에 능한 작가임을 밝히고 있다. 더욱이 조중달에 대해 후대에 보완된 내용을 참고하면 그의 화풍의 특성과 파급력을 짐작하게 된다. 북송 때 郭若虛은 『圖畫見聞志』에서 당의 畫聖 吳道子의 필법과 조중달의 것을 짝을 이루어 비교할 만큼 조중달의 畫格을 높이고 있다. 즉 그 양자의 특징을 ‘吳帶當風, 曹衣出水’로 규정하였다. 오도자가 그린 인물화의 옷자락은 바람에 나부끼는 모양이며, 조중달의 인물화의 옷주름은 마치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몸에 밀착된 모습임을 이르는 말이다.

Kuo Jo-Hsü, trans. A. Soper(1951), 'Kuo Jo-Hsü's Experiences in Painting (Tu-Hua Chiên-wen chih)', Washington: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y. 부록: 郭若虛, 『圖畫見聞志』 卷六一, 十四(汲古閣), 論曹吳體法條.

수(曹衣出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²⁵은 후술하는 바와 같은 조중달 기법의 근원 추구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복제 땅은 동위(東魏)의 전통을 이어받은 지역으로 오늘날 산둥성이 중심 지역이었다. 특히 칭저우의 용흥사(龍興寺)의 불상들이 주목된다. 이 사원의 6세기 불상들은 조중달의 '조가양(曹家樣)'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 불상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베이징[北京] 대학의 쑤바이[宿白]는 용흥사 불상에 대해 “당시 속특인(粟特人)이 제작한 ‘조의출수’식의 인도불교 형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앙미술학원의 진웨이뤄[金維諾]도 ‘조가양’의 영향 속에서 지역적, 시대적 특징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²⁶

소그드 문물의 영향은 수대의 둔황[敦煌] 석굴에서도 보인다. 둔황 420호굴 벽화 가운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묘사한 경변화에 나타나는 대상(隊商)들이 그것이다. 본래 이 내용이 인도의 불경고사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둔황의 화가는 소그드 대상을 모델로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⁷ 이밖에도 다수의 벽화에 소그드인의 종교인 현교(祆教)가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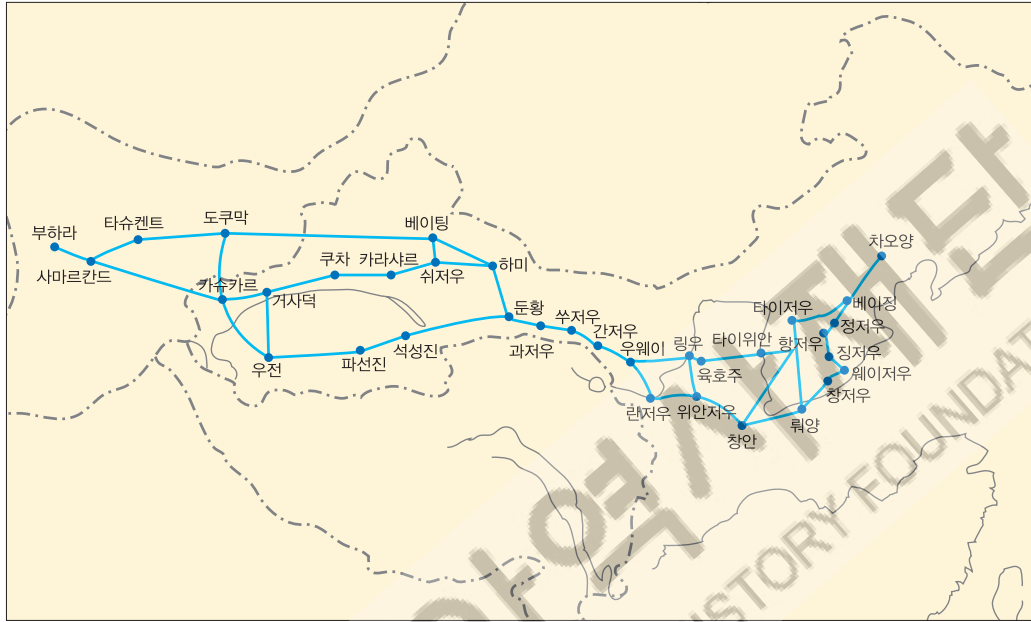
이와 같은 소그드 문화의 중국 전파는 고구려의 소그드 이해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5 榮新江(2001), 「粟特祆教美術東傳過程中的轉化—從粟特到中國」, 巫鴻 主編, 『漢唐之間文化藝術的互動與交融』, 北京: 文物出版社, 53쪽.

榮新江은 이 관점을 소개하면서도 회화와 불상이 다른 점을 들고 있다.

26 宿白(1999), 「青州龍興寺窖藏所出佛像的幾個問題」, 『山東青州龍興寺出土佛教石刻造像精品』, 北京: 中國歷史博物館, 18~19쪽; 金維諾(1999), 「簡論青州出土造像的藝術風範」, 『漢唐之間文化藝術的互動與交融』, 24~25쪽.

27 榮新江(2005a), 「薩保與薩薄: 佛教石窟壁畫中的粟特商隊首領」, 『粟特人在中國—歷史, 考古, 語言的新探索』, 北京: 中華書局, 59~60쪽.



지도 ... 소그드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통로

3. 소그드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통로

7~8세기에 이르면 중앙아시아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 코카서스 북쪽을 지나가는 대 실크로드의 북쪽 가닥과 우랄 지방의 소위 '가죽 루트'를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이 장악한 것으로 고고학 자료들은 보여주고 있다.²⁸ 4세기 이래로 활발해진 소그드인들의 동방 교역 활동은 대체로 전형적인 실크로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마르칸드(康國)에서 출발하여 카슈가르(疏勒)를 거쳐 톈산남로와 서역남로로 이어

²⁸ Belenitskii & Marshak(1981), "The Paintings of Sogdiana," *Sogdian Painting. The Pictorial Epic in Oriental Art*, G. Azarpay,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p.17.

저 둔황[沙州]에서 만나는 길 외에, 당초 사마르칸드에서 동북 방향의 타슈켄트[石國], 도쿠막[托克馬克, 碎葉: 세미레치 하부, 이시쿨湖 서부], 톈산북로의 베이팅[北廷], 하미[伊州]를 거쳐 둔황에 이르는 길이 소그드인들의 길로 개발되었다. 한편 이 길은 하서회량의 우웨이[武威; 涼州]에서 란저우[蘭州]로 내려가 시안에 닿는 길과 무위에서 수평으로 링우[靈武; 靈州], 타이위안[太原; 并州], 윈저우[雲州; 大同], 베이징[北京; 幽州]을 통해 차오양[朝陽; 營州]에 이르는 길로 연결된다.²⁹ 특히 차오양은 소그드 취락이 있었던 곳이어서 동쪽의 거점 역할을 했다. 이 지점은 뒤에서 다루게 될, 고구려로 가는 통로로 유추되어 우선 점을 찍어 두는 것이 좋겠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연과 돌궐은 대략 6세기부터 7세기 초까지 소그드로 통하는 간선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소그드 상인의 동방 출입은 이 두 나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고구려인의 서역행을 포함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경우도 이 통로의 중요성은 크다. 이 대목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III. 고구려인의 서역관

1. 6~7세기 고구려의 대외교섭

아프라시압 벽화에 고구려인이 등장하는 시기(7세기 중엽) 이전에 고구려와 소그드가 교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난제에 속한다. 다만 삼국시대에 한국에 온 호승(胡僧)들 가운데 소그드 지역에서 온 승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유추하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소

²⁹ 榮新江(2005b), 「從撒馬爾干到長安—中古時期粟特人的遷徙與入居」, 『粟特人在中國—歷史, 考古, 語言的新探索』, 北京: 中華書局, 4쪽.

그드 상인이 고구려에까지 와서 활동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다각적인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고구려의 역사상 서역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외교상으로 북방 지역과의 교섭과 함께 문화적으로도 서방의 선진 문화에 대한 지향성을 끊임없이 내 보이고 있는 점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가 강성기인 6세기에 북방의 문화기류인, 뒤에 기술하는 바와 같은 이른바 ‘북방기류’를 주도했던 점은 대외 교류에 대한 강한 성향을 드러낸 사례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날 남아 있는 고고미술품들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북위와의 교섭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 아울러 소그드에 이르는 통로를 고구려가 어떻게 활용했을까 하는 관점에서 7세기 중엽에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있었던 돌궐과의 정치외교적 정황을 살펴보겠다.

대륙과 피부로 맞닿아 있는 고구려는 지정학적 여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중원과 북중국, 중앙아시아를 주위에 걸치고 있으면서 이른바 자주적인 ‘양속 외교(兩屬外交)’를 전개하였고,³⁰ 특히 강국으로 부상한 북위와 적극외교를 전개하여 문화적으로도 큰 자극을 받아 국제성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고구려의 국력이 신장된 장수왕(425~491) 때에 북위에 사신을 보낸 것이 43회, 그 후 문자왕(491~519) 때는 29회에 달하였다.³¹ 이는 중앙아시아·서방 문화 흡수를 위한 적극적

30 노중국(1985),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방학지』 제49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11쪽. 원출: 坂元義種(1978), 「古代東アジアの國際關係—和親・册封・使節よりみたる—」,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東京: 吉川弘文館, 22쪽.

31 권영필(1996), 「고구려 회화에 나타난 대외교섭」,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 한국미술사학회, 180쪽; 권영필(1997a), 『실크로드의 미술—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151쪽.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알게 한다. 양국의 관계는 5세기 말쯤에 절정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³² 고구려는 북위와의 접촉을 통해 가깝게는 북위의 수도인 평성[平城]의 문화를, 멀게는 북위가 치중하던 허시[河西]의 문화를 받아들인다.³³ 특히 고구려는 이 두 지역을 발판으로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흡수하는 것은 물론, 북위가 북량[北凉]을 멸망시키고(439) 둔황을 영토화한 후로는 더욱 직접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호흡할 수 있는 여건에 놓이게 된다.

5세기 이후에는 스텝 지역의 여러 세력들과 접촉한 흔적을 읽어낼 수 있다. 선비, 거란 등의 북방 이종족 집단을 지배하면서 ‘철마교역(鐵馬交易)’을 행했음이 추정되며,³⁴ 또한 유사한 사례로 돌궐과의 접촉 과정에서도 고구려의 철문화 전파와 기마전법의 수용이 감지된다.³⁵

32 장수왕 사후 북위사상 최초의 追贈이 행해졌고, 추증으로서도 최고위 칭호가 내려진 사실로도 유추된다. 즉 ‘차기대장군, 태부 요동군개국공, 고구려왕(車騎大將軍, 太傅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의 칭호가 내려진다. 여기에서 태부는 ‘正一品 上’, 차기대장군은 ‘正一品 下’이다(三崎良章(1982), 「北魏の對外政策と高句麗」, 『朝鮮學報』 102, 東京: 朝鮮學會, 129~148쪽). 한편 북위의 사절이 고구려에 파견된 것도 435년부터 520년까지 16회에 달한다. 이는 북위가 남조에 파견(404~529)한 42회를 제외하면, 주변국 중에 가장 많다(三崎良章(1982), 위의 논문, 139쪽). 더욱이 교섭의 첫해인 435년에는 북위의 사절이 평양을 방문하여 장수왕에게 授號한다(堀敏一(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東京: 岩波書店, 171쪽). 또한 이 중에는 건사의 목적에 있어서 비중이 큰 ‘授號使’ 3회, ‘說論使’ 3회, ‘追贈使’ 2회 등이 들어 있어(三崎良章(1982), 위의 논문, 139~148쪽), 양국 간의 외교관계의 긴밀성을 드러내준다. Kwon Young-pil(2005), “Die Beziehung der Goguryeo-Wandmalerei zur zentralasiatischen Kunst,” *Mural Paintings from the Goguryeo Kingdom(37 B.C. ~ 668 A.D.)*, International Symposium, 21st-23rd Oct, Berlin : Freie Universität Berlin,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33 이와 유사한 관점을 표명한 논문으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Nancy S. Steinhardt(2001), “From Koguryo to Gansu and Xinjiang : Funerary and Worship Space in North Asia 4th-7th Centuries,” 巫鴻 主編, 『漢唐之間文化藝術的互動與交融』, pp.153~203.

34 박경철(2003), 「고구려의 이종족지배의 실상」, 『한국사학보』 15, 고려대학교 고려사학회, 310쪽.

백제가 고구려와 북방의 유연을 ‘순치관계(唇齒關係)’³⁶라고 한 데 비추어 보면, 고구려의 북방지향적 국제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6~7세기에는 돌궐족과의 접촉이 많아 공격을 받기도 하고(551),³⁷ 605년 무렵에는 돌궐과의 교역이 상당한 규모로 행해지기도 하였다.³⁸ 607년에는 주지하듯이 고구려가 사절을 오르도스 지방에 있던 돌궐의 추장 계민가한(啓民可汗)의 장막(帳幕)으로 파견해 함께 수에 대항하려던 것이 그곳을 방문했던 수양제에게 감지되어 경고된 일이 있을 정도로 양국 간에 접촉이 있었던 것이다.³⁹ 한편 7세기 전후 시기의 고구려 관모 중에 돌궐의 영향이 보인다는 주장⁴⁰은 양국의 교섭 관계를 짐작케 하기도 한다.

한편 연개소문의 집권 이래, 고구려가 당을 견제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있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서(唐書)』에는 고구려가 설연타(薛延陀)와 연합하여 당을 공격할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전해주고 있다.⁴¹ 특히 이 때가 645년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⁴² 고구

35 노중국(1985), 앞의 논문. 원출 : 이용범(1959), 「고구려의 요서진출 기도와 돌궐」, 『사학연구』 4호, 한국사학회, 43~79쪽.

36 472년에 백제가 북위에 보낸 국서를 보면 “고구려가 때로는 남으로 劉氏와 통하고 때로는 북으로 蠕蠕과 맹약하며 서로 唇齒관계에 있으면서 王略을 능멸하려고 도모하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이재성(1996), 『고대 동몽고사연구』, 법인문화사, 168쪽. 원출 : 『魏書』 卷100, 百濟傳, 2218쪽, “延興二年, …… 高麗不義 …… 或南通劉氏, 或北約蠕蠕, 相唇齒, 謀陵王略.”

37 고병익(1977), 『한국과 서역—근세 이전의 역사적 관계—』, 학술원 제5회 국제학술 강연회 논문집, 19쪽. 원출 : 『삼국사기』, 고구려 양원왕 7년, “突厥來圍新城 不克.”

38 노태돈(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427쪽.

39 고병익(1977), 앞의 책, 19쪽. 한편 이미 이용범의 논문(1959), 앞의 논문, 73쪽에서도 같은 내용이 인용된 바 있다. 원출 : 『隋書』 卷84, 突厥傳, 영양왕 18년(607)의 일이다.

40 이용범(1959), 앞의 논문, 78~79쪽.

41 지배선(2006), 『고구려 백제 유민 이야기』, 해안, 136쪽. 원출 : 『唐書』 卷217下, 列傳142下, 回鶻條, “高麗莫離支令靺鞨以厚利啗夷男欲與連和 夷男氣素索不發亦會病死.”

42 당서에 서술된 고구려의 이 계획에 앞서 이남과 당제의 대화가 정관 19년(645)에 오갔음을 참고할 수

려 사절의 소그드행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미술품을 통해 본 서역관

알려진 대로 둔황 벽화에는 몇 사람의 한국인이 등장한다. 그 중에 고구려의 멸망 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642년쯤으로 편년되는 석굴 220호굴의 벽화로,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유마거사상 아래에 조우관을 쓴 한국인이 표현되어 있다. 이 한국인이 고구려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제⁴³에서 미술을 통해 본 고구려인의 서역 진출상을 언급할 수 있겠다. 이밖에도 고구려 미술이 중앙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통해 고구려의 서역관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중국, 중앙아시아에 미친 영향 — ‘북방기류’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일정한 문양과 특정한 양식적 표현이 서역 미술, 특히 둔황 벽화의 유사한 사례들의 선구가 되고 있음은 그간의 연구를 통해 이미 정론화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고구려의 조형성이 북방의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흐르는 현상을 ‘북방기

있다. 佐口透 外 譯(1979), 『騎馬民族史』 2, 正史北狄傳, 東洋文庫 223, 東京: 平凡社, 432쪽, 주75. 원출: 『通鑑』, 貞觀 19年 8月條.

43 필자는 7세기 전반에 闕立本이 그린 外國圖가 신라인을 모델로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기초로 하여 둔황 벽화의 한국인의 경우에도 그것이 범본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를 한 바 있다(권영필(2003), 『렌투스 양식의 미술』, 사계절, 228~236쪽). 한편 노태돈은 6세기 전반 이후의 職工圖에 보이는 신라인에 鳥羽冠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唐의 天下觀에 입각하여 둔황 벽화(220호굴)의 한국인은 고구려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노태돈(2003),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출판부, 29쪽, 51~53쪽).

류'라고 명명한 바 있다.⁴⁴

예컨대 덕흥리 고분벽화(408년)와 북위 고원의 칠관화(5세기 후반)에 각각 표현된 화염문,⁴⁵ 무용총 벽화(5세기 전반)와 둔황 429호굴 벽화(6세기 중엽)의 수렵도,⁴⁶ 고구려 삼실총 벽화(5세기 후반)와 둔황 285호굴 벽화의 '지그재그'식 건물 표현⁴⁷ 등은 상호 비교되는 자료들로서 고구려가 시대적으로 앞서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미술사적 사실과 함께 고구려와 서역의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학자들도 견해를 함께하고 있어⁴⁸ 고구려 문화 발전상을 밝히는 데 힘이 되고 있다.

44 권영필(1996), 앞의 논문, 184쪽.

45 권영필(1996), 앞의 논문, 183쪽 ; 권영필(1997), 앞의 책, 157쪽 ; 이송란(1998),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상표현에 나타난 화염문의 의미와 전개」, 『미술사학연구』 220, 한국미술사학회, 1~40쪽. 특히 이 논문에서도 고구려가 앞선다는 중국 학자 劉萱堂의 견해를 인용한 부분이 주목된다. 주 83 참조.

아울러 5세기 무용총 사냥장면에서의 산악표현은 둔황 285호굴(서위 : 6세기 중엽)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관찰할 대상은 사슴을 향해 활을 쏘는 인물이다. 외투차림의 이 인물의 頭飾은 고구려인의 조우관처럼 보인다. 특히 이 285호굴의 또 다른 인물 표현들이 鎧馬의 기마인물을 그린 복조인들의 모습이라는 견해(鄧健吾(1978), 『敦煌への道』, 東京 : 日本放送出版協會, 75쪽)와 연관지어 보면 앞에 말한 두식은 조우관일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46 권영필(1996), 앞의 논문, 177~178쪽.

47 M. Sullivan(1962), *The Birth of Landscape Painting in China*, Berkeley : Univ. of California Press, p.151.

48 고구려의 서역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鄂嫩哈拉外編(1990), 『中國北方民族 美術史料』, 上海 : 上海人民美術出版社, 89쪽, 111쪽 ; Hans W. Haussig(1992), *Archäologie und Kunst der Seidenstrasse*, Darmstadt :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도판 538 해설 참조. 여기에서 Haussig는 무용총 벽화와 관련지어 실크로드의 동북 루트가 만주를 통해 한국으로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한국은 고구려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鄭岩(2002), 『魏晉南北朝 壁畫墓 研究』, 北京 : 文物出版社, 174~175쪽). 고구려와 서역의 연결루트(동북지구-황하 河套 지역-하서)에 대해서는 鄭岩도 용인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이 유연, 돌궐 등이 활약했던 지역임을 강조하고 있다.

2)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인물 표현으로서의 서역풍

(1) 소그드의 '조가양'

앞에서 조중달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북제 시대에는 조중달의 '조의출수' 식의 조가양이 화단을 풍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제 불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화법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시금 그의 고향인 조국(曹國)과 연관해서 좀더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조국 사람들은 '실신(悉神)', 즉 현신(祇神)을 신봉하였던 사실이 『수서(隋書)』에 의해 밝혀졌다.⁴⁹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조중달도 현교의 영향을 받은 화가였음을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중국에 온 후 당연히 불교의 영향을 받아 불상을 그리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⁵⁰ 오늘날 남아 있는 판치켄트와 발라릭테페 두 지역의 벽화에 나타난 연음도(宴飲圖)를 보면 옷주름이 조밀(稠密)하다.⁵¹ 그 특징이 바로 조가양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조가양의 옷주름 표현은 소그드의 현교와 관련해서 또 다른 예를 찾을 수 있다. 현교의 장의구(葬儀具)로, 죽은 자의 뼈를 담은(납골항아리) 질그릇 항아리(骨甕)인 '옷수아리(ossuary)'의 측면에 얇은 '돈을새김' 방식으로 인체를 표현하고 있는데, 때때로 거기에 조가양이 나타나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가령 국립 사마르칸드 박물관 소장의 6~7세기의 옷수아리(납골항아리, 도판 1)⁵²에는 조의출수의 전형이 보인다. 아치형 문틀

49 『隋書』 卷83, 西域傳, 曹國條.

50 榮新江(2001), 앞의 논문, 53쪽.

51 榮新江(2001), 앞의 논문 ; Mario Bussagli(1963), *La peinture de l'Asie Centrale*, Geneve : Skira, p.53 ; 馬里奧 佈薩格里, 許建英, 何漢民 編譯(1992), 『中亞佛教藝術』, 烏魯木齊, 新疆人民出版社, 48쪽 ; 마리오 부살리, 권영필 역(1978), 『중앙아시아 회화』, 일지사, 67~68쪽.

52 Akbar Khakimov ed.(2004), *Masterpieces of the Samarkand Museum. The State Museum of History of Culture of Uzbekistan*, Tashkent : Moziydan Sado, p. 100, pl. 148(6~7세기).



도판 1 ... 옷수아리 표면의 부조 인물상, 6~7세기, 국립 사마르칸드 박물관

아래 서 있는 세 여인의 옷은 몸에 밀착된 잔주름으로 접혀 있고, 특히 무릎 주변이 여러 겹의 동심원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보인다. 대체로 옷수아리 인물들을 소략하게나마 조의 출수식의 주름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여⁵³ 그것이 6세기쯤에 어느 정도 유행했던 양식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⁵³ Akbar Khakimov ed. (2004), 도판 147(Mullakurgan 출토, 6~7세기); K. A. Abdullaev et al ed. (1991a), *Culture and Art of Ancient Uzbekistan*, vol.2, Moscow, p.66, pl.470(Durmen 출토, 7세기), p.68, pl.472(Ishtihan 출토, 7세기), p.69, pl.474(Saritepa 출토, 7세기 후반), p.70, pl.476(Hirmantepa 출토, 7~8세기).

이러한 양식은 사산조 페르시아의 은제 접시에 나타나는 ‘제왕 수렵도’의 제왕 바지의 밀착된 주름과 바지 양옆에 물방울이 붙어 있는 듯한 처리법을 방불케 한다. 이는 ‘조의출수’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변종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소그드의 금속제 오이노코에에 표출된 여신상⁵⁴의 바지, 또는 치마 주름을 들 수 있다.

소그드 지역의 조의출수는 근본적으로 간다라 초기 불상의 습벽에서 전이된 것으로 유추된다. 왜냐하면 6세기의 조의출수 이전에 나타나는, 조국의 남부 지역인 테르메즈의 3세기 때의 불상을 보면 ‘출수’ 주름이 간다라 풍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베르진 테파 출토의 3세기 여체조각상⁵⁵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하의의 가장자리 윤곽에 물방울처럼 맺혀 있는 방식은 소그드의 전형으로 보인다.

(2) 고구려 벽화의 소그드 풍

고구려 벽화의 표현과 기법, 제재 등은 6세기에 들어오면서 일신된다. 비근한 예로 팔메트 문양, 벽 모서리 부분의 역사형 괴수 등을 볼 때, 기존의 벽화 전통 외에 남북조 및 내륙 아시아, 서아시아 등 외부의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문화적 자극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⁵⁶

특히 지안(集安) 지역의 오회분 4호묘 벽화도판을 보면 그러한 양상이 여실히 표출된다.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이 벽화의 인물들은 특히 표현 기법이 앞선 시대에 비해 어느 정도 입체성의 구사를 지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널방 천장고임 벽화인 불(火)의 신(神)의 의복이 몸에 밀착된 모습이다. 동여맨 허리끈 아랫부분

54 寧夏 자치구 固原의 李賢墓 출토의 오이노코에를 예로 들 수 있다.

55 K. A. Abdullaev et al ed(1991b), *Culture and Art of Ancient Uzbekistan*, vol.1, Moscow, p.97, pl.92(Old Termez 출토, 3세기), p.135, pl.172(Dalverzintepa 출토, 3세기).

56 전호태(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 출판부, 273~279쪽.



도판 2 ... 지안 오회분 4호묘 벽화 인물상

에서 두 넓적다리의 윤곽이 드러나는 옷주름의 표현이라든가, 특히 춤을 추는 듯한 자세로 치켜올린 왼팔의 팔려 돌아간 의습 표현은 눈에 띄는 특징이다.

더욱이 이 불의 신의 뒤통수를 돌아 얼굴 왼쪽으로 연장된, 왼팔의 소맷자락을 복(覆) 'U'자형으로 연속시키는 표현이야말로 지금까지 고구려 벽화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기법이다. 이후 강서대묘(7세기)의 비천상(북쪽 천장고임부)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보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비천상의 하의 끝자락을 삼각형으로 접어 표현한 점은 주목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이전 시대의 안악 2호분 비천상의 천의자락이 나뭇잎처럼 꼬여 있는 것과 다르다.

하의를 밀착시키는 기법과 소맷자락을 말려 들어가게 한 표현 등을 고구려 화공의 독자적인 창안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벽화에 나타난 의습의 밀착 기법이, 조각(불상)에서의 변화상을 회화가 넘겨다보았을 가능성에서 연유됨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⁵⁷ 동시대의 고구려 불상에서는 찾아낼 수 없다. 이것은 아마도 ‘조의출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 여겨진다.

여기에서 앞에서 본 소그드 옷수아리에 표현된 인물상들의, 특히 하의 밀착 수법과 고구려 벽화의 그것을 관계짓기 위해서는 고구려 미술과 소그드 미술의 교섭 통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고구려와 북제의 교섭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양원왕(재위 545~559) 때에 3회, 이어서 평원왕(재위 559~590) 때에 3회 등, 6세기 후반의 반세기 동안에 총 6회에 걸쳐 사신이 파견되었다. 이러한 기간에 조가양을 받아들였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한편 고구려와 소그드가 중원을 거치지 않고 접속되는 방식도 거론되어야 한다. 이 때에 고구려와 북조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요서 지방의 국경도시인 잉저우(營州, 현 朝陽)가 중요하다. 이곳은 가장 동쪽에 있는 소그드 상인들의 취락지이기도 하거니와 서쪽 사마르칸드로 가는 기점이었다. ‘동북지구의 인후’라 부를 정도로 교통의 요지이고, 바로 한반도로 진입하는 길목이다. 역사적으로도 거란(契丹), 해(奚), 실위(室韋) 등 삼부의 아장(衙帳) 지역으로 통하는 곳이다.⁵⁸

57 고구려 벽화의 의습 밀착 기법을 순전히 자료로서만 비교한다면 중국 山東 靑州 발굴의 일련의 불상들을 대비자료로 내세울 수 있다.

58 榮新江(1999), 「北朝隋唐粟特人之遷徙及其聚落」, 『國學研究』 第6卷, 北京大學中國傳統文化研究中心, 北京大學出版部, 68쪽; Étienne de la Vaissière, trans. James Ward(2005), *Sogdian Traders. A History*, Leiden: Brill, p.217, “……, Yingzhou(today Chaoyang), the principal Chinese stronghold on the very troubled Korean frontier, ……”.

한편 E. Schafer가 그의 저서(*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y of T'ang Exotics*(1963),

차오양(朝陽)에서 7세기 중엽 전후의 전형적인 소그드 금은기가 출토된 사실⁵⁹은 이 지역이 소그드에 이르는 간선의 중요 지점임을 말해준다. 이미 전장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소그드에서 차오양에 이르는 북중국 루트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허시(河西)－바오터우(包頭)－후허하오터(呼和浩特)－다둥(大同)－내몽골 츠핑(赤峰)－차오양(朝陽)에 이르는 길이고 고구려의 소그드행은 이 길을 역으로 가는 방향이다.

그런데 위에 말한 루트를 640년쯤의 당의 판도에 비추어 검토하면 츠핑을 제외한 지역, 즉 동쪽의 차오양과 황허(黃河)의 허타오(河套)지역⁶⁰은 모두 당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당과 적대관계인 상황에서는 돌궐의 서역 루트를 이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츠핑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 돌궐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루트가 그것이다. 돌궐은 통상적으로 그 발흥지인 알타이 남쪽의 준가르 분지에서 서진하여 바르하시 호(湖)와 일리 천(川) 지역의 세미레치를 거쳐 서쪽의 소그드에 이르는 길을 이용했다.⁶¹

Berkely : Univ. of California Press, pp.13~14)에서 시마크칸드에 이르는 실크로드를 언급하면서 그 서두에 만주와 한국의 산물이 북중국의 국경지대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의미심장한 면이 있다. 특히 그가 참고한 다음의 문헌들(그의 책, 주 54)은 유의할 만하다.

『唐書』卷39, 3724d(KM); 『太平寰宇記』卷70, 10b(1846年本); Matsui Shuichi(1959), “Ro-ryu hanchin ko,” *Shigaku zasshi*, vol.68, pp.1397~1432(전략 루트를 다룸); Cho Wen-jui(1926), “T’ang-tai shang-yeh chih t’u-tien,” *Ch’ing-hua hsüeh-pao* vol.3, pp.951~966(특히 여기에서 고구려와 관계 되는 찡주를 거쳐 가는 安東 루트가 제시되고 있다); 『唐書』卷43, 賈耽條, 3735d-3736d(KM) (8세기 말을 대상으로 함).

59 榮新江(1999), 앞의 논문, 68쪽; 「敖漢旗李家營子出土金銀器」(1978), 『考古』第2期; 齊東方(1992), 「李家營子出土的粟特銀器與草原絲綢之路」, 『北京大學學報』第2期, 北京大學, 35~41쪽. 齊東方은 찡州墓에서 출토된 금은기가 소그드 제품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 유물의 연대에 대해서는 7세기 전반, 7세기 후반, 또는 그 이후 등의 설이 있는 것으로 소개하면서 7세기 후반 이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0 주 48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隋唐 이전에는 黃河의 河套지역이 유연과 돌궐의 활동지역이었다.

61 이 루트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譚雅夫(1984), 『草原とオアシスの人々』, 東京:三省堂, 50쪽.

IV. 아프리카시업 벽화의 세계상과 고구려 시절

1. 아프리카시업 벽화의 특징

벽화가 중심을 이루는 소그드 미술의 대표적인 지역은 부카라 근처의 바락샤, 아프리카시업, 판치켄트 세 곳이다.⁶² 이 중에서 아프리카시업 벽화는 그 당시 소그드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국제관계, 특히 동아시아와 연관되는 역사 내용을 표출하고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프리카시업 궁전벽화는 1965년에 발굴되었고, 발굴의 주도자였던 알바움의 보고서를 출간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75년이였다. 이후 30여년간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 학자들은 이 역사적인 유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⁶³ 알바움의 보고서를 토대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⁶⁴

그동안 벽화 내용의 주제, 종교적 관점, 표현된 인물들의 국제성, 벽화의 회화적 양식과

62 Belenitskii & Marshak(1981), 주 35 참조.

63 1990년에 사마르칸드에서 아프리카시업 궁전벽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가 있었고, 특히 이 분야의 최고 권위인 B. Marshak는 거기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하여 1994년에 장문의 포괄적인 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독일의 M. Mode는 이 궁전벽화 주제에 대해 박사논문(1979), 교수자격 논문(1990)으로 치중하면서 1993년에 그의 주저를 출간했고,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근년에는 웹 출판으로 결정론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F. Grenet는 현재 프랑스-우즈베크고고단(MAROUZ)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우즈베크 지역의 고고발굴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시업 벽화에 대해서는 기왕에 발표된 글들을 종합해 웹에 소개하고 있다.

64 알바움의 보고서(1975) 이래 아프리카시업 벽화를 다룬 중요한 논저를 연대순으로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테크닉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돼 왔지만,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벽화의 조성 시기이다. 우선 결정적인 편년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 편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벽화 내용의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벽화의 전반적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어서 편년을 중심으로 알바움의 보고서를 포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한국 사절단’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알려진 대로 발굴된 벽화는 현재 아프라시아 역사박물관에 유적 원형대로 진열되어 있다. 한 변이 11m 정도 되는 정방형의 벽면 구조에 벽화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벽면은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이 위치한 곳은 동벽이다. 따라서 동벽은 문을 좌우로 하여 벽화가 이분된 셈이다. 여

L. I. Albaum(1975),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Tashkent ; 穴澤咏光, 馬目順一(1976), 「アフシャブ都城址出土の壁畫にみられる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第81輯, 東京 : 朝鮮學會 ; 김원룡(1976),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의 사절단」, 『고고미술』 129·130, 고고미술사학회 ; L. I. 알바움, 加藤九祚 譯(1980), 『古代 サマルカンドの壁畫』, 東京 : 文化出版局 ; A. M. Belenizki(1980), *Mittelasien. Kunst der Sogden*, Leipzig : Seemann Verlag ; Guitty Azarpay(1981), *Sogdian Painting, The Pictorial Epic in Oriental Art*, Berkely : Univ. of California Press ; Silvi Antonini(1989), “The Paintings in the Palace of Afrasiab (Samrkand),” *Rivista degli Studi Orientali*, LXII ; Markus Mode(1990), “Studien zur Ikonographie sogdischer Wandgemälde,” Habilitationsschrift, Halle : Martin-Luther-Universität ; 무하마드 칸수(1992), 『신라·서역교류사』, 단국대학교 출판부 ; Markus Mode(1993), *Sogdien und die Herrscher der Welt. Türken, Sasaniden und Chinesen in Historienbildern des 7. Jahrhunderts n. Chr. aus Alt-Samarqand*, Frankfurt am Main : Peter Lang ; Boris Ilyich Marshak(1994), “Le programme iconographique des peintures de la ‘Salle des ambassadeurs’ à Afrasiab (Samarkand),” *Arts Asiatiques*, Tome XLIX, Paris :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Markus Mode(2002), “Court art of Sogdian Samarqand in the 7th century AD—Some remarks to an old problem,” 〈A web publication : www.orientarch.uni-halle.de/ca/afras/text/maintext.htm〉 ; Seminar für Orientalische Archäologie und Kunstgeschichte,

기에서 비교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벽면은 남벽과 서벽인데, 고대 한국인이 묘사된 벽면은 서벽이기에 이 부분에 더 무게를 두어 서술하고자 한다.⁶⁵

무엇보다도 먼저 이 궁전벽화의 대주제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목적으로 이 벽화를 조성하였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벽의 왼쪽 코너 가까이에 있는 인물상의 흰색 카프탄 자락에는 손상이 심한 박트리아 문자(2줄)와 고대 소그드어로 쓰여진, 판독이 가능한 상태의 명문이 16줄 남아 있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준다.⁶⁶

Universität Halle ; 권영필(1997b), 『중앙아시아 미술—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 노태돈(2003), 앞의 책 ; Matteo Compareti(2004), “Remarks on the Sogdian Religious Iconography in 7th Century Samarkand,” 『歐亞學研究』, 北京, 〈web publication : www.eurasian history.com〉 ; Sergey A. Yatsenko(2004), “The costume of foreign embassies and inhabitants of Samarkand on wall painting of the 7th. c. in the ‘Hall of Ambassadors’ from Afrasiab as a historical source,” *Transoxiana* 8-Juno, 〈web publication : www.transoxiana.org/0108/yatsenk-afrasiab_costume.html〉 ; Susan Whitfield(2004), *The Silk Road, Trade, Travel, War and Faith*, Chicago : Serindia Publication ; 葛樂耐 · Frantz Grenet(2005), 「粟特人的自畫像」, 『粟特人在中國—歷史, 考古, 言語的新探索』, 法國漢學 第10輯, 北京 : 中華書局 ; Étienne de la Vaissière, trans. James Ward(2005).

65 궁전벽화에 대한 기본 설명은 M. Mode의 해석(이미 제시한 〈2002, web publication〉)에 의존하며, 필요할 경우 비평적인 다른 해석들을 보태기로 한다.

66 이 고대 소그드어 명문(16행)에 대한 해석은 발굴에 참여했던 V. A. Livshic에 의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Albaum의 보고서(1975, pp.55~56)와 穴澤味光의 번역본(1976, 96쪽)에 실렸다. 이후 수정 보완을 거쳐 아래와 같이 영문으로 번역되어 티슈켄트 역사박물관 문서자료실에 전시되어 있다.

Manuscript on a national coat (chapan).

“When Caesar Varkhuman from Unash came close to ambassador and said, I am—chagianian dapirpat (named) Pukar-zate. I came to give the tribute from His Majesty Turan-tash to Samarkand's Caesar and I am here to honor the Caesar, And you, o, Caesar, please do not have any mistrustful thoughts about me—I am well informed about samarkandi Gods, and also about Samarkandi manuscript. And by no means have I the intention to harm the (Samarkandi) Caesar. And may you live a grandeur life, o Caesar.” And (then) the Caesar Varhuman from Unash let him go And the chach dapirpat started his speech.



도판 3 ... 아프라시아입 궁전지 벽화 서벽, 상상적 복원도, 모데 의거

이 명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 벽화는 소그드의 왕 바르후만(拂呼纒)을 기리기 위해 주변에서 대사를 파견한 모습을 그린 것이고, 소그드의 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명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매우 흥미롭게도 바르후만 왕에 대한 기록은 『신당서』에 나타나고 있다. 『신당서』는 그가—이 글의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고종 영휘 연간(650~655)에 책봉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⁶⁷ 그런데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바르후만 왕의 재위기간이 『신당서』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그드 사서에도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이 사실이 발굴 이후 많은 학자들의 퍼즐 게임을 부추겼다.

서쪽 벽은 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정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소그드 건물 구조에서—그것이 개인 집이건, 왕궁의 근정전이건—공통

67 주2 참조.

적이다. 이 벽면의 중요한 상부는 발굴 이전부터 훼손되어 없어졌지만 지금 남아 있는 인물들만 해도 무려 49명에 달한다. 한국인 사절 2명도 여기에 속하며, 맨 하단의 우측편에 자리잡고 있다. 알바움의 보고서 이래로 붙여진 고유 번호는 서벽 24, 25번(좌측에서 시작)에 해당된다.

일실된 서벽의 상부를 상상적으로 복원하는 데에는 현존하는 하단의 49명의 용모, 복식, 관식, 지물 등을 기초로 한 도상과 그 인물들의 제스처가 도움을 준다.⁶⁸ 물론 이와 함께 역사 배경이 가미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복원적 해석이 가능하다. 인물들의 방향에 따라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좌측은 서방의 사절들, 우측은 중국과 한국의 사절들로 대별할 수 있다. 좌우 그룹의 떨어져나간 상부에는 각각 바르후만 왕과 돌궐 왕이 자리잡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시 이 왕들의 위쪽, 즉 최상단부에는 소그드의 신들이 정좌했을 것으로 상정된다(도판 3).

또한 여기에서 화면 맨 우측, 즉 한국인 사절의 우측에 놓여 있는 북과 깃대(banners)들은 유목민족의 상징물로 눈여겨봐야 할 요소들이다.⁶⁹ 특히 11개의 기들은 서돌궐의 부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더욱 그러한 해석을 가능케한다. 서벽에는 돌궐인들이 다수 등장한다. 이들은 3인이 한 조가 되는데, 각각 다른 색의 카프탄(적, 백, 황)을 입고 있다. 각각 다른 카프탄의 색은 아마도 관직이나 특수 기능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은 외국에서 온 사절들을 안내한다.

여기에서 외국 사절들이 결국 누구에게 안내되는가가 이 서벽 우측 부분 해석의 관건이

68 또한 복원 자료로서는 창을 든 군인들과 그 밖의 군용 기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oris Ilyich Marshak (1994), p.8, “La scène est complétée par des gardes armés de lances et d'autres pièces d'équipement militaire ……” (그 장면은 창을 든 위병들과 그 밖의 군용 장비들로 완성되어 있다).

69 마찬가지로 화면 좌측(즉 남쪽)에 보이는 깃대들도 이른바 소그드의 종족을 나타내는 昭武九姓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Markus Mode(2002).

다. 마르샤크(B. Marshak)는 이들이 소그드의 신에게 인도된다고 보았는데, 모테(M. Mode)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돌궐인들이 소그드의 신에게 봉사하는가. 돌궐인들은 이들 외국 사절을 자기의 사궤가한(射匱可汗)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모테는 화면 상부에 서돌궐의 칸이 묘사되었을 것으로 해석한다. 이 부분은 고대 한국인을 해석하는 데에도 크게 참고가 된다.

남벽은 기마 행진을 하는 바르후만 왕이 남벽 우측에 우뚝 솟듯이 큰 크기로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 알바움(L. I. Albaum)은 왕에게 중국(또는 고창)에서, 그리고 차가니안에서 온 공주들을 안내하는 행렬이라고 주장하지만,⁷⁰ 여기에 대해 반론이 제기된다. 마르샤크는 우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곤 중국 공주가 외국인과 결혼한 예가 없기도 하거니와 역사상 사마르칸드에 중국 공주를 보낸 일이 없고, 또한 고창은 640년에 중국에 속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사마르칸드가 가지는 고창의 중요성이란 관점에서도 가능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것은 장례행렬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인장이 없는 말도 거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⁷¹

이러한 견해는 콤파레티(M. Comparetti)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콤파레티는 더 나아가 이 행렬을 인도하는 코끼리에 악사가 타고 있다고 분석함으로써, 코끼리 위에 케노피가 설치되고 거기에 시집오는 공주가 앉아 있었을 것으로 상상한 알바움의 종래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벽 맨 좌측에 있는 건물에 대해 마르샤크는, 소그드 왕이 매년 신년 축제에 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중국 기록(『北史』, 『隋書』)에 비추어 사마르칸드 왕의 조상 신전으로 보았다.⁷² 그런데 그 신전 속에는 하체만 보이는 세 사람이, 신전 밖에는 한 사

⁷⁰ Boris Ilyich Marshak(1994), p.11. 원출: L. I. Albaum(1975), pp.56~57.

⁷¹ 마르샤크는 안양에서 출토된 소그드의 <장의용 기념분비>에도 안장 없는 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Boris Ilyich Marshak(1994), p.11.

⁷² Boris Ilyich Marshak(1994), pp.14~15.



도판 4 ... 아프리카시암 벽화 북벽 인물 모사도

람이 서 있다. 이들에 대해 마르샤크는 세 사람은 사제, 밖의 한 사람은 병정일 가능성을 제시한 반면, 마테오 콤파레티는 그들은 사제가 아니고 소그드 신이라고 주장하였다.⁷³

북벽은 전체가 중국을 주제로 한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좌측에는 배를 타고 오는 중국 공주와 시녀들, 우측에는 중국 황제의 수렵도가 각각 묘사되어 있다. 이 스토리는 그럴듯하지만, 모데는 실제로 650년을 전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다른 내용을 소개한다. 서돌궐의 사궤가한이 646년에 태종에게 중국 공주를 청한 적이 있지만, 이 결혼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벽화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화가들의 주제 선택과 묘사력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73 Matteo Compareti(2004).

없지 않다. 북벽의 한 인물의 안면 묘사(도판 4)는 윤곽선이 덧그어져 에스키스를 방불케 하며,⁷⁴ 또한 동벽의 표현 내용들은 문을 좌우로 해서 왼쪽은 앉아 있는 인물과 누드에 가까운 인물들이, 오른쪽은 물짐승이 그려져 있는 등 수수께끼 같다는 평이 중론이다. 알바움은 북벽의 그림들이 인도를 주제로 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벽화의 편년과 고구려 사절의 문제

앞에 제시한 것처럼 발굴 이후 30여년간 시행된 연구 성과 가운데 벽화의 조성연대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루었거나, 무엇보다도 서벽에 나타난 한국 사절(도판 5)에 대해 언급하였거나, 특히 그들을 ‘고구려인’으로 지칭하는 논저들을 발표 연대순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알바움(L. I. Albaum, 1975)

발굴 당사자인 알바움이 쓴 보고서에 들어 있는 서문에서 Y. 구리야모프는 벽화의 제작 시기를 바르후만 치세의 마지막 시기인 690년대로 보았으며, 더욱이 모종의 정변으로 제작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이 건물이 712년의 아랍 침입으로 파괴되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벽화의 내용은 벽화에 남아 있는 명문으로 미루어, 바르후만의 치세기에 있었던 일로 여겼다.

알바움도 서문에서 서벽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림의 내용은 사마르칸드 왕이 각국에

74 아프리카시업 벽화 발굴에 참여했던 카미도비치 슬레이마노프(Khamidovich Suleymanov) 박사(2006년 8월 14일 타슈켄트에서 면담)도 이 像이 에스키스 같다는 필자의 견해에 공감을 표하며, 서벽 중앙, 중국인 사절 후미에도 완성되지 않은 인물상이—푸른색의 화면 배경에 인물의 윤곽선만 보인다—있음을 부연하였다. 이런 현상은 아랍 침입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그는 추단하고 있다.



도판 5 ... 아프리카시암 벽화 서벽 고구려 사절

서 온 사절을 응접하는 것이며, 다른 벽화는 사절들의 사마르칸드로의 이동과 도착을 그린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서벽에는 전 벽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16행으로 구성된 소그드어 명문을 말한 것이다.⁷⁵

알바움은 없어진 상부의 벽화에 바르후만 왕의 초상이 있었을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 발치에는 실제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소그드인들이 앉아 있다. 알바움은 보고서의 본문에서 서벽의 내용을 다시금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왕의 앞 중앙 부분에는 중국에서 온 사절이 서 있다. 그들의 의복과 머리 모양은 북벽의 상과 같다. 그 좌측에는 차가

75 주 66참조.

니안에서 온 사절이 보이고 있는데, 남벽의 화면에서도 이를 만날 수 있다. 서벽의 오른쪽 부분에도 두 개의 사절 그룹이 있는데, 아마 이 중 하나는 차치(이 사절에 대해서는 명문에 쓰여 있다), 다른 하나는 의복으로 판단했을 때 조선에서 온 사절이라고 생각된다.”

알바움의 한국 사절에 대한 기술을 좀더 요약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는 두 인물의 관식, 옷모양, 환두대도, 신발, 거동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세밀한 설명을 하고, 이들의 출처(出自)를 밝히기 위해 먼저 『북사(北史)』(고구려전)를 인용한다. 그가 고구려전을 인용한 것은 심증을 그쪽 방향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거기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조우(鳥羽)’로 관식하며, ‘삽수(插手)’ 습관을 가진 점에 주목한다. 또한 『신당서』의 복식도 참고한다. 우선 두 사서를 통해 한국인임을 확인하며, 고구려가 은밀히 돌궐의 계민가한과 접촉한 대목을 내세우고, 한편으로는 “투르크가 다른 많은 나라와 끊이지 않은 접촉을 가졌음”을 지적한다.

722년 신라승이 서역을 방문한 연대가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그것과 들어맞는다고 했다. 보고서를 쓸 당시 벽화의 사절이 고대 한국 중에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 확신을 못 가진 듯하다. 그럼에도 다시금 그 벽화의 인물들이 고구려 벽화 인물들의 복식과 유사함을 피력한다. 전반적으로 그는 국적에 대한 결정적인 언급을 유보하지만 그의 논증은 대체로 고구려인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친다.⁷⁶

2) 아나자와(穴澤, 1976)

알바움의 보고서가 간행된 지 몇달 후에 일본의 학계는 이 중요한 역사자료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 자료들을 통해 한국의 고대문화에 대한 종래의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

76 L. I. Albaum(1975), 주 66 참조. 이와 함께 穴澤和光(1976)의 日文 번역본 보고서 참조.

운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우선 벽화의 실상을 장문에 걸쳐 소개하고, 알바움의 보고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무엇보다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시대에 대해서도 알바움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아나자와의 논문은 우선 『신당서』(西域傳 下, 康條) 영휘 연간의 책봉 사실을 참고하여, 벽화의 연대가 655~690년일 것으로 잠정 설정한다. 나아가 벽화에 표현된 괴수문양(異獸文樣) [シムルグ紋], 저두문(猪頭紋), 작조문(昨鳥紋), 아양문(野洋紋), 천마문(天馬紋), 유익사자문(有翼獅子紋) 등을 역사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한 후, 이들 문양이 7세기 중엽 전후와 관계됨을 밝혔다. 이어서 복식에 대한 분석 결과, 7세기 중엽 전후, 측천무후 시대 이전 초당기에 가까운 복식으로 평가하였다.

벽화에 묘사된 사절단의 방문은 바르후만 왕의 치세 말년 이전에 행해졌으며, 이 광경이 기량있는 화가에 의해 정밀하게 기록되어 벽화를 위한 원고가 마련된 것으로 유추하였다. 아울러 이 사절들의 내방 계기는 당 고종 영휘 연간의 책봉이라고 보았으며, 이것은 앞의 벽화 내용에 대한 추정과도 부합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인 사절의 복식, 환두대도의 연대도 대체로 앞의 비정연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인의 국적을 밝히기 위해 일본 학자들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들여다본다. 고구려의 대당(對唐) 관계, 당의 중앙아시아 경영, 640년 서돌궐 멸망 사실, 특히 고구려와 돌궐의 외교관계에 주목한다.

알바움도 지적한 바 있지만, 수양제가 돌궐의 천막에서 고구려 사신을 발견했다는 『수서』(列傳 裴矩條)⁷⁷의 기록과, 고구려 유민이 동돌궐에 들어갔다는 『구당서(舊唐書)』의 내용을 상기시킴으로써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를 제시한다.

아나자와는 돌궐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를 심화시키기 위해 돌궐과 소그드의 관계를

77 『隋書』 卷67, 列傳32.

강조한다. 『신당서』(서역 열전)에 나오는 수나라 때 소그드 왕 굴출지가 서돌궐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들춰내기도 한다.⁷⁸ 즉 돌궐을 축으로 하여 소그드와 고구려를 연결시키고, 그런 맥락에서 벽화의 한국 사신이 고구려인일 가능성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그는 결국 고구려는 642년 이후 대막리지 연개소문의 독재 체제 하에서 대당 관계가 긴장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가 서돌궐에 우호와 통상을 구하려 돌궐과 소그드의 관계를 이용하여 사마르칸드까지 사자를 보낸 것으로 추정한다.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한국인 사절이 당사와 완전히 떨어진 장소에 묘사된 것도 이런 추정과 결부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 사절의 서역행은 연개소문의 발의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닌지 추측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면 이 견사의 연대 하한은 연개소문의 사거에 의해 고구려 정세가 혼란에 빠진 666년 이전일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는 앞에서 비정한 연대와도 일치한다는 그의 주장⁷⁹은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이런 논리는 고구려에서 소그드까지 이르는 통로가 보장되어야 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아나자와는 고대한국의 사절이 중국을 거치지 않는, 북아시아 경유의 스텝루트를 통해 사마르칸드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3) 김원룡(1976)

알바움의 보고서의 벽화 부분과 아나자와가 보내준 자료를 참고하여 이 벽화의 연대가 7세기 말~8세기 초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처음에는 이 사절을 신라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발해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있다.

⁷⁸ 穴澤和光(1976), 앞의 논문, 13쪽. 주 66 참조.

⁷⁹ 穴澤和光(1976), 앞의 논문, 31쪽.

그후 일본의 아나자와가 다시 알려준 정보, 즉 옛 소련 고고학자들에 의해 이 벽화의 연대가 7세기 중엽으로 수정되고 있는 편년에 입각하여, 고구려인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결론지었다.

4) 마르샤크(B. I. Marshak, 1981)

아프라시압 벽화 연구의 권위자인 마르샤크는 1981년에 발표한 글에서 아프라시압 벽화의 연대를 7세기 3/4기로 추정하였다. 이 연대관은 1994년의 논문까지 유지되었는데, 2001년에는 그 간격을 압축하여 660년으로 한정지었다.⁸⁰

또한 그는 처음(1981년)부터 한국인 사절을 고구려인으로 비정하고 있었는데, 그 국적에 대해 확신을 갖는 듯하였다. 특히 고구려와 당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였던 시기에 고구려의 사마르칸드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한다. 따라서 고구려가 당과 ‘칭신(稱臣, vasal)’ 관계였던 시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670년 전으로 벽화를 편년하는 것은 서벽에 그려진 고구려 사절의 고구려 왕조가 669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과 연관된다. 고구려는 중국과 자주 전쟁을 치렀는데, 648~655년과 662~666년 사이의 양국의 평화 간격이 사마르칸드에 사절을 파견할 수 있는 한층 실제적인 기간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평화적인 시기는 당의 조공국(un pays vasal)으로 있었던 시절로 사료된다. 그리고 이때에 중국과는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⁸¹

⁸⁰ Markus Mode(2002). 원출 : A. L. Julliano, J. A. Lerner, ed.(2001), *Monk and Merchants : Silk Road Treasures from Northwest China, Gansu and Ningxia, 4th ~ 7th centuries*, pp.231 ~ 37.

⁸¹ Boris Ilyich Marshak(1994), p.8.

마르샤크의 이와 같은 견해는 그의 벽화 연대관에도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고구려가 중국의 협력이나 보호 없이 사마르칸드에 가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석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소그드 벽화에 대해 마르샤크는 때때로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특히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대해 더 그러하다. 가령 그는 서벽에 모셔져야 할 신에 대해, 당시의 토하리스탄·페르가나·중국 등이 불교를 신봉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국제정세가 사마르칸드로 하여금 불교를 존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했을 것이라고 해석한다.⁸²

이 점은 어쩌면 둔황 석굴 220호굴 벽화(642년쯤)에 표현된 유마경변의 내용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문수사리(좌측)와 유마(우측)의 하부에 제왕도와 각국 사절들(이 중에 고구려인으로 판단되는 사절이 있음)이 벽면 좌우에 각각 배치된 구도와 의미가 이 아프리카시압 서벽의 제왕도(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추정 가능한)와 그를 배알하는 사절도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즉 종교(마르샤크의 추정대로라면 불교)라는 주제의 틀 속에서 제국의 권위를 고양시키려는 의도가 충만해 있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북벽의 중국 황제와 공주 그림도 어쩌면 중국에서 비단과 함께 입수된 중국 두루마리 그림이 참고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⁸³

그에 의하면 아프리카시압 1호실 벽화의 연대는 명분에 의거하여 바르후만의 재위시에 해당된다. 왕의 치세는 당에서 책봉을 받은 655년 전이었을 것이고, 675년 이후에는 사마르칸드에 지배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벽화는 7세기 3/4기로 편년되는 것으로 보았는데,⁸⁴ 나중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660년으로 더 압축시켰다.

⁸² Boris Ilyich Marshak(1994), p.62.

⁸³ Boris Ilyich Marshak(1994), p.63.

⁸⁴ Boris Ilyich Marshak(1994), p.48.

5) 무하마드 칸수(정수일, 1992)

칸수(정수일)는 벽화의 사절을 고구려인으로 비정하는 여러 근거 중에 복식과 함께 특히 환두대도에 주목하고, 그것이 삼실총을 비롯한 벽화의 환두대도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결국 그는 “외형적 특징의 공통점과 당시 고구려의 대서역 관계 등을 감안해 고구려 사람임을 긍정하고, 그 사행 연대의 상한은 당에 대해 강경태도를 취한 연개소문 시대(642~666)의 말엽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매듭지었다.⁸⁵

또한 그는 근년의 논고를 통해 한국의 학계는 주로 고구려인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소개하였다.⁸⁶ 뿐만 아니라 최근의 저서에서는 고구려 사절의 사마르칸드 방문 시기를 바르후만의 재위시인 7세기 후반 초엽(650~655)으로 추정하고 있다.⁸⁷

정수일의 주장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 사절의 서역행 루트에 관한 것이다.⁸⁸ 그가 제시한 잉저우(현 朝陽)－스웨이(室韋)로를 통해 북행하여 몽골의 동부 초원으로 잇는 길이 유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몽골에서 서행하여 사마르칸드로 이어지는 루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아마도 돌궐의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보는 게 아닌지 생각된다.

85 무하마드 칸수(1992), 앞의 논문, 439~442쪽.

86 정수일(2005),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서역 교류상 시고-」, 『고구려와 동아시아-문물교류를 중심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 고려대학교 박물관, 22~129쪽. 여기에서 정수일은 일본의 穴澤和光·馬目順一(1976), 앞의 논문, 주45; 고병익(1984), 『동아시아 전통과 근대사』, 삼지원, 79~80쪽; 노태돈(1999), 앞의 책, 539~543쪽; 북한의 박진욱(1988), 「쏘련 사마르칸드 아흐라샤브 궁전지 벽화의 사절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등이 고구려인 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87 정수일(2006), 『실크로드 문명기행』, 한겨레출판, 180쪽.

88 당 제국의 차로를 피해 가는 길에 대해서는 이미 穴澤和光도 루트를 언급한 바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더욱이 穴澤和光이 제시한 내몽골의 呼和浩特 방면으로 가는 길은 7세기 중엽에 당의 영토였기에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

6) 모데(M. Mode, 1993)

이미 앞에서 모데의 이론을 아프라시아 벽화의 서론으로 소개한 바 있지만, 여기에서는 편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는 가게야마 에쓰코(影山悦子)의 고구려 사절에 대한 해석⁸⁹과 함께 야센코(S. A. Yatsenko)의 661년의 연대관을 모두 비판하고 벽화의 연대를 648년(혹은 649년)으로 고정하였다.⁹⁰ 다음은 모데가 파악한 벽화 편년을 위한 관계사의 단락들이다.

① 657년에 서돌궐이 멸망하기 전에 두 지배자가 등장하였다. 641년쯤 중국이 앗힌 괴뢰 인물인 을비사궤가한이 지배했다. 그는 왕위를 이어받은 사발나가한(沙鉢那可汗)에 의해 651년에 살해당했다. 사발나가한은 당초 중국에 대해 심각한 적대 행위를 했고, 결국 657년에 중국에 의해 권력과 전 왕권을 잃었다(659년 사거). 여기에서 651년까지 재위했던 친중국의 을비사궤가한이 벽화에 등장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⁹¹

② 모데는 벽화의 인물을 고구려 사람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사(唐使)와

89 가게야마는 아프라시아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사절이 실제로 거기에 온 것이 아니라, 벽화의 화가가 상상적인 관점에서 그렸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Kageyama, Etsuko(2002), "A Chinese way of depicting foreign delegates discerned in the paintings of Afrasiab," In Ph. Huyse, ed., *Iran : questions et connaissances*, vol.I : La période ancienne, Paris : Association pour l'avancement des études iraniennes, pp.313 ~ 327.

90 한편 야센코 역시 모데의 이론이 다음과 같은 몇개의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 ① 서벽에 있는 네번째(알바움 보고서 번호) 인물은 사산 왕조의 마지막 왕인 아즈가르드(651년 살해됨)임.
- ② 북벽의 11번째(알바움 번호) 인물은 서돌궐의 세쿠이 가한(射匱可汗)에게 보내진 중국 공주임.
- ③ 북벽의 사냥하는 기마인물(알바움 1번)은 당 태종임.
- ④ 중국 사절과 중국의 적대적인 국가, 즉 고구려 사절이 양국의 휴전 상태의 경우에만 동시에 사마르칸드에 올 수 있었다.

91 Markus Mode(1993), pp.50 ~ 52.

분리된 채로 차치(Chach, 현 타슈켄트) 사절 옆에 서 있음을 중시하였다. 645년 이래 당제국은 고구려와 치열한 전쟁을 치렀다. 전쟁은 태종이 죽은 649년에 종식되었다가 그후 668년까지 계속되었다.⁹²

③ 당 태종은 649년 작고하였다. 모데는 650~655년 여름에 중국이 바르후만 왕을 책봉한 것에 대해 중국측 기록에 왕의 즉위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바르후만이 중국 황제에 의해 총독으로 지명되었을 때에는 이미 왕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봉 전이라고는 하지만, 647년에는 아직 왕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마르칸드 사절의 중국 방문을 기록한 중국 사서에 바르후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⁹³

④ 결국 아프리카시압 벽화는 고구려와 당이 적대관계였던 시기를 고려하고, 바르후만 왕의 재위기의 시작인 648년부터 친중국의 돌궐 칸이—도상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작고한 651년까지 4년 동안에 그려졌을 것으로 모데는 판단하였다.⁹⁴ 모데는 특히 소그드 왕의 정치적 입지가 좋았던 649년일 것이라고 압축하였다.⁹⁵

7) 권영필(1997)

1991년에 아프리카시압 벽화를 실견하고, 그 답사의 길에 타슈켄트 역사박물관에서 알바움을 만나 벽화의 연대관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그는 7세기 후반으로 본다며, 당초의 보고

⁹² Markus Mode(1993), p.47.

⁹³ Markus Mode(1993), pp.72~73. 주224. 원출 : Edouard Chavannes(1903). 『册府元龜』를 인용한 Chavannes는 사마르칸드 사절이 당조에 간 연대를 642, 643, 644, 645, 647년으로 적고 있다. 따라서 Mode는 바르후만의 즉위가 648~650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⁹⁴ Markus Mode(1993), p.74.

⁹⁵ Markus Mode(2002).

서에 제시한 7세기 말~8세기 초에 대해 다소 수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어쩌면 처음부터 구리아모프의 입장—알바움의 보고서 서문에 7세기말~8세기초의 후기철을 주장—과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권영필은 구리아모프의 연대관에 입각할 경우, 벽화의 한국인 사절이 발해인일 것으로 주장한 바 있고, 또한 연대관의 변화에 따라서는 고구려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⁹⁶ 결국 아프리카시업 벽화에 대해 국외 당사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며 벽화의 조성연대는 7세기 3/4기로, 벽화의 사절은 고구려인으로 보는 입장에 동조하였다.⁹⁷

8) 노태돈(2002)

“바르후만 왕의 치세 동안 있었던 사건을 담은 이 벽화는 늦어도 712년 아랍의 침공이 있기 전에 그려진 것이 분명하다. 즉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 사이에 제작된 이 벽화에 등장하는, 조우관을 쓴 사절은 7세기 후반 당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을 측면에서 견제할 수 있는 동맹국을 찾아 몽골 고원의 ‘초원의 길’을 거쳐 서역 지역을 방문하였던 고구려 사절을 그린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1989년부터 표명된 것이다. 요컨대 고구려가 동맹을 찾아, “유연·돌궐·설연타와의 오랜 교섭의 경험”⁹⁸을 바탕으로 돌궐 루트를 이용해 소그드와 접촉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고구려 사절도 해석의 핵심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96 권영필(1997a), 앞의 책, 257~258쪽, 주 52. 이 발해인 설은 당초 필자가 1991년 현지를 답사한 직후, 조선일보에 발표한(1992. 1. 28) 내용과 같다.

97 권영필(2002), 앞의 책, 하권, 168~169쪽.

98 노태돈(1999), 앞의 책, 541쪽. 언급한 대로 그의 이러한 견해는 이미 1989년의 「고구려 발해인과 내륙아시아 주민과의 교섭에 관한 일고찰」, 『대동문화연구』 23부터 대두되었다.

9) 야센코(2004)

야센코는 “여러 이유로 해서 662년을 중시한다. 당이 성립된 이래 여러 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사절이 서방으로 간 것을 문헌에 실은 유일한 해이고, 고종이 (중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정 구분을 한 해이다. 이 행정 구분에서는 사마르칸드가 서돌궐, 소그드, 토하리스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662년에 동돌궐과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은 바 있었던 고구려는 소그드 왕, 또는 서돌궐 칸에게 중국과의 협상에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해야 할 심각한 이유와 기회를 가졌던 것이다(이처럼 야센코는 고구려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필자 주). “내 버전은 벨레니츠키와 마르샤크의 연대관(650~675)보다 한층 정확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역사 배경을 기초로 편년을 설정하였다.

10) 그르네(F. Grenet, 2005)

소그드 벽화 연구 1세대 학자인 마르샤크(2006년 7월 26일 작고) 이후 그르네는 아프리카시암 벽화 연구에서 독일인 모데와 썽백을 이루면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중앙아시아 종교가 그의 연구의 본령이지만, 아프리카시암 벽화에 대해 그는 여러 각도에서 매우 예리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벽화의 편년과 한국인 사절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자 한다.

- ① 642년, 소그드 지역의 돌궐 도시를 당에 빼앗김
- ② 649년, 서돌궐 칸이 당에 투항, 현지의 일에 실권을 잃음
- ③ 654년, 사마르칸드 부근 지역 아랍 접근
- ④ 658년, 당에 의해 서돌궐 멸망
- ⑤ 662년, 그르네는 662년의 역사적 배경의 중요성에 대한 야센코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르네는 당조가 왕명원(王明遠)을 서역 각국에 파견하여

새로운 괴뢰 칸 보진(步眞)을 책봉하여, 그로 하여금 새로운 통일 서돌궐을 중히 여기고, 당조에 귀순하게 하였고, 고구려와의 외교에 대해서도 당이 주도권을 잡아, 점차 커지는 당의 외부 압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본 앳센코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또한 가게야마의 견해와는 달리,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나오는 고구려 사절은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⁹⁹

⑥ 결론적으로 그르네는 벽화의 연대를 660년쯤으로 잡고 있다.

11) 현지 학자들의 견해(2006)

조사 일정¹⁰⁰ 중에 전부 네 사람의 현지 학자¹⁰¹를 만나 토론하였다. 이들은 각각 다른 연대관을 표명하였다.

① 아프리카시압 벽화는 판치켄트 발굴(1977)을 토대로 하여 의례와 관련된 왕권의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서벽 상부 중앙에 있는 인물(상상적 복원)을 왕이 아니라, 신상으로 파악한 마르샤크의 견해에 대해 아나르바예프를 비롯, 여기에 동의하는 학자는 아자르파이(Azarpay, 미국), 실바 안토니아(로마대학), 아훈바바예프(Khasan Akhunbabaev) 등이다. 이에 반해, 발굴 당사자인 알바움은 1975년 이후 서벽 상부 중앙의 인물을 바르후만 왕으로 보았고, 립시츠(Vladimir Aronovich Livshic)도 그렇게 보았다. (아나르바예프)

⁹⁹ 葛樂耐·Frantz Grenet(2005), 앞의 논문, 316쪽, 주21.

¹⁰⁰ 정수일, 권영필, 지배선, 최광식, 김진순, 장준희(현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06년 8월 1~16일 카슈가르, 비슈케크, 탈라스, 타슈켄트, 사마르칸드, 판치켄트 등지를 연구조사하였다.

¹⁰¹ 사마르칸드 고고학연구소의 소장 피다예프(Shakirdjan Pidaev), 부소장 아나르바예프(Abulhamid Anarbaev), 알바움 발굴시 발굴 참여자인 슐레이마노프(Khamidovich Suleymanov, 우즈베키스탄 대학교 역사학부 고고학부 학과장), 소그드-탈라스 전문가인 부랴코프(Fedorovich Buryakov, 우즈베키스탄 아카데미 역사학부 역사학분과).

② 바르후만 왕의 재위기간에 대해서는 앳디바리(7세기 말~8세기 초 역사학자)가 쓴 아랍 문헌(근년에 영어 버전이 나오음)에 “675년 아랍인의 침입에 의해 바르후만 왕이 도망갔다”고 기록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아나르바예프)

③ 소그드에 대한 당조의 책봉이 당 영휘 연간(650~655)에 있었으며, 벽화를 책봉 이전에 완성하였다고 보는 마르샤크, 립시츠 등의 견해(1980년 논문)에 동의한다. 이에 반해 프 라이(Richard Fray, 미국)는 책봉 이후라고 주장한다. (아나르바예프)

④ 650~675년 사이에 두 사람의 왕이 존재한 것으로 보는데, 바르후만 왕과 우르크 바르타 무르크 왕이 그들이다. 발굴된 동전의 90%가 후자에 속하기 때문인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언제 후자의 치세가 시작되었는지는 모른다. (슐레이마노프)

⑤ 아랍 침입 시기를 675년으로 인지하며, 그 이후 10년간은 왕이 부재했던 것으로 본다. (슐레이마노프)

⑥ 고구려가 강해지는 시기가 바로 벽화의 제작 시기와 일치한다. 고구려가 사마르칸드를 왕래하면서 당을 견제한 것으로 본다. (슐레이마노프)

⑦ 사마르칸드와 중국의 관계에서 투르크가 정치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바르후만 왕은 투르크계일 가능성이 크다. 그의 성(姓)인 ‘우나시’도 투르크계이다. (슐레이마노프)

⑧ 알바움은 인류학적 견지에서 남벽의 벽화 내용을 결혼식으로 보았다. 서벽의 내용도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를 말하는 것이기에, 중심에 등장하는 인물은 신이 아니고, 바르후만 왕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알바움의 마르크스 이론을 통한 해석에 동의하는 학자는 슈스킨(작고), 바이잔 가프로프(타지크 인, 작고), 립시츠(상트 페테르스부르크, 생존) 등이다. (슐레이마노프)

⑨ 벨레니츠키는 마르샤크, 바르세비치와 함께 판치켄트, 바라샤, 사하리스탄 등에 관해 연구한 결과, 아프리카인 벽화 서벽 중앙에 신이 앉아 있는 것으로 인지하였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젊은 학자 모토프(Yu. A. Motov)는 그의 논문(1999)에서 남벽은 결혼식 장면이 아

니고, 사마르칸드 문(門)은 조로아스터 사원을 나타내며, 벽화에 등장하는 거위, 말 등은 태양신 미트라 의례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남벽에는 차가니안인이 등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7세기의 차가니안에서는 불교가 성행했기에—단정하였다. (슐레이마노프)

V. 맺음말

지금까지 고구려의 서역과의 관계, 특히 소그드와의 연관성에 대해, 고구려 벽화를 토대로 고구려가 어느 면 북방의 미술문화를 주도한다는 '북방기류'론을 살펴보았다. 특히 벽화를 통해 소그드 화풍, 즉 조의출수 양식과의 연관성을 짚어보았다. 고구려가 축적한 서역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진취력이 고구려의 서역행을 도왔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학자들은 고구려의 정치현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것이 벽화의 편년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프라시압 벽화의 편년에 대해 앞서 검토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 ① 알바움 : 7세기 후반
- ② 아나자와 : 7세기 중엽~666년 이전
- ③ 김원룡 : 7세기 중엽
- ④ 마르샤크 : 660년쯤 / 655년쯤
- ⑤ 정수일 : 666년 직전
- ⑥ 모데 : 649년쯤
- ⑦ 권영필 : 7세기 3/4기
- ⑧ 노태돈 : 7세기 후반~8세기 초

⑨ 야센코 : 662년

⑩ 그르네 : 660년

⑪ 현지 학자 : 640년쯤 / 655년쯤 / 675년쯤

필자는 이와 같은 연대관 가운데 고구려의 특수한 역사 소여와 연관된 것을 참고하여 구체적 편년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절이 방문한 시기와 벽화를 그린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렇더라도 벽화 제작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이 방문시의 정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이 벽화에서는 당제국과 함께 돌궐의 세력이 강조되고 있어서 소그드로서는 돌궐과 당에 대해 어느 정도 등거리 외교를 하던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고구려 사절이 벽화에 등장하기 위한 벽화의 조성 연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① 고구려가 당과 우호적이었을 때보다는 대립적이었을 때—벽화에서 당 사절과 고구려 사절이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고구려 사신이 사마르칸드를 방문하였을 것이다. 이에 방문 시기는 연개소문의 집권기(642~665)¹⁰²의 후반으로 생각되며, 특히 '645년 이후'에 설연타와 협공계획을 세운 바로 그 연대를 중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더욱이 서돌궐이 세력을 회복한 시기¹⁰³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651~657년이 중요하다. 고구려가 돌궐의 영토를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⁰⁴


102 연개소문이 죽은 해에 대해서는 사서에 따라 1~2년의 차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664년, 또는 665년 설을 따른다. 노태돈(1999), 앞의 책, 477쪽, 주97 참조.

103 특히 분열되었던 서돌궐이 잠시 통합된 시기(651~657)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르네 그루세, 김호동 외 역(1998), 앞의 책, 68쪽 참조.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연대를 토대로 따져보면, 고구려 사절이 사마르칸드에 간 시기는 651~657년 사이일 것이다. 또한 벽화 제작의 시작은 고구려 사절의 방문(651~657 추정) 이후와 책봉(650~655) 이후, 서돌궐의 통합시기(651~657)를 종합하면 651~657년이 될 것이다. 한편 벽화 제작이 중단된 것은—아마도 일반적으로 관측하는 아랍 침입보다—그 이전에 있었을 어떤 심각한 정치적 사건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구려가 사마르칸드에 가는 루트인데, 당 제국을 피해서 가려면 북방 루트가 유효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잉저우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가서 다동을 통과하고 하서회랑으로 연결되는 코스는 일반적으로 소그드 상인들이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곳은 당의 세력 판도와 겹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잉저우에서 스웨이를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 몽골지역에 닿은 후, 옛 돌궐의 서행 루트를 이용하는 길이 유효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04 고구려와 돌궐 관계만 본다면 돌궐의 2차 부흥기인 665년~당 고종(재위 650~683) 후반에 당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 다시 독립한 시기 이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소그드의 동거리 외교의 시기를 감안하면 1차 부흥기를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고선지의 서역원정이 갖는
문명교류사적 의미
— 종이의 전파를 중심으로 —

— 정수일

- I. 머리말 —
- II. 종이의 개념과 발명 —
- III. 종이의 초전 —
- IV. 사마르칸드지 —
- V. 종이의 서전 —
- VI. 맺음말 — 종이의 길 설정 —

I. 머리말

탈라스 전쟁을 비롯한 고선지의 서역원정은 중세 동·서 교섭사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서 문명 교류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겨놓았다. 그의 서정을 마지막으로 중앙아시아에 대한 당의 경영권은 사실상 종식되었으며, 이를 기회로 석국(石國, 타슈켄트)과 강국(康國, 사마르칸트)을 비롯한 이 지역에 대한 이슬람의 진출이 본격화되었으며 점차 정착되어 갔다. 중앙아시아의 이슬람화는 이 지역 문명사에서 일대 전기가 되었으며 중국 서북 일원의 이슬람화를 예고한 전주곡이었다. 또한 이 원정을 계기로 슬슬(瑟瑟), 양마(良馬), 보옥(寶玉) 같은 진귀한 서역문물이 동전(東傳)되었으며, 이질적인 이슬람 문명과 한문명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가 증진되었다.

고선지의 다섯 차례 서역원정 가운데서 마지막인 석국원정은 비록 5일간이란 속전속결의 탈라스 전쟁(715년 7월)으로 종전되었지만, 종이의 전파라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 문명교류사적 의미는 거듭 강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문화의 전승수단이며 문화발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종이의 발명과 그 사용이 인류문명 발달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슬람 문명의 발달이나 서구 문명의 부흥은 종이의 전파나 제지술의 도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이슬람 세계나 유럽으로의 종

이의 전파는 고선지가 이끈 석국원정이 그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요즘 고선지의 석국원정에 의한 종이의 전파 연구에서 그 문명교류사적 의미가 일반적으로 논급되기는 하지만, 종이의 전파 루트라든가 그 역사적 배경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대단히 미흡하다. 특히 현장고증 같은 실증적 연구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석국원정의 직접적 결과로 출현한 ‘사마르칸드지’는 분명 종지와 제지술 서전(西傳)의 기폭제였으며, 동서 간 종지유대의 중간 연결고리였다. 이것은 이 전쟁을 계기로 동·서를 관통하는 한 문명교류 통로로서의 ‘종지의 길’이 개척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길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종지의 개념과 그 발명과정을 살펴보고, ‘사마르칸드지’의 출현 전후시기 종지의 동전과 서전의 궤적을 구명함으로써 문명교류의 통로인 실크로드의 한 가닥으로서의 ‘종지의 길’을 궁극적으로 확인·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종지의 개념과 발명

종지 연구가 헌터(D. Hunter)는 “종지(paper)는 일종의 식물섬유가 평평하고 매끄러운 발 위에 내려앉아 있는 얇은 재료이다”¹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한 백과사전은 “종지는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을 발로 건져낸 것으로 식물섬유들이 서로 얽혀 있는 얇은 판상의 물질이다”²라고 정의를 내렸다. 기타 여러 가지 설명을 종합해 보면, 종지란 주로 식물성 섬유를

1 D. Hunter(1978), *Papermaking ; the History and Technique of an Ancient Craft*, New York : Dover Publication, pp.4~5.

2 *The Encyclopaedia of America*, Vol. 21(1963), New York, pp.258~259. 미국의 웹스터 대사전 (*Webster's Word University Dictionary*(1966), Washington, p.702)에서는 “종지는 냅마, 펄프, 기타

재료로 하여 가성소다나 석회를 넣어 끓인 다음 짓찧은 후 수지(樹脂)나 풀을 첨가하여 떠낸 얇은 판상의 물질이라고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개념이다. 합성화학의 발달로 인해 식물성이 아닌 합성섬유로 합성지(合成紙)를 만들어냄으로써 그 개념의 발전적 확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이를 제1의 종이(종래의 식물성 섬유지), 제2의 종이(화학섬유나 합성섬유에 천연섬유를 혼합한 종이), 제3의 종이(합성섬유지), 그리고 무기섬유지(無機纖維紙, 세라믹 섬유나 유리섬유 등에 식물성 천연섬유를 혼합한 종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재생이용이 가능하고, 부패되어 공해가 적으며, 원료(나무)가 풍부한 것 등의 이유로 식물성 섬유지가 종이의 대중을 이루고 있다.³

종이는 주로 문자를 기록하는 재료로서 넓은 의미의 종지와 좁은 의미의 종지로 대별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종지는 서사(書寫) 재료 전반을 말한다. 여기에는 서방의 점토판, 파피루스(papyrus), 피혁지(皮革紙)와 동방의 타리지(紙), 귀갑수골(龜甲獸骨), 목간(木簡), 죽간(竹簡), 채후지(蔡侯紙) 등 서사 재료가 포함된다. 이에 비해 좁은 의미의 종지는 식물성 셀룰로오스(cellulose)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현행 종이, 즉 통념의 채후지를 말한다.

인간은 진화과정에서 기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러한 방법으로 고대의 중국이나 류큐열도[琉球列島] 주민들, 남미의 잉카족, 서아시아의 페르시아인들은 노끈으로 매듭을 맺는 결승(結繩)을,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조개 기호를 사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나무막대기에 금을 긋거나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식도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기억 보조수단으로서는 최고 형태라고 할 수

식물성 섬유로 만든 얇은 판상의 것이다. 글씨를 쓰거나 인쇄하고 벽을 바르며 포장하는 데 쓰는 물건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 김순철(2001), 『종이 역사』, 예진, 9~10쪽 재인용.

³ 김순철(2001), 위의 책, 11쪽.

있는 문자가 발명되었다. 문자의 발명은 인간사회의 원시시대와 문명시대를 가르는 잣대였다. 문자가 발명된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기원전 4000~3000년쯤에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첫선을 보였다. 문자의 발명과 더불어 문자를 기록·보존해야 할 서사 재료, 즉 넓은 의미에서의 종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어 급기야 제지술이 출현하게 되었다.

서방에서 고대문자의 서사 재료로 사용된 것은 점토판과 파피루스, 양피지 등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설형문자(楔形文字, 췌기문자)를 발명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전 3000년대 초에 서사 재료로 점토판(Clay tablet)이 창안되어 약 3천년간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중근동 일원에서 줄곧 사용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유물로 아시리아의 고도 니네베(Nineveh)에서 발견된 아슈르바니발 왕궁문고와 터키의 카파도키아 문서, 히타이트 문서 등이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나일강 하류의 델타 지역에서 자생하는 수초(水草)인 파피루스를 이용해 이른바 ‘파피루스지’를 만들어 서사 재료로 사용하였다. 파피루스(학명 Cyperus Papyrus)는 방동사니과에 속하는 다년생 수초로서 수심 1m 이내의 진창에서 서식하며 키는 2~3m 가량이다. 줄기는 녹색이며 기부(基部)에는 비늘조각이 있고 상부에는 다수의 포엽(苞葉)에 가는 화서(花序, 꽃차례)가 늘어져 꽃이삭을 이룬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파피루스의 순백색 섬유를 종횡으로 배열해 종이를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파피루스를 식료로 하는가 하면, 천을 짜고 신발이나 배, 범포를 만드는 데도 이용하였다. 원래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를 ‘트프(tf)’ 또는 ‘투프(tuf)’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흔들리다’이다. 이 말은 이 식물이 물속에서 자라면서 연신 흔들린다는 데서 유래된 듯하다. 후일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이것을 ‘파피루스’로 불렀다. 이 말은 ‘강에 속하는 것(강물 속에서 자란다는 뜻)’이라는 ‘파피오르(pa-p-iaur)’에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푸프로스(pupros)’라고 달리 불렀다. 그것은 당시 그리스인들이 이 종이를 수입했던 페니

키아의 항구도시 피프로스(Pipros)에서 연원된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고대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부른 대로 ‘파피루스’로 통용한다. 영어의 ‘paper(종이)’는 여기서 나온 말이다.

서방에서 파피루스를 대신해 출현한 것이 피혁지다. 피혁지에는 양피지(parchment)와 독지(犢紙, vellum, 송아지 가죽 종이) 등이 있다. 피혁지는 일찍이 소아시아와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사용하였는데, 독지는 고가여서 양피지가 주로 쓰였다. 양피지는 새끼양 가죽을 석회수에 담갔다가 털과 살을 제거한 다음 경석(輕石)으로 갈아 다듬고, 거기에 석고나 백색 탄산석회로 된 초크(chalk)를 발라 만든다. 이 양피지는 지금까지의 여러 서사 재료 중에서 내구력이 가장 강하고 표면도 희고 매끈하여 잉크의 흡수성도 좋다. 파피루스에 비해 자유로이 접을 수 있는 것도 그 우월성의 하나다. 그러나 한 장의 양피지를 만드는 데 한 마리의 새끼양이 필요해 그 값이 엄청나게 비싼 것이 흠이다. 파피루스는 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지만, 양피지는 13~14세기 중국의 제지술이 전해질 때까지 서방세계에서 서사 재료로 장기간 사용되었다.⁴

서방과는 달리 동방에서 고대문자의 서사 재료로 사용한 것은 타리지와 귀갑수골, 목간, 죽간 등이다. 인도와 카슈가르, 파키스탄, 티베트, 미얀마,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종려과(棕櫚科)에 속하는 탈라(talam tar, 학명 Borassus fla-belliformis, 多羅)나무의 잎사귀를 종이로 사용하였다. 이 나뭇잎을 가로 7~8cm, 세로 50cm 정도로 잘라서 그 위에 경전 같은 것을 필사하였다. 통상 글자를 쓴 다음에는 여러 장을 한데 모아 네 귀에 금박 칠을 한 다음 위아래에 두꺼운 판때기를 대고 양끝을 묶어 보관한다. 이러한 서사 재료를 한적에서는 패다라엽본(貝多羅葉本), 혹은 패엽본(貝葉本)이라고 한다.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기원 전후 시기에 속하는 이러한 패엽본이 다수 출토된 바 있다. 인도에서는 히말라야

4 長澤和俊(1994), 『新シルクロード百科』, 東京: 雄山閣出版株式會社, 152~153쪽 참고.

산록에서 자라는 화수(樺樹, 벚나무, bhurja, baetula bhojpatra)의 껍질을 벗겨 거기에 기름을 바른 후 연마해서 서사 재료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 유품이 서역에서 출토된 바 있는데, 이른바 보워 문서(Bower Mass)가 바로 그 일종이다. 그밖에 인도에서는 왕의 칙령이나 중요한 계약서 같은 것은 철판이나 동판에 새기기도 하였다.

중국의 경우, 은대(기원전 1500~1027)에 이르러 갑골문자가 생겨나자 글자를 귀갑(龜甲, 거북이 등딱지)이나 짐승 뼈에 적었고, 주대와 춘추전국시대에는 청동기에 명문을 새겼다. 그러다가 문자가 보급되면서 서사 재료는 죽간이나 목간으로 대체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후베이성(湖北省) 윈멍현(雲夢縣) 수이후디(睡虎地) 제11호 진묘(秦墓)를 비롯해 중국 각지에서 진·한대의 죽간이 다량 출토되었다. 대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쪼갠 다음 불에 달구어 살청(殺靑, 푸른색 빼기)한 후 거기에 글자를 쓴 것이 바로 죽간이다. 일명 죽간서(竹簡書) 혹은 죽서(竹書)라고도 한다. 그러나 화베이(華北)나 색외(塞外, 만리장성 밖의 변방지역) 지역에는 대나무가 없기 때문에 죽간 대신 목간(일명 목독(木牘))이 사용되었다. 죽간이나 목간은 여러 조각을 묶어서 책으로 엮는다. 그밖에 비단천에 글자를 쓰는 백서(帛書)도 있었다. 죽간이나 목간은 부피가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많은 글자를 써넣을 수가 없으며, 백서는 값이 비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출현한 서사 재료가 바로 식물성 섬유질의 채후지다.

『후한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예부터 서계(書契, 나무나 귀갑 따위에 새긴 문자)는 흔히 죽간(竹簡)으로 썼지만, 겸백(兼帛, 촘촘하게 짠 비단)을 쓸 경우에는 이를 지(紙, 종이)라고 일컬었다. 그런데 겸백은 귀하고 죽간은 무거워서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그래서 채륜은 궁리 끝에 나무껍질과 마두(麻頭, 삼베 자락), 닝마, 어망을 이용해 종이를 만들어 원홍 원년에 황제에게 바쳤더니 황제는 그의 재능을 가상하게 여겼다. 이때부터 종이가 쓰이게 되었고, 세상에서는 일제히 이를 채후지라 불렀다.⁵

이와 같이 『후한서』에는 원흥(元興) 원년(105)에 후한의 채륄(蔡倫)이 수부(樹膚, 나무껍질)와 마두, 패포(해진 천), 어망(魚網, 고기그물) 등을 원료로 이른바 ‘채후지’라는 종이를 만들어 화제(和帝)에게 진상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채륄은 종이를 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초(元初) 원년(114)에 300호의 영지를 하사받고 용정후(龍亭侯)에 봉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채후(蔡侯)’라고 불렀다. 이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채륄이 ‘채후지’란 종이의 발명가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는 오늘날 쓰이고 있는 식물성 셀룰로오스를 주 원료로 하는 종이를 발명했을 뿐, 종이의 첫 발명자는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이전에도 종이는 있었다. 그런 사실은 여러 사적이 전하고 있으며, 유물이 또한 실증하고 있다.

채륄과 동시대인인 허신(許愼)은 『설문해자(說文解字)』(100~121년에 편찬한 목간 고서)에서 종이는 이미 서(絮, 솜)를 다듬어서 만들어왔다고 기술하였다. 방이지(方以智)는 서를 제 지원료로 사용한 것은 전한시대 이전부터라고 주장하였다.⁶ 1957년 시안(西安) 동쪽에 자리한 파교(灞橋) 부근의 한 공사장에서 전한 초기(한무제 이전 시기)의 고분이 발견되었는데, 그 속에서 동경, 동검, 도기 등과 함께 마포 밑에 깔려 있는 몇 조각의 종이 발견되었다. 화학검사 결과 이 종이는 대마와 소량의 저마(苧麻, 모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이 ‘파교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로 인정되고 있다.⁷ 이렇게 채륄지에 앞서 이미 여러 가지 종이가 쓰였음에도, 제지술에 대한 채륄의 획

5 『後漢書』, 列傳 第68卷, 蔡倫傳, “自古書契多編以竹簡 其用縑帛者 謂之爲紙 縑貴而簡重 並不便於人 倫迺造意用樹膚 麻頭及敝布魚網以爲紙 元興元年奏上之 帝善其能 自是莫不從用焉 故天下咸稱蔡倫紙.”

6 方以智, 『通雅』 卷32. 이와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서구학자들로는 Hirth(Die Erfindung des Papiers China)와 Hoevle(Who was the Inventor of Rag-Paper), Jacob(Oriental Elements of Culture in the Occident) 등이 있다.

7 潘吉星(1964), 「世界上最早的植物纖維紙」, 『文物』 1964年 11期; 진순신 지음, 조형균 옮김(2002), 『페이퍼 로드(Paper Road)』, 예담, 25~26쪽.

기적인 기여는 혼한 식물성 섬유를 원료로 하여 종이를 양산함으로써 서사 재료로서의 종이 문명발달을 크게 촉진하였다는 점에 있다.

당초 순수 서사 재료로 출현한 종이는 장구한 발달과정에서 다기능적 용도로 쓰이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어떤 학자는 그 기능을 '6w'로 표현하고 있어 흥미롭다. '6w'란 기록(write), 포장(wrap), 씻기와 닦기(wipe and waste), 몸에 걸치기(wear), 일하기(work), 그림처럼 의지 나타내기(will) 등 여섯 가지 기능의 영어 표현이다. 바로 이러한 다기능 때문에 종이를 얼마나 생산하는가에 따라 그 주체의 문명 수준이 가늠된다.⁸

III. 종이의 초전

넓은 의미에서 종이의 교류는 채후지 이전에 사용된 각종 서사 재료의 교류로부터 시작된다. 점토판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창안되었으나, 이집트의 아마르나(Amara) 문서 유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집트에까지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페니키아인들을 매개로 기원전 7세기쯤부터 그리스로, 그리고 기원전 3세기쯤부터는 로마로 수출되었다. 파피루스가 가장 많이 쓰인 시기는 로마가 이집트를 통치한 기원후 1~4세기이다. 이때 이집트에서 이른바 그레코르만 문화가 전성기를 맞아 호메로스, 데모스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거장들의 작품이 널리 읽히면서 종이(파피루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다가 4세기 이후부터 파피루스는 점차 사양길에 접어든다.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많은 성서를 필사해내야 하는데, 파피루스 두루마리 같은 서사 재료로는 도저히 그러한

⁸ 1998년 세계적으로 인구 1인당 종이 평균 소모량은 50.8kg인데, 미국은 336.5kg으로 1위이고, 한국은 113.7kg으로 24위다. 김순철(2001), 앞의 책, 11쪽 참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피혁지 제조술이 발달하면서 피혁지가 새롭고 더 효율적인 서사 재료로 부상함으로써 파피루스는 점차 인기를 잃어가게 되었다.

채후지 이전에 출현한 서사 재료의 교류는 주로 교역적 성격을 띠고 국지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채후지가 발명된 이후, 그 교류는 교역과 더불어 제지술의 발달이란 물결을 타고 동·서방 곳곳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갔다. 동으로는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졌으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에도 알려졌다. 서역과 유럽으로의 서전은 동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문명교류사적 의미도 더더욱 심원하였다.

선행한 여러 가지 서사 재료에 비해 다량 생산이 가능하고 쓰기에도 편리한 식물성 섬유질 채후지는 출현하자마자 높은 인기 속에 동서남북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우선 중국의 주변지역부터 전파가 시작되어 차츰 원방(遠方)으로 확산되어 갔다.

1. 종이의 동전

역대로 중국은 인근 국가들과 긴밀한 문화적 유대를 이루어왔다. 특히 그 동쪽의 한국이나 일본, 그 남쪽의 베트남 등의 나라들과는 동질의 공동문명권(한자문명권 혹은 유교문명권)을 형성해 유무상통의 상호보완적 교류를 끊임없이 진행해왔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중국의 종이가 문화적 유대와 교류의 한 고리로 이 지역에 전파되어 각국의 문화 창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그 진두에는 한반도가 서 있었다.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종이가 사용되었고, 또 그것이 전래한 것인지, 아니면 자생한 것인지는 아직 오롯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체로 중국에서 받아들여 양질의 종이를 일찍부터 만들어냈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종이 수입시기에 관해서는 이론이 구구하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대체로 한사군시기설과 불교전입시기설로 대별된다. 한사군시기설은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형성된 기원 전후의 한사군

(漢四郡) 시대에 중국 종이(紙)가 자연스럽게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그 시기는 늦어도 3세기 이전이라는 것이다.⁹ 이에 비해 불교전입시기설은 4세기 중엽, 고구려에 불교가 처음 전입된 시기를 기점으로 삼는 주장인데, 태학(太學)을 세우고 불경을 보급하려면 종이 인쇄물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데 그 논거를 두고 있다.¹⁰ 이 설의 한 전거로 백제의 왕인(王仁) 박사가 종이에 쓰인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한 사실(4세기 중엽)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중국 진(晉) 대와 남북조 시대 사이의 4~5세기가 될 것이라는 추론이다.¹¹ 여러모로 보아 후설에 신빙성이 더 모아진다. 설혹 한사군시기에 영성적(零星的)인 유입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종이(紙)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불교의 유입으로 인해 서사 재료로서의 종이(紙)가 절실히 필요했을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가당한 논리라고 사료된다.

보존에 취약하기는 하지만, 한반도에서 일찍부터 종이(紙)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점의 유물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종이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것은 682년에 지은 감은사(感恩寺)의 『범한다라니경(梵漢陀羅尼經)』 필사지(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이다.

북한에서도 평양 모란봉 동쪽 청암동에서 ‘고르롭고 치밀하게 엉키어져 있는’ 삼 섬유로 만든 고구려 시대의 ‘마지(麻紙)’가 발견된 바 있다.¹² 그리고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9 錢存訓·李約瑟(1990), 『中國科學技術史 第五卷 化學及相關技術 第一分冊 紙和印刷』, 上海: 科學出版社及上海古籍出版社, 286쪽(Tsien Tsuen-Hsuein, Joseph Needham(1985),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ume 5, Chemistry and Chemical Technology; Part I, Paper and Printing*,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 陳大川,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역(1991), 『中國造紙技術盛衰史』, 188쪽; 김순철(2001), 앞의 책, 101쪽.

11 潘吉星(1979), 『中國造紙技術史稿』, 北京: 文物, 147쪽, “百濟博士王人曾將『論語』等書卷的紙寫本帶到日本由此看來 百濟和高句麗得到并使用這種紙本書 自然還要比這更早 朝鮮半島造紙 當在晉至南北朝之間(四至五世紀).”

12 錢存訓·李約瑟(1990), 앞의 책, 286쪽;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88), 『조선문화사』, 미래사, 140~141쪽.

목판인쇄물로서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700~751년 사이 제작, 국보 126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754년 전남 구례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법사(緣起法師)가 부모를 위한 발원문을 백지에 먹으로 쓴 한국 최고(最古)의 사경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국보 196호, 호암미술관 소장)에 쓰인 종이가 오래된 값진 유물이다. 일본이 자랑하는 『백만탑다라니경(百萬塔陀羅尼經)』¹³은 770년쯤에 간행된 것으로 전술한 신라의 다라니경보다 20여 년 후에 나온 것이다.

한반도의 종이는 저(楮, 닥나무) 등 양질의 재질에다 높은 기술로 만들기 때문에 품질이 뛰어나 국제적으로도 인기도가 높았다. 신라의 계림지(鷄林紙)나 고려의 백추지(白樞紙)¹⁴와 면견지(綿繭紙)는 당나라나 송나라에 보내는 조공품에서 필수 항목이었다. 명나라 화가 동기창(董其昌)은 조선의 종이는 두껍고 질기며 희고 매끈해서 서예와 회화에 아주 적격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우수한 제지술은 곧바로 인쇄술의 발달로 이어졌다. 한반도가 세계 인쇄문화사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일찍이 목판인쇄를 하였고, 가장 오래된 인쇄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보다도 200년 앞서 금속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중국의 제지술 연구가인 첸춘순(錢存訓)은 평가하였다.¹⁵

종이의 동전은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어졌다. 그 시기에 관해서도 이론이 분분하지만, 일반적으로 고구려 송 담징(曇徵)이 610년에 먹, 맷돌과 함께 종이를 일본에 전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백제의 왕인 박사가 전술한 책들을 일

13 『百萬塔陀羅尼經』은 일본 여왕 稱徳天皇이 난을 평정했을 때, 佛恩에 감사하는 뜻에서 764~770년 6년간 1백만 개의 작은 木塔을 만들어 그 안에 인쇄된 다라니경을 봉안해 각 사찰에 頒賜한 경전 인쇄물이다.

14 명나라 宋應星은 『天工開物』(219쪽)에서 질 좋은 조선의 白樞紙에 감복하면서, 도대체 무슨 원료를 써서 만들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였다.

15 錢存訓·李約瑟(1990), 앞의 책, 287쪽.

본에 전한 것을 종이의 첫 유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가 하면 5세기 중엽에 도일 중국인이나 한국인에 의해 전파되었을 개연성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¹⁶ 이상의 몇 가지 전래설을 절충해 보면, 종이의 일본 전파 시기는 5세기로 잡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지금까지 일본에 남아 있는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종이 필사본은 609~616년 사이에 쇼토쿠대자(聖德太子)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법화경의소(法華經義疏)』이며, 가장 오래된 종이 유물은 701년 지방호적을 정리할 때 쓰던 문서종이 조각(正倉院 소장)이다. 이때 전국적으로 실시된 호적 정리를 위해 중앙이건 지방이건 다량의 종이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조정에서 불경을 한번 필사하는 데 종이 10만장을 소모했다고 하니, 종이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수도를 교토(京)로 옮긴 후인 806~810년 사이에 종이의 생산과 배분을 관리하는 이른바 ‘지옥원(紙屋院)’을 설치해 조정에서 필요한 종이를 공급했다고 한다.¹⁷ 이런 속에서 일본 최고의 사경본이라고 하는 『백만탑다라니경』이 바로 이 시기(770)에 간행되었던 것이다.

류큐(琉球, 현 오키나와 沖縄)에 종이가 전해진 것은 일본보다 훨씬 뒤의 일로 짐작된다. 14세기 류큐가 중국의 속국이 되면서 두 지역 간에는 여러 가지 문화교류가 시작되었다. 특히 명 태조(太祖) 때인 14세기 말엽에 이르러 명조는 내조(來朝)사절단을 위해 봉사할 36가구의 푸젠(福建) 어민과 공장들을 류큐에 파송했는데, 그들이 현지에서 정착하면서 중국 문물을 수용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한편, 류큐가 원조(元朝)에 보낸 외교문서가 모두 목牍(木牘)에 쓰여졌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이의 류큐 유입 시기는 14~15세기로 봐야 할 것이다.¹⁸ 18세기 그곳에 파견된 중국 청나라 사절단의 기록에 의하면, 그곳에서는 저피(楮

16 壽岳文章(1967), 『日本の紙(The Paper of Japan)』, 東京: 吉川弘文館, 19~20쪽.

17 壽岳文章(1967), 위의 책, 22~24쪽, 40쪽.

18 錢存訓·李約瑟(1990), 앞의 책, 307~309쪽.

皮, 닥나무 껍질)로 만든 호수지(護壽紙)와 위병지(圍屏紙), 자하지(紫霞紙) 같은 종이를 쓰고 있었다고 한다.

같은 한자문명권에 속했던 베트남으로의 종이의 전파도 일찍부터 이루어졌는데, 그 증거는 비교적 명확하다. 베트남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10세기까지 1천여 년 동안 중국의 직접적 통치 하에 있었으며, 독립 이후에도 중국과 밀접한 문화적 유대를 유지해왔다. 문자도 줄곧 한자를 사용해오다가 14세기에 이르러서야 한자를 변용한 ‘남자(喃字)’라는 자기 문자를 창제하였으며, 19세기 말에 와서는 라틴 문자로 음사하는 이른바 ‘국어(國語)’를 채택하였다.

한적의 기록에 근거해 베트남에서는 3세기쯤에 종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 견해다. 『남방초목상(南方草木狀)』(권2)에는 284년에 3만번(番, ‘여러 차’란 뜻)이나 ‘밀향지(蜜香紙)’가 대진(大秦, 로마)으로부터 중국에 운반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밀향지는 베트남 특산의 침향(沈香)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로, 로마의 동방 원거리무역에 종사하던 이집트의 알렉산더(당시는 로마령) 상인들에 의해 운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⁹ 265년부터 290년 사이에 남부 베트남에서 중국에 측리지(側理紙)란 종이를 1만번이나 헌상했다는 기록도 있다.²⁰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 베트남에서는 3세기쯤에 이미 종이를 만들어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은 가장 일찍이 중국의 제지술을 받아들여 나름의 종이를 만들어낸 나라가 된다.

19 『남방초목상』 일서의 저자나 저술 연대에 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 다른 유사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당서의 논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베트남의 밀향지 제조에 관한 논저로는 P. Hirth(1885), *China and the Roman Orient*, Shanghai : Kelly & Walsh, pp.274~275와 Trans. F. Hirth & W. W. Rockhil(1911), *Chau Ju-Kua ; his Work on the Chinese and Arab Trade in the 12th and 13th Centuries, Entitled Chu-fan-Chih*, St. Petersburg : Imperial Academy of Sciences, New York : Pargon Book Reprint Corp(1966), pp.205~206 등이 있다.

20 『拾遺記』 卷9, 7쪽.

2. 종이의 신장 전파

중국의 종이는 교역이나 문화교류를 통해 동전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멀리 아랍-이슬람 세계와 유럽에까지 서전하였다. 이 서전의 관문이자 길목은 파미르 고원 이동 지역, 즉 오늘날의 신장(新疆) 지역이다. 종이의 서전 전 과정을 살펴보면, 신장으로의 전파는 그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 사료가 불충분해 포괄적인 정리는 어렵지만,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 유물에 근거하면 종이의 신장 전파는 그 윤곽이 대략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신장에서 발견된 종이유물은 위진남북조에서 수·당대에 이르는 여러 시대에 걸쳐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 가운데는 관방이나 개인 문서, 계약서, 전적(典籍) 필사본 따위가 가장 많으며, 불경 사본은 비교적 적다.

이러한 문서들은 당시 신장 내에서 통용되던 한자나 돌궐문, 티베트문, 서하문, 고회골문(古回鶻文)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에서 쓰이던 소그드문이나 토카라문, 산스크리트, 지어 시리아문이나 그리스문 등 다양한 문자로 쓰여 있다. 대부분은 손으로 옮겨 쓴 필사본이지만, 더러는 인쇄본도 있다.²¹

1900년 3월 제2차 중앙아시아 탐험(1899~1902)에 나선 스웨덴의 헤딘(S. A. Hedin)은 우연히 누란(樓蘭) 왕국의 고도 그롤라이나(Grolaina)를 발견한 다음, 그 이듬해에 이곳을 다시 발굴 조사하다가 3세기쯤의 목간과 종이 문서를 다량 수집하였다. 이어 영국의 스타인(A. Stein)도 제2차(1906~1908)와 제3차(1913~1916) 중앙아시아 탐험 중 타림분지 여러 곳에서 역시 종이 고문서를 적잖게 발견하였다. 그 중 호탄(和闐)에서는 한문과 티베트문, 산스크리트, 고쿠차문 등 여러 가지 언어로 쓰인 8세기쯤의 문서를 발견하였다. 일본 오타

21 沈福偉(1985), 『中西文化交流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321쪽.

니(大冪) 탐험대의 다치바나지조(橋瑞超)도 1909년 누란 부근에서 이른바 ‘이백문서(李白文書)’를 찾아냈다. 그 후 1930년에는 헤딘이 조직한 서북과학조사단이 카라호토(Qarakhoto) 지방에서 무려 1만점에 달하는 ‘거연한간(居延漢簡, 한대의 목간)’을 발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중국 고고학자들도 둔황(敦煌) 부근과 카라호토, 누란, 고창(高昌) 등지에서 많은 고문서를 수집하였다.²²

이상의 고문서와 목간은 대체로 3세기 이후 당대까지의 시기에 증원으로부터 전해진 서사 재료들이다. 3세기쯤으로 추정되는 누란 유지에서 목간과 종이(伴出)된 사실은 목간에서 종이로 과도하는 과정을 시사해준다. 물론 이러한 문서나 문서용 종이는 증원에서 가져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떤 것은 신장 현지에서 직접 만든 것임이 밝혀졌다. 1972년 투르판에서 발견된 620년의 한 종이 문서에는 ‘지사외현노(紙師隗顯奴)’, 즉 ‘종이 공장 외현노’라는 제지공의 성명과 함께 고창 행정관들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종이 문서에는 범인들을 종이 공방에 보내 노동시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중국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근래에 발견된 수십 건의 종이 문서를 분석한 결과 늦어도 5세기 초까지는 현지에서 종이가 만들어졌다는 결론을 얻었다.

IV. 사마르칸드지

중국의 종이가 아직은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쓰고 있던 아랍-이슬람 제국과 그를 발판으로 유럽에 전파된 계기는 751년 7월 고선지가 이끈 제5차 서역원정, 즉 석국원정이다. 이 원정은 탈라스 전쟁으로 마무리된다. 전쟁에서 패해 포로가 된 2만명의 당군 가운데는 화

22 정수일(2001), 『실크로드학』, 창작과비평, 258쪽.

가 번숙(樊淑)과 직조공(織絡人) 여례(呂禮)를 비롯한 많은 공장(工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지 기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²³ 이들 기술자에 의해 서역에서는 처음으로 강국(康國)의 수도 사마르칸드(Samarkand)에 제지소가 생겨났으며, ‘사마르칸드지’란 이름의 종이가 만들어졌다.

이 사마르칸드지의 제작과 종이의 전파에 관해서는 중세 아랍과 페르시아 학자들의 기록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그들과 기타 학자들의 관련기록을 번역·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랍 사학자 아부 오스만 알 자히즈(Abū Othmān al-Jāhiz)

“카기드(kāghid, 종이)는 중국어에서 유래된 외국어로 페르시아어를 통해 아랍어화된 말이다. 이슬람 시대 초기에는 이런 종이 동방에 알려져 있지 않아 이집트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qirtās)나 거북이 등에 글자를 썼다.²⁴ 이슬람 세계에 처음으로 등장한 종이는 히즈라력(이슬람력) 134년(서력 751—역자) 이틀라흐(Atlah) 전투(탈라스 전쟁—역자)에서 지야드 이븐

23 『通典』 卷192, 193, 杜環의 『經行記』, 아랍측 문헌에는 당군 포로 가운데 있는 제지 기술자들에 의해 사마르칸드에서 종이가 만들어졌다고 하나, 두환의 『경행기』를 비롯한 중국측 관련문헌에는 포로 중에 제지 기술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그래서 당군 포로에 의한 사마르칸드의 제지설은 주로 아랍 문헌에 근거한 것이다.

24 Hirth는 아랍어 ‘kāghid’는 중국어 ‘穀紙’의 음사라고, Mahdi Hassan은 ‘kāghid’와 ‘qirtās’는 동의어로서 종이나 문건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S. Mahdi Hassan(1955), “Chinese Words in the Holy Koran ; 5, Qirtas, Meaning Paper, and its synonym, Kagaz,” *JUB*, p.148. 그러나 여기에는 일부 오류가 있다. 아랍어의 ‘kāghid’ (khāgīd, khāgād)는 페르시아어를 거쳐 들어 온 중국어 ‘곡지’(穀楮)의 음사이고, ‘qirtās’는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지칭하는 그리스어 ‘Χάρτης’(Chartēs)의 음사이다. 그밖에 오늘날 아랍어에서 종이를 뜻하는 ‘waraq’ (나뭇잎이란 뜻으로도 사용)는 아랍어에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랍어 시대에는 나뭇잎이 서사재료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۱) کاغد وکاغد، وکاغد، لفظ صینی مغرب دخل العربیة بطریق الفارسی، ولم یکن الکاغد معروفا بالشرق فی أول عهد الاسلام وإنما كانت الکتابة علی القراطیس المتخذة من البردی المصری أو علی الرقوق، وأول ظهور الکاغد فی الاسلام کان فی سمرقند صنعه هنالك أسارى من الصين أسرهم الأمير زیاد بن صالح فی وقعة اطلخ سنة ۱۳۴ للهجرة فاتخذوه له من خرق الکتان والقنب علی ما کان جار فی بلادهم فقلدهم الناس من ذلك الحین وکثر صنعه فی بقاع متعددة من بلاد الاسلام، ومنها دخل الی أوروبا واشتهر — قال أبو منصور الثعالی : کواغد سمرقند هی من خصائصها الی عطات قراطیس مصر والجلود الی کان الأوائل یکتبون فیها لأنها أنعم وأحسن وأرفق، ولا تكون الی بسمرقند والصین ثم کثرت الصنعة واستمرت العادة حتی صارت متجراً لاهل سمرقند فعم خبرها والارتفاق بها الی جمیع البلدان فی الآفاق (ثمار القلوب ص ۴۳۱) — و ذکر المقریزی فی خططه ان جعفر البرمکی هو أول من استبدل الکتابة علی القراطیس بالکاغد فی الدواوین (النوری ۱ : ۳۶۷) .

도판 1 ... 아부 오스만 알 자히즈의 사마르칸드지에 관한 기술(아랍어 원문)

살리흐(Ziyād Ibn Sālih) 장군에 의해 사로잡힌 포로들이 사마르칸드에서 만든 것이다. 그들은 본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아마(亞麻, kattan)와 대마(大麻, qanb) 조각으로 종이를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를 모방함으로써 이슬람 제국 여러 곳에서 양산되었고, 그것이 다시 유럽으로 유입되어 명성을 얻게 되었다.

아부 만수르 앓 사알리비(Abū Mansūr al-Tha'libi)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사마르칸드 종이는 그곳의 특산물로서 선조들이 필기에 사용하던 이집트 종지와 가죽을 대체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마르칸드 종이가 더 매끈하고 질이 더 좋으며 더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사마르칸드 종이는 사마르칸드와 중국에서만 만들어지다가 제조가 계속 늘어나 사마르칸드 사람들의 교역품이 되었으며, 이러한 소식과 유용함이 멀리 있는 모든 나라들에 알려졌다

(Thimār al-Qulūb, p.431). 그리고 알 마끄리지(al-Maqrizi)는 그의 저서 『알 키타트(*al-Khitāt*)』에서 자으파르 알 바르마키(Ja'far al-Bārmakī)가 궁전의 필기물을 이집트 종이 대신 사마르칸드 종이로 대체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언급하였다(Al-Nuwairi, *Nihāyat al-Arb fī Funūn al-Adab*, Vol. 1, p.367). 나(저자-역자)의 견해로는 이슬람 세계에서 옛날부터 만들어 오던 가장 널리 알려진 종류는 당시까지 사용되던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본떠 만든 이집트지(Kāghid Farauni, 즉 파라오 종이)와 칼리파 하룬 라시드(Harūn al-Rashīd) 시대에 호라산(Khurasān) 지방의 재정총감이던 술라이만 이븐 라시드(Sulaimān Ibn Rashīd)의 이름에서 유래된 술라이만지(Kāghid Sulaimān), 압바스조의 재상 자으파르 알 바르마키의 이름을 딴 자으파르지, 타히르(Tāhir)조의 제2인자인 탈르하 이븐 타히르(Talhah Ibn Tāhir)의 이름에서 유래된 탈르하지, 사산조 누흐(Nūh) 1세의 이름에서 유래된 누흐지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이 있었다.

그리고 아랍 세계 곳곳에 제지소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라크, 예멘, 페르시아, 샴(시리아 지방-역자), 이집트, 마그립 지역(특히 카이르완 al-Qāirwān, 현 튀니지-역자)과 마흐디아(al-Mahdiyyah, 미상-역자), 안달루스(al-Andaluūs, 현 스페인-역자)의 샤틀바(Xativa)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 있었다(Ibn al-Nadīm의 *Al-Fahrist*, p.21과 *Subh al-A'sha*, Vol. 1, p.474, p.476 참고).”²⁵

2. 페르시아 출신의 사학자이자 시인인 아부 만수르 이스마일 앓 사알리비

(Abū Mansūr Ismā'il al-Tha'libi)

“사마르칸드지는 이집트의 종이(qirtās)와 선조들이 필기할 때 사용하던 가죽을 무용지물

25 Abū Othmān al-Jāhiz, *Kitāb al-Tabassur bi al-Tijarah*, Maktabah al-Khanji, pp.28~29.

٨٩٢ — (كواغد سمرقند) : هي من خصائصها التي عطّلت قرطيس مصر، والجلود التي كان الأوائل يكتبون فيها، إلا أنها أنعم وأحسن وأرقق، ولا تكون إلا بسمرقند والصين .

وذكر صاحب المسالك والممالك أنه وقع من الصين إلى سمرقند في سببهم زياد بن صالح في وقعة أطاح من أخذ السكواغيد ، ثم كثرت الصنعة وأستمرت العادة حتى صارت متجراً لأهل سمرقند ، فعمّ خبرها ، والأرتفاق بها جميع البلدان في الآفاق^(١) . ومن خصائص سمرقند النوشادر والقياب الوذارية^(٢) .
ومن خصائص الصغد الحجر الرهجى ، والملح السكشى ، وهو جوهر يُقطع من الغيران في الجبال يكون أحمر ، فإذا دُق صار أشدّ بياضاً وأصلح من كلّ ملح .

도판 2 ... 아부 만수르 이스마일 및 사알리비의 사마르칸드지에 관한 기술 (아랍어 원문)

로 만든 그곳(사마르칸드-역자)의 특산물로서 더욱 매끈하고 질이 좋으며 더 부드러웠다. 이런 종이는 사마르칸드와 중국에서만 제조되었다. 『제도로 및 제왕국지(*Al-Masālik wa al-Mamālik*)』의 저지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아틀라흐 전투(탈라스 전쟁-역자)에서 지야드 이븐 살리흐가 사로잡은 한 중국인 포로가 종이를 만들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제조가 늘어나 사마르칸드 사람들의 교역품이 되었으며, 이 소식과 유용함이 멀리 있는 모든 나라들에 퍼졌다(*Latāif al-Ma'rif*, p.218과 그 각주를 참고).”²⁶

26 Abū Mansūr Ismā'īl al-Tha'libi, *Thimar al-Qulub fi al-Mudaf wa al-Mansub*, Dar al-Ma'rif Dhakhair al-Arab 57, p.543.

3. 아랍 철학자인 까즈위니(Zakriyā Ibn Mohammad al-Qazwīni)

“사마르칸드의 귀중품은 형형색색인데, 모두가 여러 곳에서 칭찬을 받았다. 그 가운데 사마르칸드 사람들이 만든 종이는 동방의 중국 말고는 그 어느 지방의 제지업자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우수하다. 『제도르 및 제왕국지』란 책의 저자에 따르면, 사마르칸드 종이는 전장(戰場, 탈라스 전쟁-역사)에서 노획한 중국 포로들에 의해 전래되었다고 한다. 그들 중에는 제지술을 아는 공장(工匠)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지소를 차려 종이를 생산함으로써 사마르칸드의 제지업은 비로소 시작되었던 것이다. 후일 제지업이 날로 흥성해짐에 따라 종이가 사마르칸드의 수출품이 되었으며, 이른바 ‘사마르칸드지’가 각지에서 판매되기에 이르렀다.”²⁷

4. 독일의 무스타쉬리크(Mustashriq, 이랍학 연구가)인 카라바체크(J. Karabacek, 喀拉巴塞客)

그는 아랍 학자들의 종이 관련기술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마르칸드에 일종의 면지(綿紙)라고 하는 특산물이 있었다. 이 면지가 유행된 후부터는 이집트에서 풀로 만든 종이가 점차 밀려났으며,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양피지(paechmant)도 모두 폐기되고 말았다. 이 면지는 비단 앞의 두 가지 종이에 비해 미관상 좋을 뿐만 아니라, 사용에도 극히 편리하였다. 『여행과 제왕국(Journeys and Kingdoms)』(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adhbih)의 『제도르 및 제왕국지(Al-Masālik

²⁷ Zakriyā Ibn Mohammad al-Qazwīni(1250), *Athār al-Bilād wa Akhbār al-'Ibād*(『제국의 유적과 인류의 소식』), p.113.

wa al-Mamālik)』의 오기-역자)²⁸이란 책의 저자에 따르면, 제지술이 중국에서 사마르칸드에 전래된 것은 아랍인들이 전쟁(탈라스 전쟁-역자)에서 노획한 중국 포로들에 의한 것인데, 이들을 생포한 자는 당시 동방 사마르칸드 주재 진장(鎭將)이던 지야드 이븐 살리흐였다. 살리흐 장군은 중국군을 물리친 후 많은 포로들을 사마르칸드에 보냈는데, 그들 중에 면지 제지공들이 있었다. 그들은 앞을 다투어 공장을 짓고 종이를 사용하며 널리 보급하였다. 사마르칸드의 제지업은 점차 발달하여 그 명성이 높아졌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종이는 현지 수요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각지에 출매되어 사마르칸드의 대외무역 수출품이 되었다. 제지업의 성행으로 인해 필사가 편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게도 복지가 제공되었다. 프랑스의 동양학자 샤반(E. Chavannes)도 본래 제지업은 중국인들이 독점하였으나, 탈라스 전쟁에서 포로가 된 중국 제지 기술자들이 사마르칸드에 모여들어 제지업을 일으킨 다음 그것이 점차 이슬람 세계에 전파되었다고 하였다.”²⁹

이상의 문헌기록과 사료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세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의 하나였던 사마르칸드는 수원이 넉넉하고 수리관개가 발달한 오아시스 도시로서 종이 원료인 아마나 대마의 재배 적지였다. 이곳에 진출한 아랍인들은 751년 탈라스 전쟁에서 생포한 중국인 제지 기술자들을 활용해 처음으로 제지공장을 세워 질 좋은 종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는데, 얼마 안 가서 제지업의 중심지가 되고, 종이가 주요 교역품이 되었다. 당시 외지인들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종이에 대해 산지명을 따서 ‘사마르칸드지’라고 부르며 선호하였다. 이러한 사마르칸드지의 수출과 더불어 제지술이 점차 이슬람 세계 각지에 전파되었으며, 급기야 이슬람 세계와 밀접한 관계이던 유럽에까지 전수되었다.

28 이 책을 중국의 馮承鈞은 『路程國土志』(『西突厥史料』, 207쪽)라고 하였으나, 전술한 여러 아랍 학자들의 관련기술에 근거하면, 이것은 오류이며, 정확하게는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adhībah, 820~912)가 지은 『諸道路 및 諸王國志』(Al-Masālik wa al-Mamālik)』라고 사료된다.

29 J. Karabacek(1887), *Das Arabische Papier*(『아랍 종이』) (Wien), p.112 ; Chavanne, E. 저, 馮承鈞 역 (1903), 『西突厥史料(Documents sur les Toul-Kiue Occidentaus)』, St. Petersburge, 216쪽.

이와 같이 사마르칸드지의 생산은 제지술 서전의 출발신호로서 동·서 문명교류사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구체적인 제지공정이나 관련유체에 관한 고증은 별로 없이 부실한 문헌기록에만 의존해 진행되다 보니 그 결과가 불확실하고 일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논자는 사마르칸드 현지 답사기간(2005년 7월)에 이러한 연구방법상의 편향을 바로잡고 더욱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제지 현장조사(field work)에 임하게 되었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시 변두리 테르메스(Термезская) 거리에 자리한 자그마한 수공업 제지공장이다. 공장주이자 전통 제지술 보유자는 50대 초반의 자리프 무흐타로프(Zarif Muhtarov)다.³⁰ 그는 1997년부터 이곳에 수공업 제지공장을 차려놓고 전통 제지술을 복원하고 있었다. 무흐타로프는 탈라스 전쟁을 계기로 중국 제지술이 이곳 사마르칸드에 전래된 후 다시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보급된 사실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갖고 거듭 역설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탈라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르칸드를 끼고 흐르는 시압(Siab)강 유역에 300여 곳의 제지공장이 세워져 질 좋은 사마르칸드지를 다량 생산하였는데, 당시 주원료는 면화나무였으며, 그런 전통은 1920년대까지 전승되어 왔다. 그러다가 현대적 제지술에 밀려 거의 멸절위기에 처한 것을 최근 복원하고 있으며, 지금은 가끔 면화나무를 쓰기도 하지만 뽕나무를 주원료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통종이의 제조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재현해 보여주었다.

30 전통 제지술의 보유자인 자리프 무흐타로프(Zarif Muhtarov)는 사마르칸드 수공업협회 수공업발전센터 소장으로서 1997년부터 이곳에 100여 평의 수공업 제지공장을 차려놓고 5~6명 제자(전수생)들과 함께 전통 제지술을 복원하고 전수하는 작업을 하면서, 마당에 뽕나무를 심어 키우고 있다. 최근 연간 '종이의 길'을 추적하기 위해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5개국에 취재경쟁을 벌인다고 하면서 당사자인 한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도판 3 ... 사마르칸드 전통 종이의 제조과정

마른 뽕나무 섬유(①)를 나무를 태워 만든 잿불 속에 넣어 6~7시간 끓인(②) 다음 나무 판 위에 놓고 가볍게 두드려 섬유질이 풀어지게 하고는(③) 물로 씻는다(④). 깨끗이 씻어 낸 섬유를 체에 걸러서 물기를 뺀(⑤) 다음 널어서 구덕구덕 말린다(⑥). 그리고 나서 롤러나 두 널판자 속에 끼워 압축해 물기를 말끔히 빼낸다(⑦) 다음 나무판 위에 널어 말리면 종이가 된다(⑧·⑨). 그런 종이를 조개껍데기로 문지르면 반들반들해지고 윤이 나며(⑩), 압염(岩鹽) 가루를 약간 뿌리면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앞뒤가 비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흰 종이는 눈을 자극하기 때문에 요즘은 주로 황지를 제조한다고 한다.

이렇게 전술한 여러 문헌기록과 더불어 전통 제지술 보유자의 직접적인 증언과 구체적인 제조공정의 재현을 통해 사마르칸드가 종이 서전의 기점이며 첫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여실히 추정할 수 있었다. 사마르칸드지의 출현은 비록 예기치 못했던 결과이기는 하지만, 문명발달사의 한 전기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그것을 유발한 고선지의 석곡원정은 자못 중요한 문명교류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논단할 수 있다.

V. 종이의 서전

종이의 전파는 일반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 실현된다. 첫 번째 단계는 순수한 종이의 유입이고, 두 번째 단계는 종이의 자체 생산이다. 종이의 유입이 곧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유입에서 생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하여 유입이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7세기에 종이가 아랍—이슬람 제국에 유입되었지만, 한 세기가 지난 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종이를 자체 생산할 수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유럽도 10세기쯤에 종이와 만나기 시작했지만, 자력으로 만들어낸 것은 거의 두 세기가 지난 12세기에 와서이다. 다른 문명현상과 마찬가지로, 종이의 전파도 일시에 급속하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지역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점진(漸進)되었던 것이다.

1. 종이의 아랍-이슬람 세계 전파

아랍어에서 종이를 뜻하는 ‘Kāghid’나 경전 『꾸르안』(7세기 중반에 편찬)에 나오는 역시 종이를 뜻하는 ‘qirtās’는 중국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³¹ 이것은 아랍인들이 일찍부터 중국 종이를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수입해 쓰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3세기쯤 종이가 누란을 비롯한 신장 일대에서 쓰이고 있을 무렵, 페르시아나 소그드 상인들을 통해 중국 종이 가 이라크에 유입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³² 당시 이라크나 이집트 등 지중해 연안 나라들이나 페르시아, 소그드 등 중앙아시아 나라들은 아직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서사 재료로 쓰고 있을 때여서 중국 종이 가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리라는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자체로 중국식 섬유질 종이를 만들어낸 것은 8세기 중엽부터이다. 아랍-이슬람 세계의 주요 체지 중심지와 생산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바그다드

바그다드는 압바스조 이슬람 제국의 수도(762~1258)로서 중세 이슬람 세계의 문화와 과학의 심장이기도 하였다. 전성기에 인구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하였으며, 시내에는 마스지드(사원), 궁전, 마드라사(신학교), 상가 등이 즐비하여 문자 그대로 중세 이슬람 문화의 진열

31 壽岳文章(1967), 앞의 책 참고.

32 P. K. Hitti(1958), *History of the Arabs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Present*, London : Macmillan, p.414.

장이었다. 탈라스 전쟁에서 포로가 된 일부 중국인 제지 기술자들과 사마르칸드에서 제지 기술을 익힌 아랍인들이 이곳에 와서 제지술을 전파함으로써 바그다드는 아랍-이슬람 세계에서 사마르칸드에 이어 두 번째로 제지 중심지가 되었다.

칼리파 하룬 알 라시드(Harūn al-Rashīd, 재위 786~809)는 794년부터 2년간 바그다드를 확충 재건하면서 호라산 총독 바르마키드(Barmakid al-Faḍl Ibn Yahyā)의 찬조 하에 중국과 사마르칸드뿐만 아니라, 기타 아랍 지역에서도 우수한 제지 기술자들을 징집해 관영 제지공장을 세웠다. 이 공장에서는 질 좋은 ‘바그다드지’를 생산하였다. 그러자 호라산 총독 바르마키드의 동생이자 재상인 자으파르(Ja'afar)는 정부 공문은 모두 종이로 대체할 것을 명하였다.³³ 제7대 칼리파 마어문(Ma'mūn) 시대(813~833)인 830년에는 바그다드에 그리스-로마의 고전 번역을 전담하는 이른바 ‘지혜의 집(Baitu'l Hikmah)’을 개설해 번역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종이 수요는 급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제지술도 크게 개선되었다.

2) 다마스쿠스

우마위야조 아랍 제국(661~750)의 수도였던 다마스쿠스는 탈라스 전쟁 직후까지만 해도 이슬람 세계의 중추로서 대외교류가 활발하였으며, 이곳에는 우수한 예능인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제지술을 쉽게 받아들임으로써 얼마 지나지 않아 9세기 전반에는 종이공장이 세워지고, 이곳이 제지업의 한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특히 다마스쿠스는 유럽과 통하는 교통요지여서 현지에서 생산되는 종이가 다량 유럽으로 수출되었다. 유럽인들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종이를 ‘다마스쿠스지(Chareta Damascena)’라고 부르면서

33 沈福偉(1985), 앞의 책, 328쪽.

선호하였다.³⁴ 시리아에는 다마스쿠스 말고도 유프라테스강 유역에 자리한 밤빈(Bambyn)이란 유명한 종이 생산도시가 있었다.³⁵

3) 카이로

이집트는 641년에 아랍인들에게 정복된 이래 줄곧 우마위야조 아랍 제국과 압바스조 이슬람 제국의 한 지방주(地方州)로 예속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969년에 분립된 파티마조(969~1170)는 카이로를 수도로 삼고(793) 본격적인 왕국 건설에 진입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이로는 아랍-이슬람 세계의 3대 문화중심지(바그다드, 코르도바, 카이로)의 하나로 급성장해 각종 공예가 번성하였다. 중국 종이(가죽)가 사마르칸드와 바그다드, 다마스쿠스를 거쳐 카이로에 전래되기 전까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를 줄곧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질 좋고 사용이 편리한 마지가 유입되자, 거칠고 무거운 초지(草紙)인 파피루스는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말았다. 1884년 카라바체크(J. Karabacek)는 오스트리아 빈 도서관에 소장된 약 4만 건의 중세 이집트 공문서의 지질을 감정하였는데, 935년(이슬람력 323년) 이후의 공문서는 모두가 마지를 사용했음을 밝혀냈다. 이것은 이때를 기해 전래의 초지 대신 새로운 종이(마지)가 생산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³⁶

34 진순신 지음, 조형균 옮김(2002), 앞의 책, 263~267쪽 참고.

35 일부에서는 밤빈(Bambyn)지에서 생산되는 '밤빈지'를 면지(棉紙)로 착각한 바 있다. 원래 라틴어에서 '밤빈지'는 'charta bam ycina'인데, 이것을 'Charta Bombycina'로 오사(誤寫)함으로써 '면지'(라틴어로 면화를 bombycina라 함)로 착각하게 되었다. 1887년 J. Karabacek와 J. Wiesner가 공동으로 화학 분석을 한 결과 이 밤빈지는 면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오사임이 확인되었다.

36 1884년 오스트리아 빈의 에르헤르조그 라이너 컬렉션(The Erzherzog Rainer Collection)이 소장한 2만 점의 이집트 고문서의 지질을 검사한 결과, 719~815년의 36건 문서는 모두 파피루스이고, 816~912

4) 페스

페스(Fes)는 현 모로코 왕국의 고도로서 아프리카 서북단에 위치해 있다. 793년에 축성된 페스는 시종 마그립(al-Maghrib, '서방 아랍'이란 뜻)의 이슬람 문화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슬람 서정군(西征軍)의 마그립 정복에 따른 이슬람 문화의 서점(西漸)과 더불어 마슈리크(al-Mashriq, '동방 아랍'이란 뜻)의 종이도 이곳에 알려진 것은 9세기 초이며, 종이공장이 나타난 것은 1100년쯤이다. 이슬람 학문이 급속하게 흥기함에 따라 종이 수요도 그만큼 급증하였으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제지술의 발달을 촉발하였다. 1202년 이 도시에서 무려 472개소의 수차(水車)가 제지업에 전용되었다는 기록 하나만으로도 당시 이곳 제지업의 성황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지형학적으로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로에 위치한 페스는 15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최대 규모의 제지도시로서 유럽에 다량의 종이를 공급하였다. 그러한 명맥은 시종 끊어지지 않았고 19세기 말엽까지도 종이는 페스의 주요한 대외수출품의 하나였다.³⁷

종이가 아랍-이슬람 세계에 전파된 루트로는 사마르칸드를 비롯해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오아시스 육로뿐만 아니라, 남방 해로도 이용되었던 것이다. 진(晉)대 초부터 수·당대에 이르기까지 중국 동남해 연안에서는 밀향지(蜜香紙, 일명 香皮紙)나 측리지(側理紙, 일명

년의 120건 문서 중 파피루스는 96건, 중국 종이는 24건으로 20%였으나, 913~1009년의 86건 문서 중 중국 종이는 77건으로 89.5%나 되었다. 마지막 파피루스 문서의 연대는 936년이다. 9세기 말엽에 작성된 한 파피루스 문서에는 '파피루스로 책을 만드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것으로 끝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R.H. Clapperton(1934), *Paper, An Historical Account of its Making by Hand from its Earliest Times down to the Present Day*, Oxford : Shakespeare Head Press, p.7, p.61.

³⁷ A. Blum(1934), *On the Origin of Paper*. Tr. by H.M. Lydenberg (New York, Bowker). Tr. of "Les orgines du papier," RH, pp.24ff.

笞紙) 같은 섬유질 종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이 해외로 수출되기까지 하였다. 진대 때는 남방 해로를 통해 내조한 이집트 사절이나 상인들에게 광둥(廣東)산 밀향지를 선물로 주었다. 10세기 아랍 사학자 알 이스타크리(al-Istakhri)의 기록에 의하면 종이는 시라프(Shirāf, 페르시아만 북안의 중요 국제무역항)의 주요한 수입품목의 하나였다.³⁸ 이것은 해로를 통한 종이의 서전상을 반영하고 있다.

2. 종이의 유럽 전파

아랍-이슬람 세계에서 제지업이 광범위하게 발달함에 따라 이 세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럽에서도 12세기 중엽부터 아랍인들에게 제지술을 전수받아 제지업이 일기 시작하였다. 제지술이 아랍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루트는 크게 세 갈래였다.

첫째 루트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바다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지중해의 시칠리아를 거쳐 아프리카 서북단의 페스로 이어진 후,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 안달루스(현 스페인)에 상륙한 다음 육로를 통해 프랑스 각지로 뻗어나간 길이다. 둘째 루트는 다마스쿠스에서 터키의 이스탄불에 이른 후, 거기서부터 육로로 발칸 반도를 지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도착하는 길이다. 셋째 루트는 다마스쿠스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다로 시칠리아를 거쳐 이탈리아나 마르세유에 상륙해 프랑스로 들어가는 길인데, 여기서 다시 유럽 내륙 각지로 이어진다.³⁹

38 沈福偉(1985), 앞의 책, 326~327쪽; Al-Istakhri(10c 전반), *al-Masālik wa al-Mamālik*(『제도로 및 제왕국』).

39 T. F. Carter 원저(1925),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l. C. Goodrich 개정, 姜順愛·宋日基 공역(1995), 『인쇄문화사』, 아세아문화사, 156~163쪽; 錢存訓·李約瑟(1999), 앞의 책, 265쪽.

이러한 세 루트를 통해 아랍산 종이와 더불어 제지술이 유럽에 전해지자, 새로운 서사 재료에 목말라하던 유럽 나라들은 앞을 다투어 제지공장을 세워 종이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종이의 입수와 제지업의 개시 연대를 비롯해 전파나 발달과정에 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시리아를 본거지로 했던 우마위야조가 망하자, 그 왕족 일파인 압둘 라흐만(Abdull Rahmān)이 스페인으로 도망가 코르도바를 수도로 한 후기 우마위야조(일명 코르도바 우마위야조 혹은 안달루스 우마위야조, 756~788)를 건국하면서 석인(石印)으로 공문서를 복제했는데, 그 복제품이 종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들이 사마르칸드지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그런 종이를 사용했을 수도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 복제품이 종이일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그것은 유럽에서 쓰인 최초의 종이일 것이다. 그밖에 9세기쯤에 벌써 북아프리카의 파티마조 사람들을 통해 가까운 이베리아 반도에 종이가 전해졌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⁴⁰

확실한 것은 1109년 종이가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칠리아에 전해진 사실이다. 이 해에 시칠리아 국왕 로저 2세는 종이에 아랍어와 라틴어로 쓴 법령을 반포했는데, 이것은 유럽에서 현존하는 최초의 종이 문서다. 이때부터 40여년이 지난 뒤인 1154년에 제노아에서 작성된 종이 문서가 지금까지 유물로 남아 있다. 이렇게 2세기에 걸쳐 종이가 아랍에서 유럽에 유입되기는 하였지만, 그 제조법의 비밀은 여전히 아랍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12세기에 이르러 유럽인들은 제지법의 비밀을 탐지하게 되면서 도처에 제지공장을 차리기 시작하였다. 바야흐로 중세 암흑기로부터

40 Dard Hunter에 의하면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종이가 출현한 연대는 다음과 같다. 스페인 950년, 콘스탄티노플 1100년, 시칠리아 1109년, 이탈리아 1154년, 독일 1228년, 영국 1309년, 폴란드 1346(1322?)년. D. Hunter(1947), *Papermaking ; The History and Technique of an Ancient Craft*, 2nd ed., New York : A. A. Knopf, pp.470~473.

의 탈출을 시도하던 유럽인들에게 종이라는 새로운 문명수단을 갖게 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유럽에서의 제지업은 그 속도나 규모에서 선행한 모든 지역에서의 그것을 초월하였다.

그 선두주자는 아랍-이슬람 세계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땅 위에 이슬람 국가(후기 우마위야조)가 세워지고 마그립과 교섭이 빈번했던 스페인이다. 중세 이슬람 지리학의 태두인 알 이드리시(al-Idrīsi)는 이베리아 반도 동남부의 사티바(Xativa, Shativah, Jativa)에서의 종이 생산에 대해 “문명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종이 그곳에서 제조되어 동·서방 각국에 보내진다”고 언급하였다.⁴¹ 1150년에 세워진 사티바 제지소는 유럽 최초의 제지소로 알려져 있다. 초기 제지소는 대체로 아랍-무슬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으나 점차 현지 기독교도들도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157년 프랑스와의 접경지대인 비달론(Vidalon)에 한 기독교도가 운영하는 첫 제지소가 출현하였다. 그밖에 툴레도(12세기), 발렌시아, 코르도바(12세기 하반기) 등지에도 제지소가 속속 나타났다.

스페인에 이어 제지술이 번성한 곳은 이탈리아다. 종이는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지가 터키와 시칠리아를 거쳐 12세기부터 이 나라에 전해졌다.⁴² 그러나 이슬람 문화의 유입에 거부감을 느꼈던 이탈리아의 페트리 2세(1215~1250)는 1221년 교황의 의향에 따라 종이 공문 금지령을 내렸다. 시칠리아에서도 같은 시기에 종이문서 무효령이 반포되었다. 그

41 Abu Abdu'l Ilah Mohammad Ibn al-Idrīsi(1154), *Nuzhat al-Mushtaq fi Ikhtiraq al-Afaq*(『천애황단갈망자의 산책』, 일명 『로저서』); T. F. Carter 원저(1925), 姜順愛·宋日基 공역(1995), 앞의 책, 161쪽 재인용.

42 이탈리아어에서 종이의 수량을 헤아리는 단위인 ‘risma’(스페인어는 ‘resma’, 영어는 ‘ream’, 500장)는 아랍어에서 ‘묶음’이란 뜻의 ‘rezma’에서 유래되었다.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같은 의미로 쓰이는 ‘연(連)’은 영어의 ‘ream’에서 나온 것이다.

러나 이러한 외압이나 십자군 원정에서 비롯된 이슬람 국가들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종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수요는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였다. 급기야 1276년 파브리아노(Fabriano)에 지은 첫 제지공장에 이어 몽테파노(Montefano, 현 Fabriano, 1276)와 볼로냐(Bologna, 1293), 제노아(Genoa, 13~14세기), 파두아(Padua, 1340) 등 여러 곳에 종이공장이 줄줄이 문을 열었다. 사실 이탈리아는 827년부터 약 2백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 하에 있으면서 종이를 생산하고 있던 인근 시칠리아로부터 제지술을 일찌감치 받아들일 수 있었다.⁴³ 그리하여 14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이탈리아산 종이가 양이나 질 면에서 스페인이나 다마스쿠스산 종이를 앞질렀다.

종이의 확산과 제지업의 발달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다. 프랑스는 13세기부터 인접한 스페인에서 종이를 들여다 사용하였으며, 자체 공장은 14세기 이후에 지어 국내 수요를 일부 충족시켰다. 1348년 트로이에(Troyes) 부근에 첫 제지소를 차린 데 이어 1354~1388년 기간에 에소네(Essonnes), 성 피에르(Saint-Pierre), 성 클루(Saint-Cloud), 토일레(Toiles) 등지에 제지소가 세워졌다.⁴⁴ 프랑스에서의 첫 제지소 출현과 관련해서는 이와 다른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몽골피에(Jean Montgolfier)란 사람이 제 2차 십자군 원정 때 터키인들에게 생포되어 한 종이공방에서 노동하다가 1157년에 가까스로 도망쳐 유럽에 돌아왔다. 얼마 후 그의 손자들이 프랑스 중부 오버네(Auvergne)주 암버(Ambert)란 마을에 몇 개의 제지소를 차렸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14세기부터 그곳이 프랑스 제지업의 한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다.⁴⁵

독일은 13세기 초부터 종이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대부분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것이

43 T. F. Carter 원저(1925), 姜順愛 · 宋日基 공역(1995), 앞의 책, 162쪽; 錢存訓 · 李約瑟(1999), 앞의 책, 266~267쪽.

44 A. Blum(1934), 앞의 책, pp.32~33.

45 D. Hunter(1978), 앞의 책, p.473; 錢存訓 · 李約瑟(1999), 앞의 책, 267쪽.

었다. 그러다가 1320년 독일 서남부의 쾰른(Köln)과 마인츠(Mainz)에서 첫 제지공장이 선을 보였다. 14세기 말 조판 인쇄가 유럽에 전해짐에 따라 종이 수요가 늘어나자, 유럽 인쇄 중심지의 하나인 뉘른베르크(Nürnberg)에도 1391년 제지공장이 세워졌다. 특히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금속활자 인쇄가 도입되면서 종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러 곳에 종이공장이 건설되었다. 동북방에 자리한 베를린은 뒤늦게 1781년에야 제지공장을 갖게 되었다.⁴⁶

유럽 대륙의 서북단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한 세기가량 뒤인 1322년에 종이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현존 최고 유물은 헤이그 박물관에 소장된 1346년의 종이다. 종이를 쓰기 시작한 지 250여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도드레흐트(Dordrecht)에 첫 제지공장이 선을 보였다. 그러나 1648년까지 지속된 80년 전쟁 기간에 이곳 제지공들이 전란을 피해 암스테르담 등 타지로 뿔뿔이 이주하는 바람에 도드레흐트 제지업은 요람기에 고사되고 말았다. 대신 암스테르담을 비롯한 몇 군데에서 제지업의 맥이 이어져갔다. 그러다가 1680년 제지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펄프 반죽기가 발명되자 종이 생산은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다.⁴⁷ 스위스의 경우도 15세기 이전까지는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종이를 들여다 썼으나, 교회활동이 활성화되어 기록이 필요하게 되자, 1433년 바젤(Basel)에 첫 종이공장을 세웠다. 잇따라 이곳에 몇몇 공장이 들어서면서 바젤은 스위스 제지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영국은 대륙보다 늦게 14세기에 이르러서야 종이를 문서로 쓰기 시작하였으며, 1495년 즈음에 존 테이트(John Tate)가 허트포드셔(Hertfordshire)에 첫 제지소를 세웠다. 이어 1557년

⁴⁶ T. F. Carter 원저(1925), 姜順愛 · 宋日基 공역(1995), 앞의 책, 162~163쪽; 錢存訓 · 李約瑟(1999), 앞의 책, 267쪽.

⁴⁷ D. Hunter(1978), 앞의 책, p.474, p.483; 錢存訓 · 李約瑟(1999), 앞의 책, 267쪽.

에 토머스 설비(Thomas Thirlby)가 펜 디턴(Fen Ditton)에, 이듬해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전 임 보석장(寶石匠)인 존 스피لمان(Sir John Spilman)이 다투포드(Dartford)에 각각 제지공장을 차렸다. 17세기 말 영국에는 약 100개소의 제지소가 가동하고 있었다.⁴⁸ 기타 유럽 나라들에서 첫 제지소가 생겨난 연대를 보면, 오스트리아가 1356년, 폴란드가 1491년, 덴마크가 1540년, 스웨덴이 1550년 등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다.

아메리카 대륙은 유럽에서 유입된 이민들에 의해 종이와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제지업은 그들 중의 제지공장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유럽인들이 이주하기 이전에 마야(Maya)인이나 아즈텍(Aztec)인들이 무화과나무나 뽕나무 껍질을 짓뎠어 서사용 종이를 만들어 썼을 가능성이 있다.⁴⁹ 1518년 탐험가 후안 드 그리할바(Juan de Grijalva)가 중남미의 산 후안 다 울나(San Juan da Ulna)에 도착했을 때 종이로 만든 책이 스페인의 피륙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을 봤다고 한 증언⁵⁰은 원주민들이 종이를 이미 쓰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다가 유럽인들의 유입이 본격화된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유럽 제지공장들이 이 대륙에 제지술을 전수하였던 것이다. 1575년에 스페인은 2명의 제지업자에게 ‘신스페인’에서의 제지권(20년간)을 인가하였다. 그들은 1580년 멕시코시티 부근의 쿨화칸(Culhuacán)에 첫 제지소를 지었다.

북미의 경우, 17세기 후반에 와서야 종이를 자체 생산할 수 있었다. 1690년 독일에 가서 제지술을 배운 독일계 윌리엄 리텐호제(William Rittenhouse)가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 돌아와 2년 만에 동료들과 함께 독일인 거주구역에 제지소를 차렸다. 캐

48 D. Hunter(1978), 앞의 책, p.480, p.484; 錢存訓·李約瑟(1999), 앞의 책, 267~269쪽.

49 D. Hunter(1978), 앞의 책, p.25~29.

50 B. Diaz Del Castillo(1980), *The True History of the Conquest of New Spain*. Ed, and published in Mexico by G. Garcia, tr. into English with intro. and notes by A. P. Mandslay, London : Hakluyt Society, p.162.

나다는 미국에서 종이를 수입해 쓰다가 1803년 미국에서 이주한 월터 웨어(Walter Ware)가 성 앤드루스(St. Andrews)에 첫 제지소를 세웠으며, 16년 후인 1819년에 베드포드 분지(Bedford Basin)에 두 번째 종이공장이 나타났다. 신문 발행부수가 늘면서 지방에도 여러 개의 제지소가 생겨났다.⁵¹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1868년에 멜버른 부근에 첫 종이공장이 세워졌다.

VI. 맺음말—‘종이의 길’ 설정

중국의 ‘채후지’에서 비롯된 새로운 식물성 섬유질 종이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종횡무진 퍼져나가 명실상부한 문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까지는 근 2천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⁵² 그 전파과정에서 8세기 중엽 고선지가 이끈 석국원정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 원정이 계기가 되어 사마르칸드에 첫 제지공장이 세워짐으로써 종이의 범세계적 확산에 하나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이의 전파도 다른 문명현상들의 전파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매개수단인 통로를 필수로 하고 있다. 길 없이 전파나 교류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통로를 이른바 ‘종이의 길(Paper Road)’이라고 설정해 본다. 이 길은 종이의 전파 역사만큼이나 오래고 넓으며, 그 길 위에서 종이문화는 찬란히 꽃피고 튼실한 열매를 맺었다.

51 D. Hunter(1978), 앞의 책, pp.25~29, p.479, pp.274~276, p.526, p.568.

52 일본의 저명한 역사소설가 진순신(陳舜臣, 중국계 일본인)은 앞의 책 272쪽에서 “동방에서 만들어진 종이는 거친 사막과 초원을 지나 서쪽으로 전해졌다. 거기에는 사상과 학문, 예술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이번에는 서방문화의 정화(精華)가 바다를 건너 동방으로 전해졌다. 종이야말로 동서 문화 교류의 상징이라 할 수 있겠다”고 종이의 전파가 지닌 문명교류사적 의미를 평가하였다.

종이의 전파에 관한 연구사를 훑어보면, 종이의 기원을 비롯해 전파의 제반 현상에 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진척되었지만, 그 전파의 복잡다기한 경로를 추적해 하나의 통로, 즉 ‘종이의 길’로 엮는 연구작업은 거의 불모상태다.⁵³ 문명교류사적 값어치로 따지면, 이른바 ‘비단의 길(실크로드)’이나 ‘도자기의 길’, ‘향료의 길’을 든 비단이나 도자기, 향료 따위의 교류품에 비해 종이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공간적인 지구성이나 포괄성 내지는 영향관계에서는 앞지른 측면이 있다.⁵⁴ 뿐만 아니라, 제지술의 중심이동 같은 현상은 다른 교류품의 전파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종이의 길’을 추적·확인하고 설정하는 것은 명실공히 학문적 당위이며 요청이다.

‘종이의 길’이 바르게 설정되었을 때, 그 길을 따라 전파되고 교류된 종이나 제지술의 실체와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그 영향 등이 정확하게 구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길은 8세기 중엽 고선지가 이끈 석국원정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사마르칸드가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서를 관통해 형성된 길로서, 종이나 제지술이란 문명요소를 공유한 한 문화유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유대의 결집은 인류의 보편문명(universal civilization)을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

이 길의 동단(東端)에 자리한 한국은 종이문화 창달에 나름의 특수한 기여를 하였다. 중국 종이를 창의적으로 받아들여 계림지나 백추지 같은 빼어난 종이를 만들어 중국에 역수출함으로써 종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찍이 종이를 일본에 전수

53 진순신(2002), 앞의 책, 274~275쪽에서는 “종이는 비단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고안되었으며 처음에는 그 제조법이 극비상황이었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종이는 비단과는 달리 자못 수수한 물건이며, 이것이 지나간 교역로를 누구도 ‘페이퍼 로드’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종이의 길’이 아직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54 교류사에서 보면, 비단이나 도자기, 향료 같은 물품이 교류의 주종을 이루거나 흥행한 기간은 수 세기에 불과했으며, 많은 경우 상호성이 결여된 단향적(單向的) 전파(이동)에 머물렀다.



도판 4 ... '종이의 길' 전도

함으로써 종이 전파의 중계자적 역할도 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종이의 길'은 실크로드의 동·서 3대 간선(오아시스로, 초원로, 해로)과 남북 5대 지선(마역로, 라마로, 불타로, 메소포타미아로, 호박로)⁵⁵으로 엮어진 망상적(網狀的) 교통망 속에서 전개된 길이다. 이 길의 전개과정을 통찰하면, 3대 간선이나 5대 지선과 나란히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엇갈리기도 한다. 따라서 2세기에 종이 발명된 중국 중원을 기점으로 하고, 8세기에 종이 전파의 전기를 마련한 사마르칸드를 중간 기착지로 하여 '종이의 길'을 동·서 양단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동·서 통로는 '종이의 길'의 간선에 해당된다. 사실상 이 간선 말고도 술한 지선과 셋길이 있었다.

이 '종이의 길'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 간선을 연결해 보면, 동향은 중원(2세기) → 한국(4세기) → 일본(5세기) 순이고, 서향은 중원(2세기) → 신장(3세기) → 중앙아시아(사마르

55 실크로드의 3대 간선과 5대 지선에 관해서는 정수일(2001), 앞의 책, 35~80쪽 참고.

칸드, 8세기) → 아랍-이슬람 세계(9세기) → 유럽(12세기) → 미주(16세기) 순으로 전개되었다.

본 논문은 종이의 동·서 전파과정을 추적해 ‘종이의 길’을 확인·설정하는 것을 주 연구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전파의 역사적 배경이나 영향관계, 종이의 제조과정이나 재질적 특징 등에 관해서는 논급하지 않았다. ‘종이의 길’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들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와 서역의 문화교류

—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

— 최광식

I. 머리말 —

II.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문화 —

III. 아프리카시업 궁전벽화의 고구려인 —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구려는 다종족 국가로서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킨 나라였다. 남북조시대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연(柔然) 등 북방민족, 그리고 서역(西域)과도 활발한 문물 교류와 인적 교류를 지속하였다. 고구려의 이러한 국제성과 문화의 다양성이 고구려를 더욱 막강한 국가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고구려가 중국을 통일한 수와 당의 동진(東進)을 저지하면서 우리 민족 불굴의 기상을 당당히 드높일 수 있었던 것¹은 이러한 교류를 통한 자신감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는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강대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고구려가 문화적으로 매우 융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문화는 호방하고 진취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것이었다.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서역의 문화를, 종교와 사상적으로는 불교와 도가 사상을 수용하는 등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서도 지극히 독자적인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였다.²

1 신형식(1993), 「집안 시대 고구려의 역사적 성격」,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일보사.

2 안휘준(1993), 「중국 집안 지역의 고구려 고분벽화」,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일보사.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구려로서는 중국 주변의 여러 세력과 일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 주변의 북방민족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교류를 확대해 나갔다.³ 문헌상에는 이러한 교류양상이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고구려의 고분벽화와 유물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고구려의 이러한 문화적 양상과 특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고분의 내부 벽면에 그려진 벽화이다. 만약 고구려의 고분벽화가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고구려 문화의 역동적인 내용과 성격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서역⁵문화가 그 한 예라고 하겠다. 또한 사마르칸드의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에서 보이는 고구려 사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서역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먼저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문화의 요소를 살펴보고 둔황[敦煌]과 아프라시압의 벽화를 통해 고구려와 서역의 문화교류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II.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문화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 고분벽화는 100기가 넘는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4~7세기에 지

3 노태돈(2006), 「고구려와 북위간의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4 안휘준(1993), 앞의 논문.

5 서역이란 명칭은 漢나라가 흉노를 제압하기 위해 기원전 60년 타림분지에 있는 烏壘城에 西域都護府를 설치하면서부터 생겨났는데, 당시는 주로 오늘날의 중국 新疆 위구르자치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칭했

속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벽화의 내용과 구성방식 및 표현기법 등이 시기에 따라 바뀌어 갔다. 고분벽화의 시기는 크게 벽화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 3기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묘주(墓主), 행렬, 수렵, 가무(歌舞), 연회(宴會) 등 생활풍속이 벽화의 중심 주제를 이루다가, 5세기 중엽~6세기 초에는 생활풍속이 벽화의 중심 주제에서 밀려나고 장식무늬가 공동 주제가 되거나 장식무늬가 주제로 채택된 벽화고분이 다수 만들어진다.⁶ 그리고 후기에는 강서대묘나 강서중묘와 같이 사신도(四神圖)가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하여 우리는 고구려인들의 기질과 기상, 종교와 사상, 우주관, 생활상과 풍속, 남녀 인물들의 복식과 관모, 꾸밈새와 화장법, 각종 기술과 문물, 건축양식과 실내장식, 회화의 기법과 발달 정도, 문화의 성격과 변천, 외국 문화와의 교류 등 수많은 것을 엿볼 수 있다.⁷ 고구려 고분벽화는 이와 같은 다양한 주제와 풍부한 내용 안에 고구려인들의 강인한 특징, 고상하고 아름다운 민족성을 반영하고 있다. 안악 3호분, 덕흥리 고분벽화, 약수리 고분벽화, 무용총 등을 비롯한 많은 고분벽화에서 연하고 밝은 색을 기본색으로 하면서 고구려인들의 성격과 기질 등을 함축과 집중의 방법으로 그리고 있다.⁸

고분벽화는 모본에 따라 먹이나 목탄 등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채색을 하였다. 안료로는 진사나 황토 및 광물질 분말을 사용하였다. 색채는 무덤 안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차분하게 하는 갈색 계통이 많이 쓰였다. 그 외에 주색,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백색,

다. 그러나 당대 이후에는 그 포괄범위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 및 서아시아 전역까지 확대되었다. 서역의 개념과 그 확대에 대해서는 무하마드 칸수(1992),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 출판부, 7~20쪽 참조.

6 전호태(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 전호태(2004),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 출판부.

7 안휘준(1993), 앞의 논문.

8 손수호(2004), 「고구려 무덤벽화의 특징」,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흑색이 사용되었다. 갈색은 석간주, 주색은 진사, 적색은 연단, 황색은 황토, 녹색은 녹청과 녹토, 청색은 균청, 백색은 연백, 흑색은 먹을 사용하였다.⁹ 이와 같은 고구려 고분벽화는 서역과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지만 차츰 고구려식으로 정형화되어 갔다.

그 중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고구려와 서역의 관계는 벽화에 나타나는 서역인의 모습, 백희의 연회 장면과 연주에 쓰이는 악기, 그리고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의복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안악 3호분, 무용총, 삼실총, 장천 1호분, 수산리 벽화 등에 나타나는 심목고비(深目高鼻)형의 서역계 인물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해 왔다.

안악 3호분은 회랑에 그려진 대행렬도와 무덤의 주인을 둘러싼 오랜 논쟁으로 유명한 무덤이다.¹⁰ 이 중 무덤의 주인에 대해서는 동수설, 미천왕설, 고국원왕설 등으로 의견이 분분한데, 일제시대 이후 동수설이 통설이었으나 북한 학계에서는 미천왕을 주인공으로 보아 오다가 최근에는 고국원왕이 주인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¹ 2006년 4월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공동조사에서 적외선 촬영을 통해 명문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오른쪽 벽에도 글씨가 있었던 흔적을 확인하였으나, 어떤 글자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¹²

9 안병찬·홍종욱(2006),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료분석」,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보고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0 안악 3호분 벽화는 돌벽 위에 직접 그린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았으나 2006년 4월 현지조사 결과 돌벽에 연백을 입히고 그렸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2006년 4월 고구려 고분벽화의 보존상태를 남북 공동으로 조사하여 돌 위에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돌 위에 연백을 입히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최광식 편(2006),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보고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1 정호섭(2006), 「고구려 벽화고분 명문자료의 재검토」,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보고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2 최광식(2006), 앞의 책.

인악 3호분의 벽화는 묘주 부부 초상을 비롯하여 대규모의 묘주 행렬도, 주방장면을 그린 실내 생활도, 씨름 및 가무 장면, 문지기, 그리고 연꽃, 귀면(鬼面) 및 괴운문(怪雲紋) 등의 갖가지 장식문양들이 풍부하게 어우러져 있다. 이 중 네 개의 기둥만으로 앞방과 구분되는 널방의 동벽에는 세 사람의 악대와 그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무용수가 그려져 있다. 지금은 색채가 퇴색하여 많이 희미해졌으나, 아직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¹³

세 사람의 악사는 각각 거문고, 비파, 긴 피리 모양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그 오른쪽은 춤추는 사람이다. 앉은 자세의 세 악사는 그 머리 모양으로 보아 여자인 듯하다. 고개를 약간 숙인 무용수는 코가 유별나게 높고 크며 눈은 가늘고 긴 생김새를 지니고 있다. 또 머리에는 땡땡이무늬가 있는 붉은 터번을 두르고,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 끝에 붉은 줄을 댄 무늬가 있다. 무용수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굽힌 채 다리를 X자로 교차한 모습으로 가벼운 춤동작을 보여준다.¹⁴ 이 무용수는 가면분장을 한 외국인으로 서역계의 춤을 추는 고구려인 무용수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 가면을 쓴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국계 무용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⁵ 그 생김새나 의상, 호탄무와 비슷한 춤사위 등으로 보아 이 인물은 서역계 무용수로 추정된다. 따라서 인악 3호분이 만들어진 4세기 중엽에는 이미 고구려와 서역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같은 시기의 북중국 벽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고구려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서역과 직접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⁶

13 고구려연구재단(2005),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재단.

14 이태호(2006), 「평양지역 8기의 고구려 벽화고분 벽화의 내용과 화풍」, 『고구려 벽화고분 보존실태 조사보고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15 전경옥(2004a), 「壁畫를 통해서 본 高句麗의 놀이문화(演戲文化)」, 『壁畫에 나타난 高句麗의 社會와 文化』 高句麗研究 17, 학연문화사, 145쪽. 전덕재 역시 이 무용수를 서역계 인물로 보고 있다. 전덕재(2006), 「한국 고대 서역문화의 수용에 대한 고찰-百戲·歌舞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8, 13쪽.

또한 안악 3호분에는 앞방 앞벽 오른쪽 상단에 수박희(手搏戲)를 하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큰 코에 턱이 긴 이국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는 안악 3호분 외에도 무용총, 각저총, 장천 1호분 등에 각저(角抵)나 상박(相搏)을 하는 두 역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무용총, 각저총에서 싸움에 열중하는 두 인물 중 한 명은 일반적인 고구려인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다른 한 사람은 눈이 크고 코가 높은 서역계 인물이다.¹⁷ 따라서 각저나 수박희와 서역계 인물의 등장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¹⁸

수박희의 표현 사례는 중국 허난(河南) 미현(密縣) 타호정후한묘(打虎亭後漢墓)의 벽화를 비롯한 전한 및 후한대의 고분벽화에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대부분 눈과 코가 크고 우락부락한 모습의 인물이 등장한다.¹⁹ 때문에 각저와 수박 같은 잡기의 배우로서 서역계 인물들이 널리 활동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²⁰ 혹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서역계 인물은 힘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내륙 아시아의 제 민족들은 장례 때 씨름을 행하는 풍습이 있다는 민족지적 자료 보고가 있으며,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도 씨름이 장의행사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구려 고분벽화의 씨름 역시 일상생활의 모습이라는 측면 외에 장의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졌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고 한다.²¹

16 정수일(2005),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서역 교류상 시고」, 『고구려와 동아시아-문물교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물관.

17 다만 장천 1호분의 경우 왼편 인물의 얼굴은 보통의 고구려인과 같으나 오른편 인물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18 전호태(2004), 앞의 책, 158~162쪽.

19 임영애(1998),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대 중국의 西王母信仰-씨름그림에 나타난 '西域人'을 중심으로」, 『講座美術史』 10.

20 전덕재(2006), 앞의 논문, 13쪽.

21 齊藤忠(1979), 「高句麗古墳壁畫にあらねれた葬送儀禮について」, 『朝鮮學報』 91; 전호태(2004), 앞의 책, 161~162쪽.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각저나 수박회를 행하는 서역계 인물의 모습은 중국의 도상을 통해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당시 고구려에 서역계 인물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4세기 말~5세기 초로 편년되는 무용총에는 널방 안벽에 묘주 접객도가 그려져 있는데 묘주가 맞아들인 손님은 식발을 한 가사장삼 차림의 두 인물로 이들은 승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²² 그런데 이들은 피부색이 검붉게 그려져 있으므로 서역에서 온 전범승일 가능성이 있다.²³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본기 법흥왕 15년조에는 고구려에서부터 사문 묵호자(墨胡子)가 신라의 일선군으로 들어와 불교 포교에 힘썼다는 기록이 있는데,²⁴ 묵호자는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는 ‘흑호자(黑胡子)’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피부색이 검은 이방인(胡人)을 지칭하는 말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²⁵ 고구려에는 소수림왕 2년(372) 전진(前秦)의 왕 부견(苻堅)이 승려 순도(順道)를 통해 불상과 불경을 보냈으므로 불교가 전파되었으며²⁶ 이후 고구려승인 현유(玄遊)가 당을 통해 인도까지 건너갔다는 기록이 『해동고승전』에 전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총의 벽화와 『삼국사기』, 『해동고승전』 등의 기록을 통해 불교를 매개로 하여 일찍부터 서역과의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삼실총 벽화에는 널방의 들보에 해당하는 고임 아래쪽을 받쳐든 모습을 한 역사가 벽에 가득 차게 그려져 있는데, 이들 역시 눈이 크고 코가 뚜렷하

22 김원룡(1959), 「高句麗 古墳壁畫에 있어서의 佛敎的 要素」,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김원룡(1987), 『韓國美術史研究』, 일지사.

23 전호태(2004), 앞의 책, 243쪽, 주10.

24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法興王, 十五年 肇行佛法 初訥祇王時 沙門墨胡子 自高句麗至一善郡 郡人毛禮 於家中作窟室安置.”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7), 『譯註 三國史記』 3(주석편 상), 105쪽.

26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小獸林王, 二年 夏六月 秦王堅 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廻謝 以貢方物.”

며 짙은 구레나룻을 가진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계 인물들로 묘사되어 있다. 버티고 선 두 팔 소매 끝의 연꽃잎 무늬, 두 다리를 감은 뱀의 모습에서 불교 및 토속신앙과 관련된 인도 및 서아시아 종교문화의 흐름이 감지된다.²⁷ 또한 5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장천 1호분에도 천장고임 삼각석 안에 작은 크기로 이와 유사한 역사상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5세기 중엽에 이르면 고구려에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 서역계 문화, 불교와 함께 고구려에 들어온 서아시아적 종교관념과 회화기법 등이 벽화에 활발하게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²⁸

수산리 고분벽화(5세기 중~후반)의 주인 역시 서역계 인물과 유사하게 그려져 있음이 주목된다. 수산리 고분벽화의 묘주상은 장방이 아닌 가옥 안에 표현된 점이나 묘주가 앉은 평상의 형태가 안악 3호분이나 덕흥리 고분의 예와 사뭇 다르다. 이러한 묘주 초상은 쌍영총과 유사한 형태이다. 수산리 벽화는 안악 3호분이나 덕흥리 고분의 회화 수준에서 한 단계 발전한 성숙된 경지를 보여준다. 특히 여인들의 도상에서 보이는 힘이 넘치면서도 부드러운 선과 아름다운 색채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무덤의 여기저기에 장식된 연꽃을 통해서는 당시 불교적 사후세계관이 고구려인들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내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그런데 수산리 고분벽화의 주인공이 매부리코인 것을 볼 때 서역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고분의 주인공이 서역인이라는 것은 서역인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고구려에 왔으며, 서역인들이 고구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고분벽화의 서역인들 이외에 장천 1호분에서도 백회³⁰를 하는 서역인이 다수 발견된다. 장천 1호분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40여 명인데 이 가운데 서역인의

27 전호태(2004), 앞의 책, 196~197쪽.

28 전호태(1993), 「고구려 장천 1호분 벽화의 서역계 인물」, 『蔚山史學』 6.

29 고구려연구재단(2005), 앞의 책.

30 원래 연회에서 행하던 여러 잡기들은 한나라에서 기존의 무예를 유희화한 것과 더불어 서역에서 들

모습을 한 인물은 9명으로 보인다. 수레(曲蓋車輦)의 행선을 인도하는 여자, 끌대를 잡고 수레를 끄는 여자, 수레 뒤에 슬쩍 걸터앉은 여자는 모두 코가 큰 서역인의 모습이다. 또 코가 높고 수염을 기른 인물이 두 팔에 조그만 가축을 안은 채 뒤를 돌아보며 맨발로 달아나는 모습이 보이고, 말타는 재주(마상재)를 부리는 2명의 남자도 코가 크다. 이 밖에 부부로 보이는 2명도 코가 큰데, 남자가 말채찍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역시 말을 다루는 일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9명은 모두 고비인(高鼻人)이므로 서역계 인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장천 1호분 백회기악도에 보이는 여러 교예 장면은 고구려와 서역의 관계를 유추하는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장천 1호분에는 큰 나무를 중심으로 여러 연희와 음악연주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손님과 주인이 나무를 사이에 두고 각각 양쪽에 있는데 나무 아래에서는 한 사람이 원숭이를 부려 나무를 오르내리게 하는 재주를 보이고 있다.³¹ 동물을 훈련시켜 재주를 부리게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전형적인 곡예의 하나이다. 벽화의 왼쪽에는 마상재(馬上才), 씨름, 한 사람이 채찍 같은 것을 들고 다른 사람을 쫓는 장면, 악기를 반주하는 장면 등이 보인다. 그리고 벽화의 오른쪽에는 방울을 던져 올리고 받는 농환(弄丸), 작은 바퀴를 위로 던져 올리며 돌리는 무륜(舞輪) 등의 백회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상의 연희들은 모두 산악백회(散樂百戲)에 해당하는 것이다.³²

사실 장천 1호분의 벽화는 각기 따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하는 과정을

어은 다양한 교예와 가무극을 망라하여 통칭 ‘각저(角抵)’라고 불렀다. 한나라에서는 이러한 각저회를 외국 사신을 위해 자주 공연하였고 이후 당대까지 여러 묘기를 기본으로 하는 잡희(雜戲)가 더욱 발전되었다. 그리고 후한대부터 이를 통틀어 백회(百戲)라고 불렀다고 한다(전덕재(2006), 앞의 논문, 7~10쪽).

31 최무장(1995), 『고구려 고고학』 II, 민음사.

32 전경욱(2004a), 앞의 논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들이 나무를 향하여 있는 것은 신을 모셔오는 모습이며, 사냥을 하는 것은 제의에 필요한 희생물을 잡는 모습이고, 춤추고 있는 것은 제의 과정에서 가무를 하는 모습이며, 씨름을 하는 것은 제의를 마친 후 뒤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금의 제의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강릉 단오제의 경우 먼저 국사당에서 신을 모셔오고,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가무를 즐기고, 제의가 끝난 다음에는 관노놀이나 씨름을 한다. 문헌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1,000여 년 전의 제천의례를 충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³³ 또한 이 고분벽화에는 토착신앙과 관련된 제의뿐만 아니라 불교적 요소와 도교적 요소들도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상과 종교의 특징인 선·불 융화, 유·불·선 융화 등이 이미 고구려 시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구려의 사상과 종교가 우리 민족정신사에 그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천 1호분에 보이는 여러 산악백희의 모습은 수산리 고분에도 나타난다. 수산리 벽화에는 무덤의 주인과 부인이 시종을 거느리고 연회를 구경하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무다리 걷기, 곤봉과 방울을 엮바꾸어 받기, 무릎 등의 연회 모습이 그려져 있다. 팔청리 고분에는 말을 타고 빨나팔을 불면서 갖가지 묘기를 보여주는 말타기 채주인 마상채, 나무다리 걷기, 두 사람이 짝을 이룬 칼채주 부리기, 곤봉과 방울을 엮바꾸어 받기 등의 연회 모습이 나타나며 약수리 고분에도 곤봉과 방울을 엮바꾸어 받는 채주, 긴 봉에 여러 개의 짧은 가지를 달아 올려 던지면서 하는 연회, 마상채 등이 보인다.³⁴

그런데 이러한 백희의 모습은 중국 내몽골의 성도(省都) 후허하오터(呼和浩特市) 근처에 있

33 최광식(2004), 『우리 고대사의 성문을 열다』, 한길사.

34 전경욱(2004a), 앞의 논문; 신근영(2006), 「숫대타기의 역사적 전개와 연회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덕재(2006), 앞의 논문.

는 허린거얼[和林格爾]의 동한(東漢)시대 고분벽화에 그려진 연희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 이 고분벽화에는 채색으로 그려진 연희 장면에서 농환, 무륜, 나무다리 걷기, 물구나무서기[倒立], 칼재주부리기, 칼 던졌다 받기[跳劍], 여러 개의 탁자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물구나무서기[安息五案] 등의 연희와 반주하고 있는 악사들이 나타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고구려 벽화의 연희 모습에도 대체로 보이는 것이다.³⁵

산악백희는 중국 자생적인 것, 또는 중국 주변 민족들의 것도 있으나 상당수는 서역에서 전래한 것이다. 줄타기와 장대 위에 서서 곡예를 하는 모습은 서역지방의 벽화에도 나타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이며,³⁶ 마상재 역시 서역에서 중원지방으로 전해진 백희의 하나이다. 산악백희는 한대부터 본격적으로 서역에서 유입되기 시작하여 남북조 시기에 가장 많이 전래되었으며 수·당을 통하여 계속 흘러들어 왔다.³⁷ 특히 한대에 서역인들이 중국에 들어와 활발하게 공연하게 되면서 이를 보게 된 중국인들이 백희를 즐기게 되어 한대에는 백희가 크게 성행한다. 이때의 서역은 중앙아시아는 물론이고 안식(安息)이라 불리던 파르티아(Parthia, 제2페르시아제국), 선국(捍國)이라고 불리던 미안마 지역, 그리고 여헌(黎軒)이라고 불리던 로마 및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포함한다.³⁸

즉 서역에서 직접 백희의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이 들어와 공연을 하였으며 백희를 공연

35 전경욱(2004a), 앞의 논문.

36 2006년 8월 중앙아시아 현장조사 중 사마르칸드 박물관에서 줄타기와 장대 위에서 놀이를 하는 것을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하였다.

37 전경욱(2004b),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38 로마인이 미안마를 거쳐 한나라에 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남방 실크로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여러 실크로드 중 남도 오아시스로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요로였다. 기원전 4세기쯤에 이미 중국 비단이 인도로 수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통로로는 남해로(南海路), 서역로(西域路), 티베트로, 선국로(捍國路) 등이 있다. 이 중 선국로는 중국과 인도 통로의 지름길로 이전부터 많이 이용되었던 것 같다. 선국로를 남방 실크로드라고도 하는데 촉(蜀)에서 남하하여 전지(澗池, 昆明)－초웅(楚雄)－운남(雲南)－엽유(葉榆, 大理)－휴당(蒞唐, 保山)－미안마에 이르는 길

하는 연기자들 중에는 서역인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또 이들 중에는 여러 고을을 유랑하며 공연을 하는 자들도 많았다고 한다.³⁹

고구려에도 중국처럼 자생적인 전통의 산악백희 종목들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농환이나 줄타기, 나무다리 걷기 같은 묘기와 우희(偶戲, 인형극) 같은 골계희(滑稽戲)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므로 고구려도 괴뢰희(傀儡戲, 꼭두각시놀음)와 같은 자생적인 백희 전통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서역에서 새롭고 다양하며 수준 높은 산악백희 종목이 다수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종목들이 더욱 발전하였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몽골의 벽화와 고구려의 벽화에 보이는 백희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면서도 그 종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러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장천 1호분에서 백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서역인의 얼굴을 한 고비인이 보인다는 점과 백희를 연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고을을 유랑하며 공연을 했다는 점을 통해 서역인들이 직접 고구려에 들어와 공연을 했을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다.⁴⁰

이러한 서역인들이 중국을 통해 고구려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중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다. 선국로는 중국과 인도를 잇는 통로의 지름길로, 한대에 이미 선국은 조공을 통해 한과 통교하였는데 이 때 인도인들은 중국은 물론 남해 각국이나 로마와도 교역을 하였던 것이다(정수일(2001), 『셀크로드학』, 창작과 비평사).

39 『唐會要』 卷34, 논악(論樂)조에는 당대에 산악을 연주하는 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영이 내려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산악공연을 하는 유랑악인들이 다수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김학주(2001), 『중국 고대의 가무희』, 명문당; 전덕재(2006),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40 전덕재(2006), 위의 논문. 한편 전호태는 장천 1호분에 보이는 서역계 인물들을 주로 우마와 관련된 천한 일을 하는 존재로 보고 그들을 후조(後趙)를 세운 갈호(羯胡)와 연결시켰다. 즉 352년 후조의 멸망 이후에 갈호들이 고구려로 흘러들어 와서 이같은 천한 일에 종사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론하였다(전호태(1993), 앞의 논문). 그러나 전덕재는 서역계 인물을 우마와 관련된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백희잡기를 공연하며 유랑생활을 하던 존재들로 보고 있다.

초원로를 통해 고구려로 들어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비록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 하더라도 서역과 고구려의 직·간접적 교류관계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백희를 접하는 과정에서 고대인들은 서역인들을 직접 만나거나 또는 서양과 서역,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외에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각종 악기들을 보면 서역의 벽화에서 보이는 악기들이 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악 3호분의 행렬도에는 관악기로 장적(長笛)·뿔나팔·작은뿔나팔, 현악기로 완함·현금, 타악기로 세운 북·말북·메는 북·메는 중·흔들북·손북 등이 보인다. 또한 장천 1호분에는 오현비파(五絃琵琶)와 필률(箏, 피리)이 보이며,⁴¹ 집안 4호분 벽화에는 요고가 등장한다. 완함은 문헌상의 비파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전하여 널리 쓰인 악기이다. 오현비파 역시 수나라 구부기(九部伎)의 안국기(安國伎), 소륙기(疎勒伎), 서량기(西涼伎), 구자기(龜茲伎), 천축기(天竺伎)에 사용된 대표적인 서역 악기이며 필률도 수나라의 구부기 중 안국기, 소륙기, 구자기 등에서 사용된 서역 악기로 4세기 무렵 구자국에서 중원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특히 오현비파는 신라에 들어와 4현인 당비파와 구분되어 향비파(鄕琵琶)로 불렸다는 점이 주목된다.⁴²

그런데 오현비파와 필률은 수·당대 칠부기(七部伎), 구부기, 십부기(十部伎)의 하나인 고려기(高麗伎)에도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서역의 악기와 음악이 고구려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서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음악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수·당이나 일본에 칠부기, 구부기 또는 고려악(高麗樂, 고마가쿠) 등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복식도 서역의 복식과 매우 유사하여 양자 간의 교류

41 장천 1호분의 악기에 대해서는 송방송(1984), 「長川1號墳의 音樂史學的 點檢」, 『韓國學報』 35 참조.

42 전덕재(2006), 앞의 논문, 30쪽.

와 영향을 쉽사리 발견할 수 있다. 고구려 당시의 남자 옷차림은 저고리와 바지, 겹옷과 띠, 머리쓰개와 신발 등이 기본이었다. 먼저 겹옷으로는 두루마기와 덧저고리를 입었다. 겹옷의 쇄에는 맞쇠와 어김쇠가 모두 있으며, 허리에는 띠를 매었다. 저고리와 바지는 몸에 붙는 형태이고 소매는 직선형으로 북방계의 특징이 보인다. 저고리에 나타나는 서역적인 특징은 단령(團領)의 반소매 상의에 짧은 바지를 입고 띠로 허리를 맨 모습이나 서역지방에서 발견되는 카프탄 형식, 몽골 노인우라에서 출토된 상의와 유사한 형식에서 볼 수 있다.⁴³ 또 저고리의 깃이나 쇄, 도련, 소매끝 등에 다른 색의 천으로 단을 두르는 장식 역시 서역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⁴⁴

머리장식에는 중요한 것이 머리 트는 방법인데, 외상투와 쌍상투가 있다. 머리쓰개에는 머릿수건, 절풍, 책, 관, 패랭이 등이 있다. 절풍(折風)은 검은색의 테와 그 앞쪽에 흰색의 가리개를 붙이고 양옆에 끈을 달았다. 절풍은 바람을 가른다는 글자 뜻 그대로 활동하는데 실용성이 있는 간편한 머리쓰개의 하나였다. 책(幘)은 앞부분이 모자 테보다 한 단 높고,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한층 더 높는데, 두 가닥으로 갈라지면서 앞으로 구부러진 것이 있다. 이 머리쓰개는 주로 활동이 적은 문관들이 겹옷차림을 하고 쓴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하나의 책은 모자의 들레가 있고, 그 뒤가 뽕족하게 솟은 것이다. 이것은 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사람들과 무사들만 썼다. 『삼국지(三國志)』 동이전에 따르면 고구려의 고위급 귀족들인 대가(大加)와 주부(主簿)가 머리에 책을 썼고 소가(小加)는 절풍을 썼다고 한다.⁴⁵

벽화에 보이는 머리쓰개에는 머릿수건과 털모자가 있다.⁴⁶ 특히 머리에 꽂는 조우관(鳥

43 이윤정·정찬주(2005), 「고대 우리나라 의복에 미친 서역 의복의 영향」, 『한복문화연구』 제8권 2호.

44 정수일(2002), 「高句麗의 西域 關係 試考」, 『高句麗研究』 14, 고구려연구회, 228쪽.

45 『三國志』 卷30, 列傳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46 사회과학원고고학연구소(1975),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羽冠)의 경우 북방지역 유목민족들에게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머리에 조우를 꽂는 것은 수렵시대의 유물로, 스키타이인들이 일찍이 새깃을 장식으로 모자에 꽂았으며,⁴⁷ 흉노도 호복(胡服)을 채용할 때 수평(駿)의 꼬리털을 관에 장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⁴⁸ 그런데 조우관을 쓴 인물은 무용총을 비롯한 고구려 고분벽화뿐만 아니라 당 장안(長安, 西安)의 장희태자 이현묘, 시안(西安)에서 발견된 도관칠개국육관은합(都管七箇國六瓣銀盒), 둔황 220호와 335호 석굴 벽화 그리고 사마르칸드의 아프라시아 궁전벽화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고구려와 서역의 교류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제까지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서역인의 모습, 산악백희와 음악, 의복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문화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의 내용 이외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도 서역문화의 영향을 논하고 있다.

먼저 감신총을 비롯한 초기의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뽕족한 연화(수련)에 대한 것이다. 연화문이라고 하면 대개 불교와 상관시켜 이야기하고 있지만 뽕족문양인 경우는 서역(이집트) 장식미술이 동쪽으로 전해진 것이다.⁴⁹ 고대 이집트에 연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에 피어난 수련을 신성한 꽃으로 보고 태양과 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인도에서는 기원전 3000년의 연화여신상이 출토되었고, 가장 오래된 문헌인 브라만교 경전 『베다』에 기재된 여신은 바로 연화 위에서 있다.⁵⁰ 따라서 뽕족한 모양의 연화문은 불교 전래 이전에 이미 서역을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47 T. T. Rice(1969), *Introduction Treasure from Scythian Tomb*, London : Themes Hudson.

48 한 고수(高琇) 주 『淮南 3』 卷21 ; 정수일(2002), 앞의 논문, 230쪽.

49 박남희(1984), 「古代 이집트의 蓮花紋과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韓國 蓮花紋의 비교연구」, 『東洋文化研究』 11,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50 武家昌(2004),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연화 연구」,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국고대사학회.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서역의 문양으로 당초문과 팔메트 문양이 있다. 강서대묘에서 당초문은 주로 좁고 긴 벽면의 공간을 메우는 장식문양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집안 5호분과 진파리 1호분에 보이는 팔메트 문양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리아나 신바빌로니아 궁전의 벽면 장식 등에서 보이며 페르시아에서도 사용되었다. 팔메트 문양은 이후 서아시아를 거쳐 불교미술과 결합하여 중국에 전해졌으며 중국에서는 운강 석굴을 비롯하여 육조(六朝) 시대의 석굴사원 등에 많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 봉토분의 독특한 천장구조에서도 서역문화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천장구조의 종류는 평천장, 궁륭식 천장, 꺾임천장, 고임천장과 이것들의 혼합형식이 있다. 삼각 고임천장은 벽의 상부에 2~3단의 석재를 내어 쌓고 그 위 모서리 부분에 삼각형이 생기도록 만드는 축조방법이다. 이는 실크로드 지역과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¹

고구려 고분 천장은 말각조정의 건축형식으로 천장부분의 각을 줄여가면서 마지막에 덮개돌을 얹어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식은 중국 신장(新疆)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의 건축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형식적이며, 백제와 신라 및 가야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⁵²

지금까지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문화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서역인들의 모습이 다수 등장한다는 점과 서역에서 유래한 산악백희와 음악에 쓰이는 악기, 그리고 고구려인의 의복 등 생활과 문화 전반에 걸쳐 비교적 이른 시기부

51 村田治郎(1931), 「東洋建築系統史論 2」, 『建築雜誌』 45, 日本建築學會.

52 정수일(2005), 앞의 논문. 2006년 8월 중앙아시아 현장답사에서도 말각조정의 건축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터 서역문화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서역문화의 요소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이는 이 문제가 고대 문화의 원류와 문화 간 융화 과정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마르칸드의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에서 발견된 조우관을 쓴 인물상은 둔황 벽화에서 발견된 조우관 인물 그림과 함께 고구려와 서역의 직접적인 교류양상을 유추하게 해 주는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도록 하겠다.

III.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고구려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의 아프라시압 궁전 제23지점 1호 궁전지 서벽에는 당시 이 지역을 통치했던 바르후만(Varxuman) 왕을 알현하는 외국 사절단 행렬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조우관을 쓴 2인의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⁵³ 이 벽화는 1965년 발굴되어 1975년 조사책임자인 알바움(L. I. Aljbaum)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⁵⁴ 이 보고서에 조우관을 쓴 인물들이 한국의 사절이라고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 사절도는 당시 한국과 서역 간의 공식적 관계를 반영하는 벽화라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53 Alexey V. Arapov(2004), *Masterpieces of Central Asia SAMARKAND*, SMI-Asia .

54 Л.И.АЛЪБЪБАУ(1975), жрвопись АФРАСНАБА, ИЗДАТЕЛЬСТВО ФАИ, узбекской. 이 보고서는 일본에서 1976년 穴澤和光·馬目順一에 의해 소개되었다. 穴澤和光·馬目順一(1976), 「アブラシヤ都城出土壁畫に見られる 朝鮮人使節について」, 『朝鮮學報』 80.

사마르칸드는 옛 소그디아(Sogdiana)의 수도로 수·당대에는 강국(康國)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까지 고대 동방의 에텐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번영한 도시였으며, 7세기 중엽 이곳을 둘러본 중국의 현장(玄奘)이 쓴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도 도성 둘레가 20여 리나 되며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아프라시압⁵⁵은 기원전 6세기 이후부터 기원후 1220년 몽골군의 침략이 있기까지 사마르칸드 동북지역에서 실크로드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으로, 당시의 동·서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물류적 접경지역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동·서관계와 상호교류 등 여러 가지 시대 정황을 고려하면 중국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과 우리나라의 원활한 교역관계나 상호왕래의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⁵⁶

아프라시압 벽화는 이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과 함께 아프라시압 언덕에 있는 아프라시압 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아프라시압 역사박물관의 좌측 첫 번째 홀에는 아프라시압 언덕 발굴 장면을 담은 사진들과 통치자가 살았던 도시의 남쪽 지역을 보여주는 전경지도가 있다. 두 번째 홀의 전시물과 복원된 유물들은 아프라시압이 어떻게 여러 세기를 거치는 동안 발전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소그디아 초기의 도자기류와 건축물은 그리스 박트리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은전·검 등을 포함한 마케도니아 출신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기념품들도 있다. 쿠산왕조 시대의 조로아스터교는 불의 제전을 위해

55 아프라시압이란 말의 어원은 페르시아의 전설적인 왕 '투란'과 관련이 있다. 그는 피르도우시의 페르시아 서사시 '샤흐 나메'에서 용맹하고 현명한 왕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반역자의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사마르칸드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아프라시압 시대의 사람들은 종족적 구성 자체가 달랐다. 소그디아인들은 페르시아의 냄새가 짙게 묻어나는 민족이다. 소그디아인들은 상업적 문화적 두 구역으로 나뉘는 사이에 살았으며 『대당서역기』에는 이곳의 민족들이 기술과 교역에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다고 기술하였다(장준희 박사의 조언).

56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 Studies(2005), *Civilizations of Nomadic and Sedentary Peoples of Central Asia*, Samarkand.

태양을 상징하는 벽돌과 죽은 자의 뼈로 장식한 제단을 쌓았다. 유골은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되고 깨끗하게 남은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남부 아무다리야 강에 신성성을 부여한 물과 다산의 여신 아니히타의 테라코타 조상도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5세기부터 시작된 실크로드의 번영을 반영하는 금은보석, 화장품, 땃조각 등이 전시되어 있다.⁵⁷

벽화 전시실에는 높이 2m가 넘는 벽화가 왼쪽, 가운데, 오른쪽의 3면에 걸쳐 있는데 고상하고 우아한 서사적 이야기가 독창적인 기법으로 그려져 있다. 이 벽화는 바르후만 왕의 궁전에서 외교사절을 알현하는 접견실들 중 하나의 방에 그려져 있던 것으로, 현재 박물관에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벽화는 사마르칸드 지역의 세월과 더불어 박락되고 아랍인들에 의해 훼손되었지만 동벽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잘 남아 소그디아인들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준다. 그러나 발굴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어떤 것은 거의 알아볼 수 없다.

이 벽화의 주인공이 바르후만 왕이라는 사실은 벽화에 그려진 옷에 소그드어로 기록된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다.⁵⁸ 그 내용은 바르후만 왕의 출신과, 사가디안의 특사 푸카르 자테와의 대화 내용, 그리고 차치 특사와의 대화내용 등으로, 벽화의 내용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벽화의 주인공이 우나시 출신의 바르후만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가디안(아프가니스탄)과 차치(타슈켄트)에서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르후만 왕의 재위기간은 640~675년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의 추가 발굴에서 동전들

57 The State Museum of History of Culture of Uzbekistan(2004), *Masterpieces of the Samarkand Museum*, Tashikent.

58 이 문서는 지금 사마르칸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영어와 우즈베크어로 번역하여 전시를 하고 있다. 영어로 번역된 것을 이용하고, 우즈베크어로 된 것은 장준희 박사의 도움을 얻어 해석할 수 있었다.

이 발견되면서 이 시기에 바르후만 왕 외에 한 명의 왕이 더 있었다는 새로운 의견이 지지를 받고 있다. 발굴된 동전 중 3개는 바르후만과 15개는 우르크와 관련된 것이므로⁵⁹ 660년 쯤 바르후만의 뒤를 이어 우르크가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라시아 궁전의 벽화는 바르후만 왕의 재위 때인 660년 이전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660년 이후 바르후만 왕 다음 왕인 우르크가 바르후만을 위하여 그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벽화의 내용은 바르후만 왕 재위시기의 내용을 그리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명문에는 바르후만 왕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르후만 왕은 당 고종 영휘(永徽) 연간(650~655) 강거도독(康居都督)으로 책봉된 사실이 있으므로⁶⁰ 이 시기 강국은 당나라의 영향 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이 벽화는 바르후만 왕이 도독으로 임명되는 시기의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벽화가 그려진 시기에 대한 논의는 서벽의 사절단 사이에 그려져 있는 조우관을 쓴 한국인이 고구려인인지 신라인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아프라시아 벽화는 본래 총 4개로 동서남북 사면에 걸쳐 그려졌으나, 동벽의 그림은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다. 벽화의 내용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의 견해가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벽화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벽에는 조상신에게 제사의례를 지내기 위하여 왕비와 사제들이 희생물을 들고 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왼쪽에 사제로 보이는 사람들과 구조물이 그려져 있는데 구조물은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볼 수 있다. 그 뒤에 코끼리를 탄 인물은 왕비이며, 그 뒤

59 X.Г.Ахун-бабаев(1999), *АБОРЕЦЩИАОВ ССОГАА ИА АФРАСИАЪС*,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60 『新唐書』卷221, 西域傳 下, 康居條, “高宗永徽時 以其地爲康居都督府 即授其王拂呼慢爲都督.”

에 말을 탄 여인들은 비빈들로 보인다. 그 뒤로 낙타를 탄 인물들은 귀족이며, 흰 거위들은 희생물로 볼 수 있다. 가운데 큰 말을 탄 인물은 서벽에 앉아 있는 인물과 같으므로 바르후만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뒤로 바르후만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후만 왕이 왕비와 비빈들 및 귀족들을 거느리고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에 제사의례를 지내러 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서벽에는 중심에 바르후만 왕이 위에 그려져 있으며, 좌우로 돌궐족 귀족들이 앉아 있는 그림이 있다. 좌측에 8명이 앉아 있으며 두 명이 서 있고, 우측에 11명이 앉아 있다. 그 아랫단에 시종들과 각국의 사신들이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모두 4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중 30명은 강국의 귀족과 시종들이며, 12명이 내조한 외국 사절들이다.⁶¹ 이 가운데 바로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절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벽화에는 주변국 석국(石國, 타슈켄트)과 토하라(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사신들과 함께 당나라 사신들이 바르후만 왕에게 비단을 바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석국과 토하라의 사신은 2명씩인데 비하여 당나라 사신은 6명이나 된다. 더구나 그림을 보면 당나라 사신이 비단을 바치고 있으며, 차치나 사가디안 사신들은 그 다음에 예물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따라서 바르후만이 도독으로 임명된 것과 함께 의례를 드리는 것이 그림에 그려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도독으로 임명된 것을 조상신에게 고하는 의례를 지내고, 당나라 사신에게 도독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받은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벽에는 당나라 공주가 시녀들과 뱃놀이를 하는 그림과 당나라 사신들이 사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왼쪽에는 당나라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악사들의 노래를 감상하며 뱃놀이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당나라 사신들과 돌궐 군인들이 함께 사냥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보통 의례적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공

61 L. I. Alibaum, 加藤九祚 譯(1980), 『古代 サマルカントの壁畫』, 文化出版社.

주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나라 공주가 사신으로 왔다는 것은 바르후만이 강거도독으로 임명되는 것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 벽화는 전체적으로 당나라가 바르후만을 강거도독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남벽은 임명되기 전에 조상신에게 제사의례를 지내는 장면이며, 서벽은 당나라 사신들에 의해 강거도독으로 임명되는 의례이고, 북벽은 당나라 공주와 사신들을 위해 뱃놀이와 사냥을 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바르후만 왕이 당대의 영희 연간(650~655) 강거도독으로 책봉된 당시의 사실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벽에 그려진 조우관을 쓴 한국인 사절의 모습은 현재 분간하기 어려우나, 발굽 당시 이들은 검은 머리칼에 밝은 갈색 얼굴을 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몽골인종임이 인정되었다. 또 복식을 살펴보면, 상투머리에 모자를 쓰고 새깃을 꽂은 조우관을 쓰고 있다. 무릎을 가릴 정도의 긴 황색 상의에 허리에 검은 색 띠를 두르고 험령한 바지에 끝이 뽕족한 신발을 신고 양손은 팔짱을 끼고 있다. 이러한 복식은 당시 국내외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대 한국인들의 복식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이들이 찬 큰 칼은 환두대도(環頭大刀)와 유사하며, 칼집에 M자형 장식이 있다.

한국 학자로서 이들 사절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학자는 김원룡으로, 그는 여기에 나타난 한국인을 신라인으로 보았다.⁶² 당시 벽화는 7세기 말~8세기 초에 그려진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벽화의 제작시기와 당 장희태자 이현묘에 보이는 사신도의 인물(신라 사신으로 비정) 등을 참고하여 벽화의 한국인 사절을 신라인으로 추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절의 복식이 고구려식이고 당시 고구려는 망했지만 발해의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으

62 김원룡(1976),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압 궁전벽화의 사절도」, 『고고미술』 129·139 합집.

므로 이들 사절이 발해인이었을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다.

벽화의 발굴을 담당한 알바움과 알바움의 보고서를 번역한 일본인 학자 아나자와 가즈코우[穴澤和光]와 우마메 슌이치[馬目順一]는 이들 사절을 고구려인으로 보았다.⁶³ 노태돈 또한 벽화가 7세기 후반 바르후만 왕의 치세 중 이곳을 방문한 외국 사절단의 모습을 그린 것이므로 698년 건국한 발해의 사절일 가능성은 없으며 신라인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은 북아시아의 초원길을 통해 강국까지 갔던 고구려인이라고 하였다.⁶⁴ 정수일도 북식과 패도를 분석하고, 돌궐과 고구려의 관계를 고려하여 아프리카시압 궁전벽화의 두 인물을 고구려인으로 보았다.⁶⁵ 그는 두 인물이 패용한 대도가 고구려에서 사용하던 대도와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당시 고구려가 서역과도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덕찬 역시 당시의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서역과 교류가 잦았던 고구려의 사신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⁶⁶ 그리고 2004년 여름 사파르칸드 아프리카시압 벽화를 둘러본 인하대학교 학술조사단은 아프리카시압 박물관 측이 벽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소그드어로 쓰여진 명문에 나타난 벽화의 제작 시기를 근거로 고구려 사신임을 단정하였다. 명문에는 통치자 바르후만 왕의 재위시기(650~670)에 아프리카시압 벽화가 제작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권영필은 벽화의 편년을 7세기 3/4분기로 본 벨레니츠키(Belenitsky)의 견해를 바탕으로, 벽화가 중국에서 서부 중앙아시아 쪽으로 흘러간 연회도(宴會圖), 직공도(職工圖) 등

63 穴澤和光·馬目順一(1976), 앞의 논문.

64 노태돈(1990), 「고구려·발해인과 내륙아시아 주민과의 교섭에 관한 일고찰」, 『대동문화연구』 2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노태돈(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65 정수일(2002), 앞의 책; 정수일(2006), 『실크로드 문명기행』, 한겨레출판.

66 우덕찬(2003),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4-2, 한국중동학회.

을 자료로 후대에 보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당시 한국과 국제정세를 고려해 볼 때 벽화의 한국인 사절은 고구려계의 발해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⁶⁷

이렇게 벽화에 보이는 한국인 사절의 국적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이미 여러 학자가 지적하였듯이 조우관을 쓴 인물은 고구려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조우관을 쓰고 있다는 점 자체가 가장 큰 근거이다. 우선 새깃을 꽂는 관모에 대해서는 『위서(魏書)』 고구려전에 “머리에는 절풍(折風)을 쓰니 그 모양이 변(弁)과 흡사하였으며, 옆에 새의 깃을 꽂는데 귀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⁶⁸라 하여 고구려에 조우(鳥羽)를 꽂는 습속이 있었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록은 『주서(周書)』, 『북사(北史)』, 『수서(隋書)』, 『신당서(新唐書)』, 『구당서(舊唐書)』에도 유사하게 전한다.

물론 머리에 새깃을 꽂는 습속은 고구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백제나 신라, 가야에도 유사한 습속이 있었던 것 같다. 새는 ‘하늘을 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고대부터 새라는 존재에는 영혼의 전달자,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 등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으며, 한국의 고대신앙에서도 곡령(穀靈), 또는 조령(祖靈)으로 신성시되었다.⁶⁹ 새깃을 꽂거나 새 날개 모양을 장식한 관을 쓰는 것은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인 습속이었을 것이다.

백제에도 “그들의 의복이 남자는 대략 고구려와 동일하였다. 조회(朝會)나 제사 지낼 때에는 관(冠)의 양쪽 곁에 새의 깃을 달았으나 군사(軍事)에는 그러지 않았다”⁷⁰라 하여 역시 관에 새의 깃을 꽂는 습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런데 백제의 의복이 고구려와 대

67 권영필(1997), 『실�크로드 미술—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257~258쪽, 주52. 그러나 최근 권영필 교수는 이 사절을 고구려인으로 보고 있다.

68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 “頭著折風 其形如弁 旁插鳥羽 貴賤有差.”

69 권오영(1999), 「한국 고대의 새(鳥)관념과 제의(祭儀)」, 『역사와 현실』 32.

70 『周書』 卷49, 列傳41, 異域上 百濟, “其衣服 男子畧同於高麗 若朝拜祭祀 其冠兩廂加翅 戎事則不.”

략 유사했다는 기록과 백제의 출자 등을 참고해 볼 때 새깃을 꽂는 습속 역시 고구려에서 들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신라나 가야의 경우 새 날개 모양의 관모나 금동관이 천마총, 합천 반계리 고분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역시 북방문화의 영향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조우관을 썼다는 점은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사절이 한국인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이들을 꼭 고구려인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 당대의 장희태자 이현묘와 둔황 벽화, 여러 미술품 등에도 조우관을 쓴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이현묘의 동벽에 그려진 예빈도(禮賓圖)에 3명의 당관인과 함께 그려진 3명의 외국 사절 중에 조우관을 쓴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인물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대한 논란은 예빈도가 알려진 직후부터 계속되었는데, 예빈도가 706년 이현묘의 천장(遷葬) 때 그려진 것이라는 점과 예빈도가 천장 당시 참석하러 온 외국의 조문객을 그린 조문도(弔問圖)라는 해석, 그리고 조우관은 신라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라인이라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후 이현묘의 구조에서 예빈도가 수렵출행도(狩獵出行圖)와 시위도(侍衛圖) 사이에 그려졌다는 점과 기타 주변 그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묘도의 그림은 이현의 활동상이나 생활상을 그린 것이라는 점에서 예빈도가 조문도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는 옳지 않으며, 신라에서는 진덕왕 3년(649) 기존 관인의 의관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706년 그려진 이현묘의 사절은 신라인일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⁷¹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신라 진덕왕 3년의 복식개정령⁷²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일본서기』에 남아 있으므로⁷³ 신라는 649년 이후 실제로 당의 복식을 입

71 노태돈(2003),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당 이현묘 예빈도의 조우관을 쓴 사절에 대하여』, 서울대 출판부.

72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5, 眞德王 3年, “三年春正月始服中朝衣冠.”

73 『日本書紀』卷25, 白雉 2年 是歲; 『日本書紀』卷26, 齊明紀 6年 7月 乙卯.

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에 파견된 신라 사절 역시 당복(唐服)을 입고 갔을 것이므로 이현묘의 예빈도에 신라의 복식을 한 신라 사절이 그려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왕회도(王會圖)와 남당고덕염모양원제번객입조도(南唐顧德謙模梁元帝蕃客入朝圖)는 양직공도(梁職貢圖)를 모본으로 하여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보이는 신라 사절은 조우관을 쓰지 않고 있는 반면 고구려의 사절은 모두 조우관을 쓰고 있다.⁷⁴ 따라서 당시 조우관은 고구려 복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대 둔황 벽화에도 조우관을 쓴 외국 사신이 2건 발견된다. 하나는 제220호굴로 굴 입구 동벽 문 입구의 좌우 남북면에 그려진 유마경변상도(維摩經變相圖)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그려진 다양한 복식의 외국 사신들 중에 있는 조우관식의 인물 그림이다. 이 인물은 넓은 옷깃이 있는 푸른색의 옷에 통바지를 입고 두 손은 앞으로 모으고 있는 모습으로, 이현묘의 조우관 사신과 매우 유사하다. 이 벽화는 문수보살이 유마힐거사에게 문병을 와서 불법에 대해 담문(談問)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그 아래에 당 황제의 초상과 신하들의 예빈공양도, 그리고 외국 사신도가 함께 그려져 있다. 이는 문수보살의 유마힐거사 문병시 제왕(諸王)들도 함께 참석하였다는 내용과 관계되는 것으로, 벽화에서는 제왕의 모델을 당 황제와 주변 국가들의 왕이나 사신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⁷⁵ 이 벽화는 642년 제작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둔황 제335호굴의 북벽 유마경변상도 중 오른쪽 유마힐거사가 앉아 있는 평상 바로 아래쪽에 그려진 여러 명의 변왕(蕃王) 중 맨 위쪽에 보이는 2명의 인물이다. 한

74 노태돈(2003), 앞의 책, 18~19쪽.

75 김리나(1994), 「唐美術에 보이는 鳥羽冠飾의 高句麗人」,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동문출판사, 507~510쪽.

사람이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그 앞쪽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 두 인물 모두 조우관을 쓰고 있다. 두 개의 깃이 위로 쫓힌 모자는 머리 위에서 넓은 띠 위에 얹혀 있고 이 띠는 귀 양옆으로 내려와 턱 밑에서 묶여 고정되었다. 그림의 상태가 어둡기는 하나 역시 이현묘의 조우관을 쓴 사신과 매우 유사하다. 이 벽화는 앞의 220호굴 벽화보다 40여 년 늦은 684년에 그려진 것이다.

따라서 벽화의 작성 연대로 보면 조우관을 쓴 사신을 신라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335호굴의 유마정변상도는 220호굴의 그림보다는 약간 복잡하지만 그림의 구도가 유사하고 인물 표현 등이 더 형식화된 점으로 보아 같은 그림을 저본으로 하여 그렸거나 혹은 220호굴의 그림을 모본으로 하여 약간의 변화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벽화의 작성 연대만 보고 이들 조우관식의 인물을 신라인으로 볼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중국 정사의 기록에도 신라인이 조우관을 썼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조우관은 오히려 고구려인의 특징적인 복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이들 조우관을 쓴 인물은 고구려의 사절을 묘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⁷⁶

이러한 점은 시안에서 출토된 도관칠개국육관은합에 표현된 고구려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이 은합은 시안 문물원립국(文物園林國) 소장품으로 1979년 시안 시 교통대학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6개의 타원형이 꽃잎처럼 붙어 구성된 은합에는 가운데 코끼리를 탄 인물과 공양물을 머리에 이고 가는 인물 등 총 6명의 인물과 ‘곤륜왕국(崑崙王國)’이라는 명문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6개의 타원형 변에 각각 ‘파라문국(婆羅門國)’, ‘토번국(土番國)’, ‘소륜국(疏勒國)’, ‘고려국(高麗國)’, ‘백탁녘국(白拓訖國)’, ‘조만국(鳥蠻

76 김리나는 이현묘나 둔황석굴에 그려진 조우관식의 인물을 고구려인이나 신라인 등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당시 한국인을 대표해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다(김리나(1994), 위의 논문, 513쪽).

國)’의 이름과 인물들이 부조되어 있다.⁷⁷ 도관 7개국이란 당이 사방에 설치한 도호부 관할하의 나라라는 뜻으로 당의 천하에 포함된다고 여겨지는 나라들이다. 이 은합의 부조 내용은 곤륜국에서 도래한 사리를 6관에 그려진 나라들에 분배했다는 것으로 추측되는데,⁷⁸ 그 중 하나로 고려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국의 그림은 왼쪽 가운데 앉아 있는 한 명을 중심으로 그 앞에 4명의 인물이 서 있는 형태인데 5명의 인물이 모두 머리 위 양쪽에 펼쳐럼 표현된 조우관을 쓰고 있다. 이들이 ‘고려국’이라는 명문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볼 때 조우관은 고구려 복식 혹은 인물 표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1990년 산시성[陝西省] 란톈현[藍田縣] 법지사지[法池寺址]에서 출토된 정방형 사리함의 부조에도 조우관을 쓴 2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사리함의 부조는 사리분배도로 생각되고 그 내용은 앞서 살펴본 도관7개국육판은합과 통한다고 하므로 여기 보이는 조우관의 인물 역시 고구려인으로 볼 수 있다.⁷⁹

따라서 7~8세기 당시 중국에서 조우관을 쓴 인물을 고구려인으로 정형화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프라시압의 벽화에 보이는 조우관을 쓴 두 명의 사신 역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고구려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벽화의 내용은 650~655년 사이의 일로 생각되므로 650년 이후 당의 복식을 채용했던 신라의 사신으로는 볼 수 없으며, 두 사람이 절풍을 쓰고 환두대도를 차고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 사신으로 보는 것이 순리이다.⁸⁰

벽화에서 저고리 부위는 그림이 떨어져나갔으나 앞부분은 옷깃이 선으로 되어 있다. 그

77 西谷正(1991), 「唐章懷太子李賢墓の禮賓圖をめぐって」, 『兒島隆人先生喜壽紀念論集』, 일본; 김리나(1994), 앞의 논문.

78 田中一美(1993), 「都管七箇國盒の圖像とその用途」, 『佛教美術』 210.

79 김리나(1994), 앞의 논문; 노태돈(2003), 앞의 책.

80 조희승(2005), 「고구려와 서역」, 『고구려와 동아시아-문물교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물관.

런데 이 벽화와 비슷한 모습을 무용총과 쌍영총에서 볼 수 있다. 무릎 가까이 오는 통소매의 옷 저고리, 발목이 좁아진 바지, 비선형 모양의 짧은 코신, 두 손을 모아 읊히는 모습 등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는 모습 그대로이다. 또한 고고학연구소에서 발굴 직후에 그려진 모사도를 직접 확인해 보니 그림의 상태가 매우 좋은데 허리에 차고 있는 칼에 M자 문양이 확실하고 절풍에 연주문이 그려져 있다는 점도 참고된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가 사마르칸드까지 사신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당시 당과 대립하고 있던 고구려가 당을 견제하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세력들과 교섭하기 위해 서었다. 650~655년 당시 고구려가 당나라와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고구려가 서역지역의 돌궐족이 다스리는 강국(사마르칸드)과 교섭을 하기 위해 바르후만 왕의 도독 책봉 하례식에 참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소그드나 중국은 돌궐에 의해 좌우되었으므로 640년쯤 고구려가 당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궐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벽화의 명문에 보이는 우나시는 바르후만 왕의 성씨로 바르후만은 돌궐계이거나 소그드계일텐데 돌궐계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당시 사마르칸드와 중국의 관계에서 돌궐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640년쯤 고구려의 독자성을 강화하고자 당나라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고구려에서 사신을 파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서벽에 나타나는 장면이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벽화는 사마르칸드와 당나라 사이의 상황(대등한 관계)을 그린 것이다.

당시 돌궐은 강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알타이 지역에 살고 있던 돌궐은 크림 반도부터 중국의 국경 일대까지 이르는 초원지대 유목민을 통제하였다. 서투르크스탄과 동투르크스탄을 복속시켰으며, 비잔틴과 페르시아 및 당나라와도 전쟁을 하였다. 7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돌궐왕국은 인도와의 국경지대 카불을 포함한 일대까지 통제하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유목민족 국가인 돌궐과 외교적 관계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나라를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 측 사서에 남아 있는 유일한 돌궐 관계 기록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양원왕(陽原王) 7년(551) 요동의 신성(新城)과 백암성(白巖城)을 돌궐이 공격해와 이를 격파하였다는 것이다.⁸¹ 이 기록은 552년 초 돌궐이 유연을 격파하였으므로, 551년 당시에는 돌궐이 요동평야까지 그 세력을 뻗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582년 이전 어느 시기에 있었던 양자 간의 충돌을 전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⁸² 그러나 돌궐은 고구려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던 유연을 격파하면서 동진하였기 때문에 고구려와 돌궐은 550년 이전 이른 시기부터 상호 교섭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이어서 무력대결을 벌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몽골 오르콘(Orkon) 강 기슭의 호쇼-차이담(khosho-Tsaidam) 고돌궐비문의 ‘bökli’ 관련 기록을 552년 죽은 돌궐의 시조인 토문가한(吐門可汗)의 장례식에 고구려가 조문사(弔問使)를 보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견해⁸³도 참고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6세기 중반 이후 수(隋)의 성장과 팽창으로 변화하게 된다. 고구려 영양왕 18년(607) 고구려 사신이 오르도스 지방에 웅거하던 돌궐 추장 계민가한(啓民可汗)의 장막으로 파견되었는데, 이는 수나라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방문하고 있던 수양제(隋煬帝)에게 발각되어 경고 받은 사실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⁸⁴ 이 사건에 대해 『수서』에도 양제가 계민장을 순방할 때 계민은 한 발 앞서 돌궐에 온 고구려 사신이 양제를 만나는 것을 내심 꺼렸다고 기록하고 있

81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7, 陽原王 7年, “七年 秋九月 突厥來圍新城 不克 移攻白巖城 王遣將軍高紇領兵一萬 拒克之 殺獲一千餘級.”

82 노태돈(1989), 앞의 논문, 242쪽.

83 護雅夫(1977), 「いわゆるbökliについて—民族學と歴史學と間」, 『江上波夫教授古稀記念論文集(民族·文化篇)』, 東京; 岩佐精一郎(1936), 「古突厥碑文のbökli及びParPumunについて」, 『岩佐精一郎遺稿』; 노태돈(1989), 앞의 논문.

84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8年, “十八年初 煬帝之幸啓民帳也 我使者在啓民所 啓民不敢隱 與之見帝.”

다.⁸⁵ 양제는 불쾌히 여겨 사신에게 돌아가 고구려왕에게 입조의 예를 지키지 않으면 돌궐과 함께 고구려를 정벌하겠으니 그리 전하라고 하면서 위협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러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입조를 거부하였다.

이를 통해 대국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지만 고구려의 대서역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당나라 대에도 계속되었을 것이며, 당의 침공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서돌궐을 비롯한 서역 일원의 여러 나라들과 교섭을 하기 위해 서역으로 사신을 파견하였을 것이다.⁸⁶ 이러한 사실이 아프리카시압 궁전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는 사마르칸드에서 자그마치 8,000km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는 200일 이상, 말을 타고도 80일 이상 걸렸을 것이다. 사가디안은 사마르칸드에서 330km 떨어져 있으며, 차치는 400km 떨어져 있으니 고구려와 사마르칸드 간의 거리가 얼마나 먼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때는 당나라와 대립을 하고 있었을 시기이므로 고구려는 당나라를 피하여 오아시스로드보다 스텝로드를 통하여 이곳까지 왔을 것이다.

고구려는 서역으로 오가는 독자적인 루트를 개척하였다. 북중국 일대에 발흥한 여러 유목민족들의 침략을 배후에서 견제하고, 고구려 귀족들의 사치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만리장성을 멀리 우회하여 고비사막을 횡단한 스텝로드는 한반도의 독특한 비단을 서역으로 가져간 실크로드였다. 이 길을 통하여 당나라를 배후에서 크게 견제하기 위하여 특명을 받고 서돌궐 지역권인 사마르칸드에 고구려 사신이 파견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스텝로드가 일찍부터 개척되었다는 것은 몽골 다리강가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적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85 『隋書』卷67, 列傳, 裴矩, “從帝巡于塞北幸啓民帳時 高麗遣使先通于突厥 啓民敢隱引之見帝.”

86 노태돈(1989), 앞의 논문.

고구려는 일찍부터 서북방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복종족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서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의 독특한 비단을 서역으로 수출하였으며, 유리와 같은 서역의 사치품들을 고구려로 수입하였다. 고구려에 들어온 서역의 수입품은 백제와 신라 및 가야, 그리고 일본열도로 수출되었다. 한편 고구려는 서역으로 이어진 스텝로드를 개척하면서 수와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서역에 적극적 외교정책을 펴나갔다. 비단 육로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해로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내륙아시아 문화와 간접적인 접촉이 있었다.⁸⁷

IV. 맺음말

고구려와 서역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하다. 문헌사료가 영성(零星)하며, 고미술자료 또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돌궐비문이 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분석하여 고구려와 돌궐의 관계를 새로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⁸⁸ 또한 북한에 소재한 고구려 고분벽화를 현장에서 직접 실견하고 벽화에서 서역적 요소들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함으로써 서역과의 문화교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⁸⁹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 있는 문양과 복식, 서역인의 모습, 줄타기와 장대장이 등 놀이, 춤추는 모습 등에서 서역과의 인적 교류와 문물 교류를 확인할 수 있었

⁸⁷ 고병익(1977), 「한국과 서역-근세 이전의 사적 관계」, 『학술원 제5회 국제학술회논문집』, 대한민국의학원.

⁸⁸ 노태돈(1989), 앞의 논문.

⁸⁹ 고구려연구재단(2005), 앞의 책 ; 최광식 편(2006), 앞의 책.

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고구려는 다양하고 국제적인 고급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특히 사마르칸드의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를 통하여 고구려와 서역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장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명할 수 있었다. 즉 아프라시압 궁전벽화가 바르후만 왕이 강거도독으로 임명되었던 영휘 연간(650~655)의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로 동전이 발굴됨으로써 640~675년 사이에 바르후만 왕 다음에 다른 왕이 존재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바르후만 왕은 640년부터 660년 전후까지 재위하였으며 궁전벽화는 그 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북벽에 중국 공주가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영휘 연간에 강거도독으로 임명될 때의 상황을 그림에 남긴 것으로 파악하였다. 왜냐하면 사절로 온 인물 중 사가디안과 차치 및 한반도 사신은 2명씩인 데 비하여 당나라 사신은 6명이나 되고 그림의 장면이 당나라 사신이 비단을 바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사신들은 그 다음에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그림의 중심이 당나라 사신이 예물을 바치는 모습인 것이다.

그 중 한반도에서 온 사신들에 대해서는 한국학계를 비롯해 소비에트연방 시절의 투르크 및 중앙아시아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에트연방과 중앙아시아 현지 학자들에게는 당시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고, 한국학계에서는 중앙아시아 현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 연유한 바도 크다. 따라서 양측의 학자들이 아프라시압 벽화를 통해 견해 차이를 좁히고, 상호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양측의 학자들의 현장연구를 통하여 공동으로 총체적이고 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과제를 통해 중앙아시아 학자들과 현장에서 만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은 그동안의 연구 경향과 성과를 정리할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 결과 한반도에서 온 사신들은 조우관을 쓰고 M자 문양의 환두대도를 차고 있으며,

절풍에 연주문이 그려져 있으므로 고구려 사신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신라는 650년부터 중국 관복을 입었으며, 이현묘나 둔황 벽화, 은합과 사리함 등 당대에 발견된 유물에 보이는 인물은 모두 고구려인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조우관은 고구려인의 복식을 특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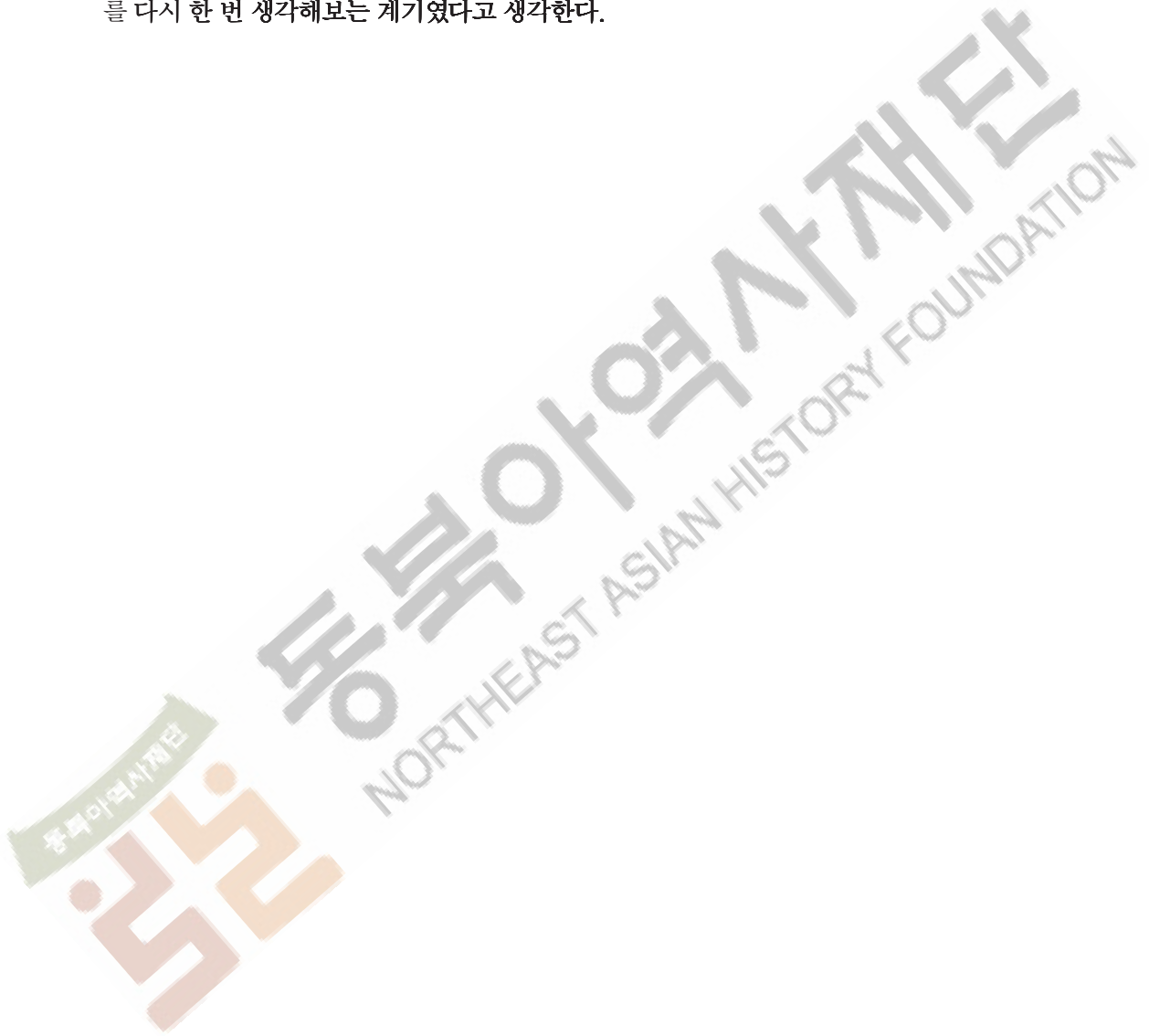
당시 당과 대립하고 있던 고구려의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돌궐족들이 장악하고 있던 사마르칸드와 외교교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구려는 이와 같이 서역과 끊임없이 교류를 하여 외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양한 발전에도모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현장연구가 빈번해지고 현지 학자들과의 공동연구가 심화된다면 더 많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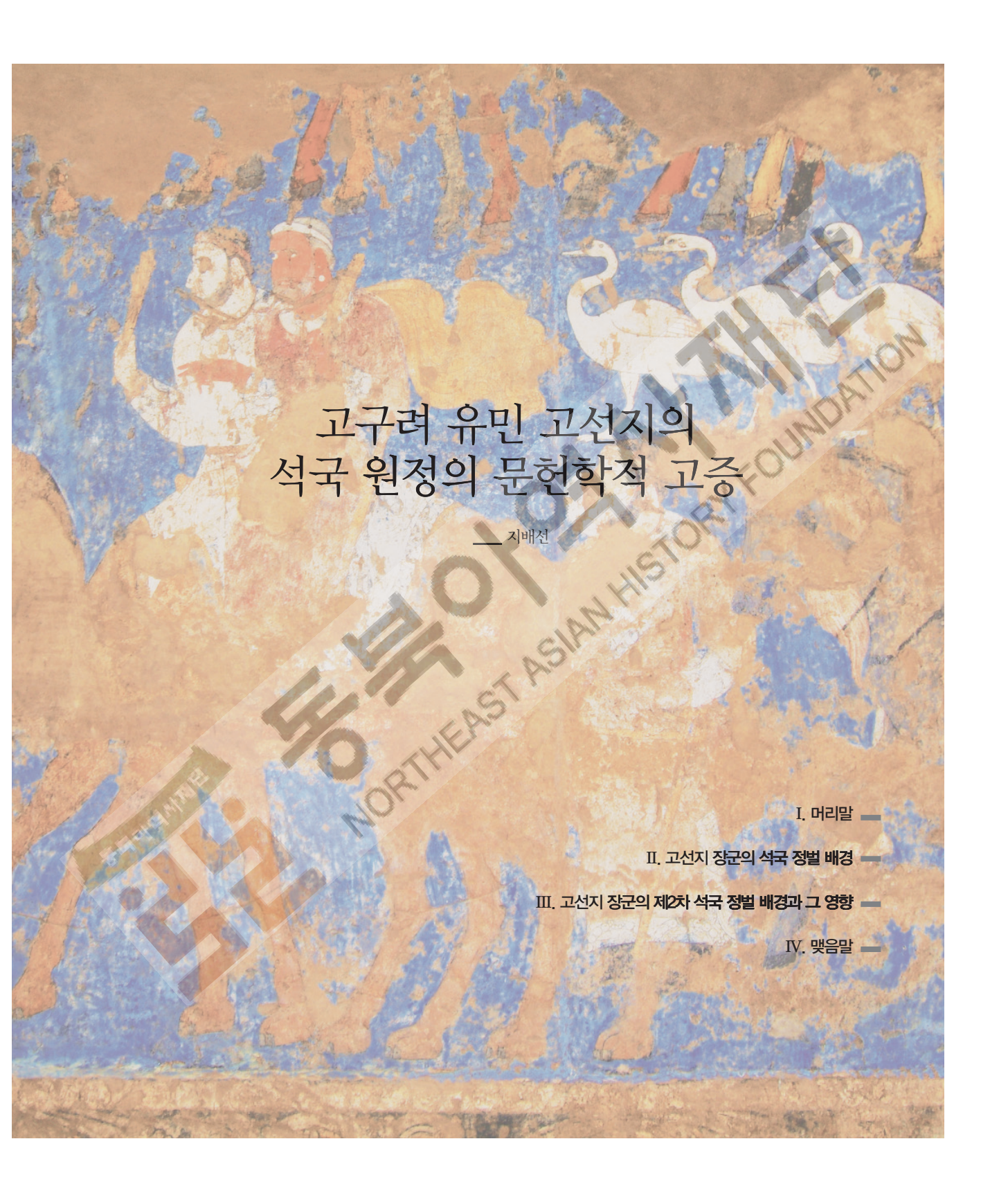
끝으로 이번의 현장답사에서 서역 원정의 주역인 고선지 장군의 탈라스 격전지를 찾아 볼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현장답사 중 고구려의 장대와 해자와 같은 시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선지 장군의 탈라스 전투지를 찾는 현장답사 중 잠불시에 있는 옛성터(탈라스 언덕)를 조사하였는데 고구려의 가산과 같은 흙더미가 보여 확인해 보니 장대였다.⁹⁰ 자연의 언덕을 활용하여 가산을 쌓아 장대로 이용하였으며, 자연의 강물을 이용하여 해자를 건설한 것을 확인하였다. 해자의 폭은 1.5m 정도였는데 성을 돌아가며 일정하게 조성되었다. 현장(600~663)의 『대당서역기』에도 탈라스에 해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고선지 장군의 전투지가 이곳 탈라스 언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선지 장군은 고구려식 가산을 쌓고 장대로 이용하였으며, 강물을 이용하여 해자로 활용하였다고 생각된다. 탈라스 전투 장소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⁹¹ 일단 이곳에서 1

90 그 모습이 환도산성에 있는 장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이성제 편(2006), 『고구려성 사진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91 무하마드 간수(1992), 앞의 책 ; 지배선(2006), 「고구려 유민 고선지의 석국 원정의 문헌학적 고증」, 『중앙아시아의 고구려관련유적 현장조사 및 학술세미나 자료집』.

차 전투가 있었으며, 여기서 8km 떨어진 곳에서 2차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고구려인의 후예인 고선지의 발길이 닿은 곳을 답사한 것은 고구려와 서역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고구려 유민 고선지의 석국 원정의 문헌학적 고증

— 지배선

I. 머리말 —

II. 고선지 장군의 석국 정벌 배경 —

III. 고선지 장군의 제2차 석국 정벌 배경과 그 영향 —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구려 유민 고선지¹는 서역에서 중국의 국경 확장과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중국 역사상 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은 한(漢)대의 반초(班超)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호삼성(胡三省)이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고선지를 고구려인이며 한족(漢族)과 다른 호인(胡人)이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² 오늘날 중국에서 고구려가 중국이라는 망언을 호삼성이 호되게 질책하는 것 같다.

중국의 전시대를 통하여 서역에서 큰 공을 세운 두 인물 가운데, 고선지 장군에 대한 연구는 고구려 유민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 이는 고선지 장군이 아시아 역사에 남긴 발자취가 너무 선명하여 그 발자취를 아무도 지울 수 없다는 뜻이다.³ 또 오렐 스타인(Aurel Stein)

1 田村實造(1969), 「唐諸國の世界性」, 『史林』 52-1, 73쪽; 有高巖(1943), 「隋唐時代の支那」, 『支那民族』, 六盟館, 62쪽; 劉伯驥(1954), 「對高麗之影響」, 『唐代政教史』, 臺灣中華書局, 382쪽.

2 『資治通鑑』 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6載條, 6889쪽, “胡三省註 安祿山·安思順·哥舒翰·高仙芝, 皆胡人也.” 胡三省은 고선지를 고구려인이라 하면서 오랑캐라고 불렀다.

3 Martin R. Norins(1944), *Gateway to Asia : Sinkiang Frontier of the Chinese Far West*, New York : The John Day Company, p.102.

은 유럽에서 알프스를 정복하였던 위대한 지휘관 한니발(Hannibal)에서 나폴레옹(Napoleon), 수브로(Suvorow)까지 열거하면서, 이러한 인물들보다 파미르고원(Pamirs)과 탄구령(坦駒嶺, Darkot Pass)을 정복하였던 고선지 장군이 더욱 위대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⁴ 이런 까닭에 성당(盛唐)시대의 공신(功臣)으로 고선지를 분류하였다.⁵ 이와 같은 고선지 장군의 족적을 추적하는 여정에서 신장성(新疆省) 위구르 자치박물관에 소장된 ‘안서도호부지인(安西都護府之印)’을 목격하였다. 물론 고선지의 명령에 의해 사용되었던 바로 그 ‘인장(印章)’이다. 아무튼 이는 고선지 루트를 세 번 답사한 가운데 얻은 행운이었다.⁶

고선지에 대한 석국(石國) 원정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해 『구당서(舊唐書)』·『신당서(新唐書)』·『자치통감』·『책부원구(冊府元龜)』·『통전(通典)』 등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고선지에 의한 석국 원정에 관한 사료가 많지 않아 국내외 학자들의 고선지 연구에 관한 성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고구려 유민 고선지의 석국 원정의 문헌학적 고증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II. 고선지 장군의 석국 정벌 배경

고선지가 서역에서 장군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던 것은 개원(開元) 말에 부몽령찰(夫蒙靈

4 Aurel Stein(1933), "Across the Hindukush to the Pamirs and K'un-Lun," *On Ancient Central-Asian Tracks*, London : Macmillan and Co., Limited., p.44.

5 池田 溫(1979), 「唐朝處遇外族官制略考」,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265쪽.

6 제1차 답사는 중앙일보와 함께한, 2005년 7월 1일~8월 1일 해로와 육로 1만 3000Km의 고선지 루트 답사였으며, 제2차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으로 2006년 8월 1~16일 우루무치에서 타지키스탄까지 고선지 루트의 정밀 답사였다. 제1차와 2차는 고선지 장군의 석국 원정로 중심의 답사였다면, 제3차는 KBS와 공동으로, 2006년 8월 19~31일 고선지 장군의 連雲堡 공격로가 주된 답사였다.

察)의 명령으로 기병 2천을 거느리고 흑산(黑山)과 쇠엽(碎葉)까지 진출한 달해부(達奚部)를 격파한 후부터였다.⁷ 이때 고선지가 달해부를 격파한 공적으로 안서부도호(安西副都護)와 사진도지병마사(四鎮都知兵馬使)가 되면서 그의 역할이 사서에 등장하였다.⁸ 이를 고선지의 제1차 서역 원정이라 볼 수 있다.

고선지의 제2차 서역 원정은 당 현종의 명령으로 747년에 토번세력이 아랍 세력과 제휴하려는 시도를 꺾기 위해 취한 군사적인 조치였다. 즉 고선지가 지휘한 1만 명의 원정군은 파미르 고원의 연운보(連雲堡) 전투와 탄구령을 넘어 소발률국(小勃律國)을 정벌한 대원정이었다.⁹ 흥미로운 사실은 연운보 전투가 세계전쟁사에서 주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고선지가 장군으로서의 기량이 출중하였다는 것을 연운보 전투에서 입증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토번의 서방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고선지가 연운보 전투를 벌이고 탄구령을 넘었던 사실에 대하여 『구당서』의 고선지전(高仙芝傳)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어두워질 때까지 적(토번의 병사)을 추격하여 5천명을 죽이고 1천명을 생포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말 1천여 필을 노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량과 병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빼앗았다. 현종은 술사 한리빙(韓履冰)을 보내어 좋은 날을 택하도록 하였지만, 그는 두려워 (더 이상 적진 깊숙이 들어) 가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변령성(邊令誠)마저도 두려워하였다. 어쩔 수 없이 고선지는 변령성을 남겨두며, 그에게 (긴 행군과 전투로) 지쳐 병든 허약한 병사 3천여 명으로 그 성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조치한 후 고선지는 계속 진군하였다. 3일 만에 탄구령에 이르러, 다시 깎아지른 듯

7 『舊唐書』 卷104, 封常清傳, 開元末條, 3207쪽.

8 『舊唐書』 卷104, 高仙芝傳, 開元末條, 3203쪽; 『唐書』 卷135, 高仙芝傳, 開元末條, 4576쪽.

9 『舊唐書』 卷104, 高仙芝傳, 時步軍皆有私馬條, 3203~3205쪽; 『唐書』 卷135, 高仙芝傳, 天寶六載條, 4576~4577쪽.

한 험준한 산악 길을 40여 리나 내려갔다. 이때 고선지는 이런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만약 아노월호(阿弩越胡)가 속히 와서 맞이한다면, 이는 곧 (우리에게) 환대하는 마음을 품은 증거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병사들이 (적진 깊숙이) 내려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고선지는) 먼저 20여 기병에게 아노월호의 복장을 갖추고 와서 영접하도록 꾸렸다. 탄구령에 도착하니 고선지가 우려하였던 대로 병사들이 내려가려 하지 않고 “대사께서 우리를 장차 어디로 인도하려 하십니까?”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앞서 고선지가 몰래 보낸 기병 20인이 와 환영하며 말하길 “아노월성의 오랑캐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하의 등고마저 이미 잘라 놓았습니다”라고 하였다. 고선지는 드러내놓고 기뻐하면서, 모든 병사들에게 내려갈 것을 명령하였다.¹⁰

이는 고선지가 연운보 전투에서 토번을 격파하고 올린 전과와 계속해서 소발률국으로 진군하는 상황에 대한 기록이다.

연운보 전투와 탄구령을 넘어 소발률국으로 진군하였던 사실을 동서양의 학자들이 주목하였다. 그 이유는 해발 4600여m나 되는 세계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을 횡단함으로써 전대미문의 대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고선지가 많은 전공을 쌓게 된 것은 그의 탁월한 통솔력과 아울러 그의 용맹성과 결부된다. 사마광(司馬光)은 『자치통감』에서 “처음에 장군 고선지는, 본시 고구려인으로 안서(安西)에 종군하였다. 선지는 날쌔게다 과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타기와 활쏘기까지 매우 잘하여, 부몽령찰이 여러 번 추천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안서부도호·도지병마사

10 『舊唐書』卷104, 高仙芝傳, 3204쪽, “至夜奔逐, 殺五千人, 生擒千人, 餘並走散. 得馬千餘匹, 軍資器械不可乘數. 玄宗使術士韓履冰往視日, 懼不欲行, 邊令誠亦懼. 仙芝留令誠等以羸病尙弱三千餘人守其城, 仙芝遂進. 三日, 至坦駒嶺, 直下峭峻四十餘里, 仙芝料之曰 阿弩越胡若速迎, 即是好心. 又恐兵士不下, 乃先令二十餘騎詐作阿弩越胡服上嶺來迎. 既至坦駒嶺, 兵士果不肯下, 云, 大使將我欲何處去? 言未畢, 其先使二十人來迎, 云 阿弩越城胡並好心奉迎, 娑夷河藤橋已訖. 仙芝陽喜以號令, 兵士盡下.”

와 사진절도부사가 되었다”¹¹라고 기록한 것은, 고선지가 장군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지닌 인물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사마광이 장군이라는 호칭을 고선지 앞에 썼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다. 고선지가 장군으로 갖추어야 할 모든 요구 조건을 완전하게 구비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사마광이 인정하기 위해 기록한 형식이라 판단된다.

고선지는 그의 아버지 고사계(高舍鷄)처럼 맹장(猛將)·덕장(德將)과 지장(智將)으로 당나라에서 많은 공적을 쌓았다. 물론 고선지 장군이 많은 관직에 임명되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인 탁월한 역량의 결과였다. 즉 고선지는 달리는 말에서 활 잘 쏘는 고구려 유민으로 군지휘와 작전 능력도 출중하였다는 사실이 당 현종에게까지 알려졌다. 두 번(747, 749년)에 걸친 고선지 장군의 파미르 원정의 성공으로 서역에서 고선지의 전공과 비교될 다른 인물이 없었다. 그래서 프랑스 학자 르네 그루세(René Grousset)는 고선지 장군의 업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고선지의 파미르 서부에 대한 두 차례의 원정으로 말미암아 당조 치하 중국의 중앙아시아 팽창정책이 절정기를 맞았다. 당시 중국은 타림과 일리 분지와 이식 쿨 지방의 안주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타슈켄트의 주군 역할까지 담당하였기 때문에, 파미르 계곡을 호령하면서, 한편으로 (고선지는) 토하리스탄·카불·카슈미르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쿠차에 본영을 둔 고선지는 사실상 중앙아시아의 총독이나 다름없었다.¹²

11 『資治通鑑』卷215, 唐紀 31, 玄宗天寶 6載條, 688쪽, “初, 將軍高仙芝, 本高麗人, 從軍安西. 仙芝驍勇, 善騎射, 節度使夫蒙靈察屢遷至安西副都護·都知兵馬使, 充四鎮節度副使.”

12 René Grousset(1999), “The Chinese in The Pamirs, 747-750,”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Trans. Naomi Walford, Rutgers University Press, p.119, “Kao Sien-chih's two campaigns west of the Pamirs mark the peak of Chinese expansion in Central Asia under the T'ang. China at this time was mistress of the Tarim and Ili basins and of the Issyk Kul region, and suzerain of Tashkent; she commanded the Pamir valleys and was protector of Tokharistan, Kabul, and Kashmir. From his seat in Kucha, Kao Sien-chih acted as virtual Chinese viceroy in Central Asia.”

고선지의 파미르 서부에 대한 두 차례의 원정이란 고선지가 747년의 토번과 750년 석국을 정벌한 사실을 말한다.¹³ 그런데 당나라 시대에는 석국을 '차차'라 불렀다.¹⁴ 이 석국이 당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배경은, 서돌궐에 복속되었던 돌기시(突騎施)가 그들의 쇠퇴를 이용하여 성장하였던 사실과 맞물린다. 그 후 738년쯤 돌기시가 돌로 분열될 무렵 당이 석국을 토벌하였기 때문에 석국도 당의 영향력 안으로 흡수되었다.¹⁵

고선지 장군의 750년 석국 정벌 사실에 대하여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다. 한마디로 위의 내용은 중앙아시아를 실제로 통솔한 인물이 고선지였다는 것을 르네 그루세가 어느 지역까지 망라되었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예시한 글이다. 사실상 중앙아시아의 총독이라고 할 정도로 고선지의 영향력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절대적이었던 사실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해석한다면 무리가 없는 주장이다.

중앙아시아를 틀어쥐었던 고선지가 천보(天寶) 9년 안서도호(安西都護)로서 중앙아시아의 확고한 통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는 『신·구당서』에 기록된 것처럼 석국 정벌의 단초가 되었다. 다름 아니라 고선지가 중앙아시아의 총독으로서 서역에서 당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취한 군사적인 행동이 석국 정벌이었다. 즉 석국이 아랍권과 제휴하여 당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고선지는 휘하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석국 원정을 단행하였다.

고선지의 석국 원정의 원인에 대한 사서의 형식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다. 타슈켄트 지방에 있던 석국¹⁶이 당에 대하여 조공의 예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 고선지의 석

13 『新唐書』卷135, 高仙芝傳, (天寶)9載, 討石國, 其王車鼻施約降條, 4576쪽.

14 방상현(2001), 「고선지의 탈레스 회전」, 『경희사학』 23, 532쪽.

15金子修一(2001), 「中國皇帝と周邊諸國の秩序」, 『隋唐の國際秩序と東アジア』, 東京: 名著刊行會, 47쪽.

16 타슈켄트(Tashkent)가 石國임.

국원정의 도화선이었다. 다시 말해 천보 초까지만 해도 석국은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즉 『당회요(唐會要)』의 「석국전」에 나오는,

천보 초에 (석국은 당에) 여러 번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천보 5년에 (당은) 왕자 나구차비시(那俱車鼻施)를 회화왕(懷化王)으로 봉하면서, 철권(鐵券)을 주었다.¹⁷

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천보 9년부터 석국은 당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석국의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하여 당 조정이 불만을 표현하였던 것이 고선지 장군의 석국 정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석국은 수(隋) 대업(大業)연간에는 서돌궐(西突厥)의 침공으로 그들의 지배 하에 놓였던 때도 있었다.¹⁸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 몰라도 석국이 당을 섬기는 태도가 어정쩡하였다.

당(唐)대에 들어와 석국이 당과 교섭을 갖게 되면서 개원 초에 석국이 당으로부터 책봉 받는 그런 신속(臣屬)관계로 변화되었다. 마침내 개원 초에, 당은 석국을 책봉하는 단계로 바뀌면서 당이 석국의 책봉문제에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후 대식(大食)이 석국을 압박하자, 석국은 대식을 토벌하여 줄 것을 당에 요청할 정도로 양국의 관계는 밀접하였다. 한편 석국도 나름대로 당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정도였다.¹⁹ 그러나 당은 석국에 대한 대식의 위협에 대하여 어떤 방책도 세워주지 않았다.²⁰ 그 결과 석국이 당에 신하의 예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17 『唐會要』 卷99, 石國傳, 1722쪽, “天寶初, 累遣朝貢. 至五年, 封其王子那俱車鼻施爲懷化王, 并賜鐵券.”

18 諏訪義讓(1942), 「高麗出身高仙芝事蹟攷」, 『大谷大學研究年報』 1, 204쪽.

19 『新唐書』 卷221下, 石傳, 明年, 王伊捺吐屯屈勤上言條, 6246쪽.

20 『新唐書』 卷221下, 石傳, 天子不許條, 6246쪽.

안서도호 고선지가 서역의 모든 국가를 평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석국이 당에 대하여 신하의 예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고선지는 석국에 대하여 군사적인 제재 조치를 단행하였다. 안서도호의 4진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한 소륙(疏勒, 오늘날 카슈가르 또는 카스라 부름, 이곳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라 현재도 중국군 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다)²¹에서 출정한 안서도호 고선지는 토루가르트 고개(해발 3,752m)를 넘는 대원정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서양의 사가들이 석국 원정보다 연운보 전투를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였던 이유를 실제 그 루트를 답사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연운보를 함락시킨 고선지 장군이 소발물국을 점령하기 위해 힌두쿠시 산맥의 높은 탄구령(해발 4,600여m)을 넘었던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어느 정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석국으로 향하는 길은 토루가르트 고개를 지나면 높은 고원이지만 푸른 초원이 끝없이 전개되는 유목 지형이다.²²

고선지는 토루가르트 고개를 내려갈 때 중앙아시아의 케르륵 부종과 함께 석국을 향하였다. 필자는 토루가르트 고개를 내려와 자동차로 두 시간 정도 가다 고선지 장군을 만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한 구조물을 보았다. 9세기 초에 지어진 군베스 양식의 건물로 그 안에서 실크로드의 대상들이 쉬어갔던 석조물이었다. 물론 고선지 장군이 석국을 갔을 때보다 반세기 이후에 지어진 건물로 알려졌지만,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건물을 다시 크게 지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아무튼 필자는 고선지 장군의 군대와 맞닥뜨린 그런 묘한 분위기를 느꼈다.

21 카슈가르는 고선지 장군이 토번의 연운보로 진격하는 길과 석국을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다.

22 吐蕃이 한때 장악한 연운보로 향하는 길은 계속 올라가는 길이다. 필자가 겪은 고산증의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다. 실제로 필자와 동행한 인물 가운데는 고산증으로 쓰러진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영남씨의 경우는 눈의 압력이 상승하는 통증을 이기지 못해 중도에 하산하였다. 연운보로 가는 타슈쿠르간(돌무덤이라는 뜻)을 생각하면 지금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고산증은 무섭다.

파미르 고원에서 연운보로 갈 때 체험한 고산증세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초원지대의 연속이었다. 멀리 눈 덮인 텐산산맥을 고산지도 간간이 보며 지났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자동차로 열 시간 이상 달려 이식쿨 호에 도착했다. 이곳이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등장하는 청지(淸池)에서 서북으로 500여 리에 있는 그 유명한 쇠엽성이다.²³ 청지가 바로 오늘날의 이식쿨이다. 호수 둘레가 무려 700여 km나 될 정도로 크다. 석국 원정길에 고산지 장군은 이곳을 지났다. 정확히 말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산지는 쇠엽성에 머물거나 지났다.

쇠엽은 한때 당의 안서 4진 가운데 한 곳이었다. 천보 원년(742)부터 4진은 안서(安西, 龜茲)²⁴ · 언기(焉耆) · 우전(于闐) · 소록에 군대를 상주시킨 도독부(都督府)였다.²⁵ 그런데 안서 4진의 명칭을 언급하였던 신라인이 있었다. 즉 개원 15년(727) 12월 하순 신라 사람 혜초(慧超)가 언기에서 쿠차에 도착하면서 안서 4진을 열거하였다.²⁶ 이는 안서도호부 아래의 4진 도독부다.²⁷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안서 4진 가운데 언기가 쇠엽으로 바뀐 경우는 조로(調露) 원년(679)²⁸ ~ 개원 7년(719) 사이였다.²⁹ 그러나 당이 서둘릴의 잔존세력이 남

23 『大唐西域記』 卷第1, 素葉水城, 1990, 北京: 中華書局, 71쪽. 碎葉城을 素葉水城이라 기록하였다.

24 Antonino Forte(1992), *Chinese State Monasteries in the Seventh and Eight Centuries*, 京都大, p.214.

25 『舊唐書』 卷38, 地理 1, 安西節度使, 撫寧西域條, 1385쪽; 『唐書』 卷215上, 西域上的 焉耆國傳, 詔焉耆條, 6230쪽; 『資治通鑑』 卷215, 唐紀 31, 玄宗天寶元年 是時的 統龜茲條, 6847쪽; M. Aurel Stein(1903), "The Ruins of Endere," *Sand-Buried Ruins of Khotan*, London: T. Fisher Unwin, p.418. 여기서 오렐 스타인이 말하는 四鎮(Kucha, Khotan, Karashahr, and Kashgar)이 그것들이다. 張廣達(1995), 「碎葉城今地考」, 『西域史地叢稿初編』, 上海古籍出版社, 2~3쪽.

26 松田壽男(1956), 「葉と焉耆」, 『古代天山の歴史地理學的研究』, 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358쪽; 桑山正進 編(1992), 『慧超往五天竺國傳研究』, 京都大, 10쪽.

27 大谷勝眞(1925), 「安西四鎮の建置と其の異同に就いて」, 『白鳥博士還曆記念, 東洋史論叢』, 東京: 岩波書店, 286~287쪽.

아있던 쇠엽을 멸망시켰던 때가 조로 원년이었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언기가 쇠엽 지역으로 바뀐 때가 679년쯤이 아닌가 싶다.³⁰ 그런데 쇠엽성은 쇠엽천(Chui River)의 남쪽에 위치하며, 현장(玄奘)의 『대당서역지』와 두환(杜環)의 『경행기(經行記)』에 등장되는 쇠엽과 같은 곳이다.³¹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이백(李白)의 출생지로 알려진 쇠엽성(碎葉城)은 서주(西州)에서 석국의 달라사(怛邏斯)³² 성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였다.³³

여기서 언급되는 안서 4진의 역할이 지금의 신장성지역을 통치하는 지역³⁴에서 상당히 벗어난 곳까지 포함된 때가 있었던 모양이다. 추이(Chui) 강의 유래에 대하여는 이 강에서 많은 말들이 물을 마시며 ‘취취’하는 소리에서 따온 의성어가 강이름이 되었다고 현지인들은 이야기한다. 이는 이곳 초원지대에서 말을 많이 가진 유목기마민족이 오랫동안 생활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방증이다.

고선지의 제3차 서역 원정은 걸사(搆師)를 격파하고 그 왕 발특몰(勃特沒)을 사로잡아 개선한 750년 2월 전투였다. 이런 사실을 사마광은 『자치통감』에서 천보 9년(750) 2월에

- 28 王小甫(1991), 「唐初安西四鎮의棄置」, 『歷史研究』 4, 123쪽. 王小甫는 焉耆가 碎葉으로 바뀐 때를 露 元년이라고 하였다.
- 29 韓國磐(1977), 「唐朝和邊境各族關係的進一步發展」, 『隋唐五代史綱』, 北京: 人民出版社, 225쪽; 糸賀 昌昭(1971), 「長安とバグダード」, 『ペルシアと唐, 東西文明の交流 2』, 東京: 平凡社, 198~199쪽.
- 30 金子 修一(2001), 앞의 논문, 46쪽; 糸賀昌昭(1971), 위의 논문, 198쪽.
- 31 黃麟書(1979), 「唐代碎葉城考」, 『邊塞研究』, 臺北: 造陽文學社, 31~32쪽.
- 32 달라스라는 지명은 『新·舊唐書』 등에서는 怛邏斯이다. 본문에서 상황에 따라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였다.
- 33 『古行記校錄』의 『杜環經行記』 碎葉國條, p.1a(『海寧王靜安先生遺書 37』, 長沙: 商務印書館, 1940); 饒宗頤(1982), 「李白出生地-碎葉」, 『選堂集林史林, 中冊』, 香港: 中華書局, 616쪽.
- 34 閔泳珪(1963), 「高仙芝/고선지 파미르 西쪽에 積된 韓國人의 발자국」, 『韓國의 人間像 2』, 신구 문화사, 64쪽. 原載: 『新天地』(1963), 8-7.

안서절도사 고선지가 걸사를 공파하고, 그 왕 발특몰을 사로잡았다. 3월 경자(庚子)에 발특몰의 형 소가(素迦)를 걸사 왕으로 세웠다.³⁵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고선지가 토번 연운보와 소발불국을 정벌한 후 3년이 경과하여 걸사국이 토번과 제휴하여 소발불국 내에 주둔하는 당의 진군(鎭軍)에 조달되는 군량 루트를 차단할 위기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원정이다.³⁶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토화라(吐火羅)의 섭호(葉護, 토화라에서 왕의 호칭임) 실리달가라(失里怛伽羅)가 이런 사실을 표로 올리자 당 현종이 749년 11월 걸사 공격을 허락하였기 때문이다.³⁷

고선지가 총령(葱嶺, 오늘날 파미르 고원)의 서쪽 나라 토화라(옛날의 大夏 또는 박트리아왕국)의 간청으로 걸사국을 공격하게 된 연유에 대한 설명은 『자치통감』보다 『신당서』의 「토화라전」이 자세하다.

그 후 인근 오랑캐 갈사가 토번을 끌어들이 토화라 공격을 모의하자, 이에 섭호 실리망가라가 안서도호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 당 황제는 군사를 보내 갈사를 토벌하도록 명령하였다.³⁸

이는 파미르 고원 서쪽 걸사국이 토번과 연합하여 걸사국의 서쪽에 있는 토화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토화라의 왕 실리망가라가 자위수단으로 당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는

35 『資治通鑑』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9載 2月, “安西節度使高仙芝破羯師, 虜其王勃特沒. 三月, 庚子, 立勃特沒之兄素迦爲羯師王.”

36 『資治通鑑』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9載 2月條의 胡三省註, 6898쪽.

37 『資治通鑑』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8載 11月 乙未條, 6897쪽.

38 『新唐書』卷221下, 吐火羅傳, 6252쪽, “其後, 鄰胡羯師謀引吐蕃攻吐火羅, 於是葉護失里忙伽羅丐安西兵助討, 帝爲出師破之.”

내용이다.³⁹ 그 결과 안서도호 고선지가 당 현종의 명령을 받아 결사를 공격하였다는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그대로다.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 가는 이유는 고선지가 독자적으로 결사국을 토벌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중앙아시아에서 토번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이 재편되어 가려는 움직임 속에서 결사국이 토번과 연합하여 당에 도전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 현종의 명령을 받은 고선지는 파미르 고원 서쪽 끝자락 결사를 격파하였고, 그 전리품은 결사 왕의 생포였다.

같은 해(750) 12월 고선지가 석국을 정벌한 이유도 결사국이 토번과 제휴하였기 때문으로, 당에 대하여 전일과 달리 홀대하여 빚어졌던 상황과 흡사하다. 그렇다면 고선지에 의한 석국 정벌은 장차 토번과 이슬람 세력이 연합하여 당에 대항할 전선이 구축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정확히 말해 중앙아시아에서 당 중심의 체계모니가 이슬람 세력으로 자리바꿈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제동하기 위한 조치가 고선지의 석국 정벌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이때 고선지가 석국만 정벌하였던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이다. 즉 『신당서』 권5 현종본기 천보10년(751) 정월 조에

무신 일에, 안서사진절도사 고선지가 돌기시 가한(可汗)과 석국 왕을 사로잡았다.⁴⁰

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당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려 하였기 때문에 고선지가 이러한 전조를 보였던 석국 왕과 돌기시 가한을 사로잡았던 것

39 楊大奎(1995), 「高仙芝 장군 西域大遠征 연구」, 『중국연구』, 110쪽.

40 『新唐書』 卷5, 玄宗本紀, 天寶十載(751), 148쪽, “正月, 戊申, 安西四鎮節度使高仙芝執突騎施可汗及石國王.”

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돌기시의 서쪽에 대석이 있고, 돌기시의 남쪽에 쇠엍이 위치하였다.⁴¹ 그런데 수나라 대엽 연간에 강(사마르칸드)과 석(타슈켄트) 두 나라가 모두 사신을 보내어 대석을 섬겼던 사실이 중요하다.⁴² 이는 당과 새로운 연합 세력 이슬람과의 충돌을 예고하는 새로운 상황 조성이다.

고선지의 석국 정벌과 관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자. 고선지가 기병을 거느리고 멀리 있는 쇠엍성을 지나 석국을 평정하고 돌아왔던 사실에 대해 『구당서』 고선지전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전하고 있다.

9년(고선지는) 군사를 거느리고 석국을 토벌하여 평정하였고, 그 국왕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선지는 본성이 탐욕스러워 석국의 큰 덩어리 푸른색 보석 슬슬(瑟瑟) 십여 가마와 황금을 대여섯 낙타에 실을 만큼 노획하였는데, 진귀한 말과 보옥은 수없이 많았다. 처음에 고사계는 선지가 나약하고 굼떠 스스로 자립할 수 없을까봐 무척이나 걱정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큰 공을 세웠다. 집의 재산이 거만이나 되어 자주 나누어 주기를 잘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바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 그의 말이면 응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⁴³

이는 개원 9년(750) 고선지 장군이 소록에서 서쪽으로 파미르 고원을 지나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남으로 진격하였던 토번 정벌과 다르게 소록에서 서북지역을 지나 투루가르트 고개를 지나 키르기스 평원을 달려 서역의 시르 강 중류에 자리잡은 타슈켄트(Tashkent)에서

41 『新唐書』卷221下, 碎葉傳, 北突騎施南鄙也條, 6246쪽.

42 『新唐書』卷221下, 大食傳, 康·石皆往臣之條, 6262쪽.

43 『舊唐書』卷104, 高仙芝傳, 九載, 3206쪽, “將兵討石國, 平之, 獲其國王以歸. 仙芝性貪, 獲石國大塊瑟瑟十餘石·眞金五六駝·名馬寶玉稱是. 初, 舍鷄以 仙芝爲懦緩, 恐其不能自存, 至是立功. 家財鉅萬, 頗能散施, 人有所求, 言無不應.”

전공을 세웠던 것과 관련된 간략한 기록이다.⁴⁴ 석국은 원래 강국(康國, Samarkand)의 지서(枝庶)의 분왕(分王)이 다스렸던 나라 가운데 하나였으며, 강국의 왕의 성(姓)은 온(溫)으로 본래 월(月)씨 후손이다.⁴⁵ 월씨는 원래 한 무제 시대에는 흉노의 서방에 위치하였다.

강국 사람들은 상인들이 많아 다른 나라와 교역을 잘하였던 것으로 유명하다. 개원 연간 당에 호선무(胡旋舞)를 추는 여인을 바쳤던 나라 가운데 하나다.⁴⁶ 앞에서 지적하였던 것처럼, 그 후 당은 천보 5년(746)에 석국의 나구차비시를 회화왕으로 책봉하였다.⁴⁷ 아무튼 위의 사료는 천보 9년(750)에 고선지 장군이 석국을 평정하였다는 것을 전한다. 고선지 장군이 석국을 평정하였던 시기를 『자치통감』에서는 천보 9년 12월 을해(乙亥) 이후라고 자세히 밝히고 있다.⁴⁸ 그런데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에서는 천보 9년이 아닌 10년이라고 다르게 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차가 발생하게 된 까닭은 고선지 장군이 석국을 공격한 것이 천보 9년 12월 을해 이후였기 때문이다. 즉 고선지에 의한 석국 정벌이 그 이듬해 천보 10년 초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정벌에 관한 시기에 대한 기록이 사서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고선지에 의한 정벌의 시기에 대하여 사서마다 차이를 보였던 제일 큰 이유는 석국의 위치가 강거(康居)의 동북이며, 또한 대원(大宛)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당에서 너무나 먼 나라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고선지는 석국 정벌을 천보 9

44 정수일(2001), 「셀크로드를 통한 교류의 역사적 배경」, 『셀크로드학』, 창작과비평사, 119쪽.

45 『唐書』 卷221下, 康國傳, 康者條, 6243쪽; 內田吟風(1975), 「西突厥初世史の研究」, 『北アジア史研究-鮮卑柔然突厥篇』, 京都: 同朋舎, 445쪽.

46 『唐書』 卷221下, 康國傳, 善商賈條, 6244쪽; 이른바 康國에서 갈라진 昭武 '九姓' 가운데 米國이 당 開元 연간 胡旋女를 바쳤으며, 그밖에 吐火羅 동북쪽에 있는 俱蜜國도 胡旋舞女를 바쳤다(『唐書』 卷221下, 米康傳, 開元時條 胡旋女, 6247쪽; 俱蜜國傳, 開元中條, 獻胡旋舞女, 6255쪽).

47 『冊府元龜』 卷966, 外臣部, 繼襲 1 '石國' 天寶5載封其王子那偁車鼻施爲懷化王條, 11365쪽; 諏訪義讓(1942), 앞의 논문, 204쪽.

48 『資治通鑑』 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9載 12月條, 6901쪽.

년 12월부터 이듬해 천보 10년 초까지 계속하였다. 이때 고선지 장군은 석국 서북의 소돌성(蘇咄城)까지 습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⁴⁹ 이는 고선지에 의해 석국이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무튼 고선지가 석국 왕 차비시(車鼻施)를 당에 압송함으로써 그가 원정군을 지휘한 장군으로서의 탁월함과 명성을 날렸던 것⁵⁰을 입증하는 것은 그가 장안으로 개선한 후 높은 관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고선지의 제1차 석국 정벌이라 함은 석국이 당에 조공하지 않자, 이를 징벌하기 위해 석국 왕과 왕족을 잡아 고선지가 당으로 개선하였던 전쟁을 말한다. 그렇다고 석국이 당에 조공을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만으로 고선지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단견이다. 당에 조공을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석국은 당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컸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당에 대한 조공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천보 9년 12월에 시작된 고선지 석국 정벌⁵¹은 그 다음해 4월⁵²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고선지의 제1차 석국 정벌에 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중국의 여러 사료를 통해 보건대, 고선지의 서역 원정이 5차례⁵³나 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그 가운데 석국 왕을 포로로 잡아 장안으로 끌고 왔을 정도로 대규모의 석국 정벌을

49 『讀史方輿紀要』卷65, 陝西 14, 石國城條, 2800쪽.

50 방상현(2001), 앞의 논문, 548쪽.

51 『資治通鑑』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9載 12月條, 6901쪽.

52 『資治通鑑』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10載 夏4月條, 6907쪽.

53 고선지의 제1차 서역원정은 開元 말에 기병 2천으로 黑山과 碎葉에서 達奚部를 격파하였을 때이며(『舊唐書』卷104, 封常清傳, 開元末條, 3207쪽), 제2차 서역원정은 747년 봄에 쿠차로 출발하여 7월에 連雲堡 전투와 吐駟嶺을 넘어 小勃律國을 정복하고 9월에 쿠차로 개선한 전쟁이다. 제3차 서역 원정은 고선지가 罽師를 격파하고 그 왕 勃特沒을 사로잡아 개선하였던 750년 2월의 전쟁이다. 고선지의

단행하였던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아랍 세력이 규합하는 것을 당이 인지하였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고선지가 석국 왕을 생포할 정도로 큰 전과를 올리고 개선한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아랍의 연합 세력의 결집에 촉매 역할을 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당의 석국 정벌로 중앙아시아 경영에서 발판을 상실하는 대전환기를 맞았던 것만은 분명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의 사료에서 고선지의 성품이 탐욕스러워 석국에서 많은 보석 슬슬과 명마를 전리품으로 갖고 돌아왔다고 기록한 점이다. 물론 고선지가 석국을 정벌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는 것을 일러준다. 그러나 이는 고선지가 안록산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 현종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그를 죽였던 사실을 조금이라도 합리화시키려는 『구당서』 저자의 의도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 아무튼 석국 동남쪽에 있는 큰 산에서 슬슬이 나온다는 기록이 있다.⁵⁴ 위의 사실 가운데 명마를 얻었다는 대목은 중요한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중국이 그토록 찾았던 한 무제 시대의 한혈마(汗血馬)와의 연관성 때문이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멀지 않은 페르가나 지역이 옛날 한혈마가 나던 대원이기 때문이다.

고선지는 무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짐이 어려서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의 아버지 고사계는 그런 고선지가 자라서 어찌 독자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을까를 염려할 정도였다. 고사계의 뛰어난 가르침으로 고선지가 석국을 정벌하는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구당서』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이는 『구당서』에서 파미르 고원을

제4차 서역원정은 750년 12월 石國을 정벌하고 왕과 突騎施可汗, 吐蕃酋長, 罽師王을 잡아왔던 때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고선지의 제5차 서역원정은 恆羅斯 전투를 말한다. 이때 탈라스 전투가 동·서 문명 교류사에서 주목을 받은 유명한 전쟁으로 751년 4월부터 8월 사이의 원정이다.

54 『新唐書』 卷221下, 石國傳, 東南有大山, 生瑟瑟條, 6246쪽. 타슈켄트 부근 산에서瑟瑟이 옛날에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날 그곳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넘어 소발를국을 정벌하였던 것 보다 고선지의 석국 정벌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고선지가 많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은 그가 많은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잘 나누어 주었던 것이 큰 이유였다고 주장하여, 고선지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천보 9년 고선지의 석국 정벌 사실에 대해 『구당서』와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신당서』의 고선지선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다.

9년 석국을 토벌하였다. 그러나 왕 차비시가 항복을 약속하였는데도, 선지는 그를 사로잡아 바쳤다. 석국 왕은 궁궐 문(장안성의 개원문) 앞에서 참수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서역이 (당에) 불복하게 되었다. 석국 왕자가 대식(大食)으로 달려가, 군사를 요청하여 달라사성에서 선지를 공격하여 그 원통함을 풀었다. 선지의 사람됨이 탐욕스러웠기 때문에 석국을 격파한 후, 남색 보석 술술 10여 곡(斛)을, 또 황금은 5~6마리 낙타로 실어 나를 만큼의 양을 노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마와 보옥도 아주 많이 얻었다. 선지는 거만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다. 그런데 재물을 아끼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재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가를 묻지 않았다.⁵⁵

물론 『구당서』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구당서』와 차이가 있다면 석국이 항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석국 왕을 포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국 왕이 장안성의 개원문에서 참수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이때 석국 왕자가 탈출하여 대식으로 달려가 석국 왕의 신원을 풀게 해달라고 간원(懇願)했다는 점이다.

『신당서』 저자도 고선지를 탐욕스러운 인물로 몰고 갔지만 『구당서』 저자처럼 그가 재물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저하지 않고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고선지

55 『新唐書』卷135, 高仙芝傳, 九載, 4578年, “討石國, 其王車鼻施約降, 仙芝爲俘獻闕下, 斬之, 由是西域不服. 其王子走大食, 乞兵攻仙芝於怛邏斯城, 以直其冤. 仙芝爲人貪, 破石, 獲瑟瑟十餘斛·黃金五六囊駝·良馬寶玉甚衆, 家貲累鉅萬. 然亦不甚愛惜, 人有求輒與, 不問幾何.”

라는 인물이 탐욕스러웠다는 주장과는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이다. 실제 고선지는 안서도호가 된 후, 부하들이 고구려 유민이라는 사실로 능멸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하면서 한편으로 재물을 주어 회유할 정도로 지휘권 확보에 애를 먹었다. 이는 고선지가 왜 그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했는가 하는 의문의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고선지가 범의 재단을 제멋대로 하였다는 말은 더욱 아니다.

한 예로 고선지에게 형제나 다름없는 유모의 아들 정덕전(鄭德詮)이 있었다. 그런 그가 고선지를 대신하는 부장 봉상청(封常淸)이 군사를 통솔할 때, 이때 봉상청 앞으로 말을 타고 질주하며 지나치는 무례를 범하였다. 봉상청은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그를 잡아 초주검이 될 정도로 매질하였다. 그후 고선지가 달해부 반란 진압의 원정에서 돌아와 봉상청에게 아무런 문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삼성은 고선지가 공과 사가 분명한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⁵⁶

게다가 고선지를 호삼성도 오랑캐라고 기록하였던 사실⁵⁷로 미루어 보면, 고구려 멸망으로 8세기 중반 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홀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된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에는 왜 고선지가 그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했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다만 고구려 유민 고선지를 폄하하겠다는 게 사마광의 주된 생각인지 모른다.

천보 9년 12월조를 보자.

안서사진절도사 고선지는 석국과 거짓 화친을 맺으며, 군사를 거느리고 습격하여, 그 왕과 휘하의 무리를 포로로 삼아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노인과 젊은이들을 모두 죽

56 『資治通鑑』 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6載 12月初, 仙芝爲都知兵馬使條, 6887~6888쪽.

57 『資治通鑑』 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6載 12月の 胡三省條, 6889쪽, “安祿山·安思順·哥舒翰·高仙芝, 皆胡人也.”

었다. 선지는 성품이 탐욕스럽기 때문에, 남색 보석 슬슬 10여 가마나 되는 분량, 황금을 낙타 5·6마리에 실을 수 있는 정도 약탈하였으며, 기타 사람·말·잡화 등도 매우 많았는데, 이들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⁵⁸

사마광은 고선지를 살육을 즐길 뿐만 아니라 욕심 많은 인물로 묘사하는 데 급급하였다. 만약 고선지가 석국의 늙은이와 젊은이를 마구 죽였다면 『신·구당서』에 그런 기록이 있어야 옳지 않을까? 이는 아마도 사마광이 이민족 출신으로서 중국역사에서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을 평가절하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그 나름대로의 서술방법인 듯싶다. 사마광이 고구려 유민 평로(平盧)·치청(淄靑)절도사 이정기(李正己)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자치통감』에서 고구려 유민 이정기의 행적을 언급하면서 그의 벼슬에 대한 언급을 상당 부분 삭제한 것도 마찬가지이다.⁵⁹

한편 크리스토퍼 베크위즈(Christopher I. Beckwith)는 750년에 고선지가 석국을 공격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석국과 그 주변국의 힘의 역학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때 고선지는 석국 왕 차비시⁶⁰ 뿐만 아니라 왕비와 왕자, 공주도 포로로 하는 전과를 올렸다.⁶¹

이와 관련된 사실은 『신당서』의 석국전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58 『資治通鑑』 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9載, 6901쪽, “安西節度使高仙芝僞與石國約和, 引兵襲之, 虜其王及部衆以歸, 悉殺其老弱. 仙芝性貪, 掠得瑟瑟十餘斛, 黃金五六囊駝, 其餘口馬雜貨稱是, 皆入其家.”

59 지배선(2000), 「고구려인 李正己의 발자취」, 『東方學志』 109, 178쪽.

60 『新唐書』 卷135, 高仙芝傳 九載條, 4578쪽.

61 『通典』 卷193, 石國傳에 인용된 杜環의 『經行記』 天寶中 嶺西節度使高仙芝擒其王及妻子歸京師條, 5275쪽; 田坂興道(1964), 「唐宋時代の中國における回教徒」, 『中國における回教の傳來とその弘通』, 東京: 東洋文庫, 343쪽.

천보 초, (당은 석국의) 왕자 나구차비시를 회화왕으로 봉하면서 철권을 주었다. 얼마 후에 안서절도사 고선지가 (석국이) 번신(蕃臣)으로서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을 탄핵하기 위하여, 석국 토벌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석국 왕이 항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고선지는 사자를 보내어 생포한 석국 왕을 (장안성의 서북쪽에 있는) 개원문에서 헌상하였다. 그런데 장안성에서 석국 왕을 베어 죽이자, 이때부터 서역 모두가 이를 원망하였다.⁶²

이를 두 가지로 분석하고 싶다.

첫째는 석국 왕자 나구차비시가 천보 5년(746)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석국이 천보 초에 당나라를 섬겼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석국이 번신으로서 당에 대하여 신하의 예를 갖추지 않은 것이 서역을 관장하는 안서도호 고선지가 석국을 정벌하게 된 빌미였다. 이와 같이 석국이 당에 조공의 예를 하지 않았던 것은 석국 내부 상황과 관련된 문제인 듯싶다. 다음 아닌 천보 5년(746) 이후부터 석국 왕과 부왕 제도가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⁶³ 정확히 말해 천보 5년 3월에 석국 왕이 당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말 15필을 바쳤으며, 같은 해 같은 달에 석국 부왕도 당에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는 것이 그것이다.⁶⁴ 이는 석국의 왕과 부왕이 당에 대하여 각각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쉰쥬정(薛宗正)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왕 이날토둔(伊捺吐屯)은 당에 충성을 하였으나 석국 왕 특룩(特勒)은 대식에 충성하려는 상반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⁶⁵ 이러한 때에 안서절도사 고선지는 석국이 번신의 예를 다하지 않

62 『新唐書』卷221下, 石傳, 6246쪽, “天寶初, 封王子那俱車鼻施爲懷化王, 賜鐵券. 久之, 安西節度使高仙芝劾其無蕃臣禮, 請討之. 王約降, 仙芝遣使者護送至開遠門, 俘以獻, 斬闕下, 於是西域皆怨.”

63 『册府元龜』卷971, 朝貢部 第4, 天寶 5載 3月條, 11412쪽.

64 『册府元龜』卷971, 朝貢部 第4, 天寶 5載 3月, 石國王遣使來朝條, 11412쪽; Edouard Chavannes(1903), “K'ang (Sogdiane),”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cs) Occidentaux*, p.142.

65 薛宗正(1992), 「唐朝治下的後西突厥諸羈縻政權」, 『突厥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691쪽.

는 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은 어찌면 당연하다.⁶⁶ 그 까닭은 안서절도사가 서역제국의 방위를 담당하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이다.⁶⁷

둘째는 고선지 장군이 조정에 대하여 석국 정벌을 청원하였던 것은 그의 직책상 당연하다는 사실이다. 큰 이유는 석국이 당에 대해 신하의 예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고선지 장군이 중앙아시아의 석국(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의 반기를 제압하지 못하면 자신의 파직은 물론이고 고구려 유민이라는 사실 때문에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선지를 늘 괴롭혔던 것은 당에 의해 멸망된 고구려 유민이라는 사실로 안서사절도사로 임명된 후에도 자신의 부하로부터 모욕적인 멸시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고선지는 전승의 대가로 받은 재물의 대부분을 못된 부하를 달래기 위해 퍼주었다.

고선지는 석국이 종전과 달리 당에 대하여 조공을 게을리 하는 사실을 예의 주시하였다. 그러나 사료에서는 이런 속사정보다 고선지가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석국을 정벌하였던 것으로 기록한 것은 당연하다. 석국이 당에 대해 조공을 게을리 하기 이전까지는 고선지에 의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고선지의 747년 연운보 전투와 소발률국 정벌의 개가로 72국이 당에 조공을 바쳤던 상황이 반전되는 첫 신호탄처럼 석국이 당에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은 안서도호부를 책임지고 있는 고선지에 게 심각한 문제였다.

이런 상황을 르네 그루세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즉

66 『新唐書』卷221下, 石傳, 安西節度使高仙芝勒其無蕃臣禮條, 6246쪽; 張星烺(1983a), 「石國交涉」, 『中西交通史料彙編』3, 70쪽.

67 田村實造(1969), 앞의 논문, 72쪽.

투르크 왕 혹은 중국에서 차비시라고 불리는 타슈켄트의 투둔은 중국에 대하여 거듭 충성을 맹세하였다(743, 747, 749). 그러나 750년 당시 쿠차 절도사 고선지는—당의 지방행정 장관으로 또는 총독으로—변경의 방어 책임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황제한테 꾸짖음을 들었다.⁶⁸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르네 그루세는 석국 왕이 당에 대한 의무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석국 왕이 당에 신하의 예로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안서절도사 고선지의 입장에서 보면,⁶⁹ 석국 정벌의 주장은 어쩔 수 없는 청원이었다. 그 이유는 안서절도사 고선지 책무 가운데 하나가 서역 번국의 조공을 관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석국이 번국의 예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의 서역경영에 대하여 도전장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다.⁷⁰ 게다가 고선지 장군은 전일 소발률국이 당에 조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종의 명령으로 파미르 고원을 지나 연운보와 소발률국을 차례로 공격하여 들어간 주인공이었다. 그렇다면 석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고선지 장군이 묵인하였다면, 이는 안서절도사로서의 소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때 고선지 장군이 석국 정벌을 청원하지 않았어도 현종은 석국 정벌을 고선지에게 명령하였을 게 틀림없다. 이 점은 고선지 장군이 석국 왕을 잡아다 바쳤을 때 조정에서 석국 왕

68 René Grousset, Trans. Naomi Walford(1999), "The Collapse of T'ang Domination in Central Asia,"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Rutgers University Press, p.119, "The Turkic king or tudun of Tashkent, called in Chinese Kiu-pi-shö, had repeatedly paid homage to China(743, 747, 749). Yet in 750, Kao Sien-chih, then 'protector'—that is, governor or imperial commissioner—of Kucha, rebuked him for not fulfilling his obligation as guardian of the marches."

69 『唐鑑』卷9, 玄宗中, 12月高仙芝爲安西四鎮節度使條, 82쪽, 上海: 商務印書館, 1936.

70 前嶋信次(1971a), 「タラス戰考」, 『東西文化交流の諸相』, 178쪽.

을 죽인 사실에서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⁷¹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고선지 장군이, 이 때 석국 정벌을 청원하였던 사실은 세계국가 성격을 지닌 대당제국(大唐帝國)의 존립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 이유는 당의 입장으로 보아서 아랍 제국에 대한 최전방의 보루가 석국을 포함한 그 일대 지역이기 때문이다.⁷² 중앙아시아에서 고선지가 활약하였을 때, 당의 영향권에는 석국보다 더 서방지역인 사마르칸드도 포함되었던 것 같다. 아무튼 당나라 시대 석국은 ‘마라칸다’라고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도시 국가였다. 또 고선지가 걸사 왕을 생포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까지 안서도호 고선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 같다.

오늘날 위치를 바꾸어 만든 아프리카시암 박물관의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의 우측 벽면의 그림에서 우리 역사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우측 벽화에 당 황제가 그의 비빈과 더불어 뱃놀이하는 그림과 아울러 사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은 당의 영향력이 사마르칸드에까지 강력하게 미쳤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듯싶다.⁷³ 또한 오늘날 옮겨 다시 그린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 중앙의 오른쪽에 조우관을 쓴 두 사신에 초점이 모아진다.⁷⁴ 다시 말해 고구려 말기에 사마르칸드와 함께 당을 협공하기 위해 연개소문이 파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싶다.⁷⁵ 이는 고구려가 연개소문 이전부터 북위(北魏) 등 외국과 교류를 매우 빈번하게 하였다는 사실이다.⁷⁶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세계

71 『續通志』 卷237, 唐列傳 37, 高仙芝 仙芝爲俘獻 闕下斬之條, 4668쪽.

72 Stuart Legg(1970), "Blue Sky and Grey Wolf," *The Heartland*, London : Secker & Warburg, p.173.

73 아프리카시암 궁전의 우측 벽면의 중국과 관련된 벽화 설명은 사마르칸드 고고학연구소 부소장의 설명을 옮긴 것이다.

74 『北史』 卷94, 高麗傳, 士人加插鳥羽條, 3115쪽.

75 지배선(2006), 『고구려·백제 유민 이야기』, 혜안, 136쪽 ; 『唐書』 卷127上, 回鶻 下, 高麗莫離支條, 6138쪽.

학계에서 아프리카시암 서쪽 벽화의 두 인물이 신라, 고구려. 발해에서 온 분명한 ‘고대 한국인’이라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선지 장군의 석국 정벌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는 고선지 장군이 서쪽의 변방 질서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대당제국을 유지시키기 위한 자위수단의 하나였다고 해석하고 싶다. 다시 말해 석국이 번국의 예를 갖추지 않겠다는 것은 서역에서 당의 종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는 당의 입장에서, 석국의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서방에 있는 많은 아랍과 돌궐 국가들도 당에 충성하기는커녕 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대항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추정하는 이유는 석국 주변의 아랍과 돌궐도 그 나름대로의 노예제도를 둘 정도로 정복욕이 왕성한 민족이었다는 사실이다.⁷⁷ 그중에서도 아랍계통이 전투적일 뿐만 아니라 호전적이었다. 이번 중앙아시아(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답사에서 본, 머리 부분이 손상된 소그드나 돌궐의 석상이 모두 아랍의 침공으로 파괴된 것이라는 사실이 아랍계의 호전성을 입증해준다.

고선지에 의한 석국 정벌은 아랍권의 발흥을 막는 중요한 원정이었다. 그런데도 석국을 공격하였던 것을, 마치 고선지 장군의 개인 욕심으로 치부하는 사가들의 자세는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확히 말해 당이 제1차 석국원정 이후 제2차 석국원정의 실패로 인한 중앙아시아에서의 패권 상실을 인정하기 싫은 속내라고 보면 옳다. 이와 같이 잘못된 사료를 그대로 해석한 경우는 에두아르 사반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고선지를 비롯한 그의 군대를 모두 욕심에 가득 찬 무뢰한으로 몰

76 권영필(1996), 「고구려 회화에 나타난 대외교섭」,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 한국미술사학회, 180쪽 ; 권영필(1997), 『실크로드의 미술—중앙아시아에서 한국까지』, 열화당, 151쪽.

77 馬長壽(1958), 「論突厥人和突厥汗國的社會變革, 下」, 『歷史研究』 4, 54쪽.

아붙였다.⁷⁸ 정확히 말해 에두아르 사반도 고선지 휘하의 군대가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당의 사가처럼 물욕이 많아 석국을 침공하였던 것으로 비판하였는지 모른다. 이는 그가 중국의 사서에 나오는, 당에 의하여 패망한 고구려인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를 모르고 사료를 분석할 능력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서 야기된 문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는 석국이 당에 번신의 예를 다하지 않은 것은 그 주변 국가들과 연합한 조직적인 반발이라는 사실이다.⁷⁹ 다시 말하여 석국이 자기 나라만 불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 연합하여 당에 대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리하여 석국 주변 나라들도 모두 당에 대하여 번신의 예를 갖추지 않았던 것 같다.

천보 9년 고선지는 병사를 거느리고 석국을 평정하고, 그 왕을 사로잡아서 돌아왔다.⁸⁰ 이와 관련된 기록이 『구당서』의 이사업전(李嗣業傳)에도 있다. 즉

(天寶) 10년(751) (이사업은) 또 고선지를 따라서 석국을 평정하였다. 이때 오랑캐 아홉 나라와 아울러 배반한 돌기시를 격파하였다.⁸¹

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석국이 독자적으로 당에 대하여 조공의 예를 중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사료이다. 그 이유는 석국을 위시한 돌기시와 아울러 주변의 서역 아홉 나라가 당에 번신의 예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선지 장군이 석국 정벌을 조정에 청원하였던 것은, 서역에서 당의 종주권을 유지시켜야 하는 책무가

78 Edouard Chavannes(1903), p.297.

79 羅香林(1955), 「唐代天可汗制度考」, 『新亞學報』 1, 231쪽.

80 『冊府元龜』 卷358, 將帥部, 立功 11 高仙芝(天寶)9載將兵討石國平之條, 4246쪽.

81 『舊唐書』 卷109, 李嗣業傳, 3298쪽, “天寶條, 十載, 又從平石國, 及破九國胡并背叛突騎施.”

있는 안서절도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 조정에 석국 정벌을 청원하였던 것은 고선지 장군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직책상의 업무였다. 그때 석국 등이 조직적으로 당에 대항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은, 이때 서방세계에서 사라센 세력이 규합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결국 고선지 장군은 서방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사라센 세력을 꺾어야 한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석국 정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고선지는 당에 불복하는 석국과 그 주변의 아홉 나라와 돌기시 정벌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⁸²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석국 주변의 아홉 나라와 돌기시가 얼마 전까지 당에 번신의 예를 취하였던 나라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신장성 사회과학원 쉘쑹정 교수는 석국과 돌기시와의 전쟁터는 다르지만 이때 고선지는 북정절도사(北征節度使) 왕정견(王正見)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하였던⁸³ 결과였기 때문에 석국 왕과 아울러 돌기시가한을 장안에 함께 바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⁸⁴ 그렇다면 이는 서역에서 당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서아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의 서북방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고선지가 물욕에 어두워 석국을 정벌하였다는 당의 사가들과 이를 그대로 추종하는 연구자들의 주장들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고선지 장군이 석국을 정벌한 것은 서방세계를 제압함으로써 아랍권의 당나라 침공을 상당기간 봉쇄하였던 원정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석국과 아울러 서역의 아홉 나라와 돌기시가 당의 명령을 거부해 이들을 고선지 장군이 격파한 것은 아랍 연합전선의 형성을 저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82 前嶋信次(1971a), 앞의 논문, 184쪽.

83 『古行記校錄』, 「杜環經行記」, 碎葉國의 天寶 7年條, p.1a. 薛宗正은 天寶 7년은 10년을 잘못 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84 薛宗正(1992), 앞의 논문, 694쪽.

예시하면 천보 원년(742)부터 6년까지 석국은 일 년에 한번, 어떤 해는 무려 세 번이나 당에 조공하였던 경우도 있다.⁸⁵ 그런데 천보 6년 이후 석국은 당에 조공을 하지 않다가 2년이 지나 천보 8년 8월 왕자 원은(遠恩)을 당에 파견하였다.⁸⁶ 그렇다면, 천보 6년부터 9년까지 석국은 당에 한번 조공한 셈이다. 따라서 당시 서역국가의 조공을 챙겨야 할 의무를 가졌던 안서절도사 고선지가 취한 군사적인 조치는 그의 의무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안서절도사 고선지가 전공과 전리품에 대한 욕심으로 석국을 정벌하였다는 뒤쓰맨(呂思勉)의 견해도 에두아르 샤반과 같은 실수의 반복이다.⁸⁷ 만약 고선지 장군이 석국을 정벌하였던 것이 개인의 욕망이었다면, 당군이 패한 후 현종이 응당 고선지를 문책하였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고선지의 군사가 탈라스 전투에 패배한 후 그런 조치가 없었다.

고선지의 명령으로 호송되었던 석국 왕이 장안성의 서북쪽 개원문 앞에서 참살되었던 것도 못한 당의 정치인 탓으로 돌리는 데 문제가 있다. 고선지가 747년 토번의 연운보 함락 후 탄구령을 넘어 소발를을 점령하고 소발를 왕 소실리지(蘇失利之)를 생포하여 개선하였을 때 신병 처리가 참고가 될 듯싶다.

황제(현종)가 (소발를국 왕) 소실리지를 사면하여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우위 위장군으로 임명하고, 자주 빛갈의 도포와 황금으로 된 허리띠를 주어 (황실에서) 숙위하도록 명령하였다.⁸⁸

85 『册府元龜』 卷971, 外臣部, 朝貢 4(天寶 元年 3月) 石國條 이후, 11411~11412쪽. 天寶 원년 이후 石國이 당에 조공하였던 시기는, 원년 3월, 2년 12월, 3년 4월, 4년 7월, 5년 3월은 두 차례(石國왕과 石國부왕이 각각 조공), 윤 10월, 6년 6월이다. 도합 8차례였다.

86 『册府元龜』 卷971, 外臣部, 朝貢 4(天寶 8載 8月) 石國王 子遠恩來朝條, 11413쪽.

87 呂思勉(1961), 「開天邊事二」, 『隋唐五代史』, 上海: 中華書局, 195~196쪽.

88 『新唐書』 卷221下, 小勃律國傳, 6252쪽, “帝赦蘇失利之不誅, 授右威衛將軍, 賜紫袍, 黃金帶, 使宿衛.”

이처럼 당나라는 자신들에게 대항하다 포로가 되어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벼슬까지 주었다. 이는 적국 왕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의 생사여탈권을 중국 황제가 가졌다는 사료이다.

석국 왕을 당이 죽인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당에 대항하려는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로 당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석국 왕이 중심이 되어 아홉 나라 이상이 반당전선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목으로 당이 석국 왕을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책부원구』에 의하면, 고선지 장군이 돌기시 가한을 잡아왔던 때가 천보 9년(750)이며, 이때 그 전공으로 장군의 관직에 어사대부(御史大夫)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⁸⁹ 이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조직적으로 당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파악하고 고심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 상황에서 고선지 장군이 돌기시 가한을 사로잡아 개선하였기 때문에 당은 그에 대한 포상으로 어사대부라는 관직을 상으로 주었다.

석국 왕을 비롯하여 돌기시 등 잡혀왔던 인물에 대하여 『자치통감』은 구체적으로 누가 생포되었는지를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즉

(751년 정월) 안서절도사 고선지가 장안으로 오면서, 현종에게 생포한 돌기시 가한, 토번 추장(酋長), 석국 왕, 결사 왕을 바쳤다.⁹⁰

이는 고선지가 750년 2월에 사로잡은 결사 왕, 돌기시 가한을 안서도호의 본영 쿠차에 잡아두었다가 장안으로 개선할 때 석국 왕과 함께 전리품으로 끌고 왔다는 내용이다. 고

89 『唐方鎮年表』卷8, 安西四鎮, 北京: 中華書局, 1980, 九載(750)條, 1246쪽.

90 『資治通鑑』卷216, 唐紀 32, 玄宗天寶10載 正月條, 6904쪽, “安西節度使高仙芝入朝, 獻所禽突騎施可汗·吐蕃酋長·石國王·搆師王.”

선지는 석국은 물론이고 파미르 고원 서쪽의 걸사국을 정벌한 후 석국의 북방에 위치한 돌기시까지 정벌하였다. 안서절도사 고선지가 정벌하였던 지역이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전 지역을 포함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서절도사 고선지가 토번 추장을 잡아 현종에게 바쳤다는 사실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는 747년 연운보와 소발률국을 정복하였던 고선지였지만 토번은 늘 강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험준한 산악에 자리잡은 나라였기 때문이다. 이때 안서절도사 고선지가 토번 대추(大酋)를 바쳤던 사실을 『당서』는 토번전에

(天寶) 10년 안서절도사 고선지가 토번의 대추를 사로잡아 바쳤다.⁹¹

라고 간략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안서절도사 고선지가 정벌한 지역이 중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날 티베트 지역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주목하고 싶다. 그러나 고선지가 언제 어느 전투에서 토번 추장을 사로잡았는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당의 중앙아시아 경영도 중요하였으나 토번 제압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였다. 그 이유는 토번 군사가 안서도호부를 제압할 경우는 장안까지 토번이 공격하여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선지가 안서도호로 있을 때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나 고선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후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

고선지가 안서부도호로 재직하기 이전, 오랜 세월 동안 당은 토번을 제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런 사실을 밝히기 위해 앞서 밝힌 사실과 일부

91 『新唐書』卷216上, 吐蕃傳, (天寶) 十載, 6087쪽, “安西節度使高仙芝俘大酋以獻.”

가 중복되나 다시 언급하겠다. 『신당서』 권221하 「소발률국전」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마래해가) 죽고, 소실리지가 즉위하자, 비밀히 토번이 꺾어 토번 공주를 처로 삼게 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소발률국) 서북 20여 나라가 모두 토번에 복속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안서도호 세 인물이 토번을 정벌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천보 6년 조서를 내리자 안서부도호 고선지가 이를 정벌하였다.⁹²

위의 사실은 747년 안서부도호 고선지가 연운보와 소발률국을 정벌하게 되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이다. 안서부도호 고선지 이전에 안서도호 전인완(田仁琬), 개가운(蓋嘉運), 부몽령찰 세 절도사가 연이어 토번을 공략하였으나 실패하여 당 현종의 명령으로 고선지가 출정하였다. 그러나 747년 안서부도호 고선지가 소발률국 왕과 왕비를 생포하여 개선하였으나, 이때 토번의 우두머리를 생포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751년 안서도호 고선지가 토번 대추를 잡아 장안으로 개선하였다는 것은, 당과 토번 사이의 대립관계에서 볼 때 이는 과관이다.

747년에 소발률국 정벌의 포상 성격으로 고선지 장군이 안서절도사가 되었다. 이는 고선지 장군의 신분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절도사는 반독립 국가화된 상태에서, 그 지역의 군사·정치적 결정권을 갖는 중요한 관직이다. 절도사가 반독립 국가화된 상태라는 표현이 당나라 시대 모든 절도사들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장안에서 멀리 떨어진 안서의 절도사가 이민족과 대항하기 위해 당이 이를 묵인하였다는 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이런 현상은 당 현종 시대에 국한되었던 것도 아니다. 절도사의 위상에 대한 설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선지 장군이 안서절도사가

92 『新唐書』卷221下, 小勃律傳, 6251쪽, “死, 蘇失利之立, 爲吐蕃陰誘, 妻以女, 故西北二十餘國皆臣吐蕃, 貢獻不入, 安西都護三討之無功. 天寶六載, 詔副都護高仙芝伐之.”

된 것은, 당시 당이 세계국가였기 때문에 민족적인 편견 없이 유능한 출신을 등용시켰던 결과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기는 어렵다.⁹³ 그러나 고선지 장군이 출세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고종 때 태학생(太學生) 위원충(魏元忠)**이 비천한 출신이라도 전공을 많이 세운 인물을 등용시켜야 주변의 국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이 꽤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당이 세계국가라 민족적인 편견이 없었다는 사실은 지나친 추측이다. 왜냐하면 당이 거대한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민족 출신의 유능한 인물을 절도사로 임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고선지가 안서절도사가 된 것은 그가 지휘관으로서의 출중한 역량을 가진 덕이다. 고선지가 안서절도사가 되기 이전에 안서절도사였던 전인완, 개가운, 부몽령찰 3인 모두 당의 우환거리인 토번 정벌에 실패하였다. 한족이 아닌 이민족 출신의 유능한 인물을 당의 장군으로 발탁하지 않았다면, 당의 세계국가의 구현은 불가능하였다고 보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고선지 장군의 석국 정벌에 관한 에두아르 사반의 견해가 옳은 시각이 아니라는 것을 앞서 밝혔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서양학자 모두가 잘못된 견해를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전체 역사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인 듯싶다. 서양학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다음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신당서』의 현종기(玄宗紀) 천보 10재에 “정월 무신(戊申)에 안서사진(安西四鎮) 절도사 고선지가 돌기시 가한과 석국 왕을 사로잡았다”⁹⁴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는 돌기시 가한과 석국 왕이 고선지 장군의 포로로 당의 장안에 바쳐졌다는 내용이다. 이는 서양학자들이 석국 왕이 고선지에 의해 참살된 것처럼 말하였던 게 엉터리라는 방증이다.

93 陳舜臣(1981), 「花におう長安」, 『中國の歴史-隋唐の興亡』 7, 東京: 平凡社, 257~260쪽.

94 『新唐書』 卷5, 玄宗紀, 天寶十載 正月條, 148쪽, “戊申, 安西四鎮節度使高仙芝執突騎施可汗及石國王.”

석국을 정벌한 후 장안으로 개선한 고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 해 입조하여 (고선지가)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 제수되었으며, 얼마 후 무위태수(武威太守)·하서절도사(河西節度使)에 임명되어 안사순(安思順)과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순은 군호(群胡)를 풍자하는 뜻으로 귀를 베고 얼굴을 칼로 긁으면서 남아 있을 것을 간청하였다. 감찰어사(監察御使) 배주남(裴周南)이 이를 황제에게 상주하니, 조서를 내려 다시 사순을 그 자리에 남게 하였으며, 선지를 우우림대장군(右羽林大將軍)으로 삼았다.⁹⁵

이는 고선지가 석국을 정벌하고 장안으로 돌아온 후의 상황 설명이다. 이때 고선지가 매우 힘든 석국 정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현종은 고선지를 하서회랑의 무위태수·하서절도사로 승진시켜 임명하였다. 그러나 하서절도사 안사순이 그 자리를 고집하여 고선지를 우우림대장군으로 승진시켰다. 아무튼 무위태수와 하서절도사는 안서절도사보다 장안에 가까운 지역의 관직이다. 먼 변방에서 장안 가까운 지역으로 고선지 관직을 변경하려 했던 조치였다. 그런데 그 시기를 『구당서』의 저자는 ‘그 해’라고, 즉 천보 9년 12월에 동시에 일어났던 일처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기록이다. 그 이유는 고선지의 석국 정벌과 장안 입조를 한달이라는 기간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그 다음 달인 천보 10년 1월이 타당하다. 사마광도 고선지가 석국 정벌 후 장안으로 입조한 시기를 천보 10년 1월로 다르게 기록하였다.⁹⁶

석국 왕을 당의 조정에서 죽였던 사실이 사료에 있다. 르네 그루세가 말하는 것처럼 석국 왕의 아들이 희생된 아버지의 원한을 풀기 위해 주변 투르크족과 아랍 군대에 지원을

95 『舊唐書』卷104, 高仙芝傳, 3206쪽, “其載, 入朝, 拜開府儀同三司, 尋除武威太守·河西節度使, 代安思順. 思順諷群胡割耳斃面請留, 監察御使拜謁裴周南奏之, 制復留思順, 以仙芝爲右羽林大將軍.”

96 『資治通鑑』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10載 正月條, 6904쪽.

요청하였다. 여기서 케르룩 부중이 석국 왕자에게 협력하였던 것이 고선지 부대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다. 즉, 탈라스에서 일어난 고선지 휘하의 케르룩 부중의 반란이다. 그러나 이때 이미 석국은 대식은 물론이고 케르룩·토번과 연합하였던 그런 상황이다.⁹⁷ 게다가 당에 반기를 든 케르룩 부중이 고선지 휘하의 군사로 도사리고 있던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르네 그루세는 패배 원인을 고선지 장군의 작전 실패로만 돌렸다. 즉 “이처럼 거리가 먼 지역으로 중국군대를 이끌고 왔던 바로 그 고선지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 모든 게 무너졌다”⁹⁸라는 게 르네 그루세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르네 그루세가 고선지 부대의 패인을 잘못 지적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르네 그루세가 고선지 장군의 탈라스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였다.

어떻게 석국의 왕자가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라센 제국(대식)으로 달려갔는가⁹⁹ 하는 의문이다. 고선지가 석국을 정벌하고 왕과 그 처자를 모두 사로잡았는데 왕자만 탈출하여 사라센으로 달려갔다는 사실¹⁰⁰은 누군가 탈출을 도왔다는 느낌이다. 대략 장안으로 잡혀 왔던 석국 왕자¹⁰¹가 도망쳐서 서방 세계에 구원을 요청한 것은 천보 10년 4월 전후한 때였다.¹⁰² 이때 석국 왕자는 건국한 지 얼마 안 되는 압바스 왕조의 창업 공신 아부·무스립이 파견하였던¹⁰³ 사마르칸드 부근의 사라센 총독이자 장군인 지하드 이븐 살리(Ziyad

97 楊建新(1988), 「突厥族」, 『中國西北少數民族史』, 寧夏: 人民出版社, 288쪽.

98 René Grousset, Trans. Naomi Walford(1999), p.119, “Suddenly all this collapsed, and through the agency of this same Kao Sten-chih, who had carried the arms of China to such distant regions.”

99 『新唐書』 卷221下, 石傳, 王子走大食乞兵條, 6246쪽.

100 『唐會要』 卷99, 石國傳, 仙芝所禽王之子, 西走大食條, 1772쪽.

101 『通典』 卷193, 邊防 9, ‘石國’에 인용된 杜環 『經行記』 天寶中, 鎮西節度使高仙芝擒其王及妻子歸京師條, 5275쪽.

102 『資治通鑑』 卷216, 唐紀 32, 玄宗天寶10載 4月, 石國王子逃詣諸胡條, 6907쪽.

103 前嶋信次(1971a), 앞의 논문, 129쪽.

ibn-Salih)에게 달려가 구원을 요청하였다.¹⁰⁴ 그 결과 헨산 북방의 탈라스 강가에서 지하드 이븐 살리가 지휘하는 군대와 고선지가 지휘하는 당의 원정군과 격돌하였다.¹⁰⁵ 석국과 관련하여 전개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선지 장군은 어려움에 처한다. 서아시아에서 패자로 군림하려고 호시탐탐 노린 사라센 제국이 이와 같은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이때(천보 10년) 석국 왕자의 요청으로 온 사라센 제국의 군사들이 원정에 지친 고선지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탈라스 강가의 탈라스(Talas, 怛邏斯)성¹⁰⁶을 공격하였다는 사실¹⁰⁷은 동서 교섭사상의 전쟁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선지 장군이 석국 왕자의 요청으로 달려온 사라센 군을 주축으로 한 서아시아의 병대와 탈라스성에서 전투를 하였던 사실은 동서 교섭사상에서 의미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¹⁰⁸ 달리 표현한다면 중국과 이슬람의 두 문명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게 솔직할 듯싶다. 그때 사라센 군의 치밀한 계략이 성공하여 고선지가 이끄는 당군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패하였다.¹⁰⁹ 이때 전황을 『신당서』는 현종기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즉 “천보 10재 7월 고선지는 탈라스성에서 대식과 싸워 패하였다”¹¹⁰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고선지 부대가 탈라스 싸움에서 참패한 것이 당에 너무 큰 충격이라 이런 사실을 「본기」에 기록하였다.¹¹¹ 그 밖에 이

104 Christopher I. Beckwith(1987), “T’ang China and the Arabs,” *The Tibetan Empire in Central Asia*, Princeton Univ. p.138.

105 羽田 明 등(1989), 「唐とサラセン」, 『世界の歴史, 10 西域』, 東京: 河出書房新社, 216쪽.

106 張星烺(1983a), 앞의 논문, 72쪽.

107 『新唐書』卷221下, 石傳, 攻怛邏斯城條, 6246쪽.

108 葛承雍(1998), 「唐代綜合國力散論」, 『周秦漢唐研究』, 西安: 三秦出版社, 286쪽.

109 Warren W. Smith, Jr(1996), *Tibetan nation-a history of Tibetan nationalism and Sino-Tibetan relations*, westview press, p.70; 楊銘(1997), 「吐蕃經略西北的歷史作用」, 『民族研究』1, 84쪽.

110 『新唐書』卷5, 玄宗紀, 天寶10載條, 148쪽, “高仙芝及大食戰于怛邏斯城, 敗績.”

111 糸賀昌昭(1971), 앞의 논문, 211쪽.

때 고선지가 싸운 상대가 대식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이 서방세계의 연합군대와 충돌하였던 사실은, 동서교섭사상에 그 파장이 엄청나다.

천보 10년(751) 7월 당군은 탈라스 성에서 거의 궤멸되었다.¹¹² 당군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불과 수천 명뿐이었다.¹¹³ 당군의 참패로 끝난 탈라스 전쟁 후 석국은 사라센에 복속되었다. 이 탈라스성은 석국내의 동북에 위치하였다.¹¹⁴ 탈라스의 지리적인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탈라스 강은 중앙아시아의 발카시(Balkash) 호와 야하르테스(Jaxartes) 호의 중간에 흐르는 조그만 강이다. 이 탈라스 하의 계곡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바로 탈라스 성이다.¹¹⁵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사라센 군대와 고선지가 지휘하는 당군이 충돌하였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동서 교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에서 사라센 군이 당군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사라센과 당의 교역권 확보전쟁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듯싶다. 물론 석국의 탈라스 성은 탈건성(稅建城)에서 5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¹¹⁶ 당대 서역교통의 중심지로 중요하였던 지역이다.

탈라스 하에서 당군과 사라센의 싸움은 중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전투였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동서 교섭사에서 탈라스 하에서 벌어진 당과 사라센의 일전의 파장은 일파만파였다. 그 한 예는 종교상에서 그 파문의 영향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탈라스 하에서 고선지 부대의 패배로 당의 세력이 타림분지까지 후퇴함으로써 당이 서역에서의 패권을 사라센에 넘겨주는 결과가 되었다.¹¹⁷ 당군

112 『新唐書』卷5, 玄宗, (天寶 10載) 7月, 高仙芝及大食戰于恒邏斯城條, 148쪽; 羅香林(1955), 앞의 논문, 212쪽. 고선지가 Talas에서 패한 시기를 天寶 11년(752)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다.

113 前嶋信次(1972), 「黑旗・黒衣の時代」, 『イスラム世界』, 189쪽.

114 『讀史方輿紀要』卷65, 陝西 14, 恒邏斯城條, 2802쪽.

115 Stuart Legg(1970), p.173.

116 方豪(1953a), 「賈耽所記通四方之三道」, 『中西交通史, 2』, 臺北: 中華文化出版事業, 14쪽.

이 탈라스 하에서 패배하기 이전 서역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 지역에서는 불교가 신봉되었다.

그러나 탈라스 하에서 당의 퇴각으로 총령 서쪽을 사라센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¹¹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¹⁹ 이때 사라센이 서역이 당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자 재빠르게 오아시스에서 생활하는 그들을 이슬람교로 대치시켰던 사실은 종교 전파라는 시각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고선지 장군의 탈라스 하에서의 패배로 당시 오아시스에 몰려 살면서 불교를 신봉하였던 사람들에게 이슬람교를 강제로 믿게 함으로써 서역에서 신봉하는 종교를 뒤바꾸어 놓았다.¹²⁰ 서역에서 중국세력이 쇠퇴한 반면 이 지역에서 이슬람 문명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¹²¹ 그런데 특이한 것은 탈라스 전투 후 당과 이슬람 양국 관계가 큰 손상을 입지 않고 전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 같다는 점이다.¹²² 고선지 장군의 탈라스 하의 싸움에 대하여 장을 달리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117 菊池英夫(1982), 「隋・唐王朝支配期の河西と敦煌」, 『講座敦煌2, 敦煌の歴史』, 東京: 大東出版社, 177쪽; 康樂(1979), 「版圖定型時期」, 『唐代前期の邊防』, 80쪽; 楊銘(1997), 앞의 논문, 84쪽.

118 貝塚茂樹(1976), 「大唐帝國の最盛期」, 『貝塚茂樹著作集, 中國の歴史』 8, 東京: 中央公論社, 229쪽; 羅香林(1955), 앞의 논문, 222쪽; 劉錫滄(1966), 「龜茲古國政治史略」, 『龜茲古國史』, 新疆大學出版社, 92쪽.

119 楊建新(1988), 앞의 논문, 288쪽.

120 L. Carrington Goodrich(1959), "A Reunited China," *A Short History of Chinese People*, New York: Harper Torchbooks, p.124.

121 金元龍(1984), 「古代韓國과 西域」, 『美術資料 84』, 3쪽.

122 정수일(2001), 앞의 논문, 156쪽.

III. 고선지 장군의 제2차 석국 정벌 배경과 그 영향

1. 고선지 장군과 아랍 연합세력과 탈라스 전투 배경

고선지가 석국 정벌의 성공 대가로 장안에서 새로운 관직을 추가로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그는 서성(西城)으로 출정하였다. 고선지 장군이 또 서역으로 출정하게 되었던 이유는 석국 왕자의 노력으로 사라센 제국이 중심이 되어 서방 여러 국가가 연합하여 안서사진에 도전하였기 때문이다. 즉

고선지에 의해 석국 왕이 포로가 되자, 요행히 석국 왕자는 도망쳐 나와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며 고선지가 기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섭게 노략질하였다는 사실들을 날날이 알렸다. 그러자 여러 나라들은 모두가 분노하여 대식군과 함께 안서사진을 공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듣자 고선지는 번·한의 무리 3만을 거느리고 대식을 공격하기 위하여 7백여 리나 깊숙이 들어가 탈라스 성에 이르러 대식과 마주쳤다. 서로 닷새 동안 대치하였는데, 이때 갈라록(葛羅祿) 부중이 반란한 틈을 이용하여, 대식군이 당군을 협공하자 고선지가 대패를 당하였다. (이때 고선지의) 사졸은 거의 다 죽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살아 남은 자는 수천 명에 불과하였다.¹²³

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동서 교섭사에서 주목을 받았던, 탈라스 강 서쪽의 탈라스 성(탈라스성)¹²⁴에서 고선지 부대와 사라센 제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싸움에 관한 『자치

123 『資治通鑑』卷216, 唐紀 32, 玄宗天寶10載 4月條, 6907~6908쪽, “高仙芝之虜石國王也, 石國王子逃詣諸胡, 具告仙芝欺誘貪暴之狀. 諸胡皆怒, 潛引大食欲共攻四鎮. 仙芝聞之, 將蕃·漢三萬衆擊大食, 深入七百餘里, 至恆羅斯城, 與大食遇. 相持五日, 葛羅祿部衆叛, 與大食夾攻唐軍, 仙芝大敗, 士卒死亡略盡, 所餘纔數千人.”

124 『通典』卷193, 邊防9, ‘石國傳’에 인용된 杜環의 『經行記』의 其川西頭有城條, 5276쪽.

통감』의 기록이다.¹²⁵

위의 기록은 천보 10년(751) 7월말쯤¹²⁶ 부터 5일간 당나라 군대와 아랍·서방 연합군이 탈라스에서 전투하였다는 내용이다.¹²⁷ 또 이를 750년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킨 압바스 왕조의 이슬람 군이 당과 격돌한 탈라스 전투라고 부른다.¹²⁸ 그런데 강락(康樂)은 무슨 이유인지 천보 8년의 사건이라고 하였다.¹²⁹ 아무튼 이는 강락의 실수인 듯싶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고선지 장군이 석국 정벌을 완수하고 장안에 입조하여 현종으로부터 개부의 동삼사를 제수받고 난 후, 반년 정도 지난 뒤에 발생하였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당과 아랍 연합 세력간의 최초의 전쟁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두환의 『경행기』에도 기록되어 있다.¹³⁰ 인디애나 대학 교수 크리스토퍼 베크위츠의 주장처럼 아틀라(Atlah) 전투는 아랍과 중국 사이의 최초이자 마지막 대결로 중요한 싸움이었다. 정확히 아틀라 전투의 의미는 동서 교섭사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보아야 옳다. 고선지 장군이 지휘하였던 당나라 군대가 아랍 연합 군대와의 회전에서 당한 참패는, 오렐 스타인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케르룩 부중의 반란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에 의심이 없다.¹³¹

이와 관련된 사실은 『신당서』의 석국전에 기록된,

125 『資治通鑑』 권216, 唐紀 32, 玄宗天寶 10載 夏四月條의 胡三省註, 6907쪽.

126 『新唐書』 卷5, 玄宗本紀, 天寶10載 7月條, 148쪽; René Grousset, Trans. Naomi Walford(1999b), "The Collapse of Tang Domination in Central Asia,"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p.120.

127 Christopher I. Beckwith(1987), p.139.

128 李熙秀(2000), 「위그르 제국」, 『터키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06쪽.

129 康樂(1979), 앞의 논문, 80쪽.

130 前嶋信次(1972), 앞의 논문, 189~190쪽.

131 山田信夫(1989), 「トルキスタンの成立」, 『北アジア遊牧民族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204~205쪽.

석국 왕자는 대식으로 달려가 군사 지원을 요청하여, 달라사성을 공격하여, 고선지 군대를 패퇴시켰다, 이후로 석국은 대식을 섬겼다.¹³²

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고선지의 부장이었던 한족 이사업의 열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였다고 표현할 정도로 일치한다.

우선 석국 왕자가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달려간 대식은 흑의대식(黑衣大食)이었다는 사실이다.¹³³ 그 결과 석국 왕자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흑의대식을 주축으로 한 아랍 연합군이 달라사성으로 달려가 고선지가 지휘하는 당군을 포위하였다.¹³⁴ 그런데 이후 석국이 대식의 속국이 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³⁵ 이는 중앙아시아에서 당의 역할을 대식이 대신하게 되었다는 뜻이다.¹³⁶ 이를 광의로 표현한다면, 서역제국이 공동 군사 동맹을 취하여 당군의 공격을 좌절시켰던 최초의 사건이다.¹³⁷ 그런데 흑의대식이라는 표현은 그들 모두가 흑색을 소중하게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관복이나 군기까지 온통 흑색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¹³⁸

그런데 위의 사료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엄청난 것이라 고선지 장군에 의한 제1차 석국 정벌에 대한 사실을 다시 요약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사실은 석국 정벌에 대한 소문이 나자, 석국 왕은 용맹한 데다가 지혜로운 장군으로서 토번 정벌을 성공적으로 이끈

132 『新唐書』卷221下, 石傳, 6246쪽, “王子走大食乞兵, 攻怛邏斯城, 敗仙芝軍, 自是臣大食.”

133 『舊唐書』卷128, 段秀實傳, 舉兵圍怛邏斯, 黑衣救至條, 3583쪽; 『續通志』卷237, 唐列傳 37, ‘高仙芝’ 其王子走大食乞兵條, 4668쪽.

134 『資治通鑑』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10載 4月, 與大食遇條, 6907쪽.

135 『唐書』卷221下, 石國傳, 王子走大食乞兵條, 6246쪽.

136 羽田 明(1976), 「東西交通」, 『京大東洋史Ⅱ, 貴族社會』, 大阪: 創元社, 105쪽.

137 章羣(1986), 「評天可汗制度說」, 『唐代蕃將研究』, 354~355쪽.

138 前嶋信次(1996), 「バクダ-ドの榮華」, 『世界の歴史 8, イスラム世界』, 東京: 河出書房新社, 235쪽.

안서절도사 고선지였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당군에게 패배하였다. 고선지의 제1차 석국 정벌 이후 당의 조정은 천보 10년 정월 이후 장안에서 항복한 석국 왕을 궤에서 죽임으로 서역정책은 실패를 자초하였다. 이와 같이 졸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서방세계로 알려졌다.¹³⁹ 당의 행동은 서역 여러 나라의 격분을 샀다.¹⁴⁰ 여기서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은 누가 석국 왕을 죽였는가 하는 사실이다. 『자치통감』은 “고선지가 천보 9년 12월에 석국을 정벌하고 석국 왕과 석국의 포로들을 끌고 와서 노약자까지 모두 죽였다”¹⁴¹고 애매모호하게 기록하여 마치 고선지가 석국 왕을 죽인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다. 그리고 『신당서』는 석국 왕이 천보 9년에 고선지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기록하였다.¹⁴² 이와 같은 기록으로 말미암아 스튜어트 레그(Stuart Legg)도 고선지 장군이 석국 왕을 죽였다고 단정하였다.¹⁴³ 그런데 석국 왕을 누가 죽였는가 는 고선지 장군의 사람됨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런데 당에 항복한 나라의 왕은 웅당 당의 장안으로 보내졌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고선지는 석국 왕을 장안의 개원문까지 호송하였다.¹⁴⁴ 따라서 당은 이러한 포로의 처리를 황제의 시혜라는 형식을 빌려 사면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당 조정은 석국이 변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국 왕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왕을 살해하였다.¹⁴⁵

139 閔泳珪(1963), 앞의 글, 75쪽.

140 『資治通鑑』 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10載, 安西節度使高仙芝入朝條, 6904쪽. 고선지가 입조할 때 석국 왕을 바쳤다는 사실은 고선지가 석국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141 『資治通鑑』 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9載 12月 安西四鎮節度使高仙芝僞石國約和條, 6901쪽.

142 『新唐書』 卷135, 高仙芝傳, 九載條, 4578쪽.

143 Stuart Legg(1970), p.173.

144 『新唐書』 卷221下, 石傳, 仙芝遣使者護送至開遠門條, 6246쪽; 『唐會要』 卷99, 石國傳, 仙芝使部送, 去開遠門數十里條, 1772쪽.

145 『古行記校錄』의 「杜環經行記」 石國條, 1b쪽; 前嶋信次(1971a), 앞의 논문, 184~185쪽.

또 진순신(陳舜臣)은 고선지를 폄하하는 데 선봉에 나선 느낌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고선지 장군은 석국 왕을 위시한 불쌍한 사람들을 마구 죽였다. 진순신은 고선지가 파미르 전쟁을 하였던 상대는 토번이라는 강국이지만 석국은 약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진순신은 고선지 장군을 정녕 못된 사람이라 약한 석국을 공격하였다고 나름대로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릴 정도로 고선지를 야만시하였다.¹⁴⁶ 이는 『신·구당서』를 썼던 사가들이 고선지가 고구려인이라는 사실로 미워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진순신은 자신의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역사 조작도 주저하지 않았다. 즉 669년 고구려 유민의 반란¹⁴⁷을 고선지 장군의 석국과 결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669년의 폐망한 고구려 유민의 저항 운동은 고선지 장군이 석국을 공격하였던 것보다 무려 80여 년 전의 일이다. 진순신이 시간 개념조차 없이 역사를 해석한 셈이다.

고선지 장군이 전일의 상관 안서절도사 부몽령찰에게 받은 수모로 언제 죽을지 모를 급박한 상황에 처하였던 사실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사방에서 시기를 받는 고선지 장군의 유일한 생존방법은 많은 전공을 세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순신은 이를 무시하고 많은 전공을 세운 큰 고구려 유민 고선지를 깎아보겠다는 일념뿐인 듯싶다. 이와 같은 잘못은 구와바라 지쓰조우(桑原隙藏)도 같다. 즉 그는 고선지에 의해서 석국에서 대학살·대약탈이 자행된 것인 양 주장하였다.¹⁴⁸ 그러나 위의 두 사람 모두 석국 문제로 야기된 주변국의 힘의 역학 관계를 전혀 몰랐던 게 그릇된 해석의 제일 큰 원인이다. 또 당의 사가들이 석국을 지원한 대식과의 싸움에서 참패한 것을 고선지의 실수로 전가하려는 의도의

146 陳舜臣(1981), 앞의 논문, 256~257쪽.

147 『資治通鑑』卷201, 唐紀, 高宗 總章 2年 4月條, 6359쪽, 669년에 고구려 유민이 반란을 자주 일으켜서 당은 고구려 유민 3만 8천 2백호를 江·淮의 남쪽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켰다.

148 桑原隙藏(1936), 「紙の歴史」, 『東洋文明史論叢』, 東京: 弘文堂書房, 99~100쪽.

표출 결과였다. 두 연구자의 설득력이 없는 주장은 또 있다. 6만~7만이나 되는 당군이 고선지 한 사람의 작전 실수로 전멸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당조에서 새로운 벼슬을 주면서 그대로 살려두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탈라스는 석국에서 꽤나 떨어진 동방에 위치하였다. 이는 아랍 연합군의 대군이 고선지가 지휘하는 당군을 격파하기 위해 중국 쪽으로 진격하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고선지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아랍 연합군과 마주친 셈이다. 아랍 연합군이 대군일 뿐만 아니라 잘 정비되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였기 때문에 탈라스까지 진출했을 것이다. 고선지가 아랍 연합군에게 대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책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이전에 장안 서북쪽의 개원문에서 석국 왕을 살해한 일로 당이 화를 자초하였던 것을 늦게나마 스스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고선지가 탈라스 전투에서 참패했어도 죄를 물을 수 없었다.

2. 고선지 장군이 아랍 연합세력에 패퇴한 후 그 영향

사라센을 주축으로 한 서아시아 연합 군대의 공격적인 기습 작전은 성공하였다. 전투에 패배한 적이 없었던 고선지가 지휘하는 당군이 탈라스 전투에서 무릎을 꿇었다.¹⁴⁹ 원정군이었던 고선지군의 구성원들이 번·한이었던 것이 문제였다. 물론 당의 변경 군대는 거의 다 번·한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라센 제국이 고선지 휘하에 있던 케르륵 출신 군사들과 모의하여 당군을 무력화시켰다. 이와 같은 돌발상황으로

149 Paul Pelliot(1929), "Des Artisans Chinois à La Capitale Abbasside en 751-752," *T'oung Pao*, 26, p.110; 前嶋信次(1971b), 「杜環とアル・ク・ファー支那古文獻に現れた西アジア事情の研究」, 『東西文化交流の諸相』, 87쪽.

고선지가 지휘하는 당군은 퇴각로마저 봉쇄당하였다. 물론 이는 케르룩이 신흥 사라센을 위시한 서방 국가에 의해서 사전 포섭된 결과였다.

사라센에 의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역할을 다한 케르룩의 모반을 고선지 장군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고선지가 이끄는 당군이 궤멸될 정도로 참패하였다. 이때도 747년 연운보 전투 때처럼 중사(中使)이며 감군(監軍) 변령성과 술사(術士) 등이 고선지를 감시하였다.¹⁵⁰ 감군과 중사는 환관으로 전쟁터에서 황제를 대신하여 장군의 제반 사항을 통제하였던 관직이다. 탈라스 전투 때도 이들의 동행은 분명하나, 그들이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다. 물론 탈라스 전투의 작전권은 고선지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탈라스로 가는 도중에 감군의 간섭으로 당군이 결정적으로 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연운보를 점령한 후 변령성이 더 이상 진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그를 고선지가 연운보에 머물도록 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탈라스 전투에서 감군 변령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755년 동관사건으로 뒷받침된다. 즉 755년 고선지가 동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안록산의 반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령성이 거짓 상주를 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변령성은 개인적으로 고선지에게 물질 등 많은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일일이 들어주지 않아 서로 사이가 나빴다.¹⁵¹ 그렇다면 탈라스 전투 패배의 책임은 고선지에게 있으나 2차적인 책임은 감군에게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선지가 이끈 군사가 빈과 한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었어도 언어 소통에 큰 장애가 없었는가 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은 언어적 유사성 못지않게 종족적 개념이 희박하여 호형호제하였던 습속이 있어 언어 장벽 문제가 쉽게 해

150 『舊唐書』 卷104, 高仙芝傳, 仙芝與中使邊令誠自護密國入條, 3204쪽; 『新唐書』 卷135, 高仙芝傳, 4576쪽, “仙芝與監軍邊令誠自護密俱人.”

151 『新唐書』 卷135, 高仙芝傳 初, 令誠數私於仙芝, 仙芝不應條, 4579쪽.

결되었다. 달리 말하면 빈번하게 다른 종족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언어적인 차이가 해소되었다. 러시아 학자가 밝혔던 것처럼 기원전 5세기부터 8세기까지 아랍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 이전까지 유목민들 모두가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며¹⁵² 혼혈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유목제적인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였다.

아랍 연합군이 당의 도전을 예상하고 탈라스까지 공격한 것은 고선지의 허를 찌른 작전이었다. 물론 이때 아랍 연합군은 당군에 비해 3배 이상 수적으로 우세하였기 때문에 아랍 연합군의 기습공격이 가능하였다. 탈라스에서 당군이 어느 정도 당황하였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사료가 있다.

우위위장군 이사업은 고선지에게 야음을 틈타 도망갈 것을 권하였으나, 도로마저 험하고 좁은 데다가, 발한나(拔汗那) 부중이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사람과 가축이 길을 막고 있어, 사업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 큰 몽둥이로 이들을 쳐, 사람과 가축 모두를 죽였다. 그제야 고선지가 빠져나갈 수 있었다.¹⁵³

이는 마치 고선지 장군이 퇴로가 막혀 최후를 맞는 듯한 참담한 광경이다. 6~7만(3만¹⁵⁴ 아니 2만)이나 되는 당군이 거의 다 없어지고 나서, 고선지 장군의 한 몸이 사라센 군을 피해 도망가는 게 무척 어려웠던 상황설명이다.

이때 고선지가 생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둠을 이용하여 도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부하들도 좁은 탈라스 성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

152 장준희(2004),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업 벽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해석」, 『중앙아시아—대륙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주15 참조.

153 『資治通鑑』 卷216, 唐紀 32, 玄宗天寶10載 4月條, 6908쪽, “右威衛將軍李嗣業勸仙芝宵遁, 道路阻隘, 拔汗那部衆在前, 人畜塞路, 嗣業前驅, 奮大槌擊之, 人馬俱斃, 仙芝乃得過.”

154 布目潮瀨, 임대희 역(2001), 「현종의 개원, 친보시대」, 『중국의 역사—수당오대』, 혜안, 140쪽.

다. 게다가 고선지는 사람과 말들로 갇혀 탈출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탈라스 성안의 당군은 혼란 그 자체였다.

고선지의 퇴로를 차단하였던 발한나는 페르가나(Ferghana,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으로 타슈켄트와 사마르칸드 사이의 남부지역) 무리였다.¹⁵⁵ 페르가나도 고선지 휘하의 케르룩 무리처럼 사라센의 협력자였던 것 같다. 그 이유는 페르가나가 전한시대의 대원으로 당대 그 나라의 위치가 탈라스 북방 1천여 리에 위치하여 사라센과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이다.¹⁵⁶ 페르가나 무리는 고선지 부대에 한이 아닌 번의 병사로 합류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페르가나는 사라센을 돕겠다는 다른 목적으로 고선지를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페르가나 무리가 고선지 장군의 퇴로를 막은 것은 사라센에 협조하였으나 케르룩처럼 모반이 아닌 소극적인 방법으로 당군의 장애물이 되어 사라센의 연합군을 도왔던 것 같다. 그런데 탈라스의 싸움을 자세하게 언급한 스투어트 레그도 발한나 부종이 사라센에 간접 지원하였기 때문에 고선지가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하였다.¹⁵⁷

고선지가 적과 내통하는 위장 군사 때문에 탈라스에서 대패한 사실은, 소발블국을 정벌하기 위해 탄구령을 넘을 때 휘하 병사를 적의 환영사절로 위장시킨 심리 전술로 계속 진군하였던 사실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걸출한 지휘관 고선지가 사라센군과 내통하였던 휘하 군사에 대한 첩보가 없었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다.

고선지 장군은 탈라스에서 사라센 군대와 대치한 5일째 밤에 우위위장군 이사엽이 발한나 무리의 병마를 내몰았던 상황을 이용하여 탈출하였다. 그런데 이때 고선지 휘하에

155 張星煊(1983b), 「拔汗那」, 『中西交通史料彙編』 5, 154~158쪽. 拔汗那를 Ferghana 또는 Kokana라고 부른다.

156 『通典』 卷192, 邊防 8, ‘疏勒’에 인용된 杜環 『經行記』의 拔汗那國在怛邏斯南千里條, 5226쪽; 張星煊(1983c), 「拔汗那國雜錄」, 『中西交通史料彙編』 5, 157~158쪽.

157 Stuart Legg(1970), p.173.

많은 가축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가축들은 고선지 부대가 원정중의 군량으로 사용하였던 게 틀림없다. 이사업이 고선지 장군의 생환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은 분명하나, 혼자서만 발한나의 무리를 쫓아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 같다. 차라리 위의 기록을 이사업이 휘하의 무리를 끌고 고선지 장군의 퇴로를 뚫었다고 바꾸면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고선지의 부하 장수 이사업의 활약상은 침소봉대되었다. 별도로 「이사업전」이 있을 정도다. 그뿐만이 아니다. 「고선지전」에 있어야 할 고선지의 토번과 석국 정벌에 대한 기사가 「이사업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었다. 이는 이사업이 한족이라는 사실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고선지는 이사업의 공로를 잊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상주하여 그를 표기좌금오대장군(驃騎左金吾大將軍)으로 승진케 하였다.¹⁵⁸ 고선지 장군은 부하의 논공행상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였다.

고선지와 함께 퇴각한 우위위장군 이사업은 후미에 있었던 당의 보급부대와 만나면서 수모를 당하였다. 이를 들어보면,

군사를 모두 잃어버리자, 별장 견양현 사람 단수실(段秀實)은 사업의 목소리를 듣고, 꾸짖어 말하길, “적을 피해 먼저 도망을 오다니,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 자신은 온전하고 무리를 다 잃었는데,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요행히 돌아온 놈들아, 너희들은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느냐!” 사업이 그(단수실)의 손을 잡고 용서를 빌었으며, 또 지체하지 않고 병사들을 찾아 흩어진 군사를 모았기 때문에, 파직을 면하였다. 안서로 돌아와 선지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자, 선지는 수실을 도지병마사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관으로 삼았다.¹⁵⁹

158 『舊唐書』卷109, 李嗣業傳, 仙芝表其功條, 3299쪽.

159 『資治通鑑』卷216, 唐紀 32, 玄宗天寶 10載 夏四月條, 6908쪽, “將士相失, 別將汧陽段秀實聞嗣業之聲, 詔曰 避敵先奔, 無勇也. 全已棄衆, 不仁也. 幸而得達, 獨無愧乎! 嗣業執其手謝之, 留拒追兵, 收散卒, 得俱免. 還至安西, 言於仙芝, 以秀實兼都知兵馬使, 爲己判官.”

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고선지를 피신시킨 우위위장군 이사업이 도망쳐 나온 뒤 단수실의 책망을 듣고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규합하였다는 내용이다.

고선지의 3만(『자치통감』에서는 3만)이나 되는 군이 사라센군과 전투다운 싸움을 못한 채 전 병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사업 등 장군 몇 사람이 줄행랑을 쳐 단수실이 있는 후방으로 왔을 때 벌어진 상황이다. 후방에서 군량 보급을 책임졌던 별장 단수실은 도망쳐온 이사업을 단호하게 꾸짖었다. 어디 단수실만의 분노였겠는가! 만약 단수실의 질책이 없다면 이사업은 사라센 군대와 서아시아 무리에 의해서 상당수의 당군을 잃은 죄목으로 파직 되었을 게 분명하다. 경우야 어떻게 단수실의 원망을 듣고 나서 이사업은 함께 여기저기 흩어진 군사를 모았다.¹⁶⁰

그렇다면 위의 사료 내용으로 보아 사라센군과 조우한 작전 실패는 탈라스 전투의 당군 총사령관 고선지가 아니라 고선지의 휘하 장군 이사업 때문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사업이 파면은 모면하게 되었다는 기록 때문이다. 아무튼 고선지 장군과 이사업은 물론이고 단수실도 사라센군과의 싸움에서 참패했으나 파직은 면하였다. 『자치통감』의 기록대로라면, 이때 탈라스 성안에서 고선지 작전 명령을 무시하였던 인물이 이사업일 가능성이 짙다. 그 이유는 지략이 풍부한 고선지 장군이 탈라스 성안에서 대책없이 패배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때 이사업은 별장 단수실의 질책을 고마워하였다. 그래서 안서의 본영 쿠차로 돌아온 후, 이사업은 단수실의 질책으로 정신을 차리고 흩어진 군대를 다시 규합하게 되었던 정황을 고선지에게 보고하였다. 고선지는 이사업으로부터 단수실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를 승진시켜 도지병마사와 자신의 판관으로 임명하였다.¹⁶¹ 고선지 장군이 전쟁의 참패에서

160 『新唐書』卷153, 段秀實傳, 秀實夜聞副將李嗣業聲條, 4847쪽.

161 『舊唐書』卷128, 段秀實傳, 師還, 嗣業請于仙芝條, 3583쪽.

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단수실이 이사업을 독려하여 흩어진 병사를 다시 규합한¹⁶² 공적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는 고선지가 훌륭한 장군으로서 평가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한마디로 고선지 장군은 자신의 부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도 탁월하였다. 물론 고선지 장군은 단수실을 도지병마사와 판관¹⁶³과 척후부과의로 상주하였다.¹⁶⁴ 조정은 단수실을 고선지가 요청한 관직에 임명하였다.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한 고선지 장군의 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조정은 그의 요청대로 단수실을 도지병마사와 판관으로 임명하였다는 사실은 암시하는 바가 크다. 당이 많은 이민족 출신들에게 총독과 비슷한 성격의 절도사라는 높은 자리를 주면서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객관적인 논공행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종은 강력한 절도사들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군권을 장악하였다. 물론 현종이 군권을 장악하였다는 것은 안록산의 난이 있기 이전까지로 국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안록산이 당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표면적인 이유는 양귀비의 사촌 오빠 양국충(楊國忠)을 토벌한다는 명분이었다.¹⁶⁵ 구체적으로 말하면 752년 이임보(李林甫)가 죽자, 양국충이 당의 군사와 정치권력을 모두 장악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켰다.¹⁶⁶ 한편 고선지 장군은 안서도호로 재임하였을 때 안서도호의 본영이 있었던 쿠차(龜茲)의 왕 백효덕(白孝德)이 두 차례에 걸쳐 1만~2만 명을 거느리고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정하였다는 사실도 주목하고 싶다.¹⁶⁷ 이는 고선지가 안록산의 난

162 『舊唐書』卷128, 段秀實傳, 遂與秀實收合散卒條, 3583쪽.

163 『舊唐書』卷128, 段秀實傳, 以秀實爲判官條, 3583쪽.

164 『舊唐書』卷128, 段秀實傳, 授斥候府果毅條, 3583쪽.

165 劉錫淦(1966), 앞의 논문, 92쪽.

166 阿部肇一(1967), 「唐の南陽慧忠禪師の立場-北宗禪より南宗禪への交替-」, 『駒澤史學』14, 31~32쪽.

167 劉錫淦(1966), 앞의 논문, 92쪽.

이 일어난 초기부터 진압 작전에 개입했던 증거이다.

한편 탈라스 전투에 참가한 당군이 아랍 장군 지야드 이븐 살리의 포로가 된 수많은 병사 가운데 포함된 두환(杜環)이 훗날 당으로 귀환하였던 사실은 문명교류사에서 너무 유명하다. 그 밖에 탈라스의 대패로 당의 제지공이 대식의 포로가 되어 제지법이 서방으로 전래되었다는 것도 그 일환이다.¹⁶⁸ 아랍의 포로로 사마르칸드로 잡혀갔던 당군 수천 명 가운데 제지공이 포함되었다.¹⁶⁹

제지법은 후한 화제(和帝) 원흥(元興) 원년(105)에 환관 채륜(蔡倫)에 의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 기록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은 대나무·나무·비단·천을 이용한 섬유질 종이였다. 그러나 채륜의 발명에 의해 식물섬유를 이용한 종이 등장하였다. 아랍의 사가에 의하면, 751년 탈라스 싸움에서 포로가 된 중국인 가운데 있었던 제지공으로 말미암아 서방세계로 제지법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 또 많은 당의 포로가 잡혀간 사마르칸드는 『아라비안나이트』의 도입부분에 언급된 도시다. 옛날에 대제국을 훌륭하게 통치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왕이 죽자, 왕의 큰아들 ‘샤흐야르’가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제국을 통치하였다. 또 왕의 둘째아들 ‘샤흐자만’은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한 왕국을 다스렸다는 내용에서 사마르칸드가 언급되었다.¹⁷⁰

두우(杜佑)의 『통전』 「대식」조에 인용된 두환 『경행기』에 나오는,

(대식) 일명 아구라(亞俱羅)라고 하며,…… 비단과 명주를 짜고 베를 만드는 사람, 금은

168 蔣丙英(1966), 「從中國傳入西方的文化」, 『中西文化論』, 臺北: 泰山出版社, 53~54쪽; 季羨林(1957), 「中國紙和造紙法輸入印度的時間和地點問題」, 『中印文化關係史論叢』, 北京: 人民出版社, 118쪽; 方豪(1953b), 「隋唐宋時代中國發明物之西傳」, 『中西交通史』, 2, 166쪽; 布目潮瀨, 임대희 역(2001), 앞의 논문, 139쪽.

169 李書華(1957), 「造紙的傳播及古紙的發現」, 『學術季刊』 6-2, 16쪽.

170 이희수·이원삼(2002), 「〈아라비안 나이트〉, 문학인가, 포르노인가」, 『이슬람』, 청아출판사, 82쪽.

을 다루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와 같은 것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중국 장인들이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경조(京兆) 사람 번숙(樊淑), 유체(劉泚)였으며, 옷감을 만드는 사람은 하동 출신 낙환(樂環), 여례(呂禮)였다.¹⁷¹

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당군 가운데 사마르칸드로 잠깐 중국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만들었는가와 아울러 그러한 물건을 만든 사람의 출신지와 이름까지 상세하게 언급한 내용이다. 즉 위의 기록은 압바스 왕조의 최초 도시였던 유프라테스 강변의 구화의 거리에 중국인 기적공, 금은세공사, 화공 등이 있었다는 기록이다. 간단히 말해 8세기 후반쯤 중국 기술자들이 오늘날 이라크에 살면서 중국의 기술문화를 서방에 널리 전파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⁷² 또 이는 당시 중국 공예기술의 수준이 서아시아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진보하였다는 증거이다.¹⁷³ 만약 위의 기록에서 계속하여 종이를 만든 사람 누구라고 언급되었으면, 제지술이 이때 당나라 병사에 소속되었던 제지공 출신에 의해서 서방세계로 전래되었다는 문제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다. 그런데 이런 언급은 없다. 즉 리수화(李書華)의 주장처럼 두환의 『경행기』가 전부 유실된 상황에서, 그 일부만이 『통전』에 인용된 때문인 듯싶다.¹⁷⁴

위의 사료는 탈라스 전투에서 포로가 된 중국인에 의해 제지법이 서방세계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한 단계 높여 주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은 근거가 있는데도, 이때 제지술이 중국에서 서방세계로 전파되었다고 단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있다. 다름 아니라 751년 이전 즉, 이미 708년부터 723년쯤에 만들어진 종이가 사마르칸드 부근의 동쪽에 있는 산

171 『通典』卷193, 大食에 인용된 杜環의 『經行記』, 5280쪽, “一名亞俱羅, …… 綾絹機杼, 金銀匠, 畫匠, 漢匠起作畫者, 京兆人樊淑, 劉泚, 織絡者, 河東人樂環, 呂禮.”

172 羽田 明 등(1989), 앞의 논문, 219쪽.

173 宮崎市定(1993), 『大唐帝國』, 370쪽.

174 李書華(1957), 앞의 논문, 17~18쪽.

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¹⁷⁵ 또 탈라스 전투보다 약 반세기 앞서 종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전투 이후에 본격적으로 생산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당시 대식의 관습대로 탈라스에서 사라센군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당군은 모두 노예가 되었다. 즉, 탈라스에서 포로가 된 중국인 제지공이 사마르칸드로 보내진 후, 이들에 의해 사마르칸드에 제지공장이 만들어졌다.¹⁷⁶ 여기서 생산된 종이는 사마르칸드 종이로 이름이 붙여졌다. 아무튼 탈라스 전투 이후 사마르칸드에 이슬람 최초의 제지공장이 만들어졌다.¹⁷⁷ 그 후 바그다드와 기타 지방에도 제지공장이 건설되어 종이 만드는 기술이 서방세계로 전파되었다.¹⁷⁸ 이런 제지법은 서아시아에서 다시 인도와 유럽으로 보급되었다.¹⁷⁹

탈라스 전투에서 고선지 장군이 이끈 당군의 패배로 중국의 제지술이 서방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¹⁸⁰ 탈라스 전투에서 당군이 아랍 연합군에 패퇴한 것은 동서 문명교류사라는 시각 외에도 중국 내의 역사 진행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탈라스 싸움에서 당의 패배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중지부를 찍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당제국의 세계국가적인 성격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¹⁸¹ 이 전투 이후로 당은 내

175 洪性敏(1909), "The Middle East and Its Trade with Far Eastern Countries in Medieval Ages," 『중동학회논총 창립 10주년 기념 특집호』, 75~76쪽. 종이 전파를 Philip K. Hitti의 글을 인용하며 704년이라 언급하였다. 주 9의 安西都護府는 安西都護府로 고쳐야 한다. 大庭脩(1981), 「製紙法の西傳」, 『ミルクロードの文化交流』, 東京: 同明金, 73쪽.

176 정수일(2001), 앞의 논문, 259쪽; 前嶋信次(1972), 앞의 논문, 189쪽; 桑原隲藏(1936), 앞의 논문, 102쪽; 羽田 明 등(1989), 앞의 논문, 217쪽.

177 蔣丙英(1966), 앞의 논문, 53~54쪽; 糸賀昌昭(1971), 앞의 논문, 274~275쪽.

178 Edouard Chavannes(1903), p.297.

179 前嶋信次(1971b), 앞의 논문, 87쪽; 田坂興道(1964), 앞의 논문, 344쪽.

180 高柄翊(1988), 「아랍民族運動의 史的背景」, 『아시아의 歷史像』, 서울대출판부, 206쪽.

181 Edwin O. Reischauer(1978), "The Late T'ang and Sung : The Flowering of Chinese Culture," *East Asia*, p.119.

부질서마저 동요되어 이민족 출신 절도사들이 당 제국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 이른바 천보 말년 안록산의 난으로 당 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것이 그것이다.¹⁸²

고선지 장군이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중앙아시아의 질서 판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두말할 것도 없이 중앙아시아에서 당의 역할을 아랍세력이 대체하였다. 중앙아시아에서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중국 대신 아랍이 차지하였다. 또 중앙아시아에서 대식과 토번이 맞닿게 되면서 양국은 협조가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토번과 대식은 지나친 경쟁으로 군사의 대부분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전진 배치하였다. 이 같은 국제정세 변화는 토번의 국력을 일시 신장시키는 것같이 보였다.¹⁸³ 그러나 이런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는 얼마 후 탈라스 전투 때처럼 아랍권이 공동전선을 형성하여 토번을 공격하는 단초가 되었다. 토번 강성이 주변국가의 견제를 받게 되면서, 토번 쇠망의 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던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렇다고 이때 토번 세력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아니다. 한 예로 탈라스 전투가 끝난지 반세기 후에 토번이 원화(元和) 13년(818) 10월에 장안에서 불과 100여km 떨어진 봉상(鳳翔)까지 침공하였다. 이때 당 헌종은 화친을 도모하기위해 황급히 토번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

IV. 맺음말

고선지 장군이 호령하는 안서사진 가운데 가장 서쪽에 치우친 소록에서 고선지의 석국 정벌 군대가 출정하였다. 소록에서 출발한 고선지가 지휘한 당군은 오늘날 중국과 키르기

¹⁸² 前嶋信次(1971a), 앞의 논문, 130쪽.

¹⁸³ 戴邦森(1986), 「吐蕃王朝衰亡原因的探討」, 『大陸雜誌』 72-5, 41~42쪽.

스스탄의 국경 검문소가 있는 험준한 **토루가르트 고개**(Torugart Pass, 해발 3,752m)를 넘어 차티르 호수(Chatyr-Kul)를 오른쪽으로 끼고 키르기스스탄의 평원을 지났다. 고선지가 지휘하는 당나라 군사들은 **타슈아바드 성채**(군베스 양식의 성채) 부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나린(Naryn)에서 야영을 하였다. 고선지 장군이 이끄는 병대가 키르기스스탄의 평원을 지나 최초로 패배한 **탈라스 전투는 케르룩 부종의 합류 때문이었다**. 그런 케르룩 부종은 오늘날의 키르기스스탄에서 유목을 하였던 무리다. 케르룩 부종과 합류한 후 고선지가 이끄는 당나라 군사는 이식쿨(Issyk-kul) 호수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물자 공급을 받았다. 고선지의 석국 원정군은 **쇄엽성**(오늘날은 토크마크라는 지명이다)에서 필요한 물자를 추가로 보급 받으면서 **비슈케크**(Bishkek)를 지나 **투스 아슈 고개**(tuz-Ashu Pass, 해발 3,586m)를 통과하고 **우트메크**(Utmek Pass, 해발 3,324m)를 넘어 **수사미르**(Suusamyr) 계곡에서 그 유명한 탈라스 강을 따라 하류 지역으로 향하였다. 탈라스 강 발원지에서 230km정도 따라 내려가면 키르기스스탄 내의 탈라스라는 지명이 나타난다. 다시 북쪽으로 가면 나오는 탈라스 강을 막은 댐 앞 탈라스 자일리간 평원에서 고선지 군대와 아랍군이 충돌하였다. 고선지 장군의 석국 원정 루트는 연운보 전투같이 험악한 지형이 아니더라도 표현 그대로 ‘대원정’이었다. 고선지의 병사들은 원정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자일리간 평원에는 아랍군과 당군이 회전하여 죽은 전사자들의 무덤(쿠르간)이 지금도 남아 있지만 발굴된 적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조지 소로스 재단’ 연구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다.

자일리간 평원을 지나 키르기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면 바로 아틀라 평원이 펼쳐진다. 이곳도 고선지가 이끄는 당군과 아랍 연합군이 충돌하였던 곳이다. 10여km를 탈라스 강 하류 쪽 카자흐스탄으로 가면 그 유명한 탈라스 성이다. 이곳에서 제1차 탈라스 전투가 벌어졌다. 탈라스 성곽의 일부가 남아 있고 최광식 교수가 발견한 것처럼 성 앞에 고구려성처럼 가산(장대)이 있고, 성을 둘러싼 해자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뿐

만이 아니다. 성안으로 통하는 지하 비밀 통로인 암문이 남아 있어 마치 고구려성을 보는 듯하다. 고선지 장군이 아랍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왜 탈라스 성을 택하였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듯싶다. 750년 석국 정벌 때부터 탈라스 지역을 통과하였기에 고선지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영내에 있는 탈라스 성에 여러 번 왔다. 이 때문에 고선지는 탈라스 성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는 탈라스 성이 옛 고구려성과 같은 주변 환경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에서 유추 해석이 가능하다. 고선지 장군이 탈라스 전투 이전에 탈라스 지역에 왔다는 구전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을 정도다. 탈라스에서 서쪽으로 가면 타슈켄트, 다시 서쪽으로 가면 사마르칸드이다.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 남부지역에는 아득한 옛날 고구려 장군이 침공하였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다.

탈라스 전투는 제1차로 탈라스 성에서 벌어졌으나 케르룩 부족의 반란으로 당군이 탈라스 강 상류지역으로 후퇴하여 아틀라에서 다시 제2차 회전이 있었다. 그 후 다시 탈라스 강 상류의 자일리간 평원에서 탈라스 텐산산맥을 넘어온 아랍 연합군의 대군과 당군에 속해 있다가 반란을 일으킨 케르룩 부족 때문에 고선지가 당군을 이끌고 뒤의 키르기스 텐산산맥을 넘기 전 자일리간 평원에서 대패한 것이 제3차 탈라스 전투이다. 탈라스 전투의 패배로 고선지가 이끄는 당군은 많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전쟁에 끌려온 많은 중국인 기술자들이 포로의 신세로 아랍에 끌려갔던 것이, 중국 문화가 서방으로 전파되는 전기가 되었다. 종이 문명의 전파가 그렇다. 또 중국의 화공들이 오늘날 타지키스탄의 판치켄트(사마르칸드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자랍산 강 상류)로 끌려가서 벽화에 중국적인 그림기법을 남겼다. 즉 소그드 두 왕자의 싸움을 묘사한 벽화의 인물화 눈매가 동양 사람의 눈매였다.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벽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해석

— 장준희

I.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벽화의 발견과 연구 경향 —

II.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벽화의 시대적 배경과 종족적 특성 —

III.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벽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해석 —

IV. 맺음말 —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벽화 연구를 위한 제안 —

I.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벽화의 발견과 연구 경향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 큰 도시인 사마르칸드에는 아프라시압이라고 불리는 언덕이 있다. 현재 아프라시압 언덕의 실제 폐허 지역은 건조한 황토 지역으로 121만 4천여 m²나 뻗어 있다. 지금의 아프라시압 지역은 보잘것없는 황량한 언덕이 되어 몇 채의 유적과 공동묘지가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조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언덕은 한때 사마르칸드 지역의 중심지로 황금기를 구가했던 영광의 지역이다.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후 1220년까지 이 지역은 사마르칸드의 동북지역 중심지 역할을 했다. 1220년 몽골군의 공략이 있기까지 아프라시압 언덕은 도시의 중심가를 이루고 있었다. 몽골군의 침략으로 아프라시압의 도시 기능은 마비되었고, 그 옛날의 화려했던 시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다. 1950년대 어느 날, 한 목동이 이 지역이 아프라시압의 영광이 구현되었던 바로 그 곳이란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아프라시압은 땅 속에 묻혀 자신의 찬란했던 ‘소그드 문화’를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프라시압(АФРАСИАВ)’이란 말의 어원은 페르시아의 전설적인 왕 ‘투란(Туран)’과 관련이 있다. 그는 피르도시(Фирдоуси)의 페르시아 서사시 ‘샤흐 나메(Шах Наме)’에서 용맹하고 현명한 왕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반역자의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한다. 아프라시압은

1880년대 제정 러시아 고고학자들이 페허지역 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잊혀진 역사 속에 묻혀 있었다. 이들이 발견한 것과 훗날 소비에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유물들을 아프리카시
아프라시압 동남쪽 기슭 대리석 박물관에 모아 두었다.

아프라시압 역사박물관은 아프리카시압 언덕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역사박물관의 좌
측 첫 번째 홀에는 아프리카시압 언덕 발굴 장면을 담은 사진들과 통치자가 살았던 도시의 남
쪽 지역을 보여주는 전경지도가 있다. 두 번째 홀의 전시물과 복원된 유물들은 아프리카시압
이 여러 세기를 거치는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여준다. 소그드국 초기의 도자기류와
건축물은 그리스 박트리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은전, 검, 칼 등을 포함한 마케도니
아 출신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기념품들도 있다. 쿠산(Кушан) 왕조 시대의 조로아스터
교(Зороастризм, 拜火教)는 불의 제전을 위해 태양 상징의 벽돌과 죽은 자의 뼈로 장식한 제
단을 쌓았다.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되고 깨끗하게 남겨진 유골은 납골당에 보관되었다. 토속
적인 신앙 역시 번성했다. 우즈베키스탄 남부 아무다르야 강에 신성성(神聖性)을 부여한 물
과 다산의 여신 '아나히타(Анахита)'의 테라코타 조상도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5세기부터
시작된 실크로드의 번영을 반영하는 금은보석, 화장품, 동전, 뿔조각 등이 전시되어 있다.

1965년 아프리카시압 박물관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7세기쯤의 벽화가 처음으로 공개되었
다. 높이 2m가 넘는 이 벽화에는 고상하고 우아한 서사적 이야기가 독창적인 제작 기법으
로 묘사되어 있다. 벽화는 사마르칸드 지역의 살벌한 세월과 더불어 부패하고 아랍인들에
의해 훼손되었지만, 숙련된 화공에 의해 그려진 소그드인들의 문화적 절정기가 잘 표현
되어 있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남부 수르한다르야에서 사마르칸드의 통치자에게 시집
가는 결혼행진(?) 과정을 담은 남쪽 벽화에는 하얀 코끼리 등에 올라탄 신부와 말을 타고
주위를 에워싼 시녀들, 그 뒤를 따르는 낙타를 탄 사절들, 기마행렬 등이 멋드러진 장관을
이루며 펼쳐지고 있다. 벽화 중앙부에는 서벽으로 화려한 금은보석 등 각국 사절들에게
받은 선물로 장식된 아름다운 예복을 입은 통치자(?)가 묘사되어 있다. 각국 사절들 중에

는 비단옷을 입은 중국인, 긴 머리의 투르크인, 파미르 고원에서 온 유목민, 머리를 묶은 한인(韓半島人)의 모습이 보인다. 이 벽화의 마지막 장면은 북벽으로 중국 공주(?)가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이다.¹

당시 ‘마라칸다’라고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도시국가 ‘사마르칸드’는 이슬람이 도래하기 전까지 ‘고대 동방의 예텐’이란 별칭을 갖고 있을 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다. 7세기 중엽 마라칸다를 둘러본 중국의 승려 ‘현장(玄奘)’이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묘사한 당대의 강국(康國) 마라칸다는 이미 동·서를 잇는 교역의 중개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마라칸다는 동·서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물류의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동·서관계, 상호교류 등 여러 가지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중국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과 한반도의 원활한 교역관계나 상호왕래의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다만, 단 한 편의 아프리카시암 벽화만이 귀중한 역사적 유물로 남아 당시의 한반도와 사마르칸드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프라시암 벽화와 관련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암 궁殿壁畵의 使節圖」(1976)란 글을 발표한 서울대학교 박물관 김원룡 관장은 이 문제의 한반도인을 ‘신라인(新羅人)’으로 간주하면서 ‘고구려인(高句麗人)’일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그는 중국 당나라 이현(李賢)의 무덤에 나오는 신라 사신도(使臣圖)와 비교하면서 아프리카시암 벽화의 한반도 관련 두 사람을 700년쯤의 인물로 보고 있다. 정수일 박사는 「高句麗와 西域關係 試考」(2002)를 통해서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의 두 인물은 한반도인이 분명하며 그것도 고구려인이라고 밝혔다. 정수일 박사는 이들이 한반도인이자 고구려인인 이유를 두 인물이 착용하고 있는 조우관(鳥羽冠)이 한반도인이 쓰던 것이고, 두 인물이 패용한 대도(大

1 (?)을 표시한 것은 인물의 실체나 배경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刀)는 고구려에서 쓰던 대도와 형태가 동일하다는 것에서 찾았다. 또한 당시 고구려가 서역과도 교류를 하고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권영필 교수는 1991년 이래 아프리카시압 발굴단장이었던 라다르 알바움(Альбаум Л.И.)을 직접 만나 그의 발굴 보고서와 비. 이. 마르샤크(Б. И. Маршак) 박사의 논문을 참고하여 “벽화의 조성연대를 7세기 3/4기로 보면서, 벽화의 사절은 고구려인으로 보는 입장에 동조한다”고 하였다.²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압 궁전벽화 복식의 문양 특성—연주문을 중심으로—」(2002)란 연구논문을 작성한 박춘순·이자연 교수는 문제의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신’이라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들 두 교수는 연주문 양식이라는 복식문화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부산외대의 우덕찬 교수는 「6~7세기 고구려와 중앙아시아 교섭에 관한 연구」(2003)를 통하여 당시의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서역과 교류가 잦았던 고구려의 사신일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대체로 한국학계에서 아프리카시압의 두 한반도인이 신라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김원룡, 이은창(『新羅文化和 伽倻文化的 比較研究』(1991); 『新羅와 周邊諸國의 文化交流』, 서경문화사)인 반면 고구려인이라고 본 학자는 고병익(『東아시아 傳統과 近代史』(1984), 삼지원), 노태돈(『고구려사 연구』(1999), 사계절), 정수일, 권영필, 우덕찬, 북한의 도유호, 박찬욱, 박진욱이다. 당시 발굴을 담당했던 소비에트 연방의 고고학자 라다르 알바움 조사단장과 일본인 요시미즈 쓰네오(由水常雄), 아나자와 가즈코우(穴澤和光), 우마메 슌이치(馬目順一)도 고구려인이라고 간주했다. 한편 러시아 고고학자들 중 일부는 698년 개국한 발해(渤海)의 사신이거나 통일신라(統一新羅)의 사신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두 한반도 사신에 대해서는 ‘고구려인’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더 우세한 편이다. 더구나 2004년 여름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압 벽화를 둘러본 인

2 권영필(2003), 『렌투스 양식의 미술』 하권, 서울: 사계절, 168~169쪽.

하대학교 학술조사단은, 아프리카시암 박물관(사마르칸드 고고학연구소)측이 벽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소그드어로 쓰여진 명문에 나타난 벽화의 제작시기를 근거로 이들을 고구려 사신으로 단정하고 있다. 명문에는 벽화 속의 통치자 ‘바르후만(Вархуман)’ 왕의 재위(650~670) 시기에 아프리카시암 벽화가 제작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한다.

아프라시암 벽화는 아프리카시암 언덕에 빛나는 문화를 건설했던 소그드인들의 무수한 문화 유적들 중 하나일 뿐이다. 더구나 한국학계에 논란을 불렀던 문제의 한반도 사신이 등장하는 아프리카시암 벽화 서쪽 벽면은, 바르후만 왕의 궁전 중 외교 사절들을 알현하는 접견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당시 외교 사절을 영접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 아프리카시암 벽화는 총 4개로 동서남북 사면에 걸쳐 그려진 것이다. 사면의 벽화 중에서 한반도 사신이 등장하는 벽화는 서쪽에 있는 벽화이다.

한국학계를 비롯해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투르크 및 중앙아시아 학자들, 현재의 중앙아시아 학자들조차 벽화 속에 등장하는 한국인 사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소비에트 연방과 현재의 중앙아시아 학자들은 당시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부족하고, 한국학계는 중앙아시아 현지에 대한 역사, 문화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지금까지 세계 학계에서 일치하는 것은 벽화의 두 인물이 당시의 신라인이든 고구려인이든 발해인이든 적어도 ‘고대 한국인’이란 사실에는 이의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프리카시암 벽화와 동일한 문화권이라고 간주되는 지역에서 발견된 다른 벽화들을 살펴보면, 중세 중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다양한 종족적 구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프리카시암 벽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인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즉 이미 발표된 아프리카시암 벽화 관련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소련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수렴하여 아프리카시암 벽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해 재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사마르칸드 아프리카시업 벽화의 시대적 배경과 종족적 특성

1. 중세 중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변화

중앙아시아와 한반도, 중국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는 중세 초기에 가장 활발하였다. 특히 6~8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던 소그드, 차치, 페르가나 지역과의 경제적·문화적 관계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소그드는 중앙아시아의 고대도시로서, 아무다르야 강과 시르다르야 강 사이인 마베르나흐르(트랜스옥시아나)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소그드는 자랍산 계곡의 농업을 통해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소그드의 중앙인 사마르칸드는 소그드의 북부지역과 자랍산 강의 사이에 있었다. 소그드의 서부지역은 비옥한 부하라 오아시스 도시로, 북부지역인 크질쿰 사막까지 뻗어 있었다. 소그드의 남부지역은 카슈카다르야 강 계곡이었으며, 중세 초기에는 두 개의 영토로 나뉘어 있었다. 동부 산악지역 앞쪽에는 ‘케시’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카슈카다르야 강 상류지역이었다. 이 강의 중류와 하류 평지에는 ‘나흐셰-네세프’라는 도시가 있었다.³ 중세에는 지금의 카슈카다르야 강을 ‘케시다르야’라고 불렀다.

중세 중앙아시아의 정착민들은 농업, 수공업, 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는데, 그 중심 지역은 사마르칸드였다. 당시 사마르칸드의 생산품은 주변지역에서 표준상품이자 우수 상품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소그드는 주변국들과의 상업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었으며, 6~8세기 중엽 소그드의 무역관계는 동방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무엇보다 소그드와 중국의 관계가 그러하였다. 소그드의 무역은 중국 북서쪽 지역과 가장 활발하였고,

3 | Сулейманов Р. Х. Древний Нахшеб. Ташкент, ФАН, 2000.

특히 카라코룸, 인도 북부와 중국의 경계지역과 활발하였다. 7세기부터 이 지역에서는 동전을 주조하였고 이 시기의 유적들에서 중국과 비슷한 소그드의 동전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당시 무역관계는 외교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소그드의 특사가 중국 당나라 조정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무역과 외교 양 측면에서 소그드의 경제력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소그드는 중앙아시아, 즉 서역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우수한 상품을 생산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랍의 지리학자들은 당대의 사마르칸드를 '마베르나흐르'라는 무역의 중심지라고 기술하였으며, 모든 나라의 상품들이 집결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무역의 모든 부문은 마베르나흐르에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며, 사마르칸드를 거쳐서 주변의 나라들로 퍼져나갔다.⁴ 미국의 중국학자 에. 셰페르(Э. Шефер)는 당시 소그드인들이 중국 당나라와의 무역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으며, 소그드어가 유라시아 무역로에서 국제공용어로 사용되었고, 바닷길에서는 페르시아어가 국제공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⁵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무역과 문화적 교류는 7~8세기의 유명한 상품인 비단을 통해 연결되었다.

중앙아시아 동북지역의 나라들은 농경민족의 정착문화와 유목민족들의 목축문화가 만나는 지역으로 지금의 카자흐스탄 초원으로 뻗어나가는 곳이다. 오아시스 지역의 농경민족과 목축민족은 무역과 경제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 두 지역이 만나는 지점을 통과해야 소그드, 케샤, 토하리스탄은 동방의 도시들과 연결되고, 중국의 북서쪽 경계지역에 있는 유목민족의 대초원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지역은 중앙아시아 동북지역의 차치와 시르다르야 강 위쪽에 있었다. 시르다르야 강은 고대 중앙아시아인 투란에서 두 번째로

4 Истахри Китаб масалик ал-мамалик, ВУА, 1, 2-е издание, 1927. С. 318.

5 Шефер Э. Золотые персики Самарканда. Книга о чужеземных диковинах в империи Тан. М. ГРВЛ, 1981.

큰 강에 해당한다.

기원전 10세기쯤에 이미 정착민과 유목민은 알타이에서부터 볼가 강까지 유라시아의 대초원과 산악지역에 인도유럽어족으로 분리되어 살고 있었다. 그 사이에 알타이 혹은 고대 투르크족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들이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살고 있었다.⁶ 기원전부터 중세에 이르러서도 고대 투르크어족 사람들은 시베리아 남부 예니세이 강에서부터 몽골, 오르도스 고원, 만주지역에까지 폭넓게 퍼져 살고 있었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극동의 유목민들은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 혼합되어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1940년대 후반부터 중세 초기의 소그드, 차치, '우스트루사나'에서 예술적인 유적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소그드의 서부지역인 부하라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바라흐샤'라는 고대도시에서 비. 아. 시시킨(В. А. Шишкин)은 성채와 '부하르 후다트' 통치자들의 궁전을 조사하면서, 궁전 벽에서 벽화를 발견하였다. 이 벽화는 7~8세기 소그드 지배층들의 생활양식을 다채롭고 화려한 양식으로 표현하고 있다.⁷

사마르칸드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자랍산 강 상류에, 작지만 부유한 소그드 상인들의 도시 판치켄트가 자리잡고 있다. 판치켄트에 대한 연구는 1947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아. 유. 야쿠보프스키(А. Ю. Якубовский), 엠. 엠. 디야코노프(М. М. Дьяконов), 아. 엠. 벨레니츠키(А. М. Беленицкий), 비. 이. 마르샤크 박사가 연구를 해 왔다. 1948년부터는 독특하고 다채로운 벽화들이 많이 발굴되기 시작했는데, 소그드의 예술과 상류사회에 관한 그림들이 건물 내부에 그려져 있다. 판치켄트의 벽화는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판치켄트의 통치자 궁전에서, 도심의 대형 사원 두 곳에서, 부유한

6 Аманжолов История и теория древнетюрского письма. Алматы. Мектеп. 2003. сс.217~222.

7 Шишкин В. А. Варахша. М., 1963.

상류층 사람들의 집에서,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의 집에서도 벽화들이 발견되었다. 대부분 다채로운 색상을 사용하였고, 수준높은 예술성과 전문가적인 그림솜씨를 뽐내고 있다.

타지키스탄 판치켄트 통치자의 궁전을 제외한 곳에서 발견된 벽화의 주제는 가족, 가정, 집, 도시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다. 특히 사원의 그림에는 중세 초기 소그드의 종교의례를 보여주고 있다.⁸ 또한 상류사회의 가정집에서 발견된 벽화는 대부분 서사시적인 내용으로 영웅적인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판치켄트 벽화에 나타난 주제는 당시 중앙아시아 문화의 다른 어떤 유물 유적에 나타난 것보다 더 다양하며, 이는 곧 6~8세기 소그드에서는 화가들의 학교가 널리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⁹ 이처럼 중세 초기에 중앙아시아에서 화가들의 학교가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시압 벽화이다. 1965년 발견된 아프리카시압 벽화는 부하라의 바라흐샤 벽화, 타지키스탄 판치켄트 벽화와 동일한 화가학교에서 그린 것이지만, 훨씬 수준이 높으며, 중세 초기 중앙아시아 예술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시압 벽화가 발견되기 전까지 벨레니츠키는 판치켄트 벽화를 분석하여 중세 초기 소그드의 화가학교가 사마르칸드에 있었다고 여겼다. 중세 사마르칸드의 화가학교에서는 중요한 회화법과 주제를 만들고, 회화체의 표준을 정립하였다.¹⁰ 이곳에서부터 소그드 예술이 널리 전해졌으며, 사마르칸드 화가들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다

8 Дьяконов М. М. Росписи Пянджикента и живопись Средней Азии: В кн. Живопись древнего Пянджикента. М., 1954. Беленицкий А. М. Вопросы идеологии культов Сог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янджикентских храмов. Он же. Новые памятники искусства Пянджикента. Опыт топографического истолкования. Культура и живопись древнего Пянджикента. М., 1959, сс. 11~86.

9 Беленицкий А. М. Монумент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Пянджикента. Живопись, скульптура. М., 1973.

10 Беленицкий А. М. Новые памятники искусства. С. 45 ; Дьяконов М. М. Росписи Пянджикента и живопись Средней Азии. С. 91.

른 도시들, 즉 판치켄트의 벽화에서도 똑같은 회화법과 주제가 담긴 그림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중국인 모습은 동일한 화가가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¹¹

중앙아시아 벽화 연구자들이 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벽화를 구성한 의미와 경향을 분석하는 것과 더 정확한 벽화의 제작 시기를 밝혀내는 것이다.¹² 더 정확한 벽화의 제작 시기를 밝혀내는 것은 중세 초기 동전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그드 북부지역인 약사르트-시르다르야 강의 '칸카'라는 고대도시는 고대 차치의 중심지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곳이다. 칸카는 고대와 중세에 차치의 행정 중심지로 커다란 성곽을 쌓았다. 이 성곽 안에 있는 커다란 사원의 외곽 둘레 벽에서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 벽화는 소그드 벽화와 형태가 아주 비슷하다. 불행하게도 이 벽화는 7세기쯤에 있었던 사원의 화재로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다.¹³ 중세 초기 차치에서는 수공업이 발전하였으며, 특히 도자기, 야금술이 발전하여 수준높은 문화를 보여주었다.

2. 중앙아시아의 종족적 다양성과 특성

과거 기원전부터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언어적·종족적 상황은 중앙아시아 지

11 Альбаум Л. И.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 Ташкент, ФАН, 1975. С. 97.

12 Маршак Б. И. Искусство Согда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Новые памятники письменности и искусства. М., 1987 ; Лившиц В. А. Правители Согда и «цари хуннов» китайских династийных историй //Письменные памятники и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9 годичная научная сессия ЛО ИВ АН СССР. М., 1981.

13 Абдуллаев К. А. Исследования городища Канка. : Дис. канд. истор. наук. Ташкент, 1975 ; Богомолов Г. И. Культура городского центра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Чач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городища Канка). : Автореф. дис. канд. истор. наук. Ташкент, 1989; Древний и средневековый город Восточного Мавераннахра. Ташкент, 1990.

역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16세기쯤 카스피해 북부지역을 호령하며 칭기즈칸의 후예임을 자랑과 명예로 삼던 일단의 투르크계 민족들이 서서히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영토로 들어와 지역적 단위의 왕국들을 세우면서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살고 있던 원래의 거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되었다. 이들은 한 곳에만 정착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땅으로, 또다른 일부는 우즈베키스탄 땅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¹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남하한 이들과 원래의 중앙아시아 지역 거주민들 사이에는 언어적 친근성 못지않게 종족적 구분 없이 여느 투르크계 민족들, 소그드인들의 후예인 페르시아계 민족들과 호형호제하며 살아왔다. 이들 다양한 종족은 언어학적으로 상이한 측면이 있음에도 집단적으로 집거하거나 산거하면서 무리를 지어 살았다. 특히 빈번한 상이 종족들간의 결혼은 이들에게 언어적 차이가 장애가 되지 않았고, 이들이 이중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고유 종족 명칭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종족 명칭을 한정할 이유나 필요 없이 때에 따라서 다양한 혼혈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이다. 일국일민족체제의 국가에서 살아온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종족 구성을 이루고 있었다.

1921년 구소련 레닌의 제1차 공산당 선언 이후 파미르 고원에서 우랄 산맥 동쪽에 살던 민족들을 통칭해서 ‘투르키스탄’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이 공식적인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민족들의 지역명이자 민족적 국가 명칭의 대전제가 되었고, 공식적으로 ‘우즈벱’이란 민족 명칭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전까지 우즈벱이란 어휘와 단어는 있었어도 민족적 단위로서의 ‘우즈벱 민족’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투르크 내지 투르키스탄이란 명칭을 싫어한 스탈린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페르시아계 민족

14 장준희(2004), 『중앙아시아, 대륙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서울: 청아출판사, 26~29쪽.

들의 통합을 저지하고 분할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1920년대 중후반쯤에 스탈린에 의해 이 지역의 영토 분할이 이루어졌다. 그때 타지키스탄은 소비에트 자치공화국으로 확정되었고, 카라칼파키스탄은 카자흐스탄의 영토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4개의 소비에트 공화국들은 오늘날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네 공화국과 하나의 페르시아계 공화국의 모태가 되었으며, 공식적인 민족국가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소비에트 공화국들은 민족국가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지역적·영토적 개념 없이 서로 이웃하며 살았던 민족들을 아우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언어적·문화적 차이가 적었던 이들 민족을 민족국가란 미명아래 나누는 것은 구 소련 당국의 민족정책의 정치적 편리함 이외에 어떠한 명분도 찾아볼 수 없는 조치였다. 더구나 소비에트의 종족간·민족간 이간정책은 암암리에 집행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호형호제하며 살았던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들은 이웃 민족들에 대한 타자 차별적 구별의식을 갖게 되었다.

결국 함께 이웃하며 민족적·종족적 개념으로 자신들을 호명하지 않았던 이들은 이제 누구나 자신들의 종족적 정의를 내려야 할 입장에 이르게 되었다. 페르시아계 타지크 민족임에도 우즈베키스탄 땅에 살면 우즈벡 민족으로 공문서에 등재되었고, 킵차크 종족임에도 우즈베키스탄 땅에 살면 우즈벡 민족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종족 구별짓기, 종족 명칭 확정 및 변경하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진행되었다.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나 사마르칸드에 가면, 종족적·혈연적으로는 타지크 민족이나 행정적으로는 우즈벡 민족인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타지크 민족이든 카라칼파크 민족이든 조부나 증조부때 살던 곳이 우즈베키스탄 영토로 되면서 신분증이나 여권, 일반 행정서류에는 우즈벡 민족으로 기재되어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있다.

원래, 중앙아시아 지역은 기원전 5세기부터 8세기 아랍의 도래 이전까지 두 가지 언어를 기본적으로 구사하는 사람들의 땅이었다.¹⁵ 이곳 사람들은 투르크계 언어와 페르시아계 언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아랍의 이슬람 세력이 중앙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이슬람 신학교인 메드레세를 통해 아랍어가 식자층을 중심으로 문어로써 통용되기 시작했다. 아랍어는 일종의 도제식 신학교육의 중심언어가 되었다.

더구나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점하는 민족인 우즈베크 민족은 92개¹⁶의 투르크계 종족들이 헤쳐 모여 생긴 민족인 관계로 종족적 정체성(Ethnic Identity)이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없다. 종족간 구별보다 ‘도스트릭’이라고 일컬어지는 ‘친선’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우즈베크’이라는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도 극히 근세에 들어와서 정치적 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 개념과 영토 개념은 우즈베크 민족들 사이에 ‘중앙아시아는 우리 모두의 땅’이란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 모두’란 현재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는 민족주의적인 발상이 나오기 힘들며, 민족주의가 발현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부산물의 희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중앙아시아의 투르크계, 페르시아계에게 민족주의란 정치적 상징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15 Ахунджанов Э.А. Письменная культура Средней Азии, Т., Нар. насл им.А.Кадыри, 2000. сс.6~13.

16 Диваев А. Предание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Узбеков, 1902. сс.1~11.

III.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벽화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해석

1. 서벽 벽화 속 한반도 사신의 조우관에 대한 신화적 해석

먼저 아프라시압 벽화의 서벽에 등장하는 한반도 출신 두 명의 남자 머리양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¹⁷ 고대와 중세 초기 한국인들은 7세기 아프라시압 벽화에 나타난 것처럼 두개의 새 깃털 장식을 한 모자를 썼다. 여기서 새 깃털 두 개는 거의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새 깃털을 수직으로 세운 것은 아프라시압 벽화를 그린 화가들이 고대 한국인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의 깃털을 형상화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의 신화학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보통 커다란 새의 날개털을 수직으로 꽂은 것은 고대 한국인들의 복식문화들 중의 하나로, 특히 지배계층의 머리 장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한국의 복식문화 중 모자양식은 중앙아시아의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비에트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고대 중앙아시아에서는 새의 깃털을 장식한 모자를 착용한 그림을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의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암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⁹ 새의 깃털로 장식한 모자를 착용하는 것은 고대문화의 대표적인

17 도판 2-6 참고.

18 Концевич Л. Р. Корейская мифология //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т. 1, М., 1980, 도판 2-5참고.

19 Дэвлет. М.А. Петроглифы Улуг-Хана. М. Наука. 1976. с.6-21 ; Новгородова Э. В. Древняя Монголия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хронологии 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М, Наука, 1989. С.167 ; Кабилов Ж. Сармишсойнинг қоя тошларидаги расмлар. Ташкент, ФАН, 1976. 그림 13, 26, 36 ; 도판 2-1, 2, 3 참고.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카자흐스탄의 이시크 쿠르간 무덤에서 나온 왕자의 아름다운 모자가 있다. 이 왕자의 황금모자에는 황금새의 깃털과 화살모양의 장식이 있으며, 높은 원추형 모자의 양옆에 새의 깃털을 고정시켜 놓았다.²⁰

똑같은 모양의 원추형 모자를 오늘날 카자흐스탄 아가씨들이 전통 양식에 따라 맹금의 깃털로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시베리아 투바 샤먼의 모자 역시 새의 깃털로 장식을 하고 있다.²¹ 여기서 맹금의 깃털은 샤먼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맹금에 관해서는 조로아스터교의 『아베스타』 바흐람 야시트(章)에 ‘베르트라근’이라는 신(神)과 용(龍)의 쟁탈전이 나온다. 베르트라근이라는 신은 ‘바라근’이라는 맹금으로 변신하기도 하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변신 중의 하나일 뿐이다. 『아베스타』 바흐람 야시트의 신과 용의 쟁탈전 찬가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여럿 중의 하나를 따라잡고,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분발하며,
던지는 것은 화살처럼 날아,
실수없이 날아간다. (바흐람 야시트 7-20)²²

여기서 바라근이라는 새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바라근이 독수리일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베르트라근은 까마귀나 매로 변신하기도 하지만, 쟁탈전 찬가

20 Акишев А. К. Костюм «золотого человека» и проблема катафрактария//Военное дело древних племен Сибири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Ред. Ю. С. Худя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1981, допан 2-4 참고.

21 Дэвлет. М.А. Петроглифы Улуг-Хана. М. Наука. 1976, 그림14-15.

22 Авеста. Избранные гимны. Гимн Вэртрагне (Яшт 7, «Бахрам-яшт»). Перевод И. М. Стеблин-Каменского, Душанбе, Адиб, 1990.

의 내용을 분석하면 오직 그만이 활에서 쏜 화살을 따라잡을 수 있다. 따라서 맹금 중에서 가장 빠른 독수리를 바라근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중앙아시아에서 독수리는 맹금 중의 맹금으로 여겨진다. 또한 베르트라근은 찬가에서 독수리를 자기 자신만의 제물로 척추를 꺾어 죽일 수 있다고 한다. 중앙아시아 쿠산 왕조의 통치자들은 동전에 '오를라 그노'라는 신을 그려 넣었다. 이 신의 머리는 독수리 모습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남성 의 몸매를 취하고 있다.

베르트라근은 조로아스터교의 판테온(만신전)에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공하는 강한 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는 완강하고 인내력을 갖고 있으며, 바라근의 깃털은 마술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는 마술의 힘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 신 중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는 자라투스트라에게 대답을 하였다.

스피타마여, 깃털을 받아라
새의 넓은 날개를,
바라근 새의 깃털을,
그리고 몸을 쓰다듬고,
깃털과 맹세를 버리고,
너는 자기 자신의 적이다.(바흐람 야시트 14-35 : 아베스타 베르트라근 찬가 중에서)²³

베르트라근 찬가를 보면, 바라근의 깃털은 자신의 주인에게 상당한 힘을 주고 있다. 바라근의 깃털 2개 혹은 4개는 군대 앞에서 진을 치고, 신의 지지를 받아 승리를 보장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신 역시 깃털 소유자의 부름에 신속히 응하게 된다.

중세 초기 소그드 문화에서 베르트라근은 '바샤근'이라고 불리고, 유명한 아르메니아

23 아вест아. Избранные гимны. Гимн Вэртрагне (Яшт 14, 《Бахрам-яшт》). Перевод И. М. Стеблин-Каменского, Душанбе, Адиб, 1990.

의 신화에서는 ‘바하근’의 우레소리, 벼락의 신과 조화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인도유럽 어족들의 신화에서 판테온의 중앙에 우레소리와 벼락의 신이 있는데, 이들은 먹구름을 모으고, 생명을 주는 비를 불러오고, 풀과 곡식이 자라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인도유럽어족의 신화에 따르면 천둥, 번개, 물, 용의 수호자는 승리를 얻고, 수분을 자유롭게 받으며, 비를 내려 대지를 촉촉하게 한다. 이러한 신들은 자신을 상징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신들의 동반자는 독수리이다. 여기서 신들은 하늘의 본질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베르트라근은 다른 모든 인도유럽어족의 신들처럼 자신의 고유 역할을 갖고 있었으나, 자신의 역할인 먹구름을 몰아내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먹구름을 몰아내는 신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면서 베르트라근이 갖고 있던 도끼, 망치, 몽둥이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베르트라근에게 독수리는 하늘 신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베르트라근은 독수리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조로아스터교의 바흐람 야시트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신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인드라의 형용어에서 ‘브리트라한’은 같은 말로써, 비록 이름은 베르트라근이라고 칭하지만 브리트라한은 브리트라 용을 죽인 존재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아베스타』에 실린 베르트라근의 변형에 관해서는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으나, 중앙아시아의 상황에서 베르트라근이라는 신은 오랫동안 관념화하면서 발전해 왔다. 특히 고대 투르크 민족과 이란 민족의 신화에서 의례의 한 부분으로 차용되었고, 의례적인 측면들과 신화적인 측면들이 관념화하여 『아베스타』 야시트에 기록되었다.

여러 민족들의 신화에 나타나는 고대의 신들은 다양한 자연현상으로 변신하며, 자연현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늘, 땅, 물, 각종 식물과 동물 등으로 변신하여 의인화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자연의 일부이다. 그래서 고대의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인도유럽어족이 살았던 넓은 지역들, 특히 흑해지역은 봄,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번개와 함께 천둥이 자주 내리쳤다. 따라서 안전하게 농지를 개간하여 곡물을

재배하여야만 하였고 자연히 천둥과 번개를 담당하는 신들의 위상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들의 신화에서 모든 신들이 의인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현상을 의인화하여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원래 『아베스타』 바흐람 야시트에서 베르트라근은 전쟁의 승리와 확신의 신이고 천둥·번개의 신들 중에서 비와 먹구름을 관장하는 신이었으나, 비와 먹구름을 통제하는 역할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온다. 고대 투르크 민족들의 신화가 발전하면서, 투르크 민족들이 청동기 후기에 이르러 중앙아시아에서 관개 없는 농업과 유목생활을 하던 시대의 기후적 상황에서 비와 먹구름은 대단히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지역으로 점차 진출해 나가 물을 이용한 관개농업을 하면서 정착생활을 하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비와 먹구름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였으나 신화적 능력을 빌려서까지 염원을 해야 할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때에 이르면 관개 없이는 사실상 농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긴요하였다. 이때부터 비와 먹구름은 곡물의 수확에서 중요성이 그 전에 비해 약화되고, 베르트라근은 전쟁의 승리, 용맹, 확신의 신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결국 베르트라근의 여러 다양한 변형들 중에서 가장 빠르고 힘이 있는 동물은 결국 독수리이며, 독수리는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서 가장 숭배하는 맹금이 되었다.

바흐람 야시트는 맹금의 깃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투르크 민족의 서사시에서도 기적적인 새의 깃털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유목민들은 대부분 중앙아시아 대초원을 활동무대로 하던 사람들이다. 이와 비슷한 관념은 ‘고로글’의 서사시에 담겨 있는데, 이 서사시에는 두 개의 깃털이 등장한다. 기적을 행하는 깃털에 대한 이야기로, 영웅이 깃털을 흔들면 그 영웅은 젊어지거나 노인으로 변신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후시켈드’와 ‘굴리히로몬’의 장중한 서사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고대 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의 신화에서 새는 이야기 속의 인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새의 깃털은 좋은 일

을 행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²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투르크족에게는 신부와 아이들의 모자에 깃털을 장식하는 풍습이 있다. 이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역사가 풍습으로 전해진 것이며, 이 깃털은 부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암각화나 매장풍습에서 보이는, 모자 혹은 머리에 새의 깃털을 수직으로 꽂는 풍습은 중앙아시아의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하여 철기시대 초기인 기원전 1000년까지 계속되었다.²⁵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알마아타 근교 이시크 쿠르간에서 왕자의 모자가 출토되었는데, 이 시기는 중앙아시아 유목민 문화의 초기로 문화적 개화기에 해당한다.

이시크 쿠르간 출토 유물은 변형된 천등과 번개의 신이 쇠퇴한 시기로, 바로 『아베스타』의 베르트라근이다. 이 시기는 중앙아시아 대초원 유목민의 청동기 후기와 철기 초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맹금의 깃털에 대해서 마술의식이 나타나 정스러운 의례를 행했다. 따라서 맹금은 독수리이고, 독수리는 승리의 신이자 상징이다. 독수리의 깃털이 부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또한 독수리의 모습은 스키타이인들의 예술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두 개 혹은 네 개의 깃털을 모자 윗부분이나 모자 양옆에 수직으로 꽂는 것은 기원전 2~3세기쯤의 유목민족인 흉노와 선비의 전통이었다. 이는 몽골 ‘로브노르’ 호수의 고대 무덤발굴을 통해서 밝혀졌다.²⁶ 이와 더불어 소그드 남부지역 엘쿠르간의 고대도시 사원

24 Мирзаев Т. М., Жураев М. «Авеста» мифологияси ва ўзбек халқ оғзаки ижоди//Ўзбекистон тарихи, 2001, 3호.

25 Новгородова Э. В. Древняя Монголия (некоторые проблемы хронологии и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М. Наука, 1989. С.167 ; Кабиров Ж. Сармишсойнинг қоя тошларидаги расмлар. Ташкент, ФАН, 1976. 그림13, 26, 36.

26 Яценко С. А. Костюм//Восточный Туркестан в древности и раннем средневековье. Архитектура. 2000. 표54 ; 도판 3 참고.

성전터에서 4~5세기쯤의 나무바닥 점토에서 새의 크고 긴 날개털 2개의 흔적이 남은 뼈를 발굴하였다. 이 사원은 물의 신에게 바쳐진 것이지만, 당시 이 지역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던 카슈카다르야 강물과 관련이 있다. 카슈카다르야 강물은 관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변지역은 '엘쿠르간'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수를 받게 되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르트라근이 물이라는 자연현상이 관련되었다는 것은 잊지 않고 있었다.

인물의 머리에 깃털이 꽂혀 있는 것은 몽골의 암각화에도 나타나는데, 이 역시 청동기 후기에서 철기 초기에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풍습은 한반도의 경우 고대의 전통으로 기원전 1000년쯤에 시작되었으며, 타가르 문화의 영향과 더불어 오르도스 양식의 청동기 유물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²⁷ 고대 한반도에서 모자에 깃털을 꽂는 문화는 중세 초기까지 전해 오다가 중세를 넘어오면서 불교가 발전하고 유교 문화가 알려지면서 잊혀진 것으로 보인다.

2. 남벽과 북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아프라시아 북벽의 벽화는 동서남북의 벽화들 중에서 가장 잘 보존된 상태로 발견된 만큼, 여러 다양한 분석들이 있었다. 발굴 책임자였던 라다르 알바움 단장은 가장 먼저 북벽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을 유물사관으로 설명한 것이었다. 즉, 북벽은 중국의 대표들이 사마르칸드의 통치자 바르후만의 궁전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²⁸

M. 컴파레티와 C. 크리스토퍼레트는 라다르 알바움과 다른 분석을 하였다. 이들은 서

²⁷ Пак М. Н. Очерки ранн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 М., 1979. с.12, 61, 69.

²⁸ Альбаум Л. И.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Ташкент, ФАН, 1975. сс.60~73.

벽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서, 북벽은 용의 배(용선)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7세기 중엽 소그드인들의 종교적 명절인 ‘나브루즈’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²⁹ 북벽을 보면 여자들이 타고 있는 작은 배에 독수리 혹은 독수리의 머리 모양을 한 그라폰의 그림이 있다. 두 번째 작은 배의 그림은 잘못 그려진 것인데, 여기서 분석이 가능한 것은 배의 안쪽에 남자들이 앉아 있고, 배 안쪽에 무언가를 실었다는 것이다.³⁰

컴파레티와 크리스토퍼레티에 따르면 기원후 3세기부터 중국 한나라에서는 용의 배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것은 중국 전설에서 쿠 유안이라는 정치인의 비극적인 죽음의 전설과 관련이 있다. 쿠 유안은 중국 주나라의 장관으로 춘추전국시대에 살았다. 그는 주나라의 왕이 보는 앞에서 반대자들의 비방을 받아 불공평한 형벌을 받아서 강에서 익사를 당했다. 곧이어 왕은 쿠 유안의 부당한 죽음을 알았지만, 쿠 유안의 시신을 강에서 찾지는 않았다. 이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쿠 유안의 유골을 찾기 위해 강물의 물고기들이 쿠 유안의 시신을 먹지 못하도록 강에 음식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매년 음력 5월 5일에 강물에 음식을 바치는 행사를 하였다. 특히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용 모양의 배를 만들고 이 배로 경주를 하면서 대나무 잎에 쌀로 만든 음식을 찌서 물에 바쳤다.³¹

이들은 또한 중세 초기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아 궁전의 중앙 홀 북벽의 오른쪽 반은 사

29 Compareti M., Cristoforetti S. Proposal f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Northern Wall of the “Hall of Ambassadors” of Afrasiab //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от Ахеменидов до Темуридов. Археология, история, этнология, культура.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Марковича Беленицког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5 ноября 2004 год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5.

30 Альбаум Л. И.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Ташкент, ФАН, 1975. 그림 18-25, 표 25-29.

31 Compareti M., Cristoforetti S. Proposal f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Northern Wall of the “Hall of Ambassadors” of Afrasiab //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от Ахеменидов до Темуридов. Археология,

냥을 하는 그림, 왼쪽의 반의 작은 배 그림은 바르후만의 궁전을 그린 것으로 간주하였다. 중국 당나라의 황제와 황후가 그려져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용선 기념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곧 전통적인 기념일에 치르는 중국의 여러 고대의식과 일치하며, 물이라는 자연현상에 대한 의례와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에서 650년에서 675년 사이 사마르칸드에 대한 아랍의 첫 번째 침입은 소그드인들의 나브루즈 명절과 중국의 용선 기념일과 일치하게 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남벽과 북벽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잘 보존된 북벽과 남벽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용선 기념일과는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10명의 여자가 타고 있는 중앙의 배에는 뱃머리에 동물머리 모양의 장식이 있다. 이는 용의 머리가 아니라 물을 신화적으로 형상화한 존재, 큰 독수리의 부리를 가진 그라폰의 머리이다. 머리와 목에는 밝은 노란색을 채색했고, 환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금칠을 하였다.³² 두 척의 배는 빨강색으로 칠하였다. 또한 이 그림에 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두 마리의 말이 있는데, 말들은 20세기까지 중앙아시아 아무다르야 강에서 견인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킴파레티와 크리스토퍼레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용선 기념일에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북벽의 오른쪽 그림 반쪽에 묘사된 맹수 사냥은 지배계급들이 전통적인 명절에 행하는 행사이며 공양의식에 해당된다. 중앙아시아 투르크 몽골족과 스키타이인, 사르마트족의 조상들이 맹수 사냥 행사를 했다.

북벽의 내용은 중국 불교의 '미트라' 신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미트라 신앙은 태

история, этнология, культура.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священной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лександра Марковича Беленицког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5 ноября 2004 год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5.

32 Альбаум Л. И.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Ташкент, ФАН, 1975. 표37 ; 도판 4참고.

양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훗날 조로아스터교로 발전하게 된다. 북벽의 내용은 미트라 신앙 중에서 공양의례와 주제 면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북벽 왼쪽 절반의 배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 그림에 대해 불교적인 해석을 하여 불교의식으로, 또는 중국 당나라의 신화와 관련지어 해석을 해 볼 수 있다. 즉, 불교의 아미타불, 아미타, 미타 의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4~5세기쯤 중국 대승불교의 개창자이자 불교철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다오아냐'가 죽은 후에 제자인 '후에유안'이 이를 계승하였다. 후에유안 역시 불교의 전파에 많은 공을 세웠는데, 그는 스승인 다오아냐를 위해 서쪽 끝 혹은 깨끗한 땅에 아미타를 조성하여 예배를 드렸다. 뒤이어 후에유안은 5세기 초엽에 부처인 아미타에게 숭배의식을 행했다. 이는 훗날 중국에서 불교의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한국, 일본에 '아미디즘'으로 전래되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아미타 신앙은 고대 이란의 광명의 신 미트라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트라 혹은 미흐라 신은 고대 인도의 불교 이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 인도에서는 훗날 조금 변형하여 인드라 신이 되었다.

중국 불교와 고대 이란의 미트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비. 파프시노바(Е. Б. Поршнева)³³의 논문이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파프시노바는 불교의 아미타불은 무한한 불을 뜻하며, 이는 미트라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트라 신앙은 네팔의 불교에 유입된 이후 중국으로 들어갔다.

아미타불, 미타 혹은 미트라 신앙의 공통점은 현세의 고행에 대한 보상으로 내세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이다. 아미티는 서쪽 땅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여긴다. 파

33 Поршнева Е. Б. Трансформация древнеиранского культа бога Митры в раннехристианских сектах и тайных обществах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Китая//Китай: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и историография. М, Наука, 1977.

프시노바는 야. 그로트(Я. Грот)의 책에 있는 판화에서 배를 탄 사람들이 연꽃들이 많이 있는 강을 지나 아미타의 극락세계로, 저 멀리 서쪽을 향해가고 있다고 묘사하였다.³⁴ 실제 아프라시압 벽화의 북벽에는 물 위에서 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두 척의 배에 사람들이 타고 있으며, 배는 연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판화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아미타는 서쪽에 있는 부활하는 극락세계를 뜻한다. 아미타의 극락은 현세에 대한 보상과 같은 원형의 변질을 이루면서 저세상으로 가는 출구가 된다. 이처럼 현세에 대한 내세의 보상은 미트라 신앙과 비슷하다. 극락세계는 헌신적인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인 것이다.

고대 이란의 미트라가 과거 물의 신 아나히타의 동반자였듯이 아미타불 역시 여성 동반자인 자비의 신 구안 인을 두고 있었다. 구안 인은 '바드히사트바 아발로키테시바라'였다. 중세 중국의 전설에 의하면, 구안 인은 아미타의 오른쪽 눈 광선에서 태어났다. 자비와 동정의 신인 구안 인은 구조선을 타고 서쪽 끝에 있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향해 영혼의 지지자들과 함께 건너가게 되었다.³⁵ 이처럼 구안 인에 대한 묘사는 아나히타의 특징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파프시노바는 결론적으로 아나히타의 모습은 중국의 구안 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아나히타는 물과 생명을 주는 여신이다. 또한 구안 인의 모습은 중국 당나라 시대의 둔황석굴에 나타나고 있다.³⁶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북벽의 그림은 선미에 독수리의 머리가 묘사된 배가 10명의 여자들을 싣고 향해하고 있다. 중앙에는 구경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배에 탄 여자들은

34 Поршнева Е. Б. Трансформация древнеиранского культа бога Митры в раннехристианских сектах и тайных обществах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Китая//Китай: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и историография. М, Наука, 1977. С.208.

35 Поршнева Е. Б. Трансформация древнеиранского культа бога Митры в раннехристианских сектах и тайных обществах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Китая//Китай: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и историография. М, Наука, 1977. С.209.

36 Меньшиков Л. Н. Амиабха//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т.1, М., 1980, С. 69.

서쪽의 끝 극락으로 물을 건너 죽은 영혼을 떠나보내는 구안 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극락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사마르칸드를 의미한다. 아프리카시암 벽화 서벽이 이를 상징하고 있다. 이처럼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의 북벽 왼쪽 부분에 대한 상반된 해석은 유. 아. 모토프(Ю. А. Мотов)가 미트라 혹은 아나히타 신앙에 대한 신비스러운 묘사라고 해석한 남벽 벽화를 생각나게 한다.³⁷

동방의 고대와 중세에서 왕의 사냥에 관한 그림은 인기있는 주제들 중의 하나였다. 캄파레티와 크리스토퍼레트가 말한 것처럼 중세 중국 당나라 황제들의 사냥 모습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왕의 사냥에 관한 묘사는 타지키스탄의 판치켄트,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의 바라흐샤 벽화와 중세 이란의 금속제 예술품에서도 볼 수 있다.³⁸ 일반적으로 이것은 유목민 문화의 숭배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즉,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 북벽의 배 그림과 사냥 그림은 대부분 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가 제작된 시기인 중국 당나라의 둔황석굴을 비롯한 대부분의 불화에는 중앙에 불교의 아미타불이 그려져 있다.³⁹

남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토프의 해석처럼 북벽은 불교의 아미타불과 그의 여동반자 구안 인에게 헌정하는 거룩하고 신비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프리카시암 벽화의 남벽 어디에서도 다른 어떠한 신들의 징표나 도상학적인 징후들을 찾아볼 수 없다. 어쨌든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에는 왕관을 쓴 인물의 모습이든가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은 보존되지 않았다. 오직 중앙에 커다랗게 묘사된 여자의 모습은 구안 인의 역할을

37 Мотов Ю. А. Изображение мистерии праздника Михраган в настенных росписях Афрасиабского дворца//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Семиречь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и публикаций. Алматы, 1999.

38 Луконин В. Г. Искусство древнего Ирана. М., Искусство, 1977. 그림 164-167.

39 Меньшиков Л. Н. Туань-инь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т. 1, М., 1980, С. 169.

상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모자의 앞 부분에 4개의 꽃잎을 그려넣었다.⁴⁰

다시 북벽의 그림을 보면, 배에 타고 있는 여자와 선미와 선후에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다. 또, 배 안의 열 명 중 두 명의 여자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배 안의 여섯 명의 여자들은 머리를 틀어올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머리 양옆에 새의 날개 장식을 하고 있다. 이는 에프탈리트와 사마니드 왕조 통치자들의 왕관과 비슷하다. 또 부하라의 바라흐사와 타지키스탄 판치켄트의 벽화에 나오는 하늘 혹은 통치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직사각형 모양의 새의 날개 모양 장식은 중앙아시아 투르크계 민족들의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주로 맹금의 깃털 두 개를 머리에 장식하고 있다. 가장 좋은 일례로 카자흐스탄 알마아타 근교 세미레치예의 이시크 쿠르간에서 발굴된 왕의 상례복에서 새의 깃털 두 개를 찾아볼 수 있다.

쿠히 호자 그림에서도 날개가 있는 모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⁴¹ 그렇지만 북벽에 묘사된 그림은 배에 탄 인물들이 서쪽의 끝자락에 위치한 극락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⁴²

IV. 맺음말—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벽화 연구를 위한 제안

아프라시압 벽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단순히 아프라시압 벽화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어렵다. 아프라시압 벽화가 제작된 시기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문화적 ·

40 Альбаум Л. И.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Ташкент, ФАН, 1975. 그림 21 ; 도판 4 참고.

41 Шлюмберже Д., Эллинизированный Восток. М., Искусство, 1985, 그림 47.

42 도판 5 참고.

역사적 연구 또한 폭넓게 병행되어야 한다. 아프리카시압 벽화라는 이야기가 하나의 커다란 주제를 갖고 마치 파노라마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 아프리카시압이라는 유물 유적에는 당시를 전후한 역사적·문화적 사건들이 하나의 대주제 아래 나타나고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프리카시압 벽화가 제작된 시기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주변 국들과 활발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때이며,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특성들이 상존하는 복잡다단한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다. 종족적으로도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었으며, 언어적으로도 다중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살던 시대였다. 오늘날에 와서도 중앙아시아는 다양한 종족들이 상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전통을 간직하고, 서로 다른 종족과의 결혼을 통해 새로운 종족적 특성을 생성하기도 하는 역사적·종족적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한 마디로 중앙아시아는 종족적·문화적 분화 발전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 것이다. 따라서 중세 중앙아시아의 역사적·종족적 상황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중세 중앙아시아에서 제작된 아프리카시압 벽화에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들이 녹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분석, 해석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연구는 이미 완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금도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과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아프리카시압 벽화 연구가 진행중이란 의미이다. 한국 학계에서도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생산하여 비교연구를 통한 다양한 의견과 분석, 해석을 제시하여야 한다.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시압 벽화는 7세기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와 문화적 교류를 입증해 주는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럼에도 한국 학계에서는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자료에 의

존해 연구논문 몇 편만을 남기고 있을 뿐이다. 특히 러시아 문헌의 제한적 접근과 당시 중앙아시아의 역사적·문화적 역동성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결정적 한계 때문에 아프라시압은 오랫동안 연구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그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아프라시압 벽화에 대한 연구는 소비에트 시절에 이미 완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프라시압 벽화가 담고 있는 많은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에 아프라시압 벽화 발굴단장인 라다르 알바움의 아프라시압 벽화 보고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일본어 번역판이 나온 지 만 27년이 지난 지금에도 한국어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프라시압 벽화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관련된 한국에서는 아직도 요원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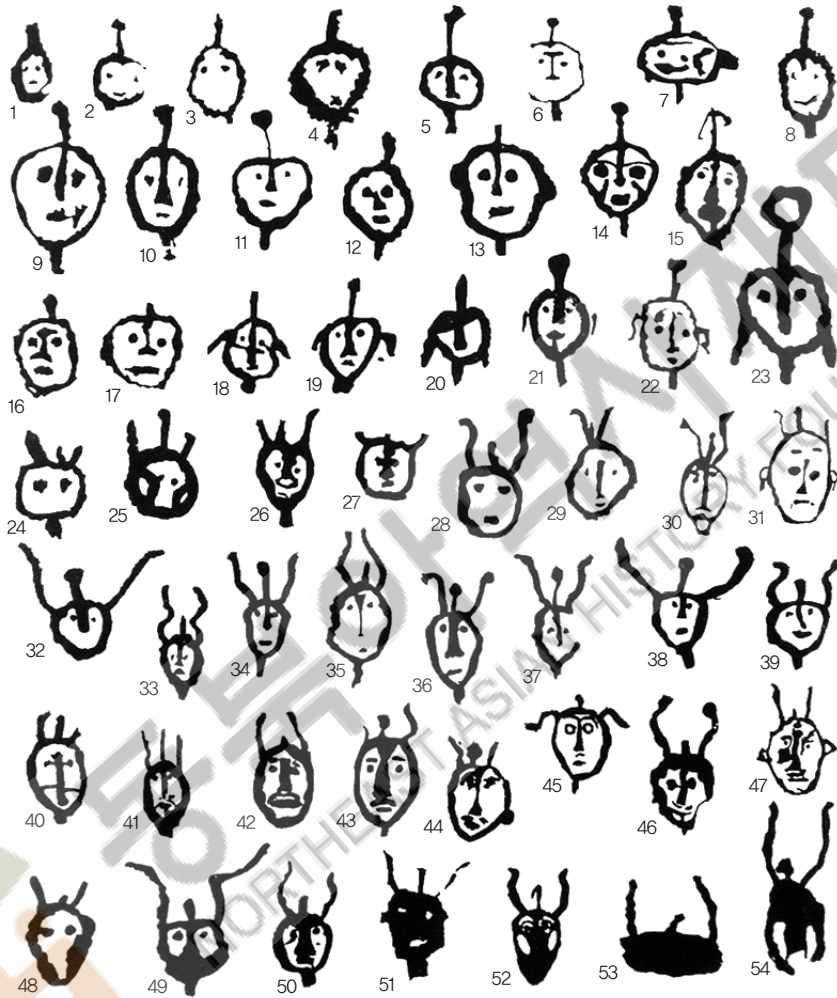
한국 학계에서는 아프라시압 벽화와 관련하여 서벽의 벽화에 등장하는 한반도 출신 인물에 대한 연구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 진력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학자들은 서벽의 인물이 한인이란 가정하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벽화의 제작시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만들어 아예 다른 접근과 해석을 차단시킨다. 벽화 속의 인물이 한인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연구방법이나 관점, 연구과제 측면에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는 곧 벽화에 대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아프라시압 벽화의 서벽에 묘사된 두 명의 사신이 중세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머리에 깃털을 꽂은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이는 이들 두 명의 사신이 한반도와는 상관없이 고대 중앙아시아 복식문화의 특성이며, 이에 대한 논거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추론하였던 것이다. 비록 시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말았지만, 두 명의 사신이 한반도 출신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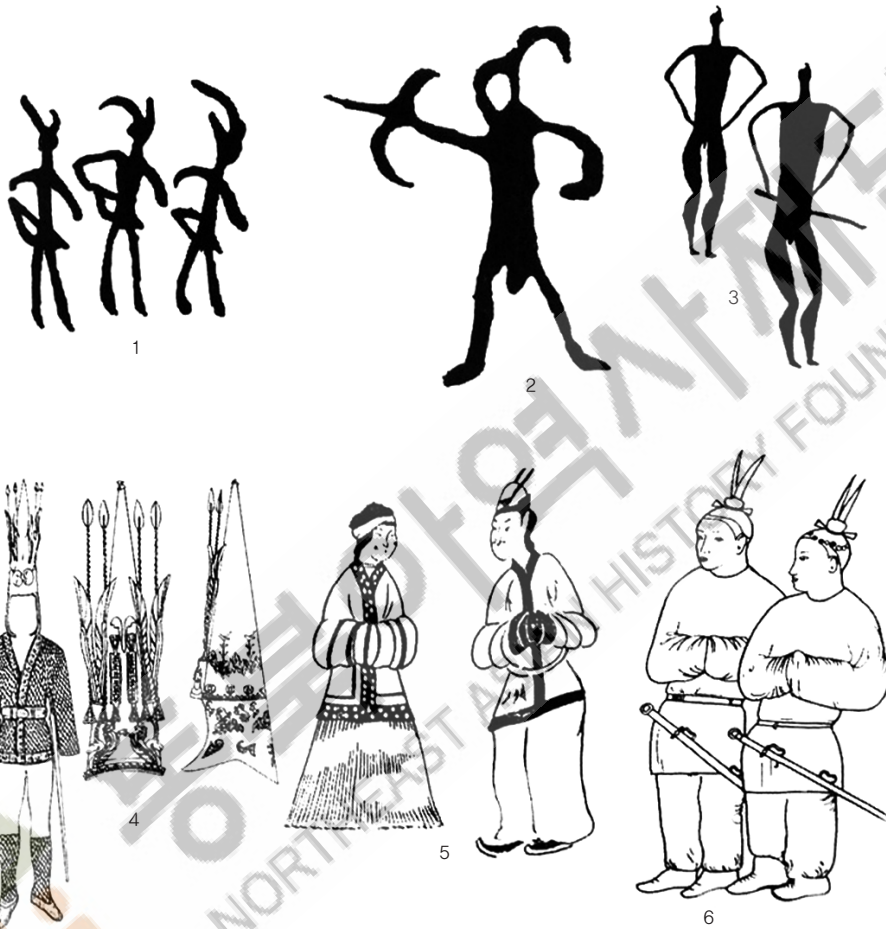
지금도 한국 학계에서 아프라시압 벽화와 관련하여 밝혀야 할 연구과제들은 많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벽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고

대, 중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확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벽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연구자료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아프리카시압 지역을 포함한 사막칸드 구시가지 지역은 역사적·종교적·종족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양상들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현지 학자들과의 국제적 공동연구를 통해, 아프리카시압 벽화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물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발굴, 연구사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시압 시기의 시대적 특징, 문화적 및 종족적 성격, 벽화의 주제(이야기), 아프리카시압 시기의 주변국가들의 관계, 당시의 화가학교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개발하여 연구해야 한다. 또한 접근방법에서도 도상학적·화학적·회화적·민속학적·신화적·건축학적·공간적 방법과 관점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한반도 간의 왕래 루트, 왕래기간 등에 대한 고찰과 아프리카시압 벽화가 가진 동·서 교류의 의미 등을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벽화와 관련된 다양한 비교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동일한 문화권의 벽화에 대한 비교연구와 상이한 지역의 벽화와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와 해석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에 이르러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제작시기와 완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과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에는 아프리카시압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중앙아시아 학자들의 새로운 관점과 의견, 해석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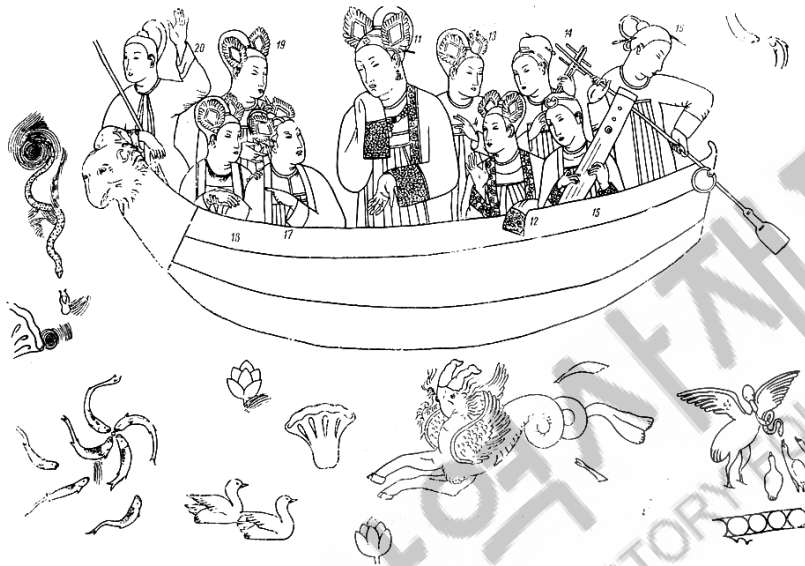
도판 1 ... 몽골 울르그 헤마 계곡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암각화에 새겨진 다양한 얼굴 모습들. 엠. 아. 데블레트(M. A. Дэвлет)는 머리 위에 있는 깃털 모양을 '안테나'를 갖고 있는 얼굴이라고 했다.



도판 2 ... 머리에 깃털 모양을 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1번은 몽골, 2·3번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견된 후기 청동기와 초기 철기시대의 암석화, 4번은 기원전 3세기쯤의 카자흐스탄 이시크 쿠르간 출토 왕관, 5번은 고대 고구려인들, 6번은 6~7세기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한반도 사신들




도판 3 ... 몽골 로브노르 호수 근처에서 발견된 2~3세기쯤의 흉노 · 선비의 무덤에서 출토된 모자들



도판 4 ...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에 나오는 배를 타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



도판 5 ...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복벽 복원도



중세 초기 차치의
역사-문화적 국제 관계

— 유리 F. 부랴코프

중세 초기, 7~8세기에 중국 및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호 관계 속에서 문화-경제적인 측면은 특히 큰 역할을 하였다. 그것들은 농경민과 유목민이 접하는 지역인 동쪽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소그드, 케시, 토하리스탄 그리고 유목민의 스텝 지역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것들은 극동의 도시들과 더불어 중국 국경 지대에서 세워졌다. 중앙아시아의 동북 지역의 거대한 영토 가운데 하나인 바로 그 지역에 차치가 속해 있으며, 차치는 고대 투란에서 두 번째로 큰 물길인 시르다르야 강변에서 형성되었다.

중국으로부터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진 생필품과 값비싼 문화 상품의 교류가 그들과 관련되었다. 7~8세기 비단길은 중요한 육상 무역로였으며, 이 길을 통해 많은 종족들이 오아시스로 모여들었고 정치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이 시기에 특히 중요한 사건은 '황제에 대한 신하의 의무 파기'를 빌미로 고구려의 고선지 대장이 이끄는 중국 군대가 침입하여, 수도를 공습하고 차치 왕을 포로로 삼아 '황도'로 압송하여 처형한 일이었다. 이는 중국 사서들이 '서역에서의 불만'이라고 서술할 만큼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처형당한 차치 왕의 아들은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에 이미 자리잡고 있던 아랍 세계에 원군을 호소하였고, 두 개의 강력한 세력이 동쪽 국경에서 충돌하였다. 이번에는 연합군

이 닷새 동안의 격전 끝에 중국군을 대파해 전쟁은 끝이 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으며,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더욱 비극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중앙아시아는 부득이하게 아랍 칼리프 제국의 구성원으로 전략하였으며, 그것은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문화 사상적인 방향 전환을 낳았다. 차치에서 일어난 8세기의 이 사건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중세 초기 차치 역사의 세세한 특성을 주목하게 하는데, 그것은 8세기 중앙아시아의 생활과 상호관계에서 그 사건이 왜 큰 역할을 하였는지를 이해하게 한다.

중부 시르다르야 계곡의 풍요로운 대지와 그 오른쪽 지류 치르치크와 아한가관을 포함한 타슈켄트 오아시스는 차치의 중심지이다. 오아시스의 북서쪽, 동쪽 그리고 남쪽의 3면을 '하늘의 산' 줄기(서쪽 헨산)인 차트칼과 쿠라민 산맥이 둘러싸고 있다. 그 산맥들의 끝인 남서쪽은 시르다르야 강으로 향해 신줄기가 끝나는데, '카라마자르(검은 무덤)'라는 비극적인 이름으로 불린다.

그때 가장 번성하였던 차치는 이 오아시스에 결코 경계를 긋지 않았다. 그 땅의 북쪽은 켈레스 계곡뿐만 아니라 멀리 북쪽으로 아르이사 계곡과 더 멀리 오토랄에 이르기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차치 왕실로 파견한 소그드 대사 파투파란이 그의 황제에게 보낸 편지 속에 부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¹

아랍의 역사학자 앳-타바리도 마찬가지로 사마르칸드의 아랍인들이 잡은 포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차치의 지지를 희망하면서 "소그드 왕이 타르벤드(오토랄)에서 살고 있는 사시 왕에게 편지를 썼다"²고 기술하였다.

카라마자르 산을 넘어 차치의 페르가나와의 남쪽 국경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아랍의

1 Согдийские документы с горы Муг. Вып. 2 / Пер. и комм. В.А. Лившица. М., 1962. С. 79.

2 Ат-Табари. История // BGA, II. P.1518.

지리학자 이븐 하우칼은 “마지막으로는 산들과 관련된 문화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사사의 관구”라고 강조하였다.³

고개를 넘어 탈라스와 페르가나 계곡으로 가기에 편리한 차치의 산들은 수직적인 방목지 이동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목장이다. 차치와 페르가나는 뿔이 있는 가축과 특히 훌륭한 말의 사육지로 유명하다. 아랍 학자들의 자료는 시르다르야 강 양안의 목장도 차치에 속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지리학자 이흐타흐리는 차치의 북동쪽 국경지대인 탈라스주(중국어로 툴로스이)를 타라자라고 하였으며, 그곳에 차치 주둔군이 있었다고 하였다.⁴

차치는 중앙아시아의 무역-경제 그리고 문화-인종적 활동의 중요한 십자로에 자리한 것 말고도 오아시스 정주민들 중에서는 스텝에 인접한 농경민과 유목민의 활발한 교류 지역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시르다르야는 강력한 인종·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증폭제 역할을 한다.

차트칼과 쿨라마 그리고 카라마자르 산지에서 채취하는 귀금속과 비철금속 및 터키옥을 비롯한 귀중한 보석 등 천연자원이 무진장 매장된 영토는 두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철, 안료, 도자토 등도 있다. 금, 은, 터키옥 등은 동방과 유럽으로 수출하는 중요 품목이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차치의 역사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단계의 국가 형성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중세 초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밝힐 수 없다.

고대의 사료들은 시르다르야-야크사르트 강변을 농경민과 유목민의 경계지역으로 성

3 Абуль Касым ибн-Хаукаль. Пути и страны // ВГА, II. С. 384.

4 Истахри. Китаб масалик ал-мамалик (персидский текст) //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киргизов и Киргизии. Вып. I. М., 1973. С. 30.

격짓고 있다. 스트라본은 “야크사르트는 소그드인과 유목민을 나누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⁵ 디오니시 페리에기트는 “사키가 소그드를 넘어 야크사르트를 따라 거주하였으며, 활을 가지고 싸우는데 능숙한 궁수들은 제멋대로 시위를 당기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⁶ 연구자들은 시르다르야 강 중부지역을 자야크사르트 사키인들과 관련지었는데, 이곳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뒤섞이면서 활발한 혼혈이 이루어졌다.⁷

기원전 1000년대의 주민들 성격이 유목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한가란과 치르치크의 계곡에서 하구의 농경민들과 함께 살던 목축민들이 타슈켄트 오아시스에 정주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이것은 부르굴류크 문화인데,⁸ 자랍산 산맥의 서쪽에서 남쪽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나란히 이어져 있고, 동쪽에서는 중국에 이르기까지, 차우후초이 문화가 동투르키스탄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이 지역들이 아주 오래된 고대부터 서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⁹

이 문화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아시스의 남서쪽 지역의 반지하식 주거지를 토대로 하여 거대한 성과 둥근 망루 그리고 방어용 참호가 있는 플랫폼 위에 성벽이 구축된 도시가 형성되었다. 벽과 망루는 사각형의 미가공 벽돌과 블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설계와 벽돌의 표준규격, 축성법, 회랑과 망루, 도자 등 이 층 속에서 발굴한 유물들은 고대 농

5 Страбон. География в XVII книгах / Пер. и комм. Г.А. Стратоновского. М., 1964. XI, С. 88.

6 Страбон. География в XVII книгах / Пер. и комм. Г.А. Стратоновского. М., 1964. XI, 881) Древние авторы о Средней Азии (VI в. до н.э. VI в. н.э.). Ташкент, 1940. С. 23.

7 Herzfeld E. Sakastan, Archeologische Mi Heilungen aus Iran. Bd. 4. Berlin, 1931, s. 8-10, 54-55.

8 Дуке Х. Туябугузские поселения Бургулукской культуры. Ташкент, 1982.

9 Буряков Ю.Ф. Генезис и динамика развития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бассейна Сырдарьи (проблемы взаимосвязи земледельцев и скотоводов) //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Asian Studies. Vol. 9. Seoul, 2004. P. 315-318.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Asia Studies. Vol. 9. Seoul. 2004, cc. 315~318.)

경민 문화가 남긴 서방 고대 건축의 세계로 우리들을 인도한다. 그것들은 고대 그리스의 건축 속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소그드에서 찾을 수 있다. 사마르칸드 소그드 초기 도시 집중화의 문제를 연구한 M. 이사미디노프와 K. 라펜은 특별히 벽돌 발전 과정을 살피면서 칸카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표준형을 고대 그리스의 것과 연관시켰다.¹⁰ 고대 호레즘에서 건축 자재의 발전은 이들의 연대를 산정해 준다.¹¹ 이것은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세워진 성의 토대 속에서 나타나는 안티오히야 자야크사르트스키와 관련되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에서 고대 문화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 생태학적 압력과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강의 건조한 기후, 그리고 기원전 3세기 말과 2세기 초의 서북쪽 경계 지역에서의 대유목민들의 통일과정에서 벌어진 침예한 투쟁은 독창적인 물질문화, 반농반목 타입의 건축적인 전통과 더불어 다양한 주민들이 활발히 농경지에 정착하도록 했다. 한나라 왕실의 중국 연대기들은 '유니'라는 이름 아래¹³ 이오사(야크사르트) 강에 대한 소유권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칸규이 반유목민 연합체 속의 다섯 개의 작은 소유지 속에 포함된다. 칸규이 조직 속에서 유니는 100개 이상의 요새와 13개 이상의 도시적인 거점을 지닌 보다 도시 집중적인 요소를 가진다. 무역로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북쪽의 길이라고 부르며, 서쪽의 루코프 산을 넘어서 다반, 칸규이, 안

10 Исамиддинов М., Рапен К. Городище Коктепа и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ранней урбанизации Самаркандского Согда // Средняя Азия: археология,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М., 2000. С. 204.

11 Вишневская О.А., Раппопорт Ю.А. Городище Кюзели-гыр. К вопросу о раннем этапе истории Хорезма // ВДИ. 1997. No. 2. сс. 150~173.

12 Буряков Ю.Ф. Генезис и этапы развития городской культуры Ташкентского оазиса. Ташкент, 1982. сс. 150~173.

13 Буряков Ю.Ф. Генезис и этапы развития городской культуры Ташкентского оазиса. Ташкент, 1982. сс. 103~106.

차이 그리고 안치 등으로 통한다.¹⁴

야크사르트는 이때부터 문화와 무역의 중계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길은 야크사르트를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다 후대의 자료에 의해 직접 보장되었다. 도시 집중화의 초기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보다 강력한 도시 유니들은 야크사르트 강변 지역으로 쏠렸다.

타슈켄트의 유니첸 시¹⁵와 유니의 수도를 혼동한 연구자들과는 달리, 우리들은 그것이 칸카의 성터 위에서 분명히 진행되었고 이 시대에 유일하게 발달한 중심도시였다고 본다. 바로 기원전 1세기부터 성터는 번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곳은 시르다르야 강의 중류와 하류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칸규이의 중심지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 속에서 칸규이 왕의 겨울 궁전을 보고자 하였다.

한 왕실의 중국 연대기에는, 칸규이 왕은 로유에나 나라의 비타나 시¹⁶에 체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반에서 비타나까지는 1,510리나 되고,¹⁷ 그것은 티안지 호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다.

초기 중세기로 향하는 과도기인 지역 발전의 새로운 단계는 3세기에서 4세기경 차치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에는 새로운 생태적 위기가 찾아왔으며, 그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종족들의 활발한 이주를 불러일으켰다. 그 가운데 일부 주민은 시르다르야 강 하류로부터 그 상류 그리고 서쪽에서 자랍산과 카시카다르야 계곡으로 이주했다. 칸규이를 비롯한 강력한 고대 정부는 붕괴되었으며, 독립 국가는 분할되었

14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170.

15 Массон М.Е. Прошлое Ташкента. Ташкент, 1954. С. 107 ; Филанович М.И. Ташкент. Зарожд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города и городской культуры. Ташкент, 1983. 35, сс. 174~176.

16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184.

17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184.

다. 바로 이때 역사 지도 위에 시르다르야 종류의 강변에 차치와 같은 이름의 수도가 나타났다.

문헌 사료 속에서 차치라는 국명은 페르시아 황제인 사푸르 1세의 치세기인 262년에 새겨진 카아베 조로아스터 승전비의 비문 속에서 처음으로 살필 수 있다. 거기에는 사산 왕조 속에 들어 있는 도시들과 영토가 나열되어 있고,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국경이 표시되어 있다. 비문의 마지막 가운데 부분에는 그 경계가 카시, 소그드 그리고 차치스탄에 이르는 기록이 있다.¹⁸ U. V. 루코니나는 카시가 카시가르와 같은 이름이고, 또 차치는 카시로 전해졌는데,¹⁹ 카시에는 어쩌면 케시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샤푸르는 이 시기에 모든 사료 속에서 오직 차치로만 전해졌다고 하면서, 단지 아랍시대 이후 샤푸르는 이름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밖의 모든 연구자들은 사산 왕이 세운 비석에는 실제로 존재한 왕국의 국경보다는 당시 사산 왕조의 희망이 제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아래에서 살필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문화적 영향 등 몇 가지는 사실에 근접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냥 단순한 차치가 아니라 차치 산(山)의 쿠히 차치를 이끌어 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차치 출신의 ‘차치족’은 마니교 텍스트 속에 언급되어 있다.²⁰ 4세기의 은제 그릇 위에 각인된 글씨 속에는 그릇의 소유자를 ‘차치의 샤푸르’라고 불렀다.²¹ 바로 이 용어는 유럽의 많은 동방학 학자들의 연구 기반이 되었다.

18 Sprengling M. Third Century Iran: Sapa and Kartir. Chicago, 1953. P. 7. В тексте В. Луконина, название его нередко как Шаш, но в чтении друг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название друг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ередается как Чач. См.: Фрай Р. Наследие Ирана. М., 1972. сс. 293~294.

19 Луконин В. Культура сасанидского Ирана. М., 1969. С. 126.

20 Henning W. B. Sogdica. - London, 1940. P. 9.

21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III – середина VIII в. н.э.). Ташкент, 2006.

차치는 차치와 특히 소그드²²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발견된 많은 동전에도 기록되어 있다.²³ 이 시대의 중국 사료들 속에서 차치는 시 또는 제쉐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특히 제쉐라는 이름의 차치는 베이시 북 왕조들의 연대기 속에도 언급되고 있으며, 서쪽 이웃국가들의 집성물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제국 상호 관계에 관한 기술이다. 그에 관해서, 두 개의 매우 잘 알려진 이웃의 소유지 중의 하나에 관해 436년에 중국 외교관 단 반유(N. Ya. 비추린은 투안 유아뉴)에게 우순의 통치자가 말했다. 그는 “폴론과 제쉐의 영토는 유안베이 왕실의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길을 찾지 못했다”고 소개했다.²⁴ 외교관은 이 나라들을 여행하였고, 그리고 437년에 되돌아왔으며, 그와 더불어 16개 영토의 외교관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이전의 칸주이었던 제쉐라는 이름이 있었다.²⁵

이 시기(북 왕조 베이시와 수이시)의 중국 정보들은 매우 짧게 그리고 서로서로가 되풀이되어 있는데, 당시 중국이 내부적인 혼란과 짧은 기간 존속했던 왕조들로 소란스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에 못지않게 두 개의 연대기 속에 시라는 이름의 차치와 그 영토, 거주민, 풍습 그리고 의례 등이 짧게 기술되어 있다. 특별히 이오샤(시르다르야) 강, 중국과의 그 에피소드적인 관계, 이웃하고 있는 지역과 시 지배자의 거주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²⁶

우리들은 당나라의 역사 속에서 차치의 기술을 찾을 수 있다. 거기에는 보다 상세하게 영토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어 마치 시에 대한 기록과 같지만, 수도는 제시로 기록되어 있

22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III – середина VIII в. н.э.). Ташкент, 2006.

23 Смирнова О.И. Каталог монет городищаПенджикент (материалы 1949 – 1956 гг.). М., 1963. No. 747-783

24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242.

25 Боровкова Л.А. Запад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о II в. до н.э. VIII в. н.э.. М., 1989. С. 133.

26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с. 272~273, С. 283.

다. 흥미롭게도 중국인들은 이오샤 강 이름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변화 속에 영토의 이름도 간직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부분이 쟁주허 혹은 지허라는 이름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²⁷ 영토의 이름이 한정됨으로써 학자들은 해석의 다양성을 불러내지 못했는데, 모든 중국의 연대기들은 시가 유니라는 곳에 위치하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의 수도는 이오시 강변의 옛 수도 유니첸 바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곳은 야크사르트-시르다르야 강변의 저지대이다. 다만, I. A. 보로브코바는, 중앙아시아의 중세 초기 모든 영토를 근거 없이 멀리 동쪽으로 옮겼고, 차치를 프룬제(오늘날 비슈켄)에서 오쉬 시로 가는 길에 위치를 한정지으려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수도를 카라콤 마을보다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토크토굴의 오쉬 북쪽으로 혼돈하였다.²⁸

연구자들은 차치의 어원, 영유지가 변형된 이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일부는 그것을 차이에차스타의 나지막한 호안과 함께 『아베스타』²⁹ 찬가 속에 나오는 신성한 호수의 이름과 결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게르세비치는, 고대 작가들의 그것을 『아베스타』와 비교하면서, 아베스타인들이 유목 삭스키 종족, 힘센 투루들의 신성한 음료, 차이에차스타의 나지막한 호안과 신성한 바다의 저지대에서 그것들이 뒤섞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다. 한편, 그는 아랄 해와 시르다르야 그리고 타슈켄트 오아시스의 저지대에 있는 차치 등 다른 것과 그것을 연결시키기도 하였다.³⁰

그러나 만약 유사한 이설을 받아들인다면 차치라는 이름은 최소한 기원전 10세기 중

27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313.

28 Авеста. Избранные гимны / перевод И.М. Стеблин-Каменского. Душанбе, 1990. сс. 119~120.

29 Gerschevitch J. An Iranistic view of the some controversy. Memorial Jean de Menasce. Ed. Par Rh. Gingnox et a Tafazolli. Imperimerie Orientaliste. Lonwain, 1974. P. 54-55.

30 Сводка всех перечисленныхточек зрения собрана в специальной работе А.А. Пенти. См. : Pentty A.A. (Helsinki) The name of Taschkent // Central Asiatic Journal. Vol. XXI. No. 304. Viesbaden, 1977. S. 193-197.

반부터 반드시 생겼을 것이며, 그때 위대한 투루족과 호수의 이름이 찬가 속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리학적인 이설과는 분명히 무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료들에 의한 차치의 전달은 학계의 주목을 끌었으며, 그 속에서 차치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돌’이다.

이로부터 차치에 ‘돌의 도시’, ‘석성(石城)’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 의미 부여를 위해 고대 저자들의 자료들, 즉 폴리니에의 일부분과 익명의 그리스 우주학의 정보, 북대양의 도시들에 대한 율리 고노리우스의 목록 등 나중에 현재의 이름 ‘타슈켄트’로 바뀐 ‘돌의 도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주의를 끌었다.

E. 사반나의 연구 가운데는 많은 양의 사료들이 인용되었는데, 그 중에는 차치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대부분은 ‘돌’의 상형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차치는 중국의 연대기 속에는 마치 칸규이 정치의 중요한 후계자처럼 전해지고 있으며, 그는 ‘돌 도시’ - ‘칸지즈’ - 칸노크 도시와 함께 흉노의 텍스트 속의 플레이블란크와 비교되었으며, 그리고 페르시아어 문학 속에서 많은 양의 돌들로 이루어진 벽이 있는 성의 전설적인 색채를 얻어내었다.³¹

이 이름을 전해준 투르크 족을 지적해야 하며, 그것을 이미 A. 비루니는 확인하였는데, “너는 ‘샤시’가 투르크어의 바로 타슈-칸드 즉 ‘돌 마을’이라는 도시 이름에서 취한 것임과 그리고 분명히 『지오그래피카』와 같은 책 속에서 그것은 ‘돌의 망루’³²라고 불리고 있는 것을 정말로 보지 못했다”고 한다.

다양한 모든 것을 따라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투르크 등 사료들의 환기력을 기본³³으

³¹ Сводка всех перечисленных точек зрения собрана в специальной работе А. А. Пенти, Pentty A. A. (Helsinki) The name of Taschkent//Central Asiatic Journal. Vol. XXI. No. 304. Viesbaden, 1977, сс. 193~197.

³² Абу Райхан Беруни Индия /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 Ташкент, 1963. Т. II. С. 271.

로 이름을 해석하면 분명히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사실상 의심스럽게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돌로 된 도시의 성벽도 아니고 돌로 된 통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동시에 우리들은 사료들의 몇몇 관점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샤푸르 1세의 승전비 속에서 나열된 ‘차치의 산’이라는 이름의 국경국가가 있다.

중국 사료 중 당나라의 연대기에는 영토가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때 그것은 중국의 무역-경제, 문화-정치적으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 크기를 제시하였으며, 수도 시를 기술하였는데, 그것은 과거의 수도 유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오시 강은 이때 차치-젠-주허 강으로 개명되었다. 남동쪽의 큰 산에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데, 그 속에서 세세라고 하는 보석을 채취하였다. N. Ya. 비추린은 그것들의 이름을 ‘진주석’³⁴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타슈켄트 지역에 그와 같은 돌은 없으며 또 그것을 이곳에서는 채취할 수 없었다. 세세의 값어치에 관해서는 차치에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군대에 의해서 750년에 수도가 포위, 강습 그리고 약탈된 것과 관련되었다. 이 전투는 당나라의 서쪽 지역을 관할하는 고구려의 고선지 장군에 의해 지휘되었으며, 전리품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황금과 순종 말 그리고 많은 양의 보석 세세였다. 도대체 이 값비싼 돌이란 무엇인가?

특히 세세의 어원을 연구한 E. 세페르는 세세가 천연보석이며, 그것은 차치의 특산물로서 수도의 남동쪽에서 많은 양을 채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차치는 이 천연광석을 중

33 폴리바노프의 관점은 독창적인데, 수도 타슈켄트의 이름을 ‘타지크인들의 도시’와 결부시켰다. Поливанов Е.А.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названия Ташкента // В.В. Бартольд. Туркестанские друзья, ученики и почитателю. Ташкент, 1927. сс. 395~400.

34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Т. I. сс. 292~300.

동아시아에 공급하는 중요 생산지였으며, 중국인들은 그 보석을 ‘페르시아의 천연보석’이라고 불렀다.

F. 히르트와 E. 사마니는 세세가 ‘터키옥’이라고 하였으나, B. 라우페르는 터키옥을 중국에서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보고 세세가 스피넬(참정석)이거나 줄무늬마노 아니면 녹보석일 것이라면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세페르는 이것이 청금석이며, 불투명하고 짙은 청색 광물이라고 여겼다. 세페르는 차치를 중요한 생산지 중의 하나로 보았지만, 청금석의 산지는 바다흐산³⁵이었으며, 어떤 지리적인 틀로도 차치를 생산지로 분류할 수 없어 그는 부득이하게 차치의 수도 남동쪽으로 그 위치를 추정하였다.

우리들의 논의는 세세에 관한 기술 중에서 터키옥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아주 오래된 고대로부터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높은 상류 사회의 장식품과 의례용품 속에서 잘 알려져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터키옥은 깊고 맑은 청색을 띠거나 아니면 빛나는 하늘색 아니면 매우 번쩍거리거나 혹은 젖빛이 나는 단단한 광물이다. 그것은 고대 동방에서 매우 귀하게 여겼으며, 고위층의 세계에서는 높은 신분, ‘승전의 길조, 행복’의 상징이었다.³⁶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터키옥이 악귀를 막아주고, 저주를 풀어주며 맹독성과 충류로부터 보호해주는 부적으로 생각되었다.³⁷ 의례용품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 수도나흐샤브의 고대 사원에는 황금가시에 터키옥이 장식되었다.

고대 사료에 의하면, 차치로부터 동방의 나라로 중동의 터키옥이 들어갔다. 남부 크이

35 Shafer E.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ies of Thang Exotics. Bearcey-Los Angeles, 1963/ Есть 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Шафер Э. Золотые персики Самарканда. Книга о чужеземных диковинах империи Тан. М., 1981. С. 305, С. 448.

36 Бируни Абу Райхан.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для познания драгоценностей (Минералогия) / Пер. и прим. А.М. Беленицкого. Л., 1963. С. 158.

37 Семенов А.А., Из области воззрений мусульман Средней Азии на качество и значение некоторых благородных камней и минералов // Мир ислама. Вып. 1. Спб., 1912. No. 3. С. 298.

즈일쿰 지역³⁸에서는 그 집적층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기원전 10세기경 이 지역은 황폐하고 산악에서의 광물 채굴도 보잘것없었다.³⁹

동시에, 지리-고고학적 연구는 이 지역, 특히 그 남부 일라크 등 중동 지역의 거대한 광업지대에서 금과 은 그리고 비금속 광물 중의 터키옥 등을 채굴하는 채광업이 10세기경에 발달했음을 밝혀주었다.

아크테파, 골두란, 피루자칸 등 일부 크지 않은 터키옥 생산지도 드러났다.⁴⁰ 그러나 터키옥의 주요 광산은 카라마자르의 북부지역에 있으며, 차치의 옛 수도로부터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지는 아한가란 왼쪽 지류의 하나인 운구를리사이 강 오른쪽 기슭의 산맥 속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 성과는 고대의 광물 생산이 막대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갱도와 광층을 포함하여 전체 면적은 1만 6,000m² 이상이지만, 고대의 생산량은 32만 m³를 넘는다. 고대 광산에서 채굴한 견본들은 높은 질과 광석에서 천연보석의 높은 함유량을 보여주었다.⁴¹ 자료를 통해서 판단하건대, 그 채굴은 서기 1000년대의 전반기에 시작되었다. 비루니는 그의 저명한 저술 『광물학』 속에서 일라크 광산의 터키옥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일라크의 터키옥 광산에서 채광한 매우 희귀하고 값비싼 광물에 대해 세공업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나는 일라크 터키옥을 보았는데, 그것은 200디르헴(무게 단위)이었으며, 나는 그때 그것을 50디나르(화폐 단위)로 평가하였지만, 그러나

38 Виноградов А.В., Лопатин С.В. Мамедов Э.Д. Кызылкумская бирюза (из истории добычи и обработки) //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1965. No. 2. сс. 114~134; Виноградов А.В. Первобытный Лявлякан. М., 1975

39 Виноградов А.В., Лопатин С.В. Мамедов Э.Д. Кызылкумская бирюза ... С. 87.

40 Буряков Ю. Ф. Горное дело и металлургия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Илака 5 – начала 13 в. М., 1974. сс. 43~45.

41 위의 책, сс. 43~44.

지금 그 가치는 200디나르이다. 왜냐하면 일라크 광산이 고갈되었고 또 폐광되었기 때문이다.”⁴² 이 광산은 우리들에 의해서 구획되었으며,⁴³ 그 후 E. B. 프루게르⁴⁴에 의해서 운구를리칸으로 추정되었다. 그것은 바로 차치의 수도 남동쪽에 있는 산에 위치해 있으며, 칸카 고성으로 중국 연대기의 유명한 세세 광산과 혼동되었다.

제시된 자료들은 영토의 이름이 ‘석성’이 아니라 ‘보석’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차치인들은 생활면에서, 도시의 성장과 더불어 마을, 성, 도시들이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시르다르야 강 계곡을 주목하였고, 중부 저지대와 산기슭의 대지를 개간하였다.

아한가란 계곡의 남부지역을 활발히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해야 하는데, 바로 이 시기에 이 지역이 광산업의 중심지였다. 그 중 은광은 라시케레크 광산구역이었고, 금광은 크이즈일라말마, 동광은 코크렐, 철은 사우가즈 등이 있었다.

툰케트(임라크), 투케트(쿨오타), 베즈이만과 현재의 안그렌 시 근처의 쿠르간테르 성지 등 철광석을 가공하는 특별 구역이 등장하였다.

역사서 가운데는 이 시기의 금속 제품이 넓게 소개되고 있으며 전부 소그드 생산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 시기의 소그드 은과 금광을 알지 못한다. 아마도 차치에서 철광물이 이곳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들 금속 제품들이 차치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4세기에 만들어진 은제 그릇 수습품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표면에

42 Бируни Абу Райхан.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познания драгоценностей (Минералогия) / Пер. и прим. А.М. Беленицкого. Л., 1963. С. 159.

43 Буряков Ю.Ф. Из прошлого Чаткало-Курамин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айона (к истории горного дела и металлургии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Илака): Автореф. дис. ... к.и.н. Ташкент, 1966. С. 10.

44 Пругер Е.Б. Бирюза Илака и Илакский рудник бирюзы //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971. No. сс. 118~126.

는 ‘차치족’ 혹은 ‘차치족에게 소속된’이라는 글귀와 더불어 지배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⁴⁵

기원전 10세기 전반에 이 지역 유적들에 대한 고고-인류학적인 연구는 유목민들의 정주를 제시하였다.⁴⁶ 타시켄트 오아시스의 북쪽 지역에서는 농경에 적합한 땅의 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서히 평지와 산기슭의 땅이 개간되었고 관개시설이 만들어졌다. 10세기 중반에 치르치크 강변의 저지대에 거대한 자흐 운하가 만들어졌으며,⁴⁷ 그 상류에 파르구시 성이 생겨났고, 나중에 도시로 바뀌었다. 살라르, 준, 쿠르쿨두크 그리고 치르치크 왼쪽 기슭에 있는 하나르이크 등의 실개천들은 운하로 바뀌었다. 이 운하 위에 카바르나 시가 세워졌다.⁴⁸

카바르나 시는 산기슭의 목동들과 경계를 이루는 아드이르 지역과 치르치크의 방사상에서 두 방향은 강으로, 세 번째 방향은 가파른 강변이 있는 지류로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미가공의 벽돌과 단단한 블록으로 만든 두 겹의 벽이 있는 둥글고 큰 성이었다. 성은 바로 유목민들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 그 다음에 운하와 그것을 따라서 거대한 도시가 번창하였으며, 망루와 함께 벽이 있는 도시 방어용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것은 물론 전 지역을 다 둘러싼 것은 아니었지만, 크게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다. 아마도 성안은 정착 목축민의 집과 유르타(천막집) 그리고

45 Лившиц В.А., Луконин В. Среднеперсидская и согдийская надписи на серебряных сосудах... сс. 155~174.

46 Аминов В., Буряков Ю.Ф., Ходжайов Т.К.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к этн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долины Ахангарана // ИМКУ. Вып. 14. Ташкент, 1978. С. 87.

47 Дадабаев Г. история орошения правобережной части Чирчикской долины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чала XIII в.). Автореф. дис. ... канд. истор. наук. Ташкент, 1974.

48 Буряков Ю.Ф.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городища Кавардан // ИМКУ. Вып. 13. Ташкент, 1976. сс. 70~87.

커다란 저택으로 채워졌을 것이다.

치르키크 강 계곡의 평지에서 도시가 발전하면서 카운치와 사마테프에 성이 축조되고, 타슈켄트 지역에는 민구류크시가 건설되었다. 오아시스의 산기슭 스텝 경계 지역에 세워진 이 모든 지점들은 강력하게 발전한 방어 기능들을 보여주었다. 시르다르야 계곡의 가장 거대한 중심지들은 다음 단계의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그것은 비단길과 긴밀하게 관련되었다.

아마도, 이때 수도는 하리슈케트(하라-흐바라-파른, 즉 행운의 상징)라고 하는 고유한 이름을 얻었을 것이다. 대상의 길에는 샤희루히야-베나게트가 번성하였고, 국제적인 도로가 이곳을 지나간다. 이 대도시들은 크기와 축성화 등으로 볼 때 거대한 도시 소그드, 나흐사바와 비슷하며, 수공업 그리고 수도의 기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켄드이크테프의 수공업 도시와 악쿠르간의 농업 도시 등 좀더 작은 소도시가 생겼다.

연구자들은 타슈켄트의 오아시스는 카운치 시대에 이웃한 페르가나, 그 중에서도 특히 북쪽에 문화뿐만 아니라 인류학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은 중부 페르가나보다는 차치에 더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⁹ 중세 초기의 차치는 비단길 북쪽 길들과의 경계 지점에서 상업 등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가 아마도 채광지의 수출업자에 의한 비철금속과 귀금속 그리고 보석 세공품들이었을 것이다.

차치의 상인들은 중국 국경 근처의 식민지 둔황[敦煌]에서 온 3~4세기의 오래된 소그드 편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졌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사마르칸드와 부하라 상인 다음의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⁵⁰

49 Литвинский Б.А. Джунский могильник и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Кангюйской проблемы // СА. 1967. No. 2. сс. 32~33 ; Он же. Проблема этн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древней и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й Ферганы //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М., 1976. С. 55.

첫 번째 화폐인 체간은 차치의 중세 초기 역사 중 이른 시기와 관련되는데, 상거래에 활발하게 이용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폐는 구리로 만들었으며, 0.2~2.95g에 이르기가 지 무게 차이가 있는 동전을 대량으로 생산하였다. 게다가 모든 동전은 무게에 따라 일정한 도안을 가지고 있었다.

1만 3,000개 이상의 동전들의 발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칸카 성터 그리고 그 주변, 사흐루히야 성터, 켄드이크테프, 오아시스의 중심지 등 기본적으로 시르다르야 강변 혹은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들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다. 학술 서적은 폭넓게 이 동전들의 성질에 관해서 소개하였다. M. E. 마송이 첫 번째의 표본물들을 3~4세기로 편년하고 또 기술하였다.⁵¹ 그 후 V. M. 마송, B. I. 바인베르크, E. V. 제이말, A. 무사카예바 등이 이 동전을 주목하였다.

르트벨라제는 그것들을 보다 세밀하게 연구하고 논문과 단행본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속에서 상세한 역사문제, 선행연구자들의 논저목록 등이 제시되었다.⁵² 그 책에는 몇몇 타입의 동전에 대한 도안과 그 기원, 인종, 속성, 기호(답가)와 글씨들의 세세한 분류 등이 제시되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독자들을 남겨 두고, 우리들은 이 시대 차치의 유물 분석을 위해 동전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잠시 멈추고자 한다.

동전 표면에는 통치자의 얼굴과 함께 가슴 아래까지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측면에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며, 가슴은 살짝 정면으로 돌리고 있다. 초상은

50 Henning W. Mitteliranische Handbuch der Orientalistik. 1. Abteilung. 4. Band. Iranistik. Leiden-Koeln, 1958. S. 55.

51 Масон М.Е. Монетные находк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1930 и 1931 гг. // Материалы Узкомстариса. Вып. V. Ташкент, 1959. С. 27.

52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III середина VIII в. н.э.). Ташкент, 2006.

개인적이며, 얼굴은 때때로 젊은 모습이지만 대부분은 원숙한 연령의 모습이다. 때부리 코에 큰 머리, 도드라진 진주의 눈동자가 있는 편도복숭아형 눈, 날렵한 이마와 튀어나온 턱, 두꺼운 입술이다. 윗입술 위에는 가늘고(때로는 보다 넓은) 긴 콧수염이 나 있다. 턱에는 많지 않은 수염이 있다. 곱슬머리에, 때때로 왕관을 쓰고 있거나 머리타래가 아래로 늘어져 있고 귀는 보이지 않는다. 통치자는 카프탄(옷의 일종)을 입었다. 목에는 귀금속 목장식이 있다. 르트벨라제는 통치자의 왕관을 분석하면서 사산 왕조의 아르다시르 1세와 샤푸르 1세의 왕관 가운데 있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줄과 비슷한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흥미로운 지적이다. 그것들은 왕관 위가 아니라 제일 마지막 머리카락 위에 직접 포개어져 있다. 가슴 장식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큰 구슬 혹은 보석이 달린 넓고 매끈한 테로 이루어진 복잡한 조립품이다. 저자는 이 장식이 차치 통치자들의 일정한 표지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⁵³

다른 세부들—왕관의 생김새, 수염과 머리, 탐가 등을 통해서 그는 그것들이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로 들어온 유예지족이나 칸규이 왕실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당나라 시대의 중국 연대기 속에도 기술되어 있다.⁵⁴

르트벨라제는 샤푸르 1세의 동전들과 도형의 세부가 비슷한 일련의 특징들을 주목한 후, 동전의 글씨들을 통해서 샤푸르 1세가 차치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 영토의 일부를 지배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차치의 동전에는 바로 이 시기에 제조된 사산 왕조 동전 중 일부가 차용되었으며, 이들의 생산은 아마도 3세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차치의 동전은 6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조되었으며, 그때 차치에서 다른 주제의 도형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동전들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⁵⁵

53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 сс. 19~22.

54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313.

55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 сс. 28~31.

차치의 경제적인 성장의 특성을 제외하고, 풍부한 수량 가운데서 드러나는 표준적인 동전들은 사회-의례적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흥미로웠다. 차치를 기술하면서, 주민들의 풍습과 의례의 특성에 관한 중국의 연대기 『북사(北史)』와 『수서(隋書)』는 불의 의례와 관련된 수도의 중앙사원에 관해 전하고 있다. 청사의 남동쪽을 따라서 건물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옥좌가 놓여 있다. 첫달 6일에 이 옥좌에 통치자의 선조들을 화장한 재가 담긴 황금 골호를 얹어두고, 그 다음 그 옥좌 주위를 돌면서 향기로운 꽃들과 여러 가지 과실들을 뿌린다. 지배자와 귀족들은 고기 등 재물을 바친다. 의례의 마지막에 지배자와 부인은 특별한 곳으로 떠나간다. 귀족들과 보통 사람들은 순서에 따라서 앉으며, 식사가 끝나면 뿔뿔이 흩어진다.⁵⁶

수도의 발굴 결과, 우리들은 실제로 성터의 남동쪽에서 통치자의 감옥과 함께 거대한 사원지를 발견하였다. 14×14m의 사각형 방이 그 중심이었다. 깨지기 쉬운 간체프 타일의 벽을 따라 좁은 수파가 있고, 입구의 반대편은 이전 언젠가 다채색의 벽화로 장식된 3단의 커다란 수파 기단(基壇)과 벽이 있으며, 그 기단 위에는 불꽃처럼 붉게 빛나는 모양으로 부조가 장식되어 있다. 방 주위의 두 곳에도 마찬가지로 벽화로 장식된 복도가 나 있고, 그 무대 너머에는 축제 기간에 홀 안으로 가져온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저장고로 옮기는 작은 문이 나 있다. 홀의 바닥과 수파에는 아마도 재물과 더불어 곡식, 시든 꽃들, 그릇들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옆방의 바닥에는 두개골과 함께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말과 새끼말의 해골들이 동쪽 벽에 있는 성소를 향해 놓여 있었다.

이곳은 분명히 차치의 수도의 중심 사원이며, 틀림없이 그것에 관해서 중국의 연대기 속에는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원은 불타고 또 허물어졌다. 복도에서 사원의 열쇠와 몸통에 화살이 박힌 사람의 유골 등을 찾았다. 벽면에는 철제 갈고리가 박혀있었는

56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с. 272~273, С. 282.

데, 그것은 공습 때에 사용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원은 도시 공습의 결과로 붕괴된 것이다. 벽화는 불탔으며 사원의 기증물들은 소실되었으나, 흙으로 만든 칙서의 인장들은 보존되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고승(高僧)은 선물의 봉인을 하였다. 화재 때에 그슬린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사원 승려들의 초상, 그들의 칭호와 이름이 있는 문장 등을 제시해 주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리들이 차치의 고대 동전에서 살필 수 있는 초상들과 닮은 인장의 초상이다. 동전의 표면에 있는 남자의 얼굴(젊은이 혹은 늙은이)은 측면에 왼쪽을 보고 있고, 곱슬머리에 때로는 투구 혹은 끈으로 묶은 왕관을 쓰고 있다. 도장 가운데 가슴은 동전보다 양감이 분명하게 표현되었다. 목의 장식을 제외한 다른 부조적 장식들도 보인다. 아마도 그들은 카프탄뿐만 아니라 전투복(갑옷)도 입었을 것이다.

이 수습품은 한편으로는 칸카가 실제로 차치의 수도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중요한 사원이 위치하였다고 중국 사료들은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수습품들이 수도에 있는 중요한 사원의 고승과 같은 영토 통치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열어 주었다는 점이다.

소그드학의 전문가 V. A. 리프시치가 칙서 가운데 하나에서 읽은 고승의 이름 ‘아스카사프(아스피아사크) 사나크 카바테나크’는 매우 흥미롭다. 첫 번째 단어는 ‘주교(에피스코프-마니교의 전문 용어)’ 혹은 ‘부제(副祭, 드야콘-기독교의 계급제도)’이다. 두 번째 단어는 이름인데, 프랑스의 연구자 H. 트랑블레는 그의 연구 가운데서 중앙아시아의 마니교도들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면서,⁵⁷ 소그드어로 ‘돌’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고승의 고귀한 이름은 영토 이름과 동음으로 판명되었다.

57 Tremblay Xavier. Pour une historiere de la Serinde. La manicheisme parmi les peuples et religions d'Asie Centrale d' apres les sources primaries // Veroffentlichungen der Kommission fur Iranistik Herausgegebenen von Heiner Eichner und Rudiger Schmitt. N 28. Wien, 2001. S. 93-94

서기 1000년대의 중반에는, 차치는 유목국가 속에 포함되어 그 구성체 속에 약 100년간 소속되어 있었다. 유목지역, 도시에 집중된 오아시스들(그 가운데서 중앙아시아 주들의 큰 지역들을 포함하여)⁵⁸을 포함하여 거대한 국가를 만들었으며, 고대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들은 이란을 물리쳤고, 차치와 페르가나 산맥까지의 북쪽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 사산족들과 긴 기간 동안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⁵⁹

차치의 물질문화 속에는 도시들과 주거지의 설계 가운데서 새로운 인종학적 성분들이 분명하게 추적되었는데, 그것들은 사마르칸드 소그드와 부하라의 스텝 지역 나흐셰브 문화와 유사하며, 칸규이를 기반으로 하여 5세기 중반에 형성되었다. 다수의 사료들은 차치가 동투르크িস탄으로 이동하면서 유목민족들의 국가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르 트벨라제는 유목민족 단계의 차치 동전에 관해 기술하면서, 도장의 한 부분을 통해 그들의 동전이 4세기 말부터 나타났음을 제시하고 있다.⁶⁰ 우리들의 견해로는, 차치의 이들 동전 가운데서 칸규이 도장의 존재는 당시 교역을 통해 유목민족 국가의 성원인 차치(나흐샤바처럼)로 들어간 이익의 귀중한 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자들은 그 종족들은 600년대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동투르크িস탄으로 갔다고 판단하고 있다.⁶¹

6세기 중반에 차치는 투르크 카가나트(칸국)의 새로운 정치적 통합 궤도 속에 포함되었다. 카가나트는 551년에 형성되었으며, 지배 세력이 붕괴한 후인 투르크의 통치자 아시나부르인 때, 주장은 스스로를 일-카가나트라고 선언하였다. 555년에 무칸 카간(553~572)

58 Неразик Е.Е. История таджикского народа. М., 1963. Т. 1.; Маршак Б.И. К вопросу о восточных противниках Ирана в V в. //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Востока. Вып. X. М., 1971. С. 65.

59 Altheim F. Geschichte der Hunnen. II. Band. Die Heptaliten in Iran. Berlin, 1960.

60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 сс. 111-114.

61 Мандельштам А.Н. К вопросу о кидаритах // КСИЭ. 1958. Вып. XXX.

이 주장을 물리치고, 중앙과 그 후 중앙아시아의 지배 계층을 설치하였다. 중앙아시아는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뒤를 이어 타스파르(572~581), 니바르(581~587), 통가 투란(588~600), 시비(609~619), 엘 하칸(620~630)이 차례로 카간이 되었다.⁶²

사료들은 ‘열개 화살’의 투르크 통치자 이스테미 야브구(552~576), 타르두(576~603), 톤야브구(618~630)와 중앙아시아를 직접적으로 관련짓고 있다.⁶³ 555년이 되면서 시르다르야는 두 강국의 국경이 되었다.

유목민들과의 투쟁을 이끈 ‘열개 화살’ 종족의 활동적인 통치자를 투르크 사람들은 이스테민, 비잔틴의 사료 속에서는 질지불, 중국인들은 쉬터미, 아랍인들은 산지부라고 불렀다. 이미 투르크의 유목민족과의 첫 번째 충돌이 것처럼 강하였는데, 시인 피르다우시의 표현에 따르면, “차치에서 기마병들의 뜨거운 물로 굴자리운(시르다르야-유.베)의 물들은 장밋빛이 되었다.”⁶⁴ 때때로 상황은 안정되었는데, 그 까닭은 이스테미는 제이훈에서 유목민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바꿨고, 유목민들은 어디선가로부터 불가까지 흘러들어 갔기 때문이다. 북부지역에서 성공적인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는데, 중국과 차치에서부터 제이훈에 이르기까지⁶⁵ 동시대인들이 그를 정의의 사도, 군비와 왕권의 사령관이라고 불렀다. 한편 남쪽의 국경지역은 유목민들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고 이스테미는 할 수 없이 북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비잔틴 사료 속의 표현에 따르면, 그는 먼저 유목민들을 제거하고자 하였고, 그 다음 새롭게 북쪽의 아랍인들과의 전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⁶⁶ 그는 이란 왕 호스로프 1세와 동맹을 체결하였고 또 대군

62 Кляшторный С.Г., Лившиц В.А. Согдийские надписи из Бугута. // СНВ. X. М., 1971. сс. 130~131.

63 Птицын Г.В. К вопросу о географии «Шахнаме». // ТОВЭ. Т. IV. Л., 1947. сс. 302~303.

64 Птицын Г.В. К вопросу о географии «Шахнаме»...

65 위의 책. сс. 302~303.

을 이끌고 다시 시르다르야로 향하였다. 차치와 파라크를 차지하고 자랍산 계곡, 나사프, 사마르칸드 그리고 부하라로 들어갔다. 피르다우시는, “차치, 파라크, 사마르칸드 그리고 소그드의 많은 땅들이 황폐해졌으며, 체류지가 되었다”고 기술하였다.⁶⁷

오랜 전쟁은 사흐세브와 부하라 근처의 전투에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유목민들은 완전히 패망하였고 투르크의 땅에 마음을 빼앗겼다. 571년 이란과의 전투 결과, 아무다르야는 카가나트와 사힌사흐 사이의 국경이 되었다. 그리고 576년에 투르크들은 보스포르 킴메르를 차지하였으며 흑해까지 이르렀다.

같은 해에 카간은 비잔틴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2세에게 소그드 상인 마니아흐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이란에 대항하는 무역과 군사 동맹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서 동부지역의 전략가 제마르흐를 단장으로 하는 비잔틴의 사절이 카가나트를 따랐다.

전체적으로 발전기의 카가나트는 동쪽으로 중국과의 국경에서부터 서쪽으로 카스피해에 이르기까지의 땅을 차지하였다. 내부에서는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로 유목민들이 대대적으로 이주하고, 투르크의 이름이 붙은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 도시와 정착지에서 유목민들은 현저하게 투르크적인 속성으로 형성되어 정착이 이루어졌다.

카가나트 영토 지배자들의 칭호에는 투르크 엘리트들의 서로 다른 등급의 이름이 읽혀 지는데, 그것은 타르한, 사드, 투둔, 야브구, 추르, 테긴 등이다.⁶⁸ 특히 이 과정은 관할 영토 내에서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서 독자적인 영토를 갖추고 카가나트의 조직

66 Менандр Византиец. Продолжение истории Агафиевой. ... С. 128.

67 Беленицкий А.М. Истори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Хутталя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X в. / МИА, 16. - М.-Л., 1950. С. 112.

68 Бобоёров Г. В.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VI-VIII вв. (по Орхоно-Енисейским письменным памятникам). : Автореф. дис... к.и.н. Т., 2003. С. 10.

속에 들어 있는 차치가 첫 번째로 관련되어 있었다. 586년의 이스테미 카간 사후 내분과 두 개의 정부로 카가나트가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내분을 이용하여 차치의 통치자는 604년에 투르크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였지만 패배하고 말았다. 투둔 계급의 아시아 족 출신 투르크 관리가 직접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연대기들은 “차치인들은 전투에 능하지만, 투르크의 통치자들과 싸우자, 투르크 통치자들은 마침내 그들을 물리쳤고 그리고 이제는 투르크의 지도자 텔레 탄지(푸지)가 그들의 정부를 다스렸다”고 전하고 있다.⁶⁹

투둔이란 칭호의 의미에 관해서는 학자 간에 이견이 있다. 중국의 사료들은 “카간 튜세후가 자신의 국가를 개혁하였으며, 중앙아시아 각 지역의 통치자로 자신의 대리자 투둔들을 파견하였으며, 그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현지 정부를 관할하고 또 조세를 징수하는 것이었다”고 전하고 있다.⁷⁰ 이에 관하여, 8세기 초에 세워진 부구트 비문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투둔들은 카가나트 상층부 통치자 중의 일부였다.

여기에서 카가나트 엘리트들의 다음과 같은 계급구조가 주목되는데, 카간과 그의 가까운 친척들은 샤도프이트, 쿠르카프이트, 투둔들이고, 그 다음 계급에 따라서 군인들과 백성들이 이어진다.⁷¹ 텔레 푸지에 대해서 중국 사료들은 중국으로 사절을 보내고 또 받아들이는 등 그들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한 투르크의 통치자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그는 고위의 카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에 대해서, 서투르크 카간들 가운데서 한 카간이 “시의 북쪽에 살면서 중앙아시아 소그드의 전 영토를 통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또 616년에 카간 튜세후는 그의 여름 수도인 ‘남쪽 본부’를 차치의 북쪽 지역으로 옮겼으며, 중국 사료들은 그곳을 찬 주안(천

69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Т. 1. С. 277, С. 282, С. 313.

70 Толстов С.П. Древний Хорезм. М., 1948. С. 260.

71 Кляшторный С.Г., Лившиц В.А. Согдийские надписи из Бугута... С. 132.

개의 열쇠)이라고 기술하였다. “투르크의 카간은 매년 여름 이곳에서 피서를 하였다”고 연대기 편찬자들이 전하고 있다.⁷² “이곳은 중국의 연대기에 따르면, 수에(수야바)에서 400리, 찬 주안에서 140~150리 떨어진 탈라스 시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는 모든 나라의 상인들과 이민족들이 함께 뒤섞여 살고 있다.”⁷³

동시에 이미 7세기 전반기에 카가나트의 정치적 상황은 안정을 상실하였다. 초기의 카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툽세후는, 한 편으로는 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수십만 명의 궁수를 거느리고 있는 용감하고 현명한 통치자로 동시대인들이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그 시대에 카가나트에서는 새로운 내분이 일어났으며, 그의 후계자 엘테리시 시르카간은 부득불 그의 영토를 10개의 아이막으로 공식 분할하였다.⁷⁴

카가나트의 붕괴는 그 영토 속에 구성되어 있는 나라들의 급격한 분할을 촉진시켰으며, 차치는 그 일례이다. 승려 슈안 잔은, 629년에 중앙아시아의 강 사이의 지역에서 이주하여 왔는데, 그들의 분할과 내란에 관해서 기술하였다. 그는 차치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나라 가운데 10개 이상의 도시가 있었으며 모든 도시들에는 각각 통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차치 속에 포함된 수야브에 관해서, 그는 “그곳의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서로 울부짖지만, 그러나 ‘투르크 통치자’에게 복종한다”고 기술하였다.⁷⁵ 이와 같은 내분의 결과 ‘강한 디흐칸’이 통치한 남쪽 광산 지역 일라크의 분리와 함께 차치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큰

72 Боровкова А.А. Запад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о II в. до н.э. VIII в. н.э.. М., 1989. С. 133.

73 Боровкова А.А. Запад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С. 133-134 ; Зуев Ю.А. Ранние тюрк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и идеологии. Алматы, 2002. сс. 94~95.

74 Бичурин Н. 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т. 1., сс. 279~300.

75 Siy-ki Buddhist Records of the Western Worlds(translated from the Chinese of Hiuen Tsiang (a.ob 629) by Sannel beal in two volumes. London, 1884. V. I. P. 30.

경제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차치와 일라크는 더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당나라의 역사 속에서 차치의 주민들은 호전적이고 전투에 능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아마도, 투둔이 그의 진영을 보다 북쪽 경계지로 옮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고위 카간의 본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차치는 카가나트의 일반적인 내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것을 이용하였다. 차치는 7세기의 40~50년에 강해졌으며 새롭게 일정한 독립을 쟁취하였는데, 특히 헤방 이후 50년대에 홀루 카간들의 격렬한 반란 중의 하나로, 그 기능을 차치 통치자가 부분적으로 상속하였다.

카가나트의 조직 속에서 스텝과의 관계 강화는 차치의 경제 발전과 그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대기들은 시에서 밀, 보리, 수수가 재배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계곡과 산기슭에 기름진 밭과 참외 생산지가 있었다.

페르가나와 더불어서 차치는 순종의 강한 말의 산지로 유명하다. 스텝과 산기슭은 뿔을 가진 동물들과 말의 반정착과 목장 그리고 유목업을 하기에 좋은 초지였다. 남부지역이 일라크(아일라크-여름 거주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차치는 거대한 광물-금속공업지역이다. 일라크는 귀금속과 비철 금속의 중심지이다. 구리는 코르켈, 금은 크이즈일라렘과 코츠블라크, 은은 라슈케레크와 코니만수르, 철은 사바즈사에, 보아슈츠바우 그리고 카타사에 등에서 활발하게 생산되었다. 보다 큰 채광지와 저장고는 금과 은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 이른 중세기에 일라크가 동부의 귀금속 생산지의 거대한 중심지로 격상되었음을 말한다. 시간에 따라 기도된 아랍인들의 내습이 이곳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은 광산의 중심지는 ‘쿠히심(은의 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처음에는 광물의 가공과 용해 등의 공정이 광산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광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또 용해의 완성은 전문화된 금속가공 거점을 형성하였고,

적지 않은 경우 도시로 성장하였다. 사료들은 일라크의 도시들 중에서 광물 가공과 관련된 수도 툰케트를 기술하고 있다.⁷⁶

일라크의 수도 툰케트는 고성 이물라크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페허로 '일라크 강' 왼쪽 기슭 아한가란에 위치해 있으며, 크지는 않지만 튼튼한 요새 그리고 사흐리스탄(부유층)과 넓은 라바드(노동자층)가 포함되어 있다. 주거지를 제외한 도시의 이 세 구역에는 금과 은을 채취하는 거대한 금속 광층이 보존되어 있다. 수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비철금속과 귀금속을 가공하는 전문적인 금속공업의 중심지 툰케트가 위치해 있다.⁷⁷

무기, 갑옷, 생활도구, 마구, 도자기, 유리 제품, 모직 및 면직물 등의 제품들이 도시의 수공업지대에서 생산되었다.

발굴 과정에서 야금공, 대장장이, 보석공들의 용광로와 그 생산물들을 찾았는데, 도자기 제품은 유목민들에게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차치에 있어서 투르크 시대는 정주 문화의 활발한 발전기였다. 투르크 종족들의 대규모 정착은 차치에서 비단길을 따라 아브를리크, 남무들리크, 이틀리크, 투르크식 장소(일라크, 야일라크)와 같은 소그드식 도시 이름과 투르크 식 이름을 붙이는 등의 현상을 촉진시켰다.⁷⁸

차치는 소그드의 보호 아래 중앙아시아의 영토 연합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비단길의 무역로에서 그 컨트롤에 집중하였고, 그 기본적인 육로들은 서서히 사마르칸드에서 북쪽의 차치와 페르가나로 이동되었다. 이 교역로는 카간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유지되

76 Буряков Ю.Ф. Горное дело и металлургия ... сс. 101 ~ 106.

77 Буряков Ю.Ф.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Тункета и Абрлыга. //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Узбекистана. Т., 1966. сс. 76 ~ 123.

78 Там же.; Он ж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Намудлыга // ИМКУ. Вып. 9. Ташкент, 1972. сс. 98 ~ 107.

었는데, 그 까닭은 교역로가 그들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스텝과 정착민들의 접촉 지점에 위치한 차치는 금, 천연 소금, 천연 보석 터키옥, 갑옷과 마구, ‘앞뒤에 높은 굴곡부’가 있는 유명한 안장 그리고 무기, 카펫과 직물 등을 수출하면서 시베리아, 스텝지대 그리고 중국과의 국제 무역의 거대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투르크의 스텝은 활기찬 교류 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고위 카간의 본부에 가깝게 차치의 투둔이 진영을 북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말머리를 돌리면, 우리들은 6~7세기와 관련하여 유라시아 대륙과 차치의 북쪽 지역에서 도시적인 거점들이 번성하면서 유목민들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활발하였던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오아시스와 스텝 지역이 연결되는 파라크(치르치크) 계곡의 중류 지역에서 여섯 개의 도시들과 튼튼한 진영으로 만들어진 연합(메둬)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파라크(치르치크) 강을 건너 선착장 가까이의 수도 누즈케트에 근접한 서쪽 지역인 잘티케트(마이테파)와 바눈케트(쿠가이트테파)이며, 북쪽 지역은 자브구케트(투가이이테파)이다. 이 연합에 관해서는 보다 후기의 사료들에서 ‘차치의 방어용 성벽 내부에 부대 막사가 있었고’ 그 이름이 아카타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큰 거점이 그들의 정치적 중심지였으며, 우리들은 역사적 사료 속에 불분명한 이름으로 등장하는 ‘차치의 마디누(차치의 도시)’를 민구류크 성터에 위치지을 수 있다. 도시는 35ha에 사각형의 샤흐리스탄과 크지 않은 요새를 갖추고 있다. 주위에 회랑이 있고 사각의 망루가 있으며, 포문은 없지만 방어용 난간이 있는 튼튼한 성벽이 있다. 성 내에는 궁궐, 그 설계도에는 전시용, 거주지, 의례 그리고 생활—다용도 공간이 포함되어 있다. 전시용 홀과 성소는 기록화로 장식되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아랍과의 전쟁 시에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⁷⁹

79 Древний Ташкент. – Т., 1973. сс. 18~109.

북쪽의 작은 오아시스 지역에 있는 일련의 요새를 갖춘 도시 거점들은 이 시기에는 아직 형성 단계에 있었다. 아랍의 지리학자 쿠다마 이븐 자파르는 7~8세기의 자료들을 이용하면서(P. G. 불가코프가 그렇게 증명함), 그의 글 속에 '샤시 시'에 관해서만 기술하였으며,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성벽 안의 막사'까지는 2파르사하(km)이며 또 길은 이어서 북쪽의 가즈기르드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기술하였다.⁸⁰

동시에 그의 선임 동료 이븐 호르다드베흐는 9세기의 자료들을 통해서 준비한 그의 연구에서 이미 이들 도시들 가운데서 몇몇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잘티케트는 빈카트에서 2km 떨어져 있었다고 하였다.⁸¹

오아시스의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활발한 성장은 소그드에서 전통적인 무역로와 더불어 바노케트 시와 고대의 수도 하라시케트를 통해 그 중심지에서 오아시스로 이입하였으며, 새로운 무역로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마르칸드에서 스텝을 통과해 직접 치르치크 하류로 이어졌으며, 시르다르야 강을 건너 선착장 부근에서 치난츠케트(중국 도시)라고 불리는 차치의 첫 번째 강력한 요새 도시가 성장하였다.

쇠사슬의 감옥과 특별한 요새로 강화된 6~7세기의 차치는 시르다르야를 따라 중요한 무역로와 관련되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감옥들은 이 길을 오늘날 타슈켄트가 차지하고 있는 동쪽의 도시들과, 나아가 세미레치예의 도시들에 연결시켜 주었다. 동시에 치난츠케트는 마치 새로운 거점처럼 유목 스텝과의 경계 지점에서 성장하였다. 유목민들은 지속적이며 활동적인 무역 참여자였다. 사료들은 치난츠케트의 주민 중의 일부가 아마도 유목적인 요소를 도시에 남기면서 천막집(유르타) 속에서 살았다고까지 전하고 있다. 동시

80 Волин С.А. Переводы Ибн Русты, Кудамы и др арабских географов. архив ИВ АН РАН. Ф. 93, оп. 1. д. 21. // ВГА. Т. VI. С. 210.

81 Волин С.А. Переводы ... ВГА. Т. VI С. 201.

에 도시의 이름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그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상인들은 아마도 치난츠케트의 일정한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도시는 몽골의 정복지까지 발전하였고 또 활기찬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 문화층에서 발견된 다량의 재물과 장식은 그것의 흔적이다.

이 모든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일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차치의 옛 수도가 시르다르야 강변에서 일정한 기간 차치의 말리카 소재지, 옛 사원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성벽의 틀 속에서 면적 45ha까지 감소한 것이다. 구조, 건축 자재의 표준 그리고 가옥의 물질문화, 벽의 접합재들은 6~7세기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들은 605년에 카간과 대립하던 차치족이 패배한 이후 그의 위상 재고에 관해 제기하였으며, 그때는 투르크의 승려가 나라를 통치하였다.

동시에 중앙아시아에서 수도의 지역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축소되는 일이 꼭 차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소그드의 중세 초기에 세워진 수도 사마르칸드에서도 관찰되며, 사마르칸드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면적은 220ha에서 65ha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의 몰락 이후 차치는 총 면적 150ha에서 새로운 발달이 시작되어 가옥, 요새 그리고 모든 시 지역이 활발히 정비되었다. 생활권도 도성 밖으로 확장되었으며, 수공업의 구역도 성문 가까이까지 발전하였다. 요새에는 점토 벽들과 여러 층의 벽돌로 된 건물이 대량 건설되어 주거지, 지붕을 덮은 천막 타입의 제단과 비정형의 원형 지붕이 있는 가정용 제실이 만들어졌다. 불에 탄 홀과 홀의 층들에는 아프라시아와 비슷한 기록화의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지배자들의 가정용 제실 속의 수파에는 높은 원추형에 다리가 있는 7~8세기 양식의 도자기 향로가 발견되었다.

요새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은 독창적인 외형을 갖추었다. 회랑 대신에 아치형 문을 달았다. 함정(로부시크)과 함께 방어용 망루가 수리되었다. 그 쌓는 방식은 흙집을 통한 벽들

벽 접합체의 보기 드문 방법으로 바뀌었으며,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튼튼하면서도 유연한 중간 벽과 망루를 보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7세기의 투르키스탄 가까이의 차그에서 잘 알려진 궁륭형 분묘 건축 기술이었다.⁸²

7~8세기에 도시 경계 지역에서는 가구(거주 구역)가 증가하였다. 그 서쪽 지역에는 이전에 강한 지진으로 무너진 성을 근본적으로 개축하였다. 남쪽 출입문에서 중앙 시장으로 난 도시의 중심 도로에서 있는 두 개의 커다란 도시 대상의 숙박지는 활발하게 기능을 수행하였고, 소그드에서 이곳으로 비단길의 무역로가 이어졌다. 대상들의 숙박지와 시장 사이의 이 길을 따라서 흑색과 유색 금속의 가공 공방이 늘어서 있으며, 골목으로 빠져 나오면, 판치켄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아이반 타입 혹은 상품 가게가 뒤섞여 있다. 7~8세기에 차치 동전의 대부분은 현재의 화폐상으로 흘러들었고, 고성외의 바로 이 지역에서 발견한 것이다.

성벽 내 사흐리스탄의 남동부 지역에서 6~7세기의 수공업 야금공의 복도가 있는 골목과 주거지 지역이 발견되었으며, 그 마당에는 난로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자기로 만든 구멍과 함께 용광로가 발견되었다. 생산시설은 8~9세기의 특징을 드러내 보이는 벽돌을 깎은 무슬만 식의 무덤들과 더불어 매장 시설로 뒤덮였다.⁸³

이와 같은 재료들은 카간의 대리자 투둔 진영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차치의 정치 경제적 중심은 차치의 옛 수도 말리카였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중국 당나라의 연대기 속에 남아 있는 차치 영토에 관한 기록은 이 점을 확인시켜주며, 분명히 그 수도를 이전의 유니첸과 혼동하고 있다.⁸⁴

82 Максимова А.Г. Гробницы типа науса у с. Чага (Шага) // В глубь веков. Алмаата, 1974. сс. 97~100.

83 Буряков Ю.Ф. Работы Шаш-илак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1985 год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М., 1987. С. 588.

‘차치의 마리아’와 함께 타르벤드가 생각하는데, 아랍과의 전쟁 시에 차치의 투둔이 그곳으로 간 것을 소그드의 사절 파투파란의 제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폐허는 오토라르와 파라브 속에 남겨져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다.⁸⁵

중국에서 비잔틴으로 향하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리고 이 시기에 ‘차치의 강’(그것은 중국의 사료를 통하면 쉰-주-허 혹은 지허이다)⁸⁶이라고 불린 시르다르야를 따라 남쪽에서 북쪽까지 무역로에 차치의 군사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광활한 스텝지역으로 상품의 수출과 소그드 문화의 확산 그리고 소그드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 영토 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마도 우연히 그 사절은 이히슈드 바르후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런 아프리카시압의 소그드 궁전 벽화 속에 그려졌을 것이다.⁸⁷ 그리고 그것은 아무렇게나 그린 것이 아니다. 명문 내용, 차치 사절의 비서 다비르파트 등을 통해서 판단하건대, 토하리스탄 후에 그릴 것을 허용하였다. 7~8세기 차치에서 유가 증권의 발전과 다양함 등이 상업과 관련된 활동 범위에 관하여 이야기해 준다.

고위층의 화폐와 함께 작은 지역과 개별 도시의 화폐도 발행하였다. 비잔틴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상거래에서 외화들이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며, 중앙아시아의 돈 중에서도 특히 소그드의 돈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거꾸로 차치의 돈은 이웃 지역에서 자주 이용되었다.⁸⁸

문헌 사료와 동전들은 7~8세기 몇몇 대표적인 차치 왕조 통치자를 살펴보게 하였다.

84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Т. 2. сс. 313 ~ 314.

85 Акишев К.А., Байпаков К.М., Ерзакович Л.Б. Древний Отрар (Топография, стратиграфия, перспективы). Алма-Ата, 1972

86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Т. I. сс. 313 ~ 314.

87 Альбаум Л.И.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Т., 1982

88 Детально о денежном обращении этого времени см. :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сс. 46 ~ 105.

투둔들과 함께 차치 말리카 티틀은 투르크 왕실로부터 하위 기사 그리고 테긴, 타르한, 아마도 주변에 있는 개개의 도시를 지배하는 통치자 등 보다 낮은 그룹의 왕실 자녀들을 맞이하였다. 테긴 탄지(605~620), 간 투투크 혹은 툰 테긴(640~660) 등이다. 모헤도 투둔 혹은 바호두르-투둔(713~740)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741년의 이나이 투둔홀이나 743년의 무명의 테긴도 언급되었다.⁸⁹

차치의 도시 가운데 한 통치자 이네-다간(아마도 타르한)에 관해서 탄슈 지역에 소개되었다.⁹⁰ 타바리는 739년의 사건에 관하여 기술하면서 샤샤 바다르 타르하나(바호두르 타르하나) 통치자를 언급하였고,⁹¹ 비루니는 ‘샤샤 황제 티틀-투둔’이라고 기술하였다.⁹² 이 티틀은 7~8세기 차치의 동전에 새겨져 있다.⁹³

상부에 대한 차치 말리카의 요구의 예로 탄슈의 통치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740년의 차치 말리크 모헤도 투둔(바호두르 투둔)은 내분기에 아시나 히나 카간에게 승리하고 스스로를 칸이라고 칭하였으나 곧 살해되었다.⁹⁴

이 모든 자료들은 투르크 시대에 차치 정부가 지닌 복잡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미의 구조를 제시해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말리크의 상층부는 영토 조직 속에 들어 있는 도시와 주의 통치자들을 그에게 복종시켰다. 투르크의 근위대는 말리크 권력의 지지대였다. 이에 관한 간접적인 예로, 806년의 할리파트로부터 분리된 때에 네세파의 통치자는 그의 나

89 Chawannes E.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ks) orientaux. St. Peterbourg, 1903, P. 149;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Т. 2. С. 313.

90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Т. I. сс. 292~300.

91 История ат-Табари... С. 268.

92 Беруни. Соч. Т. I / на узб. яз. - Т. 1968. Б. 129.

93 Сводный каталог согдийских монет. Бронза. М., 1981. сс. 52~53.

94 Chawannes. P. 140;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Т. 2. С. 313; Beckwith C. The Tibetan Empire in Central Asia. Princeton, New Jersey, 1987. P. 136~140.

라로 이주한 반란군 사령관 라피 이븐 라이사를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그의 투르크족 그리고 그의 사령관 중의 한 명과 함께 사시의 통치자”를 파견하였다.⁹⁵

동시에 초기 단계에서처럼 잘 짜여진 정부의 조직은 없었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차치의 말리크 티틀은 카간과 기사를 맞아들였는데, 한편으로는 고위의 카간에 의한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힘에 의해 권력을 받았다.

8세기는 차치의 역사에서 새로운 시기였다. 첫 번째로 중앙아시아 두 강 사이에 거주하는 아랍 정복자들에 대항하는 전투가 이 시기와 관련된다. 8세기 초에 차치는 투르크-투르케시 영토 속에 포함되었다. 강력한 투르크 정부의 창설은 우젤레의 하칸과 관련되는데, 그는 그의 아들 소게 카간(술루)과 함께 708년에 카가나트를 이끌었다. 그들은 알타이에서부터 시르다르야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다. 술루 카간 시대에 카가나트가 가장 크게 발달하였다. 그는 716년에 권좌에 올랐으며, 그가 통치한 전기간 동안 아랍과 중단없는 전쟁을 하였다. 차치는 그 정부의 중요한 주였으며, 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랍과의 전쟁기에 차치의 엘리트들은 사마르칸드의 지원병으로 참여하였다. 잘 알려진 대로 투르크 연합군, 차치, 페르가나과 네세파의 부대가 시르다르야에서 723~724년에 아랍에 대패하였다. 그러나 아랍인들은 카가나트가 붕괴된 후 차치로 총독을 파견하였고, 나라는 독립된 상태로 남아있었다. 아랍인들에게 “차치를 지나갈 때에는 옷의 앞깃을 위로 올려라. 왜냐하면 그곳은 악마의 나라로, 그곳으로부터 통치자들이 도망을 가기 때문이다”⁹⁶라는 속담이 남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시기 차치는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활발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차치의 지배자에

⁹⁵ История ат-Табари... сс. 369~370.

⁹⁶ Масон М. Е. Прошлое Ташкента (археолого-топографический и историко-архитектурный очерк) // Известия АН УзССР. Ташкент, 1954

게 전해지기 전까지 중국인들은 그들의 영향이 미치는 차치의 지역을 지배하였고 생각하였으며, 그 후 거주자들에게 티툴과 함께 ‘지배자, 정직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는 중국의 칙서를 내렸다. 그 당시 당의 자사 자윤은 739년에 투르게시에 대립하였는데, 국경지대에서 그 도전자들의 움직임과의 관계 속에서 차치 말리크는 중국을 지지하였으며, 이로써 740년에 높은 작위를 받았다.

8세기 중반에, 할리파트의 정치적인 무대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호라산과 마베르나흐르 등 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747년에 할리파트를 지배하고 있는 오메이야드 왕조에 대항하여 아바시드족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748년에 메레프에서 첫 번째의 승리를 하였으며, 749년에 전 호라산에서 승리하였다.

이 승리는 아바시드의 지지자들의 활발한 진출 덕분에 아부 무슬림과 함께 상충부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북부 호라산과 마베르나흐르의 도시들이 폭동의 중심지였다.⁹⁷ 동시에 격렬한 전투는 아랍 귀족들의 살해를 수반하였다. 그것은 이번에는 부하라에서 샤리크 이븐 샤이흐를 중심으로 한 아랍인들의 폭동을 불러일으켰고, 3만 명에 이르는 아랍인들의 지지를 받아 내분과 임시 처형 등 법 없이 제멋대로 피를 흘리게 한 아부 무슬림을 비난하였다. 부하라와 호레즘의 대리인들이 샤리크와 연합을 체결하였다. 아부 무슬림에게는 몇 차례의 전쟁 수행의 기회가 찾아 왔으며, 두 번째로 사마르칸드와 부하라를 공격하여 탈취하였다.

그 후 그는 차치와 탈라스를 포함하여 마베르나흐르의 동쪽의 새로운 정복지로 자이야드 빈 살리흐를 파견하였으며, 그곳은 페르가나와 함께 투르크 카간들의 내분 시기에 중국 당나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다. 중국 군대의 유능한 한국인 사령관 고선지는 황제에 의해서 서부 지역 주지사의 대리자로 발탁되었다. 이븐 알-아시르는 750~751년에

97 Ат-Табари. История пророков и царей / пер. В.И. Беляева. Ташкент, 1987. сс. 311 ~ 352.

차치의 말리크와 페르가나의 이흐슈드 아르실란 타르한과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 소개하였다.⁹⁸ 그 갈등의 원인은 알 수 없다. 아마도 그것은 페르가나의 영토 내에서 차치 말리크의 영향력 증대와 관련된 것 같다.

페르가나의 이흐슈드는 중국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아랍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0만 군대를 차치로 파견하였다. 군대를 통수하는 고선지는 말리크가 신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문책하였다. 그는 먼저 차치의 말리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투르게시의 카간을 격파하였다. 그리고 차치의 수도를 강습하여 점령하고 약탈하여, 대량의 금, 순종의 말, 낙타 그리고 터키옥 등을 탈취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말리크는 모든 상황을 수용하였으나 중국의 수도로 보내져 처형되었다. 수도의 많은 주민들이 노예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였다. 연대기 『당서』는 “이것은 서역에서 일어난 전체적인 불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⁹⁹ 말리크의 아들은 아랍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부 무슬림은 지야드 빈 살리흐를 대장으로 삼아 군대를 파견하였다. 아랍의 이설 가운데는 지야드 빈 살리흐는 탈라스 강에 도달해서 10만 대군을 격파하였고, 5만을 죽였으며, 2만의 중국인 포로를 잡았다고 한다.

중국 연대기는 보다 사실적이다. 고선지의 전기 가운데서, 그의 군대는 중국인, 페르가나인 그리고 투르크-카를루크 인의 연합군을 포함하여 3만 군사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전투는 5일간 전세가 바뀌면서 지속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페르가나인들과 함께 구성된 카를루크인들이 반역하여 아랍 측으로 갔으며, 고선지의 군대는 패배하였다. 중국 군대는 무너져서 사기를 저하시킨 페르가나인들을 통과해 퇴각하였다.¹⁰⁰

98 Beckwith C. The Tibetan Empire in Central Asia... P. 137.

99 위의 책, C. 314.

100 Карев Ю.В.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Мавераннахре в середине VIII века. // Средняя Азия: археология,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М., 2000. С. 208.

이후 아부 무슬림은 몇 년간 마베르나흐르의 통치자들과 전쟁을 하였으며, 현지 엘리트들의 독립을 저지하였다.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드물게 중국으로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마베르나흐르에서 영토를 소유하였고, 차치는 그 가운데서 서서히 칼리파 조직 속으로 흡수되었으며,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궤도는 서역 세계에 편입되었다.

번역 : 장석호(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Историческо-культур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м Чаче

Буряков Ю.Ф.

В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Средней Азии с Китаем и Кореей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особенно в VII – VIII вв. н.э. большую роль сыграли культур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стояли на восточных границах страны в зонах контактов земледельческих и скотоводческих народов, через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основные связи Согда, Кеша, Тохаристана и с кочевой степью, стоявшей на границах Китая, и с городам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менно к таким зонам принадлежит Чач – одно из крупнейших владений северо-восточных районов Средней Азии, формировавшееся в бассейне Сырдарьи, второй крупнейшей водной артерии древнего Турана.

С ним связаны и движение основных товаров и культурных ценностей из Китая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обратно, т.е. ведущие торговые сухопутные трассы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VII – VIII столетий, этнические движения масс в оазисы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наиболее значительным из которых в эту эпоху было движение китайских войск во главе с корейским генералом Ко Сон Джи (в русскоязы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 Гао Сян Чжи) в Чач «за нарушение вассального долга правителю», штурм столицы, пленение малика Чача с вывозом его в столицу

《Поднебесной империи》 и казнь, которая вызвала, как сообщают китайские источники, 《ропот в Западном крае》. Обращение сына казненного к арабам, стоявшим уже в основных оазисах среднеазиатских владений, и столкновение на восточных границах двух самых крупных, на этот период, воинских соединений, закончившееся после пятидневной битвы поражением китайских войск.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открыло новую, в определенной мере трагическую страницу в дальнейших отношениях с Китаем,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Средняя Азия вынуждена была войти в состав арабского халифата, что вызвало и политическую, и экономическую, и культурно-идеологическую переориентацию. Значительную роль в этом сыграли события VIII в. в Чаче. Все это заставляет нас обратиться к детальн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й истории Чача, чтобы понять, почему события в нем сыграли такую большую роль в жизни Средней Азии VIII в. и в е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Ядром его является Ташкентский оазис, включавший плодородные земли долины Средней Сырдарьи и ее правых притоков Чирчика и Ахангарана. С трех сторон – северо-запада, востока и юга – оазис подковой окружают отроги 《Небесных гор》 – Западного Тяньшаня – Чаткальский и Кураминский хребты, последний из которых на юго-западе завершается полого ниспадающими к Сырдарье отрогами, носящими трагическое название 《Черная могила》 – Карамазар.

В то же время в период своего расцвета он отнюдь не ограничивался пределами этого оазиса. На севере его земли включали не только долину Келеса, но уходили далеко на север, включая долину Арыси и далее вплоть до Отрара, о чем, в частности, сообщается в письме своему государю согдийского посла Фатуфарна,

направленного к правителю Чача.¹

Арабский историк ат-Табари также, рассказывая об осаде арабами Самарканда, пишет, что, надеясь на поддержку Чача в борьбе с ними, «написал царь Согда царю Шаша, а тот жил в Тарбенде (Отраре)».²

Говоря о южных границах Чача с Ферганой, проходивших по горам Карамазара, восточный географ Ибн Хаукаль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последние относятся к округу Шаш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вплотную примыкающих к горам культурных областей».³

Горы Чача с удобными перевалами в Таласскую и Ферганскую долины были прекрасными пастбищами с вертикальными перекочевками, на которых, также как и в Фергане, среди мелкого и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известно выращивание прекрасных лошадей. Сообщения восточных авторов позволяют нам также отнести к Чачу ряд пастбищ по обоим берегам Сырдарьи. Географ Истахри называет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границей Чача область Таласа (по-китайски Толосы) Тараза, где стоял чачский гарнизон.⁴

Чач занимал выгодное положение на перекрестк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культурно-этнических движений на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выделялся из оседлых оазисов тем, что располагался в зоне активных контактов земледельческих народов и кочевых племен прилегающей степи. Мощным

1 Согдийские документы с горы Муг. Вып. 2 / Пер. и комм. В.А. Лившица. М., 1962. С. 79.

2 Ат-Табари. История // ВГА, II. Р.1518

3 Абуль Касым ибн-Хаукаль. Пути и страны // ВГА, II. Р.384

4 Истахри. Китаб масалик ал-мамалик (персидский текст) //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киргизов и Киргизии. Вып. I. М., 1973. С. 30

этнокультурным 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ретранслятором являлась и Сырдарья.

Второй важной отличительной чертой было чрезвычайное богатство владений сырьевыми ресурсами, добывавшимися в горах Чаткала, Курамы и Карамазар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лагородными и цветными металлами и драгоценными самоцветам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ирюзой). Извлекались также железо, красители и каолиновые глины. Золото, серебро, бирюза являлась важным объектом экспорта Чача в страны Востока и Европы.

Все эти материалы показывают, что история Чача очень сложна и динамична. И без краткой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раннего этапа стано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невозможно объективно осветить страницы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й истории.

Античные источники характеризуют бассейн Сырдарьи-Яксарта как границу земледельцев и кочевников. «Яксарт разделяет согдийцев и кочевников» – сообщает Страбон.⁵ «За Согдианой по течению Яксарта обитают саки, стрелами бьющиеся, из всех стрелков самые искусные, не пускающие стрелы наудачу» – пишет Дионисий Периегит.⁶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тносили к заяксартским сакам бассейн Средней Сырдарьи, размещая здесь племена могучих туров.⁷

Несмотря на характеристику жителей I тыс. до н.э. как кочевников, можем отметить в Ташкентском оазисе поселения оседающих в долинах Ахангарана и Чирчика скотоводов с лиманным земледелием. Это бургулюкская культура,⁸

5 Страбон. География в XVII книгах / Пер. и комм. Г.А. Стратоновского. М., 1964. XI, 8.8.

6 Древние авторы о Средней Азии (VI в. до н.э. VI в. н.э.). Ташкент, 1940. С. 23.

7 Herzfeld E. Sakastan, Archeologische Mi Heilungen aus Iran. Bd. 4. Berlin, 1931. S. 8-10, 54-55.

8 Дуке Х. Туябугузские поселения Бургулюкской культуры. Ташкент, 1982.

находящая параллели на западе до южных предгорий Зарафшанского хребта, а на востоке – вплоть до Китая, где в Восточном Туркестане открыта культура Чаухучоу, что объясняет связи этих районов с глубокой древности.⁹

На завершающем этапе этой культуры в юг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оазиса на полуземлянках вырастает город с мощной цитаделью и крепостными стенами на искусственной платформе с выступающими округлыми башнями, защитной бермой, рвом. Стены и башни сложены из сырцового кирпича квадратной формы и пахсовых блоков. И планировка и стандарт кирпича, и приемы фортификации, формы галереи и башен, находка в этом слое керамического материала ведут нас в мир западной античной архитектуры древних земледельческих культур. Они находят аналогии в архитектуре регионов эллинистической эпох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Согде. Занимавшиеся вопросами ранней урбанизации Самаркандского Согда М. Исамиддинов и К. Рапен, специально рассматривая эволюцию развития кирпича, такой же, как на Канке стандарт относят к эллинистической эпохе.¹⁰ Эту же хронологию дает эволюция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античного Хорезма.¹¹ Это дало нам основание связать её с упоминающейся в источниках крепости конца IV – начала III в. до н.э. Антиохией Заяксартской.¹²

⁹ Буряков Ю.Ф. Генезис и динамика развития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бассейна Сырдарьи (проблемы взаимосвязи земледельцев и скотоводов) //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Asian Studies. Vol. 9. Seoul, 2004. P. 315-318.

¹⁰ Исамиддинов М., Рапен К. Городище Коктепа и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ранней урбанизации Самаркандского Согда // Средняя Азия: археология,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М., 2000. С. 204

¹¹ Вишневская О.А., Раппопорт Ю.А. Городище Кюзели-гыр. К вопросу о раннем этапе истории Хорезма // ВДИ. 1997. № 2. С. 150-173.

Однако античная культура в оазисе не получила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Экологический стресс и аридизация макроклимата крупнейших рек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обострение борьбы крупнейших кочевых объединений на северо-западных границах в конце III – начале II в. до н.э. приводят к активному оседанию на землю различн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со своей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ой, архитектур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земледельческо-скотоводческого типа. Китайские летописи Старшего дома Хань сообщают о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и на р. Иоша (Яксарт) владения под названием Юни,¹³ вошедшего в число пяти малых владений в полукочевой союз Кангюй. В составе Кангюя Юни являлось наиболее урбанизированным компонентом, включающим не менее 100 укрепленных поселений и не менее 13 пунктов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Есть сообщение о торговом пути,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Северной дорогой и ведет через Луковые горы на запад в Давань, Кангюй, Яньцай и Янци».¹⁴

Вероятно, с этого времени Яксарт становится ретранслятором и культур, и товаров, так как вышеупомянутая трасса шла по Яксарту, что напрямую дополняется более поздним источником.

Не случайно на раннем этапе урбанизации наиболее крупные города Юни тяготеют к зоне влияния реки Яксарт.

12 Буряков Ю.Ф. Генезис и этапы развития городской культуры Ташкентского оазиса. Ташкент, 1982. С. 103-106.

13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М.-Л., 1950. Т. 2. С. 184.

14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170.

В отличие от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размещавших столицу Юни – город Юйничен на месте Ташкента,¹⁵ мы считаем, что она четко локализуется на городище Канка, представлявшем собой единственный развитый городской центр этой эпохи. Именно с первых веков до н.э. городище начинает разрастаться, являясь самым крупным городом Нижней и Средней Сырдарьи и урбанизационным ядром Кангюя. Некоторы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клонны видеть в ней зимнюю столицу владетеля Кангюя.

Китайские хроники дома Хан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ообщают, что кангюйский владетель пребывание имеет в стране Лююени в городе Битяни,¹⁶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сообщают, что от Давани до Битяни 1 510 ли,¹⁷ и связывается он с озером Тяньчжи.

Новый этап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а – период перехода к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й эпохе, сыгравшей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истории Чача – III – IV вв. В это время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роисходит новы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кризис, вызвавший активное переселение народов с востока на запад, часть которого – движение племен из Нижней Сырдарьи в ее верховья и далее на запад в долины Зарафшана и Кашкадарьи. Происходит распад крупных антич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том числе и Кангюя, и выделение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владений. Именно в это время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карте и в бассейне Средней Сырдарьи появляется владение Чач и одноименная столица.

Впервые в письменных источниках наз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 именем Чач встречается в надписи персидского царя шаха Шапура I на победной стеле Каабе

¹⁵ Массон М.Е. Прошлое Ташкента. Ташкент, 1954. С. 107; Филанович М.И. Ташкент. Зарожд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города и городской культуры. Ташкент, 1983. С. 35, 174-176.

¹⁶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184.

¹⁷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184.

Зороастра, высеченной в 262 г., где перечислены города и владения, входившие в состав сасанидской империи, и пределы, достигаемых ими границ. Среди последних указано, что граница его доходит до Каша, Согда и Чачстана.¹⁸ У В. Луконина Каш отождествлен с Кашгаром, и Чач передан как Шаш,¹⁹ хотя сам он говорил о том, что Каш может означать Кеш, а Шаш в это время во всех источниках передается только как Чач, получая имя Шаш лишь с арабских времен. Кроме того, вс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считают, что сасанидским шахом на стеле указаны скорее желаемые, чем реально существовавшие границы империи. В то же время, как увидим ниже, он был недалек от некоторой близости к истине, хотя и не политического обладания, но культурного влияния. Важно также отметить, что здесь приведен не просто Чач, а Кухи Чач – горы Чача.

«Чачец» – уроженец (житель) Чача упоминается в манихейских текстах,²⁰ а владелец сосуда в надписи на серебряном сосуде IV в. н.э. назван – «Шав чачский».²¹ Термин этот явился базой исследования многих европейских востоковедов.

Топоним Чач зафиксирован на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монетах, встреченных как в самом Чачзе,²² так и в соседних владениях, особенно в Согде.²³ В китайских

18 Sprengling M. Third Century Iran: Sagar and Kartir. Chicago, 1953. P. 7. В тексте В. Луконина, название его нередко как Шаш, но в чтении друг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название друг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ередается как Чач. См.: Фрай Р. Наследие Ирана. М., 1972. С. 293, 294.

19 Луконин В. Культура сасанидского Ирана. М., 1969. С. 126.

20 Henning W. B. Sogdica. - London, 1940. P. 9.

21 Лившиц В.А., Луконин В. Среднеперсидская и согдийская надписи на серебряных сосудах // Вестник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1964. № 3. С. 155-174.

22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III – середина VIII в. н.э.). Ташкент, 2006.

источниках этой эпохи Чач выступает под именем Ши или Чжеше. В частности под именем Чжеше он упомянут в летописи династии Северных дворов Бейши, при общем описан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империи с конгломератом западных соседей. О нем, как одном из двух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х соседних владений (Чжеше и Полона – Фергана) рассказал в 436 году китайскому послу Дань Ваню (у Н.Я. Бичурина Туан Юаню – Ю.Б.) правитель усуней. Он сообщил, что «владения Полона и Чжеше желают быть вассалами дома Юаньвэй, но сожалеют, что не имеют дороги». ²⁴ Посол выезжал в эти государства и, когда в 437 году вернулся, с ним были послы 16 владений, среди которых назван Чжеше – бывший Кандзюй. ²⁵

Китайские сведения этого времени (Северной династии Бейши и Суйшу) очень кратки и повторяют друг друга, т.к. относятся к смутной поре внутрикитайских междоусобиц, недолговеч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

Тем не менее, в обеих летописях, хотя и коротко описывается Чач под названием Ши, его территория, занятия жителей, обычаи и культуры. Специально отмечается резиденция владетеля Ши на р. Иоша (Сырдарья), его эпизодические связи с Китаем, соседними областями. ²⁶

Упоминание Чача мы находим и в Истории династии Тан, где владение описано более детально как Ши, а столица – Чже си. Интересно, что китайцы отмечают и

²³ Смирнова О.И. Каталог монет городища Пенджикент (материалы 1949 – 1956 гг.). М., 1963. № 747-783

²⁴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242

²⁵ Боровкова Л.А. Запад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о II в. до н.э. VIII в. н.э.. М., 1989. С. 133

²⁶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272-273, 283.

изменение названия реки Иоша, на которой лежит владение. Оно носит на данном участке имя Чжень-чжу-хэ, или Чжи-хэ.²⁷ Локализация владения не вызвала у ученых сложностей, т.к. все китайские летописи сообщают, что Ши располагается на месте Юни. А столица его на месте прежней столицы Юничен при р. Иоша, т.е. в бассейне Яксарта–Сырдарьи. Лишь Л.А. Боровкова, которая безосновательно сдвинула далеко на восток все владения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й Средней Азии, пытается локализовать Чач на пути из г. Фрунзе (ныне Бишкек) в г. Ош, а столицу помещает к северу от Оша в районе нынешнего Токтогула севернее с. Каракум.²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привлекает этимология Чача, изменение названия владения. Некоторые пытаются связать его с названием, упоминаемого в гимнах Авесты²⁹ священного озера с плоскими берегами Чайчаста. И. Гершевич, сравнивая данные античных авторов и Авесты, считает, что авестийцы знают кочевой сакский народ, варящий священный напиток – могучих туров, размещавшихся в бассейне священного моря с плоскими берегами – Чаечаста.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он связывает его с Аральским морем, с другой, – с Чачем в бассейне Сырдарьи и Ташкентском оазисе.³⁰

Однако если принимать подобную версию, название свое Чач должен был получить,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с середины I тыс. до н.э., когда этноним великих

27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313.

28 Боровкова Л.А. Запад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С. 137.

29 Авеста. Избранные гимны / перевод И.М. Стеблин-Каменского. Душанбе, 1990. С. 119-120.

30 Gershevitch J. An Iranistic view of the some controversy. Memorial Jean de Menasce. Ed. Par Rh. Gingnox et a Tafazolli. Imperimerie Orientaliste. Lonwain, 1974. P. 54-55.

туров и имя озера были в обиходе. И географически эта версия совершенно не коррелируется. Поэтому в науке привлекла внимание его передача китайскими источниками, смысловое значение Чача в которых означает «камень».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название пытаются осмыслить как «каменный город», «каменная крепость». Для осмысления его в этом плане привлекались и данные античных авторов, в частности Плиния, сведения анонимной римской космографии, список Юлия Гонориуса о городах Северного Океана, где упоминается «каменный город» с позднейшей трансформацией его в современное название «Ташкент».

В исследованиях Э. Шаванна цитируютс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содержащие множество упоминаний о Чаче, в большинстве которых передается иероглифика «камня». Поскольку Чач передается в китайских летописях как основной продолжатель политики Кангюя, он сравнивался Пуллейбланком в гуннских текстах с «каменным городом» – «кангдизом» – городом канков и в пехлеви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риобретает легендарную окраску крепости с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каменными стенами.³¹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тюркский пласт передачи этого названия, рассматривавшийся еще А. Бируни – «Разве ты не видишь, что «Шаш» взято из названия города на тюркском языке, а именно Таш-канд, т.е. «Каменное селение», и точно также в книге «Джигрофика» он называется «Каменной башней».³²

³¹ Сводка всех перечисленных точек зрения собрана в специальной работе А.А. Пенти. См.: Pentty A.A. (Helsinki) The name of Taschkent // Central Asiatic Journal. Vol. XXI. № 304. Wiesbaden, 1977. S. 193-197.

³² Абу Райхан Беруни Индия / Избранные произв. Ташкент, 1963. Т. II. С. 271.

При всем разнообразии привлечение источников – античных, пехлевийских, тюркских, интерпретация названия в основном³³ является довольно однозначной. И в то же время она кажется сомнительной по своей сути, так как ни каменных городских стен, ни каменных проходов мы в этой области не видим. В то же время, как нам кажется, следуе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исторических текстов. Уже в победной надписи Шапура I при перечислении приграничных стран названы «горы Чача».

В китайских источниках владение наиболее подробно описано в летописи Тан, когда оно было тесно связано с Китаем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ми, культурно-политическими узами. Китайцы были хорошо о нем осведомлены. Представлены его размеры, описана столица Ши,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 место прежней столицы Юйни. Река Июша в это время была переименована в реку Чача – Чжень – Чжухэ. Специально обращено внимание на большую гору на юго-востоке, в которой добывались драгоценные камни сэ-сэ. Н.Я. Бичурин переводит их название как «жемчужный камень».³⁴ Но в Ташкентском регионе подобных камней нет и добывать их здесь не могли. О ценности сэ-сэ можно судить по тому, что при описании событий в Чаче, связанных с осадой, штурмом и разграблением его столицы в 750 г. китайской армией, возглавлявшейся командующим силами западной области Танской империи корейским генералом на китайской службе

³³ Особняком стоит точка зрения Е.А. Поливанова, связывавшая название столицы как Тазикент – город таджиков. См.: Поливанов Е.А.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названия Ташкента // В.В. Бартольд. Туркестанские друзья, ученики и почитатели. Ташкент, 1927. С. 395-400.

³⁴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Т. I. С. 292-300.

Гао Сян Чжи, среди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компонентов добычи названы золото, породистые кони и много прекрасного камня сэ-сэ. Что это за драгоценный камень?

Специально занимавшийся этимологией сэ-сэ Э. Шеффер отмечает, что сэ-сэ – самоцвет, который был характерен для Чача и добывался в большой копи к юго-востоку от столицы. Чач являлся главным поставщиком этого минерала в Центральную и Восточную Азию, и китайцы называли его «персидским самоцветом».

Ф. Хирт и Э. Шаванн полагали, что сэ-сэ означает «бирюза», но Б. Лауфер, считавший, что в Китае бирюза не ценилась, выступал против этого, отождествляя ее то со шпинелью, то с ониксом или изумрудом. Сам Э. Шеффер считает, что это ляпис-лазурь, непрозрачный темно-синий минерал. Одним из ведущих поставщиков его Э. Шеффер называет Чач, хотя понимает, что родиной ляпис-лазури является Бадахшан,³⁵ который он вынужден помещать юго-восточнее столицы Чача, что не укладывается ни в какие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рамки.

Мы считаем, что при описании сэ-сэ речь идет о бирюзе, которая с глубокой древности была известна среди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и дорогих светских украшений и культовых атрибутов. Это – чистый глубокий зеленоватый, или лучистый небесно-голубой, или блестящий густой, или молочной окраски твердый минерал. Он высоко ценился на древнем Востоке, среди высшей знати, как символ высокого

35 Shafer E.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ies of Thang Exotics. Bearclay– Los Angeles, 1963/ Есть русский перевод Шафер Э. Золотые персики Самарканда. Книга о чужеземных диковинах империи Тан. М., 1981. С. 305., 448.

сана, «хорошее предзнаменование победы, счастья».³⁶ В слоях простого населения бирюза считалась талисманом, надежной защитой от злых духов, средством от сглаза и охраняющим от укусов ядовитых гадов».³⁷ В культовых атрибутах, например, он украшал золотого ежа из античного храма столицы Нахшаба.

Древнейшим источником, из которого в страны Востока поступала среднеазиатская бирюза, был регион Южных Кызылкумов,³⁸ где обнаружены ее скопления. Однак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трессы I тыс. до н.э. приводят к опустыниванию региона и захирению горнодобывающих работ в его зонах.³⁹

В то же время, геолого-археологическое изучение Чача показало, что это владение, и особенно его южная подобласть Илак, вырастает в I тыс. н.э. в крупнейший горнопромышленный регион Средней Азии с добыче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золота и серебра, а из нерудных – бирюзы.

Выявлено несколько небольших месторождений бирюзы – Актепа, Гольдуран, Фирузакан.⁴⁰ Но основной рудник бирюзы располагается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арамазара, как раз к юго-востоку от древней столицы Чача. Месторождение

36 Бируни Абу Райхан.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для познания драгоценностей (Минералогия) / Пер. и прим. А.М. Беленицкого. Л., 1963. С. 158.

37 Семенов А.А., Из области воззрений мусульман Средней Азии на качество и значение некоторых благородных камней и минералов // Мир ислама. Вып. 1. Спб., 1912. № 3. С. 298.

38 Виноградов А.В., Лопатин С.В. Мамедов Э.Д. Кызылкумская бирюза (из истории добычи и обработки) //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1965. № 2. С. 114-134; Виноградов А.В. Первобытный Лявлякан. М., 1975.

39 Виноградов А.В., Лопатин С.В. Мамедов Э.Д. Кызылкумская бирюза ... С. 87.

40 Буряков Ю. Ф. Горное дело и металлургия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Илака 5 – начала 13 в. М., 1974. С. 43-45

залегают в горных отрогах на правом берегу Унгулисая, одного из истоков левого притока Ахангарана.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казали, что объем древних работ был громаден.

Общая площадь выработок и отвалов включает более 16 тыс. м², а объем древней добычи превышает 320 тыс. м³. Образцы из коренных пород показали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и богатое содержание самоцветов в породе.⁴¹ Судя по материалам, разработка его началась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I тыс. н.э.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бирюзы Илакского рудника приводит в своей знаменитой «Минералогии» Бируни. Он приводит высказывание одного из ювелиров об очень редкой и ценной находке бирюзы в Илаке. «Я видел илакскую бирюзу, которая весила двести дирхемов, и оценил я её тогда в 50 динаров, но сейчас её цена 200 динаров, так как Илаксий рудник иссяк и заброшен».⁴² Рудник этот локализован нами,⁴³ а затем Е.Б. Пругером⁴⁴ на Унгуриликане, располагающемся как раз в горах к юго-востоку от столицы Чача, располагаемой на городище Канка, где помещается знаменитый рудник сэ-сэ китайских летописей.

Предлож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позволяют рассмотреть название владения не как

⁴¹ Там же. С. 43-44.

⁴² Бируни Абу Райхан.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познания драгоценностей (Минералогия) / Пер. и прим. А.М. Беленицкого. Л., 1963. С. 159.

⁴³ Буряков Ю.Ф. Из прошлого Чаткало-Кураминского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айона (к истории горного дела и металлургии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Илака): Автореф. дис. ... к.и.н. Ташкент, 1966. С. 10.

⁴⁴ Пругер Е.Б. Бирюза Илака и Илакский рудник бирюзы // Советская археология. 1971. №. С. 118-126.

«каменная крепость», а как «драгоценный камень».

В жизни Чача III –V вв. – время роста поселений, крепостей, городов, причем наряду с ростом городов, традиционно тяготеющих к долине Сырда-рьи, осваиваются земли и центральных равнинных и предгорных территорий.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активное освоение южных районов долины Ахангарана, где именно в это время складываются центры добычи серебра – регион зоны рудника Лашкерек, золота – Кызылалма, меди – Кокрель, железа – Шаугаз. Появляются специальные центры переработки металлической руды – Тункет (Имлак), Туккет (Кульота), городища Безымьяное и Кургантепа близ современного г. Ангрен.

В истор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широко представлены изделия торевтов этого времени, целиком относимые к согдийскому производству, хотя мы не знаем серебряных и золотых рудников этой эпохи в Согде. Возможно, поступление сюда металлов из Чача. Нельзя исключить и вероятно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а этих изделий в самом Чаче. Следует вспомнить находку серебряного сосуда IV в. н.э., на котором сохранилась надпись владельца с текстом «чачец» или «принадлежащий народу Чача».⁴⁵

Как показало археолого-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ое изучение памятников региона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I тыс. до н.э. происходит оседание кочевников.⁴⁶ В северных районах Ташкентского оазиса начинается активное освоение площадей, удобных

⁴⁵ Лившиц В.А., Луконин В. Среднеперсидская и согдийская надписи на серебряных сосудах ... С. 155-174.

⁴⁶ Аминов В., Буряков Ю.Ф., Ходжайов Т.К.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к этн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долины Ахангарана // ИМКУ. Вып. 14. Ташкент, 1978. С. 87.

для земледели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осваиваются равнинные и предгорные земли. Создаются ирригационные сооружения. В середине I тыс. н.э. строится крупнейший в бассейне чирчикской водной системы канал Зах,⁴⁷ в головах которого вырастает крепость Паргуш, превратившаяся позже в город. В каналы превращаются естественные протоки Салар, Джун, Куркульдук, и в левобережье Чирчика – Ханарык. На этом канале вырастает город Кабарна.⁴⁸ Он располагается в стратегически удобном месте в зоне адыров на границе с кочевниками предгорий, на излучине Чирчика, защищенный с двух сторон рекой, с третьей её притоком с обрывистыми берегами. На раннем этапе это была небольшая, но мощная крепость, круглая в плане с двойными стенами из сырцового кирпича и крупных пахсовых блоков. Выросла она прямо на погребальном поле кочевников. Затем проводится канал и вдоль него разрастается крупный город, система укреплений которого включает стены с башнями, окружающие большую, хотя и не везде плотно застро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вероятно занятую оседающими кочевниками с домами-юртами и большими дворовыми участками.

В равнинной части в долине Чирчика городские функции обретают крепости Каунчи и Шаматепа, 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Ташкента появляется городок Мингурюк. Стоящие на степной предгорной границе оазиса все эти пункт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интенсивно развитые оборонительные функции.

⁴⁷ Дадабаев Г. история орошения правобережной части Чирчикской долины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чала XIII в.). Автореф. дис. ... канд. истор. наук. Ташкент, 1974.

⁴⁸ Буряков Ю.Ф.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городища Кавардан // ИМКУ. Вып. 13. Ташкент, 1976. С. 70-87.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получают и самые крупные центры долины Сырдарьи, тесно связанные с Великим шелковым путем.

Вероятно, в это время столица получает свое название Харашкет (Хара – Хвара – Фарн, т.е. символ благодати). На караванном пути разрастается Шахрухия – Бенакет, через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международная трасса. Эти крупные города приближаются по размерам и фортификации к крупнейшим городам Согда, Нахшаба и явно раскрывают торгово-ремесленные и столичные функции. Формируются и более мелкие городки – торгово-ремесленный Кендыктеп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центр Аккурган.

Исследователи отмечают, что Ташкентский оазис в каунчинскую эпоху оказывал влияние не только культурное, но и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ое на соседнюю Фергану, особенно Северную, которая более тяготела к Чачу, чем к Центральной Фергане.⁴⁹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ый Чач, с вошедшими в его пределы северными трассами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включается в торговые и обменные операц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ероятно, как экспортер своей горнорудной продукции – цветных и благородных металлов и изделий из них, драго-ценных камней. Купцы Чача нам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 по старым согдийским письмам III – IV вв. н.э. из колонии Дунхуана на границах Китая, где они занимали по количеству третье место после

49 Литвинский Б.А. Джунский могильник и некоторые аспекты Кангюйской проблемы // СА. 1967. № 2. С. 32-33; Он же. Проблема этнической истории древней и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й Ферганы //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М., 1976. С. 55.

50 Henning W. *Mitteliranische Handbuch der Orientalistik*. 1. Abteilung. 4. Band. Iranistik. Leiden-Koeln, 1958. S. 55.

купцов Самарканда и Бухары.⁵⁰

С самым ранним этапом истории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Чача связан чекан первой собственной монеты, говорящим о его активном включении в торговые операции. Монета медная, выпускается массовыми тиражами с большими весовыми вариациями от 0,2 гр – до 2,95 гр. Причем все весовые стандарты имеют устойчивую иконографию.

Зафиксировано более 1 3000 экземпляров монет, находки которых сосредотачиваются в основном в городских пунктах вдоль Сырдарьи или близ нее: на городище Канка и в ее округе, на городище Шахрухия, Кендыктепа, в центре оазиса.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этих монет посвящена обширная нау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Первые экземпляры описаны и датированы III – IV вв. н.э. М.Е. Массоном.⁵¹ Затем к этим монетам обращались В.М. Массон, Б.И. Вайнберг, Е.В. Зеймаль, А. Мусакаева.

Наиболее детально изучались они Э.В. Ртвеладзе, описавшим их в ряде статей и в монографии, в которой представлена и подробная история вопроса, и библиография работ предшествующих авторов.⁵² В работе представлено детальное описание нескольких типов монет с разбором иконографии и ее генезиса, этнического типа, атрибутов, дан детальный анализ тамг и надписей.

Отсылая читателей, интересующихся данной проблемой к указанным работам,

⁵¹ Массон М.Е. Монетные находк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1930 и 1931 гг. // Материалы Узкомстариса. Вып. V. Ташкент, 1959. С. 27.

⁵²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III – середина VIII в. н.э.). Ташкент, 2006.

мы кратко остановимся на общем описании монет, необходимом нам для анализа материалов Чача этой эпохи.

На аверсе монет изображался подгрудный портрет правителя с лицом, обращенным обычно в профиль влево, грудью развернутый слегка анфас. Портрет индивидуализирован, иногда лицо более молодое, но чаще зрелого возраста. Большая голова с крупным орлиным носом, миндалевидный глаз с рельефным перлом зрачка, слегка убегающий лоб и выступающий подбородок, крупные губы. Над верхней губой показаны тонкие (иногда более широкие) длинные усики. На подбородке небольшая борода. Волосы вьющиеся, иногда перехваченные диадемой и опускающиеся вниз локонами, закрывающими ухо. Правитель одет в кафтан. На шее представлена гривна. Интерес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анализируя диадемы правителя, Э.В. Ртвеладзе отмечает, что повязки, состоящие из драгоценных камней, находящие аналогии в диадемах Сасанидских царей Ардашира I и Шапура I. Наложены они, однако, не на короны, как у последних, а прямо на волосы. Нагрудные украшения также, в основном,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бой сложно-составное украшение из широкого гладкого обруча с рядом крупных бусин или драгоценных камней. Автор делает вывод, что эти украшения являются определяющим признаком чачских правителей.⁵³

По другим деталям, характеру положения диадемы, бороде и прическе, тамге он считает возможным отнести их к юечжам, пришедшим в Среднюю Азию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II в. до н.э., и к династии кангюйского дома, как это подчеркивают и

⁵³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 С. 19-22.

⁵⁴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313.

китайские хроники танской эпохи.⁵⁴

Отметив ряд признаков, сближающих детали изображения с монетами Шапура I, который, судя по надписи, владел частью среднеазиатских земель, вплоть до границ Чача, автор полагает, что в чекане Чача заимствованы некоторые детали сасанидских монет именно этой эпохи, и начало выпуска их может быть отнесено в III в. н.э. Продолжаться же он мог до VI в., когда в Чаче начинают чеканить монеты других типов с другими иконографическими сюжетами.⁵⁵

Помимо показате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релости Чача, выраженной в обилии и количестве стандарта монеты оказались для нас интересными и в социально-культурном плане. Описывая Чач, китайские хроники Бейши и Суйшу пр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обычаев и культов жителей сообщают о центральном храме столицы, связанном с культом огня: « по юго-восточную сторону резиденции есть здание, посреди которого поставлено седалище (престол). В шестое число первой луны поставляют на этом престоле золотую урну с пеплом сожженных костей покойных род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я, потом обходят вокруг престола, рассыпая пахучие цветы и разные плоды. Владетель с вельможами поставляют жертвенное (мясо). По окончании обряда владетель с супругой отходит в особую ставку. Вельможи и прочие по порядку садятся и по окончании стола расходятся.⁵⁶

При исследовании столичного города 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 юго-востоку от цитадели с замком правителя раскрыли руины крупного храма. Ядром его являлся

⁵⁵ Рг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 С. 28-31.

⁵⁶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 Т. 2. С. 272-273, 282.

квадратный зал 14 * 14 м. Узкие суфы вдоль стен с хрупким ганчевым покрытием, а напротив входа большая трехъярусная суфа-эстрада. Стены когда-то были украшены полихромной росписью, а над суфой-эстрадой поднималась рельефная лепнина в виде огненно-красных языков пламени. Вокруг зала с двух сторон также проходили коридоры, украшенные росписью, а за суфой-эстрадой была маленькая дверца, уводившая в комнатку, где хранился вечный огонь, выносившийся в зал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чных торжеств. На полу зала и суфах – кучки зерна злаков, остатки цветов, сосудики, возможно с жертвенной пищей. В боковой комнатке на полу расчищены скелеты лошади и жеребенка, лежащие головами к культовому очагу-алтарю в восточной стене.

Это явно столичный храм Чача, и, наверное, о нем писали китайские летописцы. Но храм был сожжен и разрушен. В коридоре найден ключ храма, останки человека, в теле которого торчала стрела. В стенах застряли железные крючья,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при штурме. Значит храм погиб в результате штурма города. Обгорели росписи стен, сгорели дары храма, но сохранились глиняные печати-буллы, которыми верховный жрец опечатывал дары. Обгоревшие в пожаре они сохранили для нас портреты жрецов храма, надписи с их титулами и именами.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что они близки портретам, которые мы встречаем на древних монетах Чача. На аверсе – мужское лицо (молодое или пожилое), в профиль влево, локоны волос, иногда прикрытые шлемом или перевязанные диадемой. Грудь на печатях выделена более четко, объемно, чем на монетах. Кроме гривны видны детали других рельефных украшений. Возможно, одеты они были не только в кафтаны, но и в воинские доспехи.

Находка эта явилась важным доказательством,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того факта, что Канк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а столицей Чача, так как здесь располагался, описанный в китайских источниках главный храм. Во-вторых, она раскрывает нам новый аспект роли правителя владения и как верховного жреца главного храма столицы.

Небезынтересно и имя жреца, прочтенное согдологом В.А. Лившицем на одной из булл: «Аскасап (Асписак) Санак Каватенак». Первое слово – «епископ» (в манихейской номенклатуре) или дьякон (в христианской иерархии). Второе слово – имя, французски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Х. Трамбле в своей работе, посвященной манихейству народо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⁵⁷ предлагает читать по-согдийски как «камен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ановное имя верховного жреца оказывается созвучным имени владения.

В середине I тыс. н.э. Чач входит в эфталит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 составе которого он находился примерно столетие. Создавшие больш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ключавшее и кочевые районы, и урбанизированные оазисы (в том числе и большая часть областей Средней Азии),⁵⁸ эфталиты, столкнувшись с Ираном,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вели успешные войны с Сасанидами, которые претендовали на земли к северу вплоть до Ферганы и Чача.⁵⁹

В материальной культуре Чача, в планировке городов и поселений, как и в

57 Tremblay Xavier. Pour une historiere de la Serinde. La manicheisme parmi les peuples et religions d'Asie Centrale d' apres les sources primaries // Veroffentlichungen der Kommission fur Iranistik Herausgegebenen von Heiner Eichner und Rudiger Schmitt. N 28. Wien, 2001. S. 93-94

58 Неразик Е.Е. История таджикского народа. М., 1963. Т. 1.; Маршак Б.И. К вопросу о восточных противниках Ирана в V в. // Страны и народы Востока. Вып. X. М., 1971. С. 65.

59 Altheim F. Geschichte der Hunnen. II. Band. Die Heptaliten in Iran. Berlin, 1960.

самом этническом составе четко прослеживаются новые этнические компоненты, сближающие с культурой Нахшеба степных районов Самаркандского Согда и Бухары, формировавшихся с конца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V в. на кангюйской основе. Ряд историков считает, что Чач вошел в государство эфталитов при их движении в Восточный Туркестан. В то же время описание Э.В. Ртвеладзе чачских монет эфталитского этапа, в частности тамги, показывает, что чекан их мог появиться с конца IV в.н.э.⁶⁰ Наличие кангюйской тамги на этих монетах Чача, по нашему мнению, может служить убедительным доводом в пользу вхождения Чача (как и Нахшаба) в состав эфтали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еще на этапе движения их племен не с севера на юг, а не в VI столетии, когда они шли в Восточный Туркестан, как считают друг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⁶¹

В середине VI в. Чач включается в орбиту нов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аганата относят к 551 г., когда предводитель тюрков Ашина Бумын после разгрома господствовавших тогда жужан объявил себя иль-каганом. Расцвет начинается с кагана Мукана (553-572) довершившего в 555 г. разгром жужан и ставшего верховным правителем Центральной, а затем и Средней Азии. После него Каганат возглавляют Таспар (572 - 581), Нивар (581-587), Тонга Туран (588 - 600), Шиби (609 - 619), Эль Хакан (620 - 630).⁶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о Средней Азией письм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связывают правителей

⁶⁰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 С. 111-114.

⁶¹ Мандельштам А.Н. К вопросу о кидаритах // КСИЭ. 1958. Вып. XXX.

⁶² Кляшторный С.Г., Лившиц В.А. Согдийские надписи из Бугута. // СНВ. X. М., 1971. С. 130-131.

«десятистрельных» тюрок Истеми ябгу (552 - 576), Тарду (576 - 603), Тон ябгу (618-630).⁶³

К 555 г. Сырдарья становится границей двух могучих держав. Возглавивший борьбу с эфталитами активный правитель «десятистрельных» племен, носивший у тюрок имя Истеми, в византийских источниках известен как Зилзивул, у китайцев Шитеми, а у арабов Санджибу. Уже первые столкновения тюрок с эфталитами были столь сильны, что по образному выражению поэта Фирдоуси «от кипения всадников в Чаче воды Гульзариюна (Сырдарья - Ю.Б.) стали цвета розы».⁶⁴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положение стабилизировалось, т.к. Истеми был занят войной с кочевниками на Джейхуне, откуда он прошел вплоть до Волги. Успешные события на севере привели к тому, что современники стали называть его «подателем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военачальником с войском казной и короной, от Китая, от той стороны Чача до Джейхуна».⁶⁵ Однако на юге его граница была под угрозой эфталитов, и Истеми вынужден был прекратить наступление на север. По словам византийских источников, он заявил, что сначала покончит с эфталитами, потом вновь вернется к борьбе с аварами.⁶⁶ Он заключил союз с иранским шахом Хосровом I и с большой армией вновь двинулся на Сырдарью. Захватил Чач и Парак, вошел в долину Зарафшана, в Насаф, Самарканд и Бухару. Фирдоуси пишет, что «в Чаче, Параке,

⁶³ Птицын Г.В. К вопросу о географии «Шахнаме». // ТОВЭ. Т. IV. Л., 1947. С. 302-303.

⁶⁴ Птицын Г.В. К вопросу о географии «Шахнаме».

⁶⁵ Там же. С. 302, 303.

⁶⁶ Менандр Византиец. Продолжение истории Агафиевой. ... С. 128.

Самарканде и Согде много земель было разорено и стало местопребыванием сов».⁶⁷

Борьба завершилась многодневным сражением под Нахшебом и Бухарой. Эфталиты были полностью разбиты и оставили все занятые тюрками земли.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следующей борьбы с Ираном к 571 г. границей между каганатом и шахиншахами стала Амударья. А в 576 г. тюрки, захватив Боспор Киммерийский, проходят до Черного моря.

В том же году каган направляет посольство во главе с согдийским купцом Маниахом к византийскому императору Юстину II с заключением договора о торговле и военном союзе против Ирана. Вслед за этим следует в каганат византийское посольство во главе со стратегом восточных земель Земархом.

В целом в период расцвета каганат охватывает земли от границ Китая на востоке до Каспийского моря на западе. Внутри страны происходило массово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чевников в оазисы Средней Азии и оседание их с формированием значительного тюркского компонента в городах и поселениях вплоть до образования новых городов с тюркскими названиями.

В титулатуре правителей ряда владений каганата читаются наименования разных рангов тюркской элиты – тархан, шад, тудун, ябгу, чур, тегин.⁶⁸ Особенно бурно этот процесс происходит в контакт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к числу которых принадлежи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Чач, вошедший в состав каганата в качеств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⁶⁷ Беленицкий А.М. Историко-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очерк Хутталя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X в. / МИА, 16. - М.-Л., 1950. С. 112.

⁶⁸ Бобоёров Г. В. Этно-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 VI-VIII вв. (по Орхоно-Енисейским письменным памятникам).: Автореф. дис... к.и.н. Т., 2003. С. 10

владения.

После смерти кагана Истеми в 586 г. начинаются междоусобицы и каганат распадается на д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междоусобицами, правитель Чача в 604 г. решил освободиться от власти тюрков, но потерпел поражение. Управление перешл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руки тюркского ставленника из рода Ашина в ранге тудуна. Китайские летописцы сообщают, что «жители Чача искусны в сражениях, но когда поссорились с тюркским правителем, то последний вновь покорил их и теперь тюркский правитель Дэле Тяньчжи (Фуджи), правит у н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делами».⁶⁹

Относительно титула тудун мнения ученых различны. Китайские источники сообщают о том, что каган Туншеху провел в своем государстве реформу, и направил к каждому правителю средне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своих наместников-тудунов, основной задачей которых были контроль над местными династиями и сбор дани.⁷⁰ О том, что тудуны были частью правящей верхушки каганата говорит анализ надписи на Бугутской стеле начала VIII в. Здесь отмечается следующая иерархическ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элиты каганата: Каган и его ближайшие сородичи: шадопыты, куркапыты, тудуны, за которыми по рангу следуют войско и народ.⁷¹ Деле Фучжи неоднократно упоминается китайскими источниками, как тюркский правитель,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вший с ними, направлявший посольства в Китай и

⁶⁹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Т. 1. С. 277, 282, 313.

⁷⁰ Толстов С.П. Древний Хорезм. М., 1948. С. 260.

⁷¹ Кляшторный С.Г., Лившиц В.А. Согдийские надписи из Бугута... С. 132.

принимавший ответные. Он налаживает тесные связи с верховным каганом.

Для этого времени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один из западно-тюркских каганов «жил на севере от Ши и управлял всеми согдийскими (ху) владениями Средней Азии». А в 616 г. каган Тоншеху переносит свою «южную ставку» - летнюю столицу в северные пределы Чача в местность, которая китайскими источниками именовалась Цянь цюань – «тысяча ключей». «Тюркский каган каждое лето прибывал сюда, чтобы укрыться от жары» - сообщает летописец.⁷² «Место это – по китайским данным – располагается в 400 ли от Суе (Суяба – Ю.Б.), а в 140-150 ли от Цянь цюань находится г. Далосы (Талас – Ю.Б.), в котором смешанно живут торговцы и инородцы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⁷³

В то же время политическая обстановка в каганате уже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VII в. теряет свою стабильность. Упомянутый нами ранее каган Тоншеху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характеризовался современниками как храбрый дальновидный правитель, всегда выигрывавший сражения и обладавший войском в несколько сот тысяч лучников. Однако уже при нем в Каганате начались новые междоусобицы, а его наследник Эльтериш Ширкаган вынужден был официально разделить свои владения на 10 аймаков.⁷⁴

Распад каганата на уделы способствовал резкому росту раздробленности и входивших в его состав владений, примером которого явился Чач.

⁷² Боровкова А.А. Запад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о II в. до н.э. VIII в. н.э.. М., 1989. С. 133

⁷³ Боровкова А.А. Запад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С. 133-134; Зуев Ю.А. Ранние тюрк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и идеологии. Алматы, 2002. С. 94-95.

⁷⁴ Бичурин Н. 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т. 1., С. 279-300

Буддийский миссионер Сюан Цзян, проехавший через владения Среднеазиатского Междуречья в 629 г., отмечает их раздробленность и междоусобицы. О Чаче он, в частности сообщает, что страна имеет более десяти городов,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имеет своего правителя. О Суябе, входившем в Чач, он пишет, что «люди там ходят в латах и воюют между собой, но подчиняются «тюркскому правителю».⁷⁵ Вследствие этих междоусобиц Чач фактически разделился на два больш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айона с выделением южной рудной подобласти Илака, которым управлял «сильный дихкан». И Чач и Илак делились на еще более мелкие подобласти. Жители Чача в Танской истории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как воинственные, искусные в сражениях. Возможно, неслучайно тудун переносит свою ставку в более северные пределы владения, поближе к ставке верховного кагана.

В то же время Чач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ет в общих междоусобицах каганата, и,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сь ими, Чач в 40-50 гг. VII в. усиливается и вновь приобретает определенную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собенно после пленения в 50-е годы одного из мятежных каганов Холлу, чьи функции частично унаследовал чачский правитель.

Укрепление связей со степью в составе каганата сыграло важную роль в подъеме экономики Чача и ее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летописи сообщают, что в Ши производится пшеница, ячмень, просо. В долине и предгорьях были прекрасные сады и бахчевые угодья.

Вместе с Ферганой Чач славился выведением сильных породистых лошадей.

⁷⁵ Siy-ki Buddhist Records of the Western Worlds (translated from the Chinese of Hiuen Tsiang (a.o. 629) by Sannel beal in two volumes. London, 1884. V. I. P. 30

Степные и предгорные районы являлись прекрасными пастбищами для полуседлого, отгонного и кочевого скотоводства с разведением крупного и мелк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и лошадей. Не случайно южная подобласть получает название Илак (айлак - летовка).

И в то же время он становится крупнейшей рудно-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й областью. Основным районом благородных и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являлся Илак. Здесь активизируются центры разработки меди - в Кокреле, золота - в Кызылалме и Кочбулаке, серебра - в Лашкереке и Конимансуре, железа - в Шаввазсае, Боашучбау и Катгасае. Наиболее крупные шахты и камеры связаны с добычей золота и серебра. Это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ить, что уже в раннем средневековье Илак выдвигается в качестве крупного центра добычи благородных металлов Востока. Ко времени арабского нашествия здесь был известен, серебряный рудный центр, носивший название «Кухисим» (Серебряная гора).

Сначала переработка и плавка руды проводилас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близ рудников. Но с ростом добычи руды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плавки формируютс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е пункты, перерастающие в ряде случаев в города. Источники упоминают среди городов Илака, связанных с переработкой металлов его столицу Тункет.⁷⁶

Столица Илака Тункет, руины которой известны под именем городища Имлак, располагалась на левом берегу «реки Илака» - Ахангарана и включала небольшую, но сильно укрепленную цитадель, также небольшой шахристан и обширные рабады. Во всех трех частях города помимо парадных жилых комплексов сохранились

76 Буряков Ю.Ф. Горное дело и металлургия ... С. 101-106.

мощные отвалы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о извлечению золота и серебра. Неподалеку от столицы располагалс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центр по обработке цветных и благородных металлов Туккет.⁷⁷

Из городских ремесел развивается изготовление оружия, доспехов, орудий труда и конской упряжи, керамической посуды и стеклянных изделий, шерстяных и хлопчатобумажных тканей.

При раскопках раскрыты печи металлургов, кузнецов, ювелиров и их продукция; керамические изделия также связаны с экспортом кочевникам. Тюркский период для Чача – время а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оседлой культуры. Массовое оседание тюркских племен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явлению в Чаче, наряду с согдийскими названиями городов по Шелковому пути, и тюркских названий - Абрлыг, Намудлыг, Итлык, тюркских местностей (Илак, Яйлак).⁷⁸

Чач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ся в союз среднеазиатских владений под эгидой Согда,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контроль над торговыми трассами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основные сухопутные ветви которого постепенно передвигаются из Самарканда на север в Чач и Фергану. Трасса эта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лась каганами, так как приносила им большие доходы.

Стоявший на контакте степных и оседлых народов он становится крупным узлом торговых связей из Сибири, степных земель и Китая, экспортируя золото, цветные

⁷⁷ Буряков Ю.Ф.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Тункета и Абрлыга. //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Узбекистана. Т., 1966. С. 76-123.

⁷⁸ Там же.; Он ж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Намудлыга // ИМКУ. Вып. 9. Ташкент, 1972. С. 98-107.

соли, голубые самоцветы - бирюзу, доспехи и конскую упряжь, знаменитые «седла с высокой лукой» и вооружение, ковры и ткани.

В нов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тюркская степь пре-вращается в район оживленных контактов. И возвращаясь к переносу ставки чачского тудуна на север, ближе к ставке верховного кагана, мы можем сказать, что помимо защиты он, вероятно, связан и с тем, что с VI – VII вв. н.э. активизируются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торговые связи с кочевыми землями Великой степи и в северных регионах Чача разрастаются городские пункты.

В среднем течении долины Парака (Чирчик) на контакте оазиса и степной зоны складывается узел из 6 городков и укрепленных ставок. Это Залтикет (Майтепа) и Банункет (Кугаиттепа) на западных подступах к столице Нуджкет (Ханабад) у переправы через р. Парак (Чирчик),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Джабгукет (Тугайитепа), о котором более поздние источники говорили, что здесь «лагерь войск внутри оборонительной стены Чача», и Аката.

Поли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их был самый крупный пункт – городище Мингурюк, на котором мы локализуем выступающую в исторических источниках под безымянным именем «Мадину Чача» (город Чача). Город площадью 35 га включает подпрямоугольный шахристан и небольшую цитадель. Крепостные стены с обводными коридорами, прямоугольными башнями, без бойниц и рассчитаны на оборону с парашета. В цитадели - дворец, планировка которого включает парадные, жилые, культовые и хозяйственно-складские помещения. Парадные залы и святилище были украшены монументальной живописью, сгоревшей, вероятно, в период борьбы с арабами.⁷⁹

Ряд укрепленных городских пунктов северного микрооазиса в это время находились еще в стадии формирования. Так арабский географ Кудама ибн Джафар, использовавший (как доказал П.Г. Булгаков) материалы VII – VIII вв. в своем дорожнике пишет только о «городе Шаша» и из него до «лагеря внутри стены» 2 фарсаха и далее дорога на север в Газгирд.⁸⁰

В то же время его старший современник Ибн-Хордадбех, труд которого подготовлен по материалам IX в, упоминает уже некоторые из этих городков, в частности Залтикет в 2 фарсах от Бинката.⁸¹

Активный рост городов в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оазиса приводит к тому, что наряду с традиционным торговым путем из Согда, входившим в оазис в его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через город Банокет и древнюю столицу Харашкет, появляется новая торговая линия, ведущая из Самарканда через степь прямо к устью Чирчика, где у переправы через Сырдарью вырастает первый укрепленный городок Чача, носивший название Чинанкет – китайский город.

Цепочкой замков и специальных укреплений VI – VII вв. он вдоль Сырдарьи был связан с главной торговой трассой. И такие же замки ведут этот путь на восток к городам, лежавшим на месте нынешнего Ташкента, и далее в города Семиречья. Одновременно Чинанкет вырастает как новый пункт на границе с кочевой степью. Кочевники были постоянными акти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торговли. Источники даже

⁷⁹ Древний Ташкент. - Т., 1973. С. 18-109.

⁸⁰ Волин С.А. Переводы Ибн Русты, Кудамы и др арабских географов. архив ИВ АН РАН. Ф. 93, оп. 1. д. 21. // ВГА. Т. VI. С. 210

⁸¹ Волин С.А. Переводы ...; ВГА. Т. VI С. 201.

сообщают, что часть жителей Чинанчкета живет в шатрах (т.е. юртах), вероятно, представляя оседающий в городе кочевой элемент. В то же время само название города говорит о его роли в торговле с Китаем, купцы которого вероятно также составляли значительный контингент Чинанчкета. Город разрастался вплоть до монгольского завоевания и был оживленным торговым центром, следами чего являются крупные монетные клады и украшения, найденные в его культурных слоях.

Все эти изменения приводят к тому, что старая столица Чача на берегу Сырдарьи на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сокращается в объемах до площади 45 га в рамках новой стены, окружающей резиденцию малика Чача, старый храм и его округу. Конструкция, стандарт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материальная культура жилых построек, примыкающих к стене, характерна для VI – VII вв. Мы предполагали возведение ее в период после поражения чачцев в 605 г. в восстании против кагана, когда управлять страной стал тюркский ставленник.

В то же время следует заметить, что временное сокращение территории столицы в Средней Азии характерно не только для Чача. Этот же процесс наблюдается и в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й столице Согда – Самарканде, где окруженная стеной территория города сокращается с 220 до 65 га.

Однако после кратковременного упадка начинается новый подъем и активное обживание и цитадели и всей город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на площади 150 га. Жизнь перехлестывает городские стены, и ремесленные кварталы вырастают близ городских ворот за их пределами. В цитадели проводится значитель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ногоярусных сооружений из пахсовых блоков и кирпича, жилые

залы, домашний храм с алтарем и ложным куполом, шатрового типа перекрытия. В залах в слоях завалов пожарища найдены отдельные фрагменты монументальной живописи, аналогичной афрасиабской. В домашнем храме правителей на суфе найдена типичная для VII – VIII вв. керамическая курильница на высокой конической расширяющейся к основанию ножке.

Изменяет свою конфигурацию входной комплекс в цитадель. Вместо коленчатых коридоров складывается прямой с циркульной аркой входа. Ремонтируются и башни оборонительной галереи с ловушками. В её кладке применен редкий прием облицовки кирпичных стен паховым футляром, придающим куртинам и башням монументальность и гибкость в сейсм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Прием этот известен в кладке наземных склепов 7 в. в Чаге близ Туркестана.⁸²

В пределах города растут жилые кварталы VII – VIII вв. В западной части его кардинально перестраивается замок, ранее сильно пострадавший от землетрясения. Активно функционирует двухдворовый крупнейший городской караван-сарай, стоявший на основной город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ведущей к центральной базарной площади от южных ворот, куда подходила торговая трасса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ведущая из Согда. Вдоль этой магистрали между каравансараем и базаром располагались мастерские по обработке черных и цветных металлов, выходившие к улице помещениями типа айванов или, скорее, торговых лавочек, как это наблюдалось в Пенджикенте. Основная масса чачских монет VII – VIII вв.,

⁸² Максимова А.Г. Гробницы типа науса у с. Чага (Шага) // В глубь веков. Алмаата, 1974. С. 97-100.

попадающих ныне на нумизматический рынок, получена именно с этой части городища.

В юг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шахристана внутри крепостной стены, раскрыта часть улицы и помещения с коридором ремесленника-металлурга VI – VII вв., во дворе которого расчищен плавильный горн с керамическим соплом для поддува воздуха в печь. Хозяйство перекрыто погребальными сооружениями с подбойными могилами мусульманского типа, заложенными кирпичом, характерным для VIII – IX в. н.э.⁸³

Эти материалы позволяют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появление ставки тудуна – наместника кагана, основн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и полит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Чача остается древняя столица малика Чача.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этого является описание чачского владения в летописи Танского Китая, четко помещающей его столицу на место прежнего Юничена.⁸⁴

Наряду с «мадиной Чача» упоминается еще и Тарбенд, куда ушел тудун Чача, по сообщениям согдийского посла Фатуфарна, в период борьбы с арабами. Руины ее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 Отраре, Фарабе и исследуются казахскими археологами.⁸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Чача и на торговых трассах с востока на запад из Китая в Византию, и с юга на север по Сырдарье, которая в это время получает название «река Чача» (что отражено в передаче китайскими летописями в форме Чжень-

83 Буряков Ю.Ф. Работы Шаш-илак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1985 год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открытия. М., 1987. С. 588.

84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Т. 2. С. 313-314.

85 Акишев К.А., Байпаков К.М., Ермакович Л.Б. Древний Отрар (Топография, стратиграфия, перспективы). Алма-Ата, 1972.

Чжу-хэ или Чжи-хэ),⁸⁶ способствует тому, что он становится и экспортером товаров и ретранслятором согди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обширные степные районы и играет большую роль в союзе владений Средней Азии, возглавляемом Согдом. Вероятно, неслучайно его посольство изображается в росписях согдийского дворца в честь ихшида Вархумана на Афрасиабе.⁸⁷ И не просто изображается. Судя по тексту надписи, чачскому секретарю посольства, дабирпату предоставлялось слово после тохаристанского. О размахе торговых связей говорит и рост, и разнообразие денежной эмиссии Чача VII – VIII вв.

Наряду с чеканом верховного правителя идет выпуск монеты мелких владений и отдельных городов. В торговле активно использовалась монета других стран от Византии до Китая, но особенно монета владений Средней Ази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огд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чачская монета активно ходила в соседних владениях.⁸⁸

Письменные источники и монеты позволяют выделить не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ящей династии Чача VII – VIII вв. Наряду с тудунами титул малика Чача принимали мелкие князья тюркского дома и тюркские царевичи более низкого ранга – тегины, тарханы, владевшие, возможно лишь отдельными городами или владениями с округой. Это тегин Тяньчши (605 - 620), Гань тутук или Тун тегин (640 - 660). Большую роль сыграл Мохедо тутунь или Баходур-тугун (713 - 740). Упоминается Инай тугункель в 741 г. и безымянный тегин в 743 г.⁸⁹

⁸⁶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Т. I. С. 313-314.

⁸⁷ Альбаум Л.И.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Т., 1982

⁸⁸ Детально о денежном обращении этого времени см.: Ртвеладзе Э.В. История и нумизматика Чача... С. 46-105

В Таншу сообщается о правителе одного из городов Чача Инйе-Дагань⁹⁰ (вероятно, Тархан). Табари, описывая события 739 г., упоминает правителя Шаша Бадар Тархана (Баходур тархана),⁹¹ Бируни пишет: - «титул царя Шаша – тудун».⁹² Этот титул есть на монетах Чача VII – VIII вв. н.э.⁹³

Примером претензий чачских маликов на верховную власть может служить сообщение Таншу: отмеченный нами выше чачский малик Мохедо тутунь (Баходур тудун) в 740 г. в период междоусобиц победил кагана Ашина Хина и объявил себя ханом, но вскоре был убит.⁹⁴

Все эти материалы открывают сложную и неоднозначную структур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Чача тюркской эпох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верховная власть малика с подчинением ему правителей городов и областей, входивших в состав владения. Опорой власти малика служила тюркская гвардия. Косвенным примером этому может служить сообщение о том, что во время отделения от халифата в 806 г. мятежного полководца Рафи ибн Ляйса перешедший на его сторону правитель Несефа запросил поддержки. Он послал «владельца Шаша с его тюрками и одного из своих военачальников».⁹⁵

89 Chawannes E. Documents sur les Tou-kiue (Turks) orientaux. St. Peterbourg, 1903, P. 149;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Т. 2. С. 313.

90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Т. I. С. 292-300.

91 История ат-Табари... С. 268.

92 Бируни. Соч. Т. I / на узб. яз. - Т. 1968. Б. 129.

93 Сводный каталог согдийских монет. Бронза. М., 1981. С. 52-53.

94 Chawannes. P. 140; Бичурин Н.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Т. 2. С. 313; Beckwith C. The Tibetan Empire in Central Asia. Princeton, New Jersey, 1987. P. 136-140

95 История ат-Табари... С. 369-370.

В то же время структура государства не была монолитной как на раннем этапе. Как отмечалось выше, титул малика Чача принимали и каганы, и князья, либо назначавшиеся верховным каганом, либо получившие власть благодаря реальной силе.

VIII в. – новый этап в истории Чача, связанны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 борьбой против арабских завоевателей Среднеазиатского Междуречья.

С начала VIII в. Чач попадает в орбиту влияния тюрков-тюркешей. Создание сильного тюркеш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вязывается с хаканом Учжеле, который возглавил каганат в 708 г., и его сыном Согэ каганом (Сулу). Они создали государство от Алтая до Сырдарьи. Максимальный расцвет каганата при Сулу кагане. Он пришел к власти в 716 г. и все годы своего правления непрерывно сражался с арабами. Важной областью 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являлся Чач, принимавший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этой борьбе. В период борьбы с арабами воины чачской элиты выступали на помощь Самарканду. Известно крупное поражение, нанесенное арабам объединенным войском тюрков, отрядов Чача, Ферганы и Несефа на Сырдарье в 723 – 724 гг. И хотя арабы, в конце концов, после разгрома кагана, направили в Чач своего наместника, страна оставалас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Неслучайно у арабов сложилась поговорка: «проходя через Чач, выше поднимай полы одежды, т. к. это страна дьяволов, от которых бегут правители».⁹⁶

Это время активных и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 Китаем.

⁹⁶ Масон М. Е. Прошлое Ташкента (археолого-топографический и историко-архитектурный очерк) // Известия АН УзССР. Ташкент, 1954

Китайцы считали Чач владением, входящим в сферу их влияния вплоть до передачи правителю Чача, а затем его наследникам китайских грамот с титулом «Владетеля, повинующегося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Когда танский губернатор Цзя Юн в 739 г. выступил против тюргешей, в связи с их агрессивными действиями на границах империи, чачский малик поддержал Китай, за что в 740 г. и получил этот высокий титул.

В середине VIII в. в халифате происходит резкое изменение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и, оказавшее большое влияние на события в восточных районах Хорасана и Мавераннахра. В 747 г. начинается открытое выступление Аббасидов против господствовавшей в халифате династии Омейядов. Оно завершилось победой первых в 748 г. в Мерве, а в 749 г. во всем Хорасане.

Победа эта была одержана благодаря активным выступлениям аббасидских сторонников во главе с Абу Муслимом. Центрами восстания были Северный Хорасан и ряд городов Мавераннахра.⁹⁷ В то же время ожесточенная борьба сопровождалась убийствами арабской знати. Это вызвал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осстание арабов в Бухаре во главе с Шариком ибн Шайхом, поддержанное 30 000 арабов, обвинивших Абу Муслима в незаконном пролитии крови в междоусобицах и чрезвычайных убийствах. С Шариком заключили союз и наместники Бухары и Хорезма. Абу Муслиму пришлось путем нескольких военных операций завоевать вторично Самарканд и Бухару. Затем он послал Зийяда бин Салиха на новое завоевание восточных областей Мавераннахра, включая Чач и Тараз,

| 97 Ат-Табари. История пророков и царей / пер. В.И. Беляева. Ташкент, 1987. С 311-352.

которые вместе с Ферганой в период междоусобиц тюркских каганов стали сферой влияния Танского Китая. Императором даже был поставлен в качестве наместника губернатора Западных Земель талантливый полководец кореец на китайской службе Гао Сян Чжи. Ибн ал-Асир сообщает о том, что в 133 г.х. (750-751) происходит конфликт между чачским маликом (в китайском тексте *kiu-pi-Che*, передаваемом Беквитом как *Cabis*) и ферганским ихшидом *Arsilan Tarkan*'ом.⁹⁸ Причина их конфликта не приводится. Возможно, что это связано с расширением влияния чачского малика на часть ферганской территории.

Ихшид Ферганы обратился за помощью к китайскому императору. По арабским данным тот послал сотысячное войско на Чач. Гао Сян Чжи, возглавивший войско обвинил малика в неисполнении обязанностей вассала. Сначала был разбит и каган тюргешей,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вший чачского малика. Столица Чача была взята штурмом и разграблена. Сообщается в частности, что было получ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золота, породистых лошадей, верблюдов и камня сэ-сэ. Малик принял все предложения, но был отправлен в столицу Китая и там казнен. Много жителей столицы было взято в рабство или перебито. Как сообщает хроника Танши «это произвело всеобщий ропот в Западном крае».⁹⁹ Сын владельца области обратился к арабам за помощью. Абу Муслим направил войско во главе с Зиядом бин Салихом. В арабской версии Зияд бин Салих достигает р. Тараз и разбивает сотысячную армию, перебив 50 тыс. и взяв в плен 20 тыс. китайцев.

⁹⁸ Beckwith C. *The Tibetan Empire in Central Asia*... P. 137.

⁹⁹ Там же. С. 314.

Более реалистичны китайские хроники. В биографии Гао Сян Чжи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его армия, состояла из 30 000 воинов, включая соединения китайцев, ферганцев и тюрок-карлуков. Сражение продолжалось 5 дней с переменным успехом. Но в последний день карлуки, стоявшие с ферганцами, изменили и перешли на сторону арабов, что привело к поражению армии Гао Сян Чжи. Китайский отряд прорвался сквозь деморализованных ферганцев и обратился в бегство.¹⁰⁰

После этого Абу Муслим несколько лет вел борьбу с правителями Мавераннахра, подрыв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ую власть местной элиты. В результат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еще в течение ряда лет эпизодически направлялись посольства в Поднебесную империю, владения в Мавераннахре и Чач в их числе постепенно включаются в состав халифата и русло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жизни их смещается в запад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¹⁰⁰ Карев Ю.В.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Мавераннахре в середине VIII века. // Средняя Азия: археология, история, культура. М., 2000. С. 208

7세기 아프리카시압 궁전벽화에 대한 40년간의 연구결과

— 루스탐 X. 술레이마노프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세 초기 아프리카시애틀 궁전벽화는 7세기 중·후반과 관련이 있다. 이 벽화에는 아시아의 강대국(중국 당나라)과 사마르칸드와의 폭넓은 문화적 연관성이 묘사되어 있다. 사실상 이 벽화는 새로운 시대를 반영한 것으로, 투르크 칸국이 사마르칸드의 역사무대에 등장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광범위한 두 지역 간의 강력하고 충동적인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통합으로 형성된 타성에 젖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투르크 칸국의 국경선은 동쪽의 황해에서부터 서쪽 유럽 대륙의 흑해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중국 당나라 제국은 투르크계 왕조 출신의 이민족들을 복속시킬 수 있는 중앙아시아 소국들과의 관계에서 투르크 칸국 제국 시기에 성립된 관계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또한 극동지역의 민족들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이미 중국 당나라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었으며, 극동지역에서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중국 당나라가 갖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상호관계를 밝혀주는 자료들 중에는 아주 독특한 자료가 있다. 이것은 기원후 7세기쯤의 아프리카시애틀 벽화이다. 이 유명한 벽화에는 중세 초기의 투르크인, 중국인, 한반도인 등을 비롯한 여러 종족들이 묘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프리카시애틀은 고대 사마르칸드 지역으로 폐허가 된 곳이다. 아프리카시애틀 지역은 오늘날

사마르칸트시의 북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여러 개의 방어용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아프라시압은 고대와 중세에 중앙아시아의 대규모적인 정치적·상업적·문화적 중심지였다. 1970년 유네스코의 지원아래 사마르칸드 도시 창건 2,500주년을 기념하였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 가장 오래된 사마르칸드의 방어벽이 보여주는 것이나, 가장 낮은 지층에 나타나는 층위나 문화층을 보았을 때, 사마르칸드의 도시 창건은 실제 이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마르칸드는 2,700년 이상 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고대 로마와 같은 시기에 이미 도시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00년 이상 동안이나 아프라시압에서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폐허가 된 고대 도시의 궁전유적과 예배당, 주거지, 수공업 작업장이 발굴되었다. 이들 유적은 도시의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다양한 시대와 관련을 갖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발굴을 통해 밝혀진 독특한 것들 중의 하나는 7세기 사마르칸드 지배자의 궁전이다.

궁전은 도시의 '제3번 방어벽'이라 명명된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폐허가 된 아프라시압의 중심부에 해당하며, 1965년부터 1968년까지 B. A. 시시킨을 단장으로 하는 발굴단에 의해 발굴이 이뤄졌다. 궁전 홀에서 벽화를 발견한 라다르 알바움은 화려한 이 벽화를 공개하기로 하였다(Л. И. Альбаум, 1975). 7세기의 이 궁전 콤플렉스는 '유적 제23호' 혹은 '아프라시압의 핵심 유적지'로 명명되었다. 이 궁전 유적지에서 초기 4년 동안 약 30개의 방(공간)이 발굴되었다. 궁전의 잔해 위층에서는 12세기까지의 주거 및 생산 시설물들이 발견되었다. 궁전의 벽 기초부분 밑에서 건축구조물이 발견되었는데, 이 건축물은 고대 사마르칸드 초기의 것으로 이곳이 고대 사마르칸드 생활거주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알바움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궁전의 제1번 중앙홀의 벽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궁전 콤플렉스를 조성한 시기와 바르후만이라는 통치자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아랍의 침입으로 인해 벽화는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궁전 콤플렉스의 화려한 홀의 벽화는 가로, 세로 각각 11m의 크기로 아주 인상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바움은 처음으로 이 홀의 네 벽면에 그려진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벽화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절들이 나오는데, 이 벽을 ‘사절 집전’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온 대표자들도 찾아볼 수 있다. 알바움은 연구를 계속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벽화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시도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벽화의 상세함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최종적이고 의의있는 결론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우수한 유적 유물이자 탁월한 예술품인 아프라시압 벽화에 대한 해석은 쉽지 않다. 안타깝게도 벽화의 아랫부분의 절반도 안 되는 부분만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7~8세기 아랍의 침략자들은 고의적으로 벽화의 가장 의미있는 모습들을 없애버리고, 벽화 인물의 눈을 파내고, 아프라시압 벽화 콤플렉스를 개조하였다. 이슬람 세력이 들어온 지 1세기 만에 벌써 벽화의 상층부분은 깎여나갔고, 조각난 벽화 부스러기들이 바닥에 가득했다. 바닥의 흩더미에서 벽화 상층부분을 이루었던 크고 작은 벽화 조각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나마 보존되어 있던 벽화 하층부분의 많은 부분도 파손되어 있었다. 특히 동벽은 조형예술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아랍세력의 풍조로 인하여 무자비하게 파손되었다. 아랍세력은 정복한 국가의 문화유산을 전체적으로 파괴하였다.

그래서 7세기 사마르칸드 통치자의 궁전벽화는 불완전하고, 이로 인해 이 독특한 예술 작품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에는 전통적인 소그드의 벽화기술이 사용되었다. 벽화의 표면에는 정성을 들여 고르고 얇게 점토제의 회반죽을 칠했으며, 그 위에 하얀색 석고로 바탕 칠을 하였다. 맨처음 가는 선으로 그림의 윤곽을 얇게 칠한 다음, 색칠을 하거나 상세하게 빈틈없이 칠하였다. 벽화에 사용된 물감은 식물성 아교 용액을 혼합하여 만든 광물 물감이었다.

아프라시아 벽화의 서벽과 북벽에는 미완성 그림들이 있다. 이 그림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림들을 위에 그려넣어 겹친 것이다. 북벽의 그림들은 전부 완성된 그림들이 아니다. 어떤 그림은 개별적인 윤곽을 두 번 정도만 정확히 그렸고, 어떤 그림은 밑그림만을 그렸다(Л. И. Альбаум, 1975, С. 67). 아프라시아 벽화가 전부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은 벽화를 완성하기 전에 벽화 제작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을 암시한다.

1975년 알바움의 『아프라시아 벽화』와 압두라자로프와 캄바로프가 공저한 『아프라시아 벽화의 복원』이 동시에 출간되었다. 이 책들에는 아프라시아 벽화 제작에 적용된 기술적, 화학적(물감과 혼합제) 문제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기술되어 있다. 아프라시아 벽화 연구에는 벽화를 촬영하고, 견고하게 하고, 보존하는 야외조사와 실험실 작업의 연구방법들이 동원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벽화를 보존하기 위해 벽화 제작에 사용된 기교의 화학적 영향과 안료의 물리적 특성, 기후, 온도, 빛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졌다. 벽화가 있는 장소의 토양의 염분화와 미생물에 의한 훼손 방지를 위한 방안들도 강구되었다(A. A. Абдуразаков, А. К. Камбаров, 1975).

1970~80년대에는 사마르칸드 궁전 콤플렉스에 대한 연구가 X. Г. 아훈바바예프에 의해 계속되었다. 아훈바바예프는 궁전 콤플렉스에서 수년 동안 30여개의 공간을 발굴하였다. 그는 궁전 콤플렉스를 기능에 따라 차이가 나는 예배구역, 의례구역, 거주구역으로 나누어 건축학적 접근을 하였다. 그는 또 7~8세기 사마르칸드의 종교와 숭배사상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였으며, 사마르칸드 소그드의 정치사와 왕조사 연구를 병행하였다(X. Г. Ахунбабаев, 1999).

아훈바바예프는 해당 도시구역의 주거지 정비와 건축시기를 구분하였으며, 궁전 콤플렉스의 건축 연대와 기능에 대해서 밝혀냈다. 그는 궁전 콤플렉스를 건축학적으로 예배구역, 의례구역, 거주구역으로 나누었다. 또 아훈바바예프는 궁전의 바닥에서 발견된 동전

들은 본질적으로는 우르크 바르트라무크 시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궁전은 정비되고, 개축된 것 같다. 어쩌면 우르크 바르트라무크의 시대에 건축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르크 바르트라무크는 사마르칸드 통치자 바르후만의 후임자였다. 그는 자신의 전임자와 가까운 관계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궁전의 예배실 벽화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예배실 벽화에는 사마르칸드의 통치자 바르후만의 모습이 위풍당당하게 그려져 있다. 아훈바바예프는 궁전벽화의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프라시압 제1호실의 내용을 분석하고, 벽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도 해석을 한 첫 번째 연구자는 알바움이었다.

벽화가 그려진 호실의 특징적인 표현은 가장 잘 보존된 서벽의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 바르후만의 통치 시기 중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이 제1호실에 묘사되어 있다는 알바움의 주장에 동의한다. 즉, 제1호실 및 곳에서 발견된 표제는 분명하게 인접국가들뿐 아니라 먼 나라에서 방문한 사절들을 접견하는 곳이 제1호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알바움은 이 표제를 책에 유사한 삽화로 기입하고, 삽화의 내용에 대한 문헌적인 설명과 함께 주석을 달았다(Л. И. Альбаум, 1975, сс. 54~56). 이 장면은 통치자가 직접 각국의 사절들을 호화스럽게 영접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통치자는 상위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그의 모습은 훼손되어 보존되지 않았다. 그나마 보존된 벽면의 상층부분에서 통치자가 그리 크지 않은 말 안장 위에 양반자세로 앉아 자신의 수행원들을 보고 있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장식 없이 길게 두른 옷자락이 긴 외투 '카프탄'을 입은 수행원들과 치장을 한 통치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삼각형의 옷깃은 영락없는 투르크 양식의 의복이다. 어떤 경우에는 옷깃과 소매를 달았는데, 이는 아마도 장식을 한 직물로 자수를 놓거나 오려서 붙인 무늬일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예상대로 벽화의 등장인물과 수행원들은 대부분 허리에 칼이나 단검을 차고 있다. 이들은 균형잡힌 이목구비, 낮고 가는 짧은 콧수염, 몽골계의 눈동자를 하고 있다. 또한 뚜렷하게 튀어나온 광대뼈, (모자 없이)노출된 머리모양, 머리를 빗

어 올려 뒤로 길게 뺏아 늘어뜨린 검은 머리칼을 하고 있다. 이들은 투르크족으로, 통치자와 가까운 관계이며, 영접의식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 중 몇 명은 영접의식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다.

벽화의 아랫부분 행렬의 좌우측에는 통치자가 막 도착한 듯한 몇몇 그룹의 외국사절들을 영접하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벽화의 중앙에는 두 손에 직물, 실, 그리고 이국풍의 열매(훗날 누에고치와 누에나방을 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를 든 다섯 명의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벽화의 중앙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보존되어 있지는 않다.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노란색이며 닫힌 형식의 의복이다. 이들은 몽골계의 이복구비를 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검은 모자를 쓰고 있다. 알바움은 이들을 중국이나 동투르크스탄에서 온 사절들이라고 생각했다(Л. И. Альбаум, 1975, С. 22).

오른쪽에 묘사된 세 그룹은 통치자의 수행원 대표들로 두 그룹의 외국 사절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 중 첫 번째 그룹은 세 명의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입고 있는 복장은 투르크족의 짧은 카프탄으로 접어서 허리 앞쪽 옷깃에 넣었다. 바지는 부드럽게 감싸서 밀어넣었다. 복사뼈까지 올라오는 단화를 신었는데, 이 신발은 위쪽 끝까지 접어 넣은 것이었다. 이들 중 한 명은 표범가죽 옷을 입고 있다.

알바움은 중앙아시아 산악지역 민족들은 비슷한 복식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을 이 벽화의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텐산(天山) 남서지역의 차치 사절들이라고 생각하였다(Л. И. Альбаум, 1985, С. 74).

또한 서벽 우측 아래층 벽면에는 두 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있는데, 이들은 독특한 의상과 인류학적인 용모에서 다른 등장인물들과 구별되어 보인다. 얼굴 형태는 몽골계이다. 이들은 짧은 카프탄에 레몬빛 나는 노란색상의 옷을 입고 있다. 카프탄의 소매와 바지는 길고 주름이 많다. 머리 양옆에 두 개의 깃털을 꽂고, 머리를 틀어올리고, 둥글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다. 알바움은 이들의 옷이 한반도 주민의 의복과 비슷하다고 결론을 내렸

다. 또 중국 당나라 실록에서 이들이 한반도 사절들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찾았다.

벽화의 인물이 한반도인이라는 알바움의 결론에 대해 한국 학계에서는 활발하게 고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다(장준희, 2006).

서벽 좌측에는 여러 그룹의 사절들이 헌정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세 명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들은 특정한 종족문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 백인종의 얼굴형으로, 짙은 턱수염을 지니고 있다. 또 이들의 손에는 직물 두루마리와 금이 들려 있다. 이것은 두 명의 투르크족 고관들이 사절들을 안내하는 장면이다. 알바움은 서벽 좌측 사절단에 또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나 그 모습이 유실되었다고 생각했다(Л. И. Альбаум, 1975, С. 21).

알바움은 이들을 차가니안 투란타시 통치자의 사절들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바르후만과 가까운 투르크계 인물들 중 한 명의 복장인 '할랏'에 소그드 문자로 의사록(표제)을 남겼기 때문이다. 의사록에는 축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차가니안 부카르-자테측의 행정 책임자가 사마르칸드의 통치자 바르후만에게 행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의사록은 하얀 할랏에 기록되었는데, 이는 투르크족과 친근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절들을 영접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의사록은 앞에서 언급한 사절단의 조금 위쪽에 있다. 의사록을 기록한 할랏을 입고 있는 인물은 다른 등장인물들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한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다.

의사록은 차가니안계 투란타시 왕국에서 온 부카르-자테측 행정 책임자가 우나시 종족인 바르후만왕에게 다가가는 것을 알리고 있다. 또, 부카르-자테가 바르후만왕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신과 사마르칸드의 문헌에 나타나 있듯이 그에게 어떠한 불행도 없고, 무사안녕만이 있기를 기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계속해서 차치의 행정 책임자가 전달한 말도 있었으나, 의사록에는 말한 내용이 인용되지 않았다(Л. И. Альбаум, 1975, сс. 55~56).

알바움은 서벽 좌측 아래쪽 모퉁이에 장식을 한 밝은 할랏을 입고 있는 인물은 차가니안 사절들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또 차치의 사절은 중국과 한반도에서 온 사절단

중간에 묘사하였다고 생각했다. 마지막 두 그룹의 사절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앞에 있는 그룹의 사절들은 토하리스탄과 차치의 사절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논의를 해 보아야 한다. 알바움은 총 4개의 사절단에 대해서 언급하며, 차가니안과 차치에 대해서는 의사록에 기록된 것으로 알 수 있고, 중국과 한반도 사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표현된 그들의 복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북벽 측면과 남벽 홀의 특징묘사에 대하여 알바움은 서벽 중앙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실제로 사절단 혹은 다른 나라와 관련된 주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인물들이 묘사된 벽화의 등장인물들은 외모나 복장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차가니아인이라 명명된 인물들은 서벽 남쪽 부분 끝과 남벽 홀에 위치하고 있다. 또 북벽에는 중국 당나라의 대표자가 묘사되어 있다. 등장인물들의 이러한 배치는 지리적인 위치와 일치한다. 사마르칸드에서 남쪽에 차가니안이 있고, 비록 지리적으로 먼 곳이지만 사마르칸드에서 보면 동쪽에 중국 당나라가 위치하고 있다. 사마르칸드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주요 통로를 보면, 사마르칸드에서 출발해 차치나 페르가나 지역을 지나서 북서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에 텐산산맥의 고개나 카자흐스탄의 세미레치예를 지나서 동쪽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다.

남벽의 경우 벽화의 아랫부분 절반만이 파편으로 남아있음에도, 보기드문 대형렬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남벽 좌측 끝부분에는 네 명의 남자가 누각에서 행진하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 행렬의 선두에는 천개(가마)를 얹은 코끼리가 있고, 천개에는 고귀한 여성이 하녀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시시킨과 알바움은 자신의 책에서, 이 장면은 차가니안 공주가 바르후만왕의 왕비에게 다가가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했다(В.А. Шишкин, 1966; Л. И. Альбаум, 1975, С. 55). 코끼리 뒤에는 세 명의 지체높은 기수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뒤따르고 있는데, 이들 중 한 명의 손에는 소그드의 문서(고위의 귀부인)가 쥐어져 있다. 그 뒤에는 두 명의 남자가 손에 왕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들

고 낙타를 타고 있다. 이들 뒤에는 두 명이 하얀 천으로 얼굴 아랫부분을 감싸고, 말뚝(말안장 덮개)을 입힌 회색말을 끌고 가고 있다. 또, 알바움이 타조로 간주한 신성한 거위가 뒤를 잇고 있다. 신성한 거위는 소그드의 문헌에도 설명되는 새이다. 그러나 알바움은 선물을 갖고 가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행렬에 대한 개념에 집착한 나머지 이국의 새인 타조를 생각했던 것이다(Л. И. Альбаум, 1975, сс. 56~57). 이 작은 새를 타조와 비교하면 닭은 점이 하나도 없으나, 타조와 거위 중의 한 마리는 “우나시 종족 출신의 바르후만왕에게 다가가는 네 마리의 거위”라고 문헌에 나타나고 있다(Л. И. Альбаум, 1975, С. 46).

그 다음, 벽화 중앙부에는 중요한 인물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는 화려한 붉은 의상을 입은 부자로 짙은 갈색털의 말을 탄 모습으로 커다랗게 묘사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남벽의 이 중요 인물은 잘 보존되어 있지 않다. 남벽의 이 중요 인물과 말은 나머지 다른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들보다도 두 배나 크게 묘사되어 있다. 알바움은 이 인물을 사절 대표라고 생각했다(Л. И. Альбаум, 1975, С. 48). 다섯 명의 말탄 기수들에서 아름다운 행렬은 끝나는데, 두 명은 앞쪽에 세 명은 뒤쪽에서 행렬을 따라가고 있다(Л. И. Альбаум, 1975, С. 48). 두 명의 기수들이 손에 든 물체는 횃불이라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알 수 있다. 만약 알바움이 생각한 것처럼 두 명의 기수들이 손에 든 것이 깃발이라면, 아쉽게도 겨우 한 손의 형태만 보존되어 표현되어 있을 뿐이다. 겨우 말만 보존된 두 번째 줄 기수들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또 알바움의 개정판 50쪽에 기수 없이 말만 겨우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실에 가까운 것이다. 개정판 표31에는 중간 하늘색 눈동자의 말 머리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말갈레에는 재갈이 없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또, 기수가 없는 회색말 옆에는 턱수염이 많은 인물이 서 있고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천으로 감아 주고 있는 듯하다. 기수 없는 말의 다리는 비슷하게 묘사되어 벽화의 앞쪽 상층 열에 보존되어 있다(см. Л. И. Альбаум, 1975, рис. 11, 12, 15).

북벽 홀 궁전벽화는 두 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벽 동쪽 부분의 절반은 중앙

아시아 표범 사냥에 관한 것이다. 알바움은 맹수(표범)가 나그네를 공격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북벽 서쪽 절반은 중국 사절들이 사마르칸드 바르후만왕의 궁전으로 가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았다. 남벽에서처럼 이들 가운데 두 배의 크기로 확대되어 묘사된 중요한 인물 한 명이 있는데, 그는 회색말을 타고 표범을 창으로 찌르는 모습이다. 말탄 기수들의 외모와 복장은 서벽의 중국 사절들과 상세하게 일치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북벽 서쪽의 절반은 조그마한 배가 호수(강)를 건너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 배의 그림은 완성되어 있는데, 중앙에 귀부인의 모습과 함께 여자들이 묘사되어 있다.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 가까이 두 방향에는 악사들을 포함한 귀부인의 수행원들이 무리를 짓고 있다.

북벽에는 물이라는 자연현상에 대한 묘사가 강조되어 있으며, 연꽃, 물고기, 뱀, 오리와 환상적인 존재인 상인하마(上人下馬,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말) 등 물과 관련된 다양한 동물과 식물들이 묘사되어 있다. 두 번째 배에는 반라의 남자들이 짐을 가득 싣고 있는 모습인데, 이 그림은 끝까지 그려지지 않았다.

알바움은 아프라시아 벽화의 북벽은 사마르칸드를 향해 가는 중국 사절들을 묘사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알바움은 남자 사절들이 맹수의 공격을 격퇴시키는 동안, 여자들은 배에 앉아서 여유롭게 항해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배의 중앙에 있는 귀부인은 공주이자 바르후만왕의 예비신부이고, 그녀는 중국 출신의 두 번째 신부로 차가니안 출신의 왕비와 나란히 함께했다는 알바움의 견해에 필자는 동의한다.

이렇게 알바움은 남벽과 북벽의 차가니안 및 중국 출신 사절, 즉 바르후만왕의 예비신부인 공주와 그 수행원들을 묘사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홀 입구쪽에 위치한 동벽의 벽화내용에 대해서는 단지 추측만이 가능한데, 동벽은 높이 1.2~1.5m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동벽의 색조는 많은 부분이 떨어져 바닥의 흙을 덮고 있었다. 입구에서 왼쪽 부분에 두 명의 인물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두 번째 아이를 향해 공으로 보이는 둥근 것을 굴리고 있다. 다음, 기마병에 대한 묘사는 조금 남아 있다. 입구에서 오른쪽 두 번째 부분에는 벽의 절반만 남아 있는데, 단편적인 벽면에는 어부와 오리가 나선형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모습과 함께 보인다. 또 황소(?) 꼬리를 잡고 헤엄치는 인물 단편과 벌거벗은 채로 활 시위를 당기는 소년의 모습도 보인다. 여성인물 단편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는 모습이다. 바로 앞의 단편들은 동물과 사람들의 모습이다.

벌거벗은 혹은 반라의, 맨발의 동벽 인물에 대해 알바움은 이 동벽의 표현은 인도생활을 나타낸 것이며, 바르후만왕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북벽과 남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다. 알바움은 여기서 사마르칸드를 향해 가는 인도 사절들의 움직임이 동벽에 묘사했었다고 생각했다.

알바움은 자신의 저서에서 아프라시압 벽화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삽화가 인용되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보았다. 벽화의 단편들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 흠벽에서 찾아낸, 또 상층부분의 묘사에서 나타난 주제의 내용은 알바움의 연구찰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많다.

다음으로 북벽의 남북 홀은 좌우 측면으로 절반이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왼쪽 부분은 여성들을 묘사하고, 오른쪽 부분은 남성들을 묘사하고 있다. 이 벽면의 양쪽 절반에 묘사되어 있으나 한 나라의 사절들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북쪽 홀은 의심의 여지없이 당나라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는데, 소그드 화가의 당나라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이 왼쪽 부분의 중앙에는 넓게 물이 묘사되어 있고 중앙 부분 왼편에는 열 명의 여자들이 배를 타고 있다. 두 번째 배에는 두 마리의 말이 수영하는 남자 모습과 함께 있는 주제를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 절반은 전체가 고대 동양 귀족들이 맹수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벽의 그림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인상적으로 제작되었고, 행렬이 상호연관되어 있

으며, 하나의 방향을 향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쪽 왼쪽 부분에는 행렬의 중요인물로 보이는 귀부인이 코끼리를 타고 다른 여성, 남성들과 함께 있다. 이 행렬에는 중요한 영웅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다른 인물들보다 더 크게 묘사되어 행렬의 한가운데 따로 떨어져 여성들의 뒤를 따라서 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중앙의 서벽 홀에는 여성의 모습이 아랫부분에 있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

동벽은 입구의 문에서 양쪽 절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림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불명료하다.

알바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벽 절반인 남쪽 왼편의 등장인물들은 남벽 홀의 행렬에 이어서 계속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한 국가의 사람들이며 문화, 외모, 의상의 상세함 등 사소한 것까지 일치하고 있다. 또 서벽에 묘사된 중국 사절들은 북벽 가까운 북쪽 부분 절반에도 적절하게 나온다. 이 벽면은 중국을 주제로 현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동투르크스탄 주민들의 역사와 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알바움은 생각하였다. 그는 또 동벽의 그림은 인도를 주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서벽은 아랫줄에 전체적으로 네 가지의 승배집단으로 나뉘어 있다. 알바움은 이들 중 두 그룹을 비교하여 차가니안과 차치의 사절들로 가정하였고, 다른 두 그룹은 중국과 한반도 대표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남벽의 등장인물들이 동일하고, 서벽의 참배자들이 유사한 의상을 입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자아낸다.

왜 투르크계 양식의 할랏 위에 차가니안 행정 책임자의 말(의사록)을 기록했는가? 서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차가니안과 차치의 행정 책임자의 모습은 있는가? 왜 중국인이거나 한국인의 말은 없는가?

알바움은 우측 그룹의 왼쪽 세 번째 인물은 차치의 사절을 묘사한 것일 수 있다고 가정했는데, 자료를 보면 차치의 행정 책임자는 차가니안 행정 책임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십중팔구 자료는 차가니안과 차치 행정 책임자의 축사에 대한 것이며, 이는 서벽 밑부분에 묘사된 승배자 그룹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나중에 다른 연구자들은 그림과 의사록, 나아가 (작성)동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의심을 하였다. 이들은 외국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서벽의 두 번째 위쪽 행렬 우측에 묘사된 두 명의 투르크계 외모를 한 인물들은 아마도 차가니안과 차치의 행정 책임자들일 수 있다. 첫 번째 인물의 손에는 목동의 막대기, 옷자락의 의사록에는 축사가 있고, 그의 바로 뒤 두 번째 인물은 분명하게 차치의 행정 책임자의 모습이다(Л. И. Альбаум, 1975, рис. 4).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남벽에 묘사된 모든 등장인물들이 차가니안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며, 서벽의 비슷한 복장을 한 세 참배 집단들 역시 차가니안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참배집단의 등장인물이 모두 하고 있는 섬세한 의상장식은 연구자들이 그들에 대한 해석을 하기에 앞서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단추로 여미는 할랏을 입고, 조로아스터교의 상징적 표현이 담긴 밝은 장식을 하고 있어 아프리카시암 벽화를 조사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주의깊게 보게 만든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불교는 7세기 차가니안의 주요 종교였다. 때문에 차가니안의 행정 책임자가 바르후만왕에게 전한 메시지에서 자신은 사마르칸드의 신들과 문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이를 자신의 호의로 확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알바움은 차가니안 사절들의 의상에는 불교적인 특징들이 없다고 보았다. 남벽의 행렬에는 신성한 말과 거위가 나온다.

물론 벽화를 그린 화가들은 구체적으로 종족문화를 표현하였다. 의복뿐만 아니라, 남벽과 북벽의 등장인물에 대한 인류학적 체형까지 구별을 한 것처럼 의상도 그렇게 묘사하였다. 그래서 알바움은 세 명의 측근 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차가니안 사절들은 유럽형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또 귀부인의 뒤를 따라가는 세 명의 여자들은 몽골계의 외모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의복이나 액세서리로 보아 이들은 차가니안이 아니라고

하였다.

필자는, 차가니안과 중국에서 신부를 보내 외교상의 결혼을 한다는 것과 벽화 중앙에 반복해서 커다랗게 묘사된 인물이 사절단으로서 바르후만왕 궁전으로 신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남벽과 북벽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이라고 반박한다. 중앙에는 신이나 특별한 제왕만을 묘사할 수 있지 외교상의 임무를 띤 행정 책임자를 그려넣을 수는 없다. 남벽과 북벽의 중요 등장인이라면 적어도 한 국가의 대표자라야 한다. 게다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벽과 북벽의 주요 귀부인은 외교상 결혼을 하러 가는 공주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알바움은 참배 그룹들 중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차치의 사절들로 파악했지만, 거의 그럴 리가 없다. 의상, 머리모양과 진주 머리띠로 이마를 장식한 금속제 족두리는 인도 북부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연결되고, 사마르칸드와 가까운 동투르키스탄의 벽화와 조각에서도 유사한 것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티베트인들이나 카라사르인들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B. A. 립시츠가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단편에서 이들의 종족적 특징을 해독하였다.

따라서 7세기 아프리카시압 궁전 중앙홀의 벽화는 차가니안과 차치의 행정 책임자가 사마르칸드의 통치자 바르후만왕을 만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벽화에는 네 그룹의 참배그룹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의심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중국과 한반도에서 온 대표자들도 있다. 남벽과 북벽에는 육지와 바다의 두 가지 형태의 행렬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이 행렬이 결혼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문헌자료에는 바르후만왕에 대한 정보가 없다. 다만 7세기 중엽 중국사료에 소그드의 칸 영토에 칸규이 총독이 봉해진 기록이 있는데, 이 지역의 영주였던 푸후만을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기록이다(Н. Я. Бичурин, 1950, т. 2, С. 34). 바르후만 왕때 발행된 동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7세기의 위대한 벽화 궁전이 알려졌을 때, 이곳에는 바르후만 왕의

칭호가 MLK라고 되어 있었다(О. И. Смирнова, 1981, сс. 115~125 ; Л. И. Альбаум, 1975, С. 38).

베. 게. 가푸로프, 가. 아. 푸가첸카바, 리. 이 렘펠과 같은 유명한 역사학자, 예술학자들은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의 내용이 특별한 상류계급에 관한 것이라는 시시킨과 렘펠의 전체 개념을 받아들여 벽화는 침부된 표제를 통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7세기 중앙아시아의 기념비적이고 독특한 대상인 벽화를 보는 것으로 상세하게 발전시키고 보충하였다.

사마르칸드의 이웃 도시 판치켄트에서 동시대의 벽화 유형에 대한 연구를 10년 이상 해 오고 있는 연구자들 중에는 시시킨과 알바움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연구자는 아프리카시암 벽화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7~8세기 소그드의 사상과 예술」이란 논문에서 A. M. 벨렌츠키와 B. И. 마르샤크는 아프리카시암 궁전벽화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아마도 벽화의 구도는 왕이 사절들을 접견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절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원에서 의례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앙 윗부분의 그림은 보존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다. 판치켄트에서는 계단 입구 위 벽면 중앙에 거의 대부분의 홀에 신과 관련된 그림들을 그려 넣었다.

궁전벽화의 장식은 손님들과 후손들에게 주인인 왕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는 과거와 현재의 신과 인간들, 동족들, 외국인들, 숭배하는 영웅들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 자랍산 계곡의 쿠산 도시 건물에 대한 유명한 『당서』의 서술에는 북벽에 중앙국가의 황제가 묘사되어 있고, 동벽에는 투르크의 칸과 인도의 지배자가, 서벽에는 이란과 비잔틴 황제들이 묘사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도 황제로 보이는 인물이 바라흐시 궁전벽화의 붉은 홀에 코끼리를 타고 앉아 있다(A. M. Беленицкий, B. И. Маршак, 1976, С. 85).

두 연구자는 소그드 귀족들의 무덤축조 장식에 나타나는 유명한 양각을 벽면에 묘사한 중국의 무덤에 대해 Γ. 스칼리아의 논문을 인용하였다.

두 연구자가 언급한 이 중국의 양각 무덤장식은 상당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소그드인들의 의례를 전부 돌에 새겨 보존하였다. 여기에는 장엄한 의례행진과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벽면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지 않으면, 한 번 더 선물을 바치는 두 번째의 장엄한 의례과정과 향연이 묘사되어 있다. 이 모든 의례과정을 그린 그림에서도 아프리카시압 벽화와 판치켄트의 벽화에서처럼 중앙에 자리잡은 남성은 크게 확대하여 표현하였다.

두 연구자는 판치켄트, 사마르칸드, 바라흐시 그리고 우스트루샨의 기념비적인 벽화의 내용을 검토 연구한 결과, 이들 벽화는 중세 초기에 해당하며 소그드인들의 도시생활에는 정신적인 성대한 의례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신에게 집단적으로 참배하거나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묘사한 참배자들의 의례과정을 벽면에 많이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A. M. Беленицкий, Б. И. Маршак, 1976, С. 88).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심리학적으로 벽면의 중앙에 신의 형상과 함께 집단적인 예배를 묘사한 것은 대부분의 종교적 전통에 따른 숭배 대상을 위한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연구자는 소그드의 예술은 이란의 사산 왕조 예술양식과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소그드의 예술은 실내예술이거나 도시 공동체 사원 내부의 예술이며, 다양한 양식의 주제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유형도 다양하다고 하였다.

두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서, 소그드인들은 신화체계 속의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성례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그드인들은 자기들의 집 입구에서부터 숭배 대상인 신을 묘사한 그림을 참배자로서 만날 수 있었다. 화려한 의식용 실내장식과 숭배 공간은 나무로 짜 만든 천장에서 시작되어 주요 벽면에서 끝나는데, 이 벽면은 신화적인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하여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가 인식되

고 나타난다(A. M. Беленицкий, Б. И. Маршак, 1976, С. 88).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를 위한 최상의 생활양식과 세계관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일상생활은 우주과정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사람들의 행동과 목적에는 깊은 의미가 부여되며, 윤리와 도덕에 예속되고, 우주의 원칙을 향상시키고, 선과 악의 우주적이며 회극적인 투쟁의 최후에는 개개의 책임이 부가되었다. 이 고귀한 사상은 훗날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계승되었다.

마르샤크는 그 다음 저서에서 자신의 관점을 한층 발전시켰다. 그는 남벽 중앙의 인물은 바르후만 왕을 묘사한 것이며, 이 행렬은 나브루즈 6일째에 조상들의 사원으로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벽 위쪽 표제를 보면, 판치켄트의 도상학 스테레오판과 일치하며, 여기에 묘사된 나나 여신은 판치켄트와 사마르칸드에서 숭배되던 신이다(B. Marshalls, 1994 ; его же, 2001).

7세기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숭배사상에 대한 확증적인 논증은 모토프의 논문 「아프라시압 궁전벽화의 신비한 미흐라간 축제 묘사」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Ю. А. Мотов, 1999).

모토프는 알바움이 해석한 미심쩍은 부분에 주목하였다. 두 명의 왕족 신부 출현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설명과 소그드의 이웃인 작은 차가니안 사절들이 있는 벽면의 세력관계 등에 관한 것이다. 계속해서 모토프는 아프라시압 궁전 첫 번째 홀 벽화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제기하고 있다.

알바움과는 달리 모토프는 남벽의 벽화부터 분석하였다. 알바움은 남벽이 차가니안의 대사가 사마르칸드에 도착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모토프가 이 남벽의 벽화에 특별히 주목한 것은 벽화에 대한 첫 연구자인 알바움의 귀족(상류)사회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의혹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벽은 먼저 사실에 기초한 부분으로, 벽화의 모든 등장인물이 말이나 낙타를 타고 이동하고 있으며, 두 다리를 한쪽 방향으로 꼬아 앉아

서 여자와 같이 가마(천개) 위에 타고 안장에서 왼편으로 구경꾼들을 보고 있고, 두 명의 말탄 기사들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벽화 전체의 중앙에 있는 중요인물인 남자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 중앙의 중요인물은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한 채 구경꾼을 등지고 이동하고 있다. 그 다음, 벽화 중앙에 있는 거룩한 새인 거위와 거룩한 말의 위치에 주목을 하면서, 모토프는 모든 행렬은 벽화 왼편 끝부분에 있는 계단 모양을 한 장소(누각)에서 네 명의 남자가 모든 행렬을 맞이하고 있는 사원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알바움은 사마르칸드의 대문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세세한 그림의 묘사는 모토프의 분석과 일치하며, 모든 행렬은 성례의 신비로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Ю. А. Мотов, 1999, С. 66). 등장인물들의 의복 장식에 대한 상징적 내용과 증표, 그리고 동물의 등에 있는 장비들에 주의를 돌리면, 본질적으로 거룩한 동물 형상은 조로아스터교의 숭배전통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대 사마르칸드의 신앙인 나나 여신과 미트라 신앙과 관련이 있다.

모토프는 차가니안인들이 입고 있는 앞부분 여밈이 없는 카프탄은 구식 재단법으로 만든 의상으로, 기원전 1000년 중반경의 의상이라고 생각하였다.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남자 인물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은 특징적인 것들이다. 칼날이 가는 무기양식은 구식검으로 남벽과 서벽의 등장인물들이 갖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차가니안 사절들의 무기와 관련이 있다. 또한 7세기경의 소그드의 궁전에서 무장하던 양날이 긴 칼은 동투르크스탄인, 중국인, 한반도인이 차고 있던 무기들이다. 모토프는 구식의 낡은 무기인 검에 주목하면서, 이 당시에 검은 다만 의례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보았다(Ю. А. Мотов, 1999, сс. 67~68).

모토프는 또한 차가니안인들의 의상이 상징하는 것과 남벽 홀의 벽화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그는 성례의 신비로운 공간인 사원 앞에서 행해지는 의례활동을 묘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판치켄트의 동시대 벽화에는 동일한 신화적 인물과 영웅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복장은 앞이 열리지 않는 구식 재단법으로 만든 의상과 구식형의 칼

을 차고 있다고 말하였다(Ю. А. Мотов, 1999, C. 68).

남벽의 행렬 참가자 일부의 등에는 망토가 펼쳐지고 있고, 신성한 말의 다리에는 리본이 달려있고, 하늘신 혹은 헌정하는 그림은 다른 벽화들과는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남벽의 성례의 특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Ю. А. Мотов, 1999, C. 68). 서벽의 그림 4번에서 참배하는 형상이 비록 한 번밖에 보이지 않지만, 망토를 걸친 것은 남벽의 남성 인물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

모토프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직 분명한 것은 아니나 어떤 종교적 체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아프라시압 궁전벽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벽화의 내용에 드러난 주제에 대해서는 고대 이란의 종교적 전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사마르칸드의 종교적 정신문화를 통해 대답할 수 있으며, 벽화가 그려질 당시 할리파트 군대의 침략이 있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모토프는 벽화전체의 행렬과 등장인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벽면에는 신비한 특징을 가진 의례과정을 묘사했다고 하였다. 필자는 남벽의 벽화에 대한 모토프의 가설에 동의한다. 남벽 벽화는 좌우편을 여성들과 남성들로 나누었으며, 사마르칸드의 통치자와 배우자를 사마르칸드의 중요 숭배대상인 나나 여신과 미트라인 것처럼 이 성스러운 축제의례에 묘사하여 그려넣었다.

손에 횃불을 들고 말을 탄 두 명의 인물이 미트라의 역할을 맡은 통치자의 뒤를 따라가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을 탄 인물 두 명은 아침과 저녁노을을 상징하고 있다(Ю. А. Мотов, 1999, C. 75).

벽면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 모토프는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단일성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두 명의 중요 인물을 여자는 코끼리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중앙의 남자는 우측 중간쯤에 그렸다고 서술하였다.

모토프의 견해에 따르면 신성한 의례는 서벽의 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선물을 가진

여러 종족의 사절들이 불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4개의 세계’인 사마르칸드의 종교적 개선행렬을 상징하고 있다(Ю. А. Мотов, 1999, cc. 76~77).

이렇게 하여, 모토프는 차가니안 사절들을 사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벽화에는 사마르칸드 통치자 부부를 묘사한 것으로 보는 데 동의하였다. 이들 부부의 측근 인물은 참가자들이며, 거룩하고 신비한 도시의 보호자인 나나여신과 미트라를 부부관계로 보았다. 서벽에 묘사된 것은 분명하게도 사원에서 나나 여신과 미트라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통치자가 부인과 함께 다시 한번 묘사되었다(Ю. А. Мотов, 1999, C. 79).

소그드 의사록에 대하여 모토프는 벽화의 주제와는 분명히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그는 의사록에 관한 중요하고도 다른 여러 해석들에 동의를 하면서, 7세기 소그드의 벽화 유형들과 사마르칸드 벽화는 구별된다고 파악하였다. 이 의사록은 아랍인들이 사마르칸드를 침략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벽화에 담긴 신성하고 진실된 의미를 아랍인들로부터 숨기기 위해서 만들었을 수 있다. 의사록 덕분에 이슬람 광신도들의 우상파괴와 야만으로 부터 벽화를 보존할 수 있었다. 모토프는 아랍인들이 의사록을 개조하였을 리는 없고, 다른 광신자들에 의해서 기형적인 모습을 하게 되었다고 파악하였다(Ю. А. Мотов, 1999, cc. 78~79).

그러나 비록 차가니안 사절의 말을 기록한 귀중한 소그드의 의사록이, 벽화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유독 한 명의 할랏 위에 의도적으로 빈틈있게 얹어 칠하여져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전체 벽화는 결과적으로 아랍이 침입해 왔을 때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외국의 전문가들도 사마르칸드 궁전벽화에 대하여 연구하여 벽화의 내용을 다양하게 해석하였다. 그래서 마르쿠스 모테는 아프리카시압 벽화의 주요 주제는 투르크인, 중국인, 인도인, 페르시아인 등 4개 세계의 왕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별거벗은 소년들이 활을 당기는 장면을 동벽에 그린 것은 난쟁이에 관한 주제를 반영한 것이며, 학사냥

을 하는 것은 그리스 고전문학에서 유명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M. Mode, 1993, p. 198).

모데는 서벽의 선물을 갖고 있는 사절들이 바르후만 왕을 향하도록 아마도 그 위쪽에 바르후만왕 자신을 묘사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최근에 일본인 젊은 연구자 가게야마는 아프리카시압 벽화를 중국 둔황 불교사원 동굴벽화의 숭배사상과 비교하면서, 적어도 10건의 비슷한 한국인 묘사 그림을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러한 그림은 불교의 유명 경전을 도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당나라 수도의 사찰 그림에서 비슷한 주제를 모방하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E. Kageyama, 2002 ; Э. Ртвеладзе, 2005, С. 270).

아무튼, 한국인 그림은 중국의 유명한 불교예술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것이 한국인 사절이 바르후만왕의 궁전까지 왔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

프랑스의 사마르칸드 고고학 발굴단 책임자인 F. 그레네는 여러 차례 이 벽화의 주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다(Grenet F., 2003, 2005). 그는 마르샤크의 연구결과에서 출발하여, 동벽에 묘사된 그림은 인도생활에 관한 것으로, 힌두교의 신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고, 인도의 현자와 제자와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북벽은 중국 축제날의 용의 배(용선)와 왕의 사냥을 묘사한 것이라고 공정하게 해석할 수 있다.

남벽의 벽화내용에 대하여 그레네는 마르샤크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남벽의 행렬은 중앙아시아의 봄축제 나브루즈의 전통적인 여섯째날 조상의 사원을 향해 가는 행렬이라고 판단하였다. 서벽 중앙 상단의 인물에 관하여 그레네는 모데의 관점에 동의를 하면서, 이 중앙 상단의 인물은 바르후만왕 자신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A. M. 벨레니츠키 탄생 100주년 기념논집에서 발표한 M. 콤파레티와 S. 크리스토페레티의 논문은 아주 중요하다(M. Compareti, S. Cristoferetti, 2005). 이들은 7세기 중엽 소그드인들의 나브루즈는 중국의 용선 기념일과 일치하며, 북벽과 남벽의 그림은 여러 달력체계의 축제와 일치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마침내 아프리카시업의 중세초기 궁전에 묘사된 사절들을 그린 벽화에 대한 관점은 2005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전문학술대회에서 모두 심의고찰되고 총결산이 이루어졌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서 앞에서 언급한 학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학자들은 궁전벽화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립시츠는 이 벽화의 소그드 의사록 번역을 통하여 의사록 해석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제기하였는데, 여러 나라의 사절 중에는 카라사르인과 티베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립시츠의 궁전벽화의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전체요약은 에티엔 데 라 바시에르의 도움을 받아 “Les turks, rois du monde du Samarkand” 논문에 실었다(B. A. 립시츠는 에티엔 데 라 바시에르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전문학술지에 이 논문을 송부하였으나, 아직 발간은 되지 않았다).

립시츠는 벽화의 주요 주제가 당시 유행하던 네 나라(4개의 세계)의 왕을 묘사한 것이라는 바시에르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이것은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소그드에서도 유명한 주제였다. 중국 당나라 역사서(당사)에 의하면, 쿠산의 도시 통치자는 중국 황제, 인도 황제, 투르크왕, 서역의 통치자들과 함께한 그림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쿠산의 통치자는 이 그림을 아주 귀하여 여겼다.

바시에르는 아프리카시업 궁전벽화의 북벽과 남벽홀에는 중국과 이란의 통치자들을 묘사하였고, 동벽에는 확실히 인도의 통치자를 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벽화들에는 같은 종족들이 있으나, 중요한 서벽 중앙에는 여러 종족의 사절들이 투르크족들을 맞이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은 페르세폴 양가의 페르시아인들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치켄트의 벽화와는 달리 이 벽화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풍경과 함께 선물을 증정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립시츠의 의견처럼, 창과 북의 결합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중국과 여러 나라의 사절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것일까? 바시에르는 아마도 이가 바르후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바르후만은 소그드의 작은 통치자들 중의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당나라의 고관(총독)이었으나, 당

나라 연대기에는 이러한 고관은 투르크계 가한에게만 해당된다고 하였다. 더구나, 당나라 연대기에는 천필의 비단을 제외한 군대깃발과 북을 가한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즉, 상징적으로 선물을 증명하는 그림이 벽면에 장식되어 있는 것이다.

동시에 언급해 둘 것은 투르크계 통치자의 수행원들이 가한 앞 양탄자에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730년 세미레치에서는 유안 찬 역시 투르크계 가한을 접견하고 있었다. 이 벽면에는 소그드와 이란의 수행원들이 접근하는 장면이 통치자의 양쪽에 묘사되어 있다. 아프리카시압 벽화에는 투르크족이 놀이하는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며, 이를 주문한 사람들 역시 그려져 있다.

바시에르는 사절들이 동쪽을 향하고 이를 영접하는 장면은 투르크의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계속해서 바시에르는 콤파레티와 크리스토펜레티의 발표논문에서 언급한 용선 축제일과 나브루즈는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641년부터 666년까지의 몇 년간을 조사한 결과 가장 확실한 연도는 660년 6월 19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날은 하지에 해당한다.

바시에르는 자신의 논문 결론부분에서 아프리카시압 궁전벽화는 네 방위의 나라 왕들 가운데 있는 투르크계 가한의 세력권(지배력)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벽화의 중앙 상층부에는 동투르키스탄 가한의 모습을 그렸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그는 서투르키스탄 가한의 영토를 방문하여 사마르칸드에 있는 자신의 야영지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벽화의 첫 번째 줄 조공국으로 중국인과 한반도인이 있었다(E. Vassiere, 2005).

바시에르는 이 논문에 보충하여, 서벽의 중요한 소그드 표제는 벽화 전체에 대한 해석들을 반박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그드 의사록은 벽화의 상단부분이 퇴색되었을 때, 훗날 소그드 방문객들이 얇게 덧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기한 마르샤크는 벽화와 소그드 표제의 내용은 별개의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7세기의 투르크 가한은 유라시아의 드넓은 초원지대에서 정치적 지배권을 상실하였으며, 극동지역에서는 중국 당나라가 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중국은 뛰어난 외교술로 629~630년 연간에 투르크 제국을 서투르크 가한과 동투르크 가한으로 분열시킨 다음, 동투르크스탄에 대한 대대적인 침략을 단행하여 동투르크스탄을 정복하였다. 두 번째로 고창, 위구르, 서투르크 가한 등 무역 실크로드를 따라서 형성된 서부 변방지역의 병참기지를 침략하였다(История Китая, сс. 76~80). 630년 퉁제허가 죽은 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크지 않은 정치적 분할이 일어났다. 붕괴된 투르크 가한의 잔존 세력들은 당나라 수도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투르크 가한의 후계자 이에즈기케르트 3세는 이란의 사한샤흐에게 달려가 정치적 은신처를 부탁하였으나, 중앙아시아 역사무대에 등장한 아랍의 할리파트라는 또 다른 정치·군사적 세력의 공격으로 전사하고 말았다. 비슷한 시기에,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강압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은 급기야 티베트와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승리할 수 있었다. 중국은 또 중국의 남서부 난차오와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였다. 중국과 일본, 인도, 캄보디아는 외교적 무역적 관계가 발전하였다.

중국 당제국은 이때 결정적으로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 원칙을 완성하고, 중국 조정으로 사절단이 방문하여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다. 당시 중국 당제국은 국제관계에서도 강력하고도 적극적으로 활동한 절정기였다. 당나라 역사서인 『당서』의 간략한 기록에 의하면, 푸후만을 칸규이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비록 O. И. 스미르노바가 바르후만이 권력을 잡은 해를 655년으로 설정했지만, 아마도 이 사건은 서부지역 당나라 가한이 붕괴된 이후인 657년에 일어났을 수 있다(O. И. Смирнова, 1963, С. 30).

그러나 8세기 초쯤에는 이미 당제국의 정치적 활동은 위축되었고, 중앙아시아의 작은

영토는 아랍에 의해 점령당했다. 결국 751년 탈라스 강변에서 전투가 벌어져 중국 군대는 패퇴하였고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조공하는 것은 중단되었다. 중앙아시아는 또 다른 제국인 아랍 할리파트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지역은 활발한 무역 및 문화적 관계로 발전하여 투르크 가한의 시기에 절정에 달했다. 또한 동방과의 무역활동도 활발하였는데, 여기서 소그드인들의 역할이 중요하여 남서 지역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문화분야에서도 활발한 상호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어 대륙의 위대한 실크로드의 기능이 절정에 도달하였을 때인 사마니드-카라한조 시대에 중앙아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크게 번성하였다.

그러나 셰페르는 주목할 만한 자신의 책 『사마르칸드의 금복숭아』에서 중국의 당나라 시대는 중국이 단순히 대외침략을 하던 시기가 아니며, 당나라 내부적으로 상당히 변화하던 시기였다고 말하였다. 즉, 이 시기 중국 사회의 활발한 상호활동은 중국의 경제와 문화가 주변문화와 함께, 가끔은 상당히 먼 지역의 민족과 국가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시기는 중국사회의 생활 전체에서 아주 다양한 혁신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당나라는 심리적 고립주의를 극복하고, 미증유의 풍요로움을 달성하면서 당나라 왕조시대에 가장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E. H. Schefer, 1963). 이 시기는 모든 이국적이거나 외국의 물품, 사상, 기술들이 가치를 가지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시대였다. 이때는 서역 변방의 음악가, 가수, 무용가들이 한반도의 음악가들과 함께 활동하며 유행을 이루었다. 7세기 중국 당나라 군대는 최강이었는데 당군의 장군 가운데 록산나(안록산)와 한국인 고선지 장군이 있었다.

따라서, 중국과 사마르칸드의 남서 할리파트는 중앙아시아와 동부지역의 정치적 진행 상황을 기록함과 동시에 바르후만에게 권력을 주어 총독으로 임명하였고 당나라 조정이를 승인하였다.

사마르칸드 궁전 콤플렉스의 층위학의 기본 규정을 따라 사마르칸드 통치자의 동전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바르후만의 바로 뒤에 우르크 바르트라무크가 통치하였으며, 투카스파단, 마스티치, 타루훈과 아프리크, 데바시티치가 뒤를 이었다(X. Ахун-бабаев, 1999, сс. 65~74). 그리고 675년 아랍의 첫 번째 침입 이후부터 아랍세력이 사마르칸드를 장악하는 696년까지 사마르칸드는 무정부 상황의 시기였다. 아훈바바예프는 궁전 건축과 기능은 바르후만왕과 그의 후계자 우르크 바르트라무크가 통치하던 655년과 675년 사이의 시기로 보았다. 그는 바르후만 관련 동전 3개와 우르크 바르트라무크 관련 동전 14개를 찾아내 심사숙고한 끝에 궁전의 건축과 기능은 우르크 바르트라무크의 시기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언제 바르후만의 후계자가 승계를 하였는지, 또, 바르후만의 후계자와의 계보관계는 어떠한지 등이 불명확 하지만 두 통치자의 동전은 공통의 씨족적 상징(낙관)인 'Y'자 형식을 갖고 있다.

아훈바바예프의 공평함에서 알 수 있듯이 궁전벽화는 675년 아랍세력의 침입의 결과로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역시 서벽의 소그드 의사록에는 차가니안의 사절이 바르후만을 향해 말을 하고 있으며, 바르후만 자신은 제삼자로서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려줄 수 없었다.

어쨌든, 벽화의 연대에 대한 바시에르의 연대학적인 계산은 660년보다 빠르지는 않으며, 이는 아훈바바예프의 궁전 건축시기에 대한 결론인 655년과 675년 사이와 일치하고 있다.

궁전벽화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는 완전한 답변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르나, 이 벽화는 7세기 중후반 사마르칸드의 역사적 사실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벽화는 신성한 의례의 세계와 신화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사마르칸드 도시인들의 생활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들은 근 1세기 동안 투르크 가한과 그의 후계자의 세력권 안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본문 내용에서 차가니안 행정 책임자가 바르후만 왕을 향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벽화의 내용이 사마르칸드에 있는 바르후만 왕의 궁전을 향한 사절단과 공주에 대한 것이라는 최초의 문제제기는 일시적으로나마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번역 : 장준희(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Результаты 40-летнего изучения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а 7 в.

Рустам Х. Сулейманов

Живопись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а относится к началу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7 в. Сцены этой живописи иллюстрируют обширные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Самарканда с велик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Азии. Фактически, это был новый период, наступивший уж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Тюркский каганат сошел со сцены истории, но эти связи были инерцией этого мощного импульса культур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нтеграции на обшир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Азии и Европы, который начался в границах каганата от Желтого моря на востоке и до Черного моря на западе Евразийского континента. Танская держава Китая и небольшие государства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правляемые выходцами из династий тюрк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продолжают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ть связи, сложившиеся в эпоху империи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И связ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существляются уже через Танскую державу, претендовавшую на гегемонию, как на Востоке, так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среди источников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и со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особое место занимает знаменитая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7 в. н. э., где были опознаны изображения тюрков, китайцев, корейцев 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эпохи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Афрасиаб – руины древнего Самарканда, окруженные несколькими рядами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валов, находятс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современного города Самарканда. Это был крупнейший политический, торговый и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эпохи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В 1970 г. под эгидой ЮНЕСКО была отмечена 2500-летняя дата основания города, но как показали древнейшие раскопки оборонительных стен его и культурных отложений, залежавших в самых нижних слоях, город возник еще ранее, т.е. возраст Самарканда не менее 2700 лет, и он фактически является ровесником Рима.

Более 100 лет как ведутс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раскопки на Афрасиабе, за это время на руинах древнего города открыты остатки дворцов, мечети, жилых кварталов, мастерские ремесленников, относящиеся к различным периодам обживания городов и, как уже отмечалось, одним из уникальных открытий было обнаружение дворца правителей Самарканда 7 в.

Дворец находился в пределах, так называемой третьей оборонительной стены города, вблизи центра руин Афрасиаба и раскапывался с 1965 по 1968 гг.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В. А. Шишкина, вскрытием зала с росписями занимался Л. И. Альбаум, которым была осуществлена публикация росписей парадного зала дворца (Альбаум, Л. И. 1957). Дворцовый комплекс 7 в. был обозначен в качестве раскопа № 23 или назывался также Центральным раскопом на Афрасиабе. На этом объекте за истекшие первые 4 года раскопок было вскрыто около 30 помещений.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выше остатков дворца залежали руины более поздних строений жилого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датирующиеся вплоть до 12 в. Ниже, под основаниями стен дворца также были открыты строитель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более

ранних периодов обживания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древнего Самарканда.

В публикации Л. И. Альбаума дается подробное описание живописи основного зала 1 дворца. Установлено время возведения дворц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имя правителя Вархумана, отмечено, что живопись осталась незавершенной в силу нашествия арабов в конце 7- начале 8 вв.

Анализируя красочную сюжетную живопись парадного зала дворц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имевшего 11X11 м размером, Л. И. Альбаум, впервые описывая персонажи различных сцен настенной живописи этого зала, в составе посольств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 в сцене, названной им сценой приема посольств, выделяе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и. Это заключение автора получило в дальнейшем свое развитие. Но, что касается многих других истолкований, как о тематике живописи в целом, так и деталях ее, продолжает дискутироваться, и, кажется, мы еще далеки от окончательной и цельной концепции интерпретации этого выдающегося памятника монумент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Средней Азии. Беда в том, что сохранилась живопись менее чем наполовину лишь в своей нижней части. Мало того, что арабские фанатики 7-8 вв. преднамеренно уничтожали наиболее значимые фигуры живописи, выкалывая и глаза, при последующей перестройке этого комплекса уже в первые века ислама верхняя часть стен зала была срублена, и обломки стен уложены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зала. В этом завале встречалось множество разбитых фрагментов росписи верхней части стен различного размера. Но и в нижней сохранившейся части стен многие сцены, особенно на восточной стене зала,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безжалостным временем, насыщенным борьбой с арабами и отрицательным, пренебрежительным отношением к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у искусству и, в целом,

доисламскому культурному наследию завоеванных стра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менно фрагментарностью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Самарканда правителей 7 в. объясняются трудности в истолковании содержания этого уникаль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Роспись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а была исполнена в традиционной для живописи Согда технике, она наносилась на тщательно заглаженную поверхность глиняной штукатурки, местами поверх белой алебастровой грунтовки. Сначала тонкой линией наносились контуры изображений, затем расписывались или закрашивались детали рисунка. Краска готовилась из минеральных красителей на основе растительного клеевого раствора.

Местами на западной и северной стене отмечены случаи наложения друг на друга двух разных контурных рисунков, которые остались незавершенными. Местами на северной стене не все фигуры закрашены. Л. И. Альбаум отмечал, что отдельные фигуры прорисованы дважды, и рисунки носят эскизный характер (Альбаум Л. И., 1975, С. 67). Все это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работа над живописью была прервана, когда работа по ее завершению близилась к концу.

Одновременно с работой по снятию, закреплению, консервацией, реставрацией, реконструкцией и истолкованием содержания живописи Афрасиаба проводились работы по химик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исследованию живописи Афрасиаба. В 1975 г.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книгой Л. И. Альбаума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монография А. А. Абдуразакова и М. К. Камбарова «Реставрация настенных росписей Афрасиаба». В этой публикации изложены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й о технике, красителях и растворах красок, примененных при исполнении живописи.

Характеризованы методы полевых и лабораторных работ по снятию, закреплению и консервации живописи.

Отдельно рассмотрены вопросы влияния химических закрепителей на фактуру и физические свойства краски живописи, влияние климата, температуры, света на сохранность живописи. Рассмотрены методы предохранения живописи от засоления и микроорганизмов в почве (Абдуразаков А. А., Камбаров А. К., 1975).

В 70-80-х гг. 20 в. изучение дворц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Самарканда было продолжено Х. Ахун-бабаевым. Им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лет проводились и были завершены интенсивные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на дворцовом комплексе, всего было вскрыто около 30 помещений, входивших в архитектурный комплекс дворца, в котором были выделены три функционально различающиеся части: культовая, парадная и жилая. Отдельно рассмотрены вопросы религии и культов Самарканда 7-8 вв., а также политическая и династийная история Самаркандского Согда этой поры (Ахунбабаев Х. Г., 1999).

Х. Ахун-бабаевым была установлена периодизация обживания и застройки данного участка города, выявлена хронолог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я дворц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его границы и функционально отличающиеся его архитектурные узлы – парадная, культовая и жилая. Автор отмечает, что монетный материал с уровней полов дворца принадлежит в основном Урк Вартрамуку. Отсюда можно сделать заключение, что дворец обживался, а также перестраивался, а возможно и строился при нем же. Урк Вартрамук был следующим за Вархуманом правителем Самарканда и, видимо, был близок своему предшественнику. Иначе трудно объяснить сцены парадного зала дворца, где превозносился образ Вархумана

в роли правителя Самарканда. Тема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Х. Ахунбабаевым не затронута.

Обсуждение и толкование содержания живописи зала 1 и интерпретации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сохранившихся сцен было дано ее первым исследователем Л. И. Альбаумом.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живописи зала дается с наиболее сохранившихся изображений на западной стене. Согласно Л. И. Альбаума, на этой сцене изображены сцены самого памятного события периода пра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я Самарканда Вархумана, а именно сцена принятия им послов из стран ближнего и дальнего зарубежья, на что недвусмысленно указывали надписи, найденные на некоторых участках этой сцены. По мнению исследователя, эти надписи, подобно подписям к иллюстрациям книги, документально раскрывают содержание картины и комментируют ее (Альбаум Л. И., 1975, сс. 54-56). Сцена изображала момент официального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приема посланников самим правителем, фигура которого находилась выше и не сохранилась. На сохранившемся участке верхнего плана сцены мы видим лиш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его свиты, сидящих скрестив ноги на небольших паласах размером с конскую попону. Оде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виты правителя в длинные облегающие кафтаны без орнамента, но с отогнутыми треугольными воротниками на тюркский манер.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края воротников и рукавов расписаны и передают, видимо, вышивку или аппликации из орнаментированной ткани. На поясах у большинства персонажей свиты, как считает автор, подвешены мечи, а также кинжалы или ножи. У них правильные черты лица, тонкие усики, глаза монголоидные, заметно выступают скулы, головы обнажены, а зачесанные назад

длинные черные волосы заплетены на концах в косички. Это тюрки, приближенные правителя, участники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приема.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изображены распоряжающимися церемонией приема.

В нижнем ряду сцены справа и слева от центра картины изображ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ескольких групп иностранных послов, прибывших на прием. В центре находится изображение пяти персонажей с тканями, пряжей и экзотическими плодами в руках (в дальнейшем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что это изображения коконов шелкопряда), направляющихся к не сохранившемуся центру картины. Одеты они в одежды желтого цвета и глухого покроя. У них монголоидные черты лица, на головах черные шапочки. Л. И. Альбаум полагает, что это посланники из Китая или Восточного Туркестана (Альбаум Л. И., 1975, С. 22).

Правее описанной группы трое из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виты царя встречают еще две группы посланников. Первая из них в составе трех персонажей. Одеты они в короткие кафтаны с загнутыми за пояс полами. Штаны заправлены в мягкие обмотки. Ноги обуты в ботинки с загнутыми кверху концами. Один из них несет шкуру леопарда.

Отмечая, что подобный костюм характерен для этнографии горных район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автор полагает, что э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Чача,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в районах юго-западного Тянь-Шаня, посол которого упомянут в надписи на этой же стене (Альбаум Л. И., 1985, С. 74).

Еще правее нижний ярус сцены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завершает еще одна делегация, состоящая из двух персонажей, они выделяются как своими костюмами, так и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им обликом. Лица имеют монголоидные черты. Одеты они в

короткие кафтаны лимонно-желтого цвета. Рукава кафтанов и штаны длинные, с множеством складок. На головах круглые черные шапочки с торчащим шиньоном, в который по бокам воткнуты два пера. Л. И. Альбаум приводит описание аналогичных одеяний населения Кореи из истории Северных Дворов (Бейши) и хроники Тан-шу и приходит к обоснованному выводу о том, что это посланники государства Кореи.

Выводы Л. И. Альбаума об изображениях корейцев в живописи активно обсуждались в корейской нау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и получили свое дальнейшее развитие (Джун Хи, 2006).

Левая сторона изобразительных сюжетов западной стены тематически посвящена другой группе посланников. Здесь сохранилось изображение трех персонажей определенного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типа. У них европеоидный тип лица с густыми отстриженными бородами, в руках подношения в виде рулона ткани и золотой гривны. Это посольство ведут двое тюркских сановников. Как считает исследователь, здесь была еще одна фигура из этой группы посланников, которая не сохранилась (Альбаум Л. И., 1975, С. 21).

Л. И. Альбаум полагает, что эта группа послов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посланников правителя Чаганиана Туранташа, поскольку в большой согдийской надписи на полях халата одного из тюркских приближенных Вархумана имеется протокольное описание приветственного обращения начальника канцелярии Чаганиана Букарзате к правителю Самарканда Вархуману. Причем фигура, на костюме которой нанесена надпись, одета в белый халат того же типа, что и тюркские приближенные, обслуживающие сцену приема посланников. Но расположена она чуть в стороне и

над вышеописанной группой посланников. Фигура с надписью на халате отличается от всех персонажей тем, что держит в руке клюку човгана.

Этот сохранившийся текст надписи гласит, что когда царь Вархуман рода Унаш приблизился к чаганианскому дабирпату Пукар-зате от чагани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я Туранташа, тот выразил свое почтение и заверил, что знает о богах и письменности Самарканда, не причинит никакого зла царю и желает ему благополучия.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далее выступил чачский дабирпат, но в тексте содержания речи его не приведено (Альбаум Л. И., 1975, сс. 55-56).

Л. И. Альбаум полагает, что персонажи в ярко орнаментированных халатах в нижнем левом углу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изображали посланников Чаганиана, а посланники Чача изображены между группами посланников из Китая и Кореи, причем если идентификация двух последних групп, произведенная по костюмам, не вызывает сомнений, то об идентификации двух предшествующих групп посланцев Тохаристана и Чача можно еще подумать. Речь идет всего о четырех группах посланцев Чаганиана и Чача, о чем мы узнаем из надписи и Китая и Кореи, которые были опознаны исследователем по деталям костюма.

Далее, переходя к характеристике изображений боковых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стен зала, автор полагает, что они тематически связаны с сюжетом центральной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Приче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ак бы в продолжение темы посланников того или 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цены с персонажами, идентичными по облику и костюмам, так называемым чаганианцам, расположены на южной стене зала близ самих посланников на южном конце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зала, а на северной стене изображ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Это располож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и географическому расположению Чаганиана к югу от Самарканда, а Тан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хотя находилось географически далеко к востоку от Самарканда, трассы, ведущие от Самарканда на восток, шли от Самарканда сначала к северо-востоку через Чач или Фергану, затем поворачивали на восток через перевалы Тянь-Шаня или через Семиречье.

На южной стене,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сохранились лишь фрагменты нижней половины росписей, предстает редкая по красоте картина шествия большой процессии. На левом конце ее – павильон, на котором четверо мужчин встречают процессию. Возглавляет процессию белый слон с балдахином на спине, в котором, видимо, сидела знатная женщина со служанкой. Начиная с публикаций В. А. Шишкина и Л. И. Альбаума, бытует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том, что тут была изображена чаганианская принцесса, которую везли в жены Вархуману (Шишкин В.А., 1966; Альбаум Л. И. 1975, С. 55). За слонем следуют три знатные всадницы в пышных платьях, на руке одной из них согдийская надпись «приближенная госпожи». Далее двое мужчин с жезлами в руках, восседающие на верблюдах. За ним двое пеших с белыми повязками, прикрывающими нижнюю часть лица, ведут серого коня, накрытого попоной, и священных гусей, которых Л. И. Альбаум считал страусами, хотя на них есть согдийская надпись, поясняющая, что это гусь. Но автор, увлеченный концепцией о свадебном кортеже с дарами, считал, что тут могли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и экзотические птицы страусы (Альбаум Л. И., 1975, сс. 56-57). Хотя эти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большие птицы не имеют ничего общего со страусами, и на одной из птиц есть надпись – «четыре гуся царю Вархуману (из рода) Унаш» (Альбаум Л. И. 1975, С. 46). Затем в центре сцены изображен основной персонаж:

всадник больших размеров в богатейшем красном одеянии на коне буланой масти. К сожалению, этот главный персонаж южной стены очень плохо сохранился. Этот образ и его конь имеют вдвое большие размеры, чем все остальные на всех стенах. Автор полагает, что это глава посольства (Альбаум Л. И., 1975, С. 48). Завершает шествие кортеж из пяти всадников – двое впереди и трое сзади (Альбаум Л. И., 1975, С. 48). Но если двое всадников с бунчуками в руках, как считает автор, хотя этот предмет, отображение которого сохранилось лишь в руке одного из них, более напоминает факел, не вызывают сомнений, всадники второго ряда, где сохранились лишь части протомы коней, сомнительны, и в реконструкции на стр. 50 изображены лишь кони без всадников, что, видимо, ближе к истине, т. к. на табл. 31, где хорошо сохранилась голова среднего голубоглазого коня, хорошо видно, где уздечка коня не имеет удила, как и у серого коня без всадника, ведомого бородатым персонажем с повязкой на лице. Аналогичные изображения ног коней без всадников сохранились и выше, в верхнем ряду всей этой сцены (см. Альбаум Л. И., 1975, рис. 11, 12, 15).

Тематика росписи северной стены зала дворца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разных сцен, на восточной половине сцена охоты на барсов, что автор квалифицирует как изображение нападения хищников на путников – китайских посланников по пути ко двору Вархумана в Самарканд. Среди них выделяется увеличенная вдвое, как и на южной стене, фигура основного персонажа, который на сером коне поражает копьем барса. Облик всадников, их костюмы до деталей совпадают с персонажами посланников из Китая на западной стене. Вторая, западная половина изображает переправу на лодках. Причем в лодке, изображение которой закончено, изображена группа женщин с образом госпожи в центре, по обе стороны от которой, ближе к

корме и носовой части, группируется ее свита, включая и музыкантов.

Изображение водной стихии подчеркивают и разнообразят образы водной фауны и флоры: цветки лотоса, рыбки, змеи, утки и фантастические существа-гиппокампы. Вторая лодка у берега, на которую полуобнаженные мужчины загружают тюки, осталась незавершенной.

Автор всю сцену истолковал как изображение событий, приключившихся с посольством Китая по пути в Самарканд. По Альбауму Л. И., пока мужчины посольства отражают нападение хищников, женщины успели сесть в лодки и отплыть (Альбаум Л. И., 1985, С. 71). Согласно автору, госпожа в центре лодки – принцесса, предназначенная в жены Вархуману, т. е. это уже вторая невеста из Китая наряду с принцессой из Чаганиа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гласно автору, на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стенах зала изображены посольства из Чаганиана и Китая,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принцесс,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в жены Вархуману.

О содержании росписи восточной стены, в которой находился вход в зал, можно строить лишь догадки, сохранилась она на высоту 1,2-1,5 м. Окраска стены на многих участках опала и покрыта выбоинами. На левой стороне от входа едва различаются две фигуры, драпированные в свободные одеяния. Одна из них катит ко второй, детской, шар или круг. Дальше остатки изображения всадника. На второй правой от входа половине стены сохранились отрывки сцены водной стихии в виде спиралевидно закрученных волн опять с рыбками и утками, фрагменты фигуры человека, плывущего держась за хвост быка (?), фигурки обнаженных мальчиков, стреляющих из лука. Фрагмент женской фигуры с ребенком на коленях. Выше

фрагменты фигур животных и людей.

Судя по тому, что персонажи восточной стены изображены обнаженными или полуобнаженными, босыми, автор допускает, что на этой стене изображены сцены из жизни Индии, и по аналогии с содержанием сцен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стен зала, где, как они считают, запечатлены процессии поездки посольств к Вархуману, он полагает, что здесь тоже были изображены сцены движения индий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в Самарканд.

В публикации Л. И. Альбаума усложняет цельное восприятие живописи то, что она приведена в иллюстрациях отдельными фрагментами. Кроме того, судя по фрагментам живописи, обнаруженным в завалах стен, и происходящих с верхнего уровня изображений, тематика содержания живописных сцен была гораздо шире, чем та, что обсуждается Л. И. Альбаумом.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сцены боковых стен зала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разделены на левую и правую половины. В левых группируются сюжеты с изображениями женщин, в правых изображения мужчин. Хотя обе половины этих сцен изображ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одной и той же страны. В частности, северная, безусловно, изображает сцены из жизни Китая танского времени, как воспринимал ее художник Сюда этого периода. На этой стене центр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в левой половине, изображающей обширную водную стихию, центр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занимает большая ладья с десятью женщинами в ней. Вторая ладья, ведомая двумя лошадьми, которых сопровождает плывущая мужская фигура, дополняет этот сюжет.

Правая половина сцены целиком занята традиционной для древней Азии аристократической охоты на хищных животных.

Изображения на южной стене производят впечатление единой цельной и взаимосвязанной сцены процессии, идущей в од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о и тут впереди, на левой части сцены группируются женские персонажи, с госпожой на слоне во главе всей процессии, мужские персонажи, в том числе и основной герой, выделенный среди всех прочих своими гипертрофированными размерами, идут вслед за женской группой.

Центральная, западная стена зала не имеет женских образов в сохранившейся нижней части.

Как обстояло с восточной стеной, разделенной входной дверью на две половины, неясно из-за очень плохой сохранности изображений на ней.

Как отмечалось, Л. И. Альбаум указывает, что персонажи левой, южной, половины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как бы продолжают тему сцены процессии на южной стене зала, это люди единой страны и культуры и облика, детали костюмов у них совпадают до мелочей.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итайские посланники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изображены в северной половине этой сцены, ближе к северной стене, гд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ся стена расписана на темы Китая: из жизни или истории населения, или как считает автор, Восточного Туркестана. Сцены на восточной стене автор связывал с индийской тематикой.

На западной стене в сохранившемся нижнем ряду выделяются всего четыре группы адорантов. Л. И. Альбаум две из них сопоставляет с гипотетическими группами посланцев Чаганиана и Чача, а в двух других достаточно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о опознал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итая и Кореи.

Пр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персонажей южной стены и адорантов в аналогичных

костюмах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возникают такие вопросы как:

Почему речь дабирпата Чаганиана нанесена на поле халата персонажей тюркского типа? И есть ли среди персонажей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образы самих дабирпатов Чаганиана и Чача? Или почему нет речей китайцев и корейцев?

Л. И. Альбаум допускает, что третья слева направо группа адорантов могла изображать посланцев Чача, но если следовать тексту дабирпат Чача должен был следовать дабирпату Чаганиана.

Скорее всего, текст, сообщающий о приветствиях дабирпатов Чаганиана и Чача, не связан группами адорантов, изображенных в нижнем ряду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Позже други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высказывались сомн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надписей самим изображениям и их синхронности. Они могли быть подписаны и позже посторонними людьми. Скорее, можно допустить, что два персонажа тюркского облика, изображенные справа во втором верхнем ряду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и есть дабирпаты Чаганиана и Чача. В руке у первого клюка човгана, а на подоле – текст его приветствия, за ним вторая фигура, видимо, изображала дабирпата Чача (Альбаум Л. И., 1975, рис. 4).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насколько могли быть чаганианцами все персонажи, изображенные на южной стене, и группа из трех адорантов в аналогичных костюмах на западной стене. Детали орнаментики костюмов всех персонажей этой группы больше ставят вопросов перед исследователем, чем отвечают на них. Почти все они одеты в нераспашные халаты, украшенные ярко выраженной зороастрийской символикой, на это обращают внимание все специалисты, писавшие о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а, в то время, как общеизвестно, что основным религиозным

учение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м в 7 в. в Чаганиане, был буддизм, поэтому дабирпат Чаганиана в своем обращении к Вархуману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он хорошо знаком с богами и письменностью Самарканда и заверяет его в своем благорасположении. Но персонажи предполагаемого Л. И. Альбаумом чаганиан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не имеют в костюмах признаков буддийской иконографии, тем более, что в центре этой процессии шествуют священный конь и гуси.

Безусловно, что художник в каждой из изображенных сцен отображал конкретные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типы. Не только костюмы, но и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ий облик персонажей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стен отличны, как и их костюмы.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ерсонажи предполагаемого автором чаганианского посольства, хотя и имеют европеоидный облик,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трех приближенных женщин, едущих вслед за своей госпожой, лица которых имеют слабо выраженные признаки монголоидности, судя по своим костюмам и аксессуарам, они не были чаганианцами.

Противоречит иде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браков и посылке принцесс из Чаганиана и Китая также и неявное истолкование сцен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стен в качестве посольств, везущих невест ко двору Вархумана, в которых центральные персонажи изображены многократно увеличенными. Так могли изображаться только божества или монаршие особы, а отнюдь не дабирпаты – начальники канцелярий, выполнявш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миссии. Главные персонажи изображений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стен могли представлять собой,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равителей стран, которые были изображены здесь. При этом допущение о том, что главные госпожи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стен могли быть принцессами на выданье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браке, отпадет само собой.

Попытка Л. И. Альбаума опознать в группе адорантов, расположенных между китайцами и корейц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Чача также маловероятна. Костюм, прически и налобные металлические диадемы с перлами на челе последних находят свои ближайшие аналогии в живописи и скульптуре Восточного Туркестана, где они связаны с культурной традицией северных районов Индии. Они могли изображать тибетцев или карашарцев, этнонимы которых были расшифрованы позже на надписях фрагментов живописи Афрасиаба В. А. Лившицем, о чем остановимся дале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дпись живописи центрального зала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а 7 в. сообщает нам о встрече дабирпатов Чаганиана и Чача с царем Самарканда Вархуманом. Есть четыре группы адорантов, среди которых бесспорно выдел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итая и Кореи. На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стенах есть изображение двух процессий по суше и по воде. Но нет каких-либо свидетельств о том, что эти процессии брачные.

В письменных источниках нам не известно сведений о Вархумане, лишь китайские источники середины 7 в. сообщают, что владение Кан в Согде было переименовано Кангюйским губернаторством, и что владетель Фухумань поставлен губернатором (Бичурин Н. Я., 1950, т. 2, С. 34). Затем были опознаны монеты, выпущенные Вархуманом, и, наконец, была открыта монументальная живопись дворца 7 в. на Афрасиабе, где имя Вархумана приводится с титулом MLK (Смирнова О. И., 1981, сс. 115-125; Альбаум Л. И., 1975, С. 38).

Такие крупные историки и искусствоведы как Б. Г. Гафуров, Г. А. Пугаченкова, Л. И. Ремпель приняли в целом концепцию В. А. Шишкина и Л. И. Ремпеля о

сугубо светском содержании сцен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а, о чем, казалось, неоспоримо,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ли сопроводительные надписи. Они в деталях развивали и дополняли это видение уникального объекта монументальной живописи Средней Азии 7 в.

Со временем, среди специалистов, уже не одно десятилетие занимавшихся изучением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образцов синхронной живописи в соседнем городе Пенджикенте, и которые достаточно критически восприняли выводы В. А. Шишкина и Л. И. Альбаума, сложилась иная точка зрения о содержании живописи Афрасиаб. В статье, посвященной идеологии и искусству Согда 7-8 вв., А. М. Беленицкий и Б. И. Маршак предлагают свое истолкование сцен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а. Они пишут: «Возможно, вся композиция была посвящена не царскому приему посольств, а церемонии в храме с участием иноземных послов. Верх середины сцены не сохранился. Между тем, именно здесь были основные персонажи, к которым обращены отдельные фигуры. В Пенджикенте это место, середина стены над выступом суфы почти во всех залах было отведено для изображения божеств с предстоящим.

Убранство дворца должно было показать, как гостям, так и потомкам, место его хозяина в мире, которое определялось по отношению к богам и людям, к сородичам и чужестранцам, к чтимым героям прошлого и современникам. Знаменитый рассказ «Тан-шу» о здании в городе Кушании на Зарафшане, на северной стене которого были изображены императоры среди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восточной – ханы тюрок и владетели Индии, а на западной – государи Ирана и Византии, частично находит подтверждение в Красном зале Варахши с фигурами индийских царей, сидящих на

слонах...» (Беленицкий А. М., Маршак Б. И., 1976, С. 85).

Авторы ссылаются и на сцены изображений известных барельефов, украшающих надгробное сооружение знатного согдийца в Китае, которое был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о и опубликовано Г. Скалья.

Ценность этих барельефов, как отмечают авторы,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они были выполнены в камне, здесь сохранились сцены всего цикла ритуальных церемоний согдийцев. Это сце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процессии, и далее расположена сцена жертвоприношения. Или опять изображение второй торжественной процессии с подношениями и сцена пиршества. В изображениях всех этих церемоний, как в живописи Афрасиаба и Пенджикента выделяются своими увеличенными размерами центральные мужские фигуры.

Рассматривая в комплексе содержание монументальной живописи Пенджикента, Самарканда, Варахши и Уструшаны эпохи раннего средневековья, авторы приходят к заключению, что жизнь в согдийских городах была проникнута духом торжественных ритуальных обрядов.

Отсюда преобладание сцен ритуалов с донаторами, изображениями божеств в коллективных сценах поклонения или жертвоприношений (Беленицкий А. М., Маршак Б. И., 1976, С. 88). Хотя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сцены коллективных богослужений с фигурами божеств в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м центре картины типичны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культовых сцен всех религиозных традиций.

Далее авторы отмечают, что искусство Согда, в отличие от имперского стиля искусства Сасанидского Ирана, это искусство интерьера домов знати или храма городской общины, отсюда многообразие тематики и богатство образов согдийского

культ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Резюмируя, авторы пишут, что жизнь согдийца протекла в сакрализованной среде, насыщенной мифологическими персонажами. При входе в дом его встречали изображения божеств с образами поклоняющихся им адорантов. Интерьер парадных и культовых помещений, начиная с резного деревянного потолка и кончая основанием стен, был украшен сценами мифологического содержания. Так осознавалось и представлялось место человека в мире богов и людей (Беленицкий А. М., Маршак Б. И., 1976, С. 88).

Здесь можно лишь добавить, что этот образ жизни и мировосприятия характерен в наибольшей степени для первой по времени мировой религии зороастризма. Осознание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как части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цесса, придавало глубокий смысл поступкам и целям людей, подчиняло этике, возведенной в ранг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инципа, и налагало на каждого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исход космической драмы борьбы добра и зла. Эти возвышенные идеи вошли затем в христианство и ислам.

Б. И. Маршак в своих последующих публикациях развивает свою точку зрения. Он полагал, что центральная фигура на южной стене могла изображать самого Вархумана, а вся процессия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к храму предков в шестой день Навруза. В верхнем регистре западной стены, он полагал, что тут, согласно иконографическим стереотипам Пенджикента, могло находиться изображение богини Наны, которая почиталась как в Пенджикенте, так и Самарканде (Marshall's B., 1994; его же, 2001).

Более или менее аргументированное обоснование этой культовой версии сцен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а 7 в. дается в специальной статье Ю. А. Мотова, которая так и называется «Изображение мистерии праздника Михраган в настенных росписях Афрасиабского дворца» (Мотов Ю. А., 1999).

Автор отмечает ряд сомнительных положений Л. И. Альбаума, таких как необъяснимость ситуации появления двух царственных невест, доминирование в сценах посольств Чаганиана – малого владения соседнего с Согдом и другие. Далее автор предлагает свое истолкование содержания росписей зала 1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

В отличие от Л. И. Альбаума, Ю. А. Мотов начинает анализ живописи с южной стены, где по Л. И. Альбауму изображена сцена прибытия в Самарканд посольства Чаганиана. Автор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на ряд особенностей изображений этой сцены,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аставляют усомниться в сугубо светской версии толкования картины, предложенной первым исследователем.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тот факт, что все персонажи сцены, едущие верхом на конях и верблюдах, изображены восседающими верхом по-женски, свесив обе ноги на одну сторону, обращенную к зрителю влево от седл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одного из двух всадников, едущих вслед за главной, центральной мужской фигурой всей сцены, он сидит спиной к зрителю, свесив ноги вправо от себя. Затем, указывая на расположение в центре картины священных птиц – гусей и священного коня, автор считает, что вся процессия направлена к храму, изображенному в крайней левой части картины - ступенчатый постамент, на котором четыре мужские фигуры встречают всю процессию, Л. И. Альбаум определял его в качестве условного изображения ворот Самарканда. Далее приводится ряд деталей картины, которые согласно автору указывают на сакр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всего шествия (Мотов Ю. А., 1999, С. 66). Отмечается

знаковое содержание символики орнаментов костюмов персонажей и снаряжения верховых животных, где изображены, в основном, образы священных животных зороастрийской культовой традиции, связанных с основными божествами древнего Самарканда, такими как Нана и Митра.

Автор отмечает, что «чаганианцы» одеты в нераспашные кафтаны архаического покроя, восходящие к костюмам середины 1 тысячелетия до н. э. Отличается и оружие мужских персонажей живописи Афрасиаба. Клинковое рубящее оружие типа архаических мечей имеют все персонажи и южной и западной стен, относящиеся к т.н. «чагани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палашами же, что отвечало эпохе 7 в., вооружены придворные согдийского ихшида, «послы» Восточного Туркестана (или Китая) и корейцев. Автор отмечает, что меч, как устаревший тип оружия, мог иметь в это время лишь церемони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Мотов Ю. А., 1999, сс. 67-68).

Автор считает, что это, как и символика костюмов «чаганианцев» связано с содержанием сцены южной стены зала, на которой было изображено ритуальное действие в сакрализован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перед храмом.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в синхронной живописи Пенджикента тоже одним и тем же мифологическим персонажам и героям принадлежат архаичные одеяния нераспашного покроя и мечи старинного образца (Мотов Ю. А., 1999, С. 68).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часть участников шествия на южной стене имеют за спиной развевающиеся плащи, и священный конь – развевающиеся ленты на ногах, что отличает изображения небожителей или посвященных, и еще раз указывает на сакральный характер этой сцены (Мотов Ю. А., 1999, С. 68). Хотя в одном случае фигура дароносца на западной стене (фиг. 4) тоже снабжена таким же плащ-

накидкой, что и мужские персонажи южной стены.

Далее автор попутно отметив, что неизвестно, с позиции какой религиозной системы следу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цены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склоняется к мнению, что содержание сюжетов сцен этой живописи следует истолковать с позиций древнеиранской религиозной традиции, что более всего отвечает религиям духовной жизни в Самарканде накануне вторжения войск халифата.

В целом, о всей сцене процессии и персонажах ее Ю. А. Мотов приходит к выводу о том, что здесь изображена обрядовая сцена мистери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Согласно этой версии толкования сцены живописи западной стены, разделенной на левую – женскую и правую – мужскую половины, правитель Самарканда и его супруга изображают в этом праздничном священном ритуале основных божеств Самарканда – Нану и Митру.

Пара спутников на конях с факелами в руках, следующие вслед за правителем в роли Митры и обращенные в разные стороны, символизируют двух спутников его – утреннюю и вечернюю зарю (Мотов Ю. А., 1999, С. 75).

Вся сцена по автору повествует не о свадебном, но супружеском, брачном единении двух главных персонажей сцены женского образа на слоне и муж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фигуры правой мужской половины картины.

По автору тема священного ритуала продолжается и на западной стене зала, где разноэтничные посланники с дарами могли символизировать триумф религии Самарканда в «четыре страны мира» аналогично такой же идее в буддизме (Мотов Ю. А., 1999, сс. 76-77).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огласно Ю. А. Мотова,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посольство Чаганиана, на

самом деле, изображало супружескую чету царя Самарканда и их близких в роли участников священной мистерии покровителей города – Наны и Митры, которых автор считает супружеской парой. На западной стене изображены, видимо, уже сцены поклонения Нане и Митре в храме, где их опять представляли правитель с супругой (Мотов Ю. А., 1999, С. 79).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согдийских надписей, Ю. А. Мотов допускает, что они не имеют отношения к тематике живописи, вернее, он допускает, что основная и другие пояснительные надписи, отличающие живопись Самарканда от других образцов стенописи Согда 7 в., могли быть сделаны во время захвата арабами Самарканда с целью скрыть от арабов истинный священный смысл живописи и тем самым сохранить роспись от надругательства и вандализма фанатичных адептов ислама. Но, как заключает автор, провести арабов не удалось, живопись была изуродована фанатичными пришельцами (Мотов Ю. А., 1999, сс. 78-79).

Это допущение маловероятно, хотя бы потому, что основная согдийская надпись с речью чаганианского посла нанесена поверх специально незакрашенного фона халата одного из персонажей. Безусловно и то, что вся живопись в результате вторжения арабов осталась незавершенной, что единодушно отмечается все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Зарубеж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зучая живопись дворца Самарканда, также выдвинули различные версии истолкования содержания этой живописи. Так, Маркус Моде считал, что основной сюжет живописи Афрасиаба отражает тему царей четырех стран мира – тюрков, китайцев, индусов и персов. При этом, по поводу обнаженных мальчиков, стреляющих из лука на восточной стене, он полагает, что тут мог найти

отражение сюжет о пигмеях, охотящихся на журавлей, известный из классической гре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Mode M., 1993, p. 198).

М. Моде также допускал, что возможно, фигуры посланцев с дарами на западной стене зала были обращены к фигуре самого Вархумана, который мог быть изображен выше.

Недавно молодая исследовательница из Японии Я. Кагеяма, сравнивая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с культовыми сценами пещерных буддийских храмов Дунхуа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аналогичные изображения корейцев встречаются в более десяти случаях. Она допускает, что эти изображения, иллюстрирующие популярные буддийские сутры, могли быть репликами, копирующими подобные сюжеты с картин буддийских храмов в столице танского Китая ... (Kageyama E., 2002; Ргвеладзе Э., 2005, С. 270).

В этом случае изображения корейцев могут отражать популярные стереотипы китайского будди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не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о приходе посланцев Кореи ко двору Вархумана.

Франц Грене, руководитель французск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миссии в Самарканде так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возвращался к дискуссии на тему этой живописи (Grenet F., 2003, 2005). Отправляясь от выводов Б. И. Маршака, он полагал, что на восточной стене изображены сцены из жизни Индии, связанные отчасти с кришнаитскими сюжетами и со сценой индийского мудреца с учеником. Северная стена справедливо интерпретируется как изображение китайского праздника кораблей драконов и сцен царской охоты.

По поводу содержания сцен южной стены Ф. Грене склонен принимать точку

зрения Б. И. Маршака о том, что процессия на южной стене изображала процессию, направляющуюся к храму предков в шестой день традиционного в Средней Азии праздника весны Навруза. О персонаже в центре верхней части западной стены Ф. Грене солидарен с М. Моде, допуская, что там могло находиться изображение Вархумана.

Очень важна статья М. Компарети и С. Кристоферетти в сборнике, посвященном столетию А. М. Беленицкого (Compareti M., Cristoforetti S., 2005). Авторы указывают, что в середине 7 в. день согдийского Навруза совпал с днем праздника кораблей драконов в Китае и, что изображения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стен могли отражать этот важный момент совпадения празднеств разных календарных систем.

Наконец, все точки зрения о живописи зала с изображениями посланцев из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дворца на Афрасиабе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и подытожены на специаль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 Венеции в 2005 г. В сборнике трудов конференции участвует большинство вышеупомянутых авторов с изложением своих толкований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В. А. Лившиц, переводчик надписей этой живописи привод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ведения о расшифровке надписей, где среди посланцев различных стран упомянуты также карашарцы и тибетцы. Общее резюме и свое заключительное толкование содержания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дает Этьен де ла Вассиер в статье “Les turks, gois du monde du Samarkand”. (Автор приносит благодарность Этьену де ла Вассиеру за помощь и присылку этой статьи из специального номера журнала, который еще не вышел в печать).

Согласно Э. де ля Вассиера основной сюжет живописи связан с популярной темой изображения царей четырех сторон света, о том, что эта тема была известна не

только в Китае и Индии, но и в Согде, сообщают китайские источники эпохи Тан, где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у правителя города Кушания есть здание с изображениями царей Китая, Индии, тюрков и правителей Запада, и что правитель почитал эти изображения.

Автор отмечает, что на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стенах зала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а изображены правители Китая и Ирана, на восточной стене, видимо, был изображен правитель Индии. Эти сцены этнически гомогенны, но основная центральная западная сте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посланников различных этносов, которых принимают тюрки. Тут они в той же роли, что и персы на барельефах Персеполя.

В отличие от сцен живописи Пенджикента, тут сцена с дароносцами представлена пейзажем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о чем, согласно автору,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связки копий и барабаны.

Кого же почитают дарами посланцы Китая и других государств? Навряд ли это был Вархуман, который был одним из мелких правителей Согда и клиентов Китая танского времени. Такие почести, согласно сведений хроник танского двора, оказывались только тюркским каганам. Тем более, что в хрониках среди подношений каганам упоминается помимо тысяч кусков шелка военные штандарты и барабаны, т.е. атрибуты, украшающие сцену приема дароносцев.

Попутно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свита тюркского правителя сидит рядами на коврах перед каганом, это подчеркивал и Сюань Цзянь во время приема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 в Семиречье в 730 г. В сценах приемов Согда и Ирана свита правителя стоит по обе стороны от него. В живописи же Афрасиаба господствующую роль играют тюрки и заказчиками живописи также были они.

Э. де ля Вассиер отмечает, что зал со сценой приема послов ориентирован на восток согласно тюркской традиции. Далее, ссылаясь на публикацию М. Компарети и С. Кристоферетти о совпадении праздников кораблей драконов и Навруза, он перебирает несколько лет с 641 по 666 гг. и приходит к выводу, что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ая дата этого события 19 июня 660 г. На это же число приходится и летнее солнцестояние.

Э. де ля Вассиер в заключение статьи допускает, что живопись дворца Афрасиаба прокламировала доминирующее положение кагана тюрков среди царей четырех сторон света и предполагает, что в центре верхнего регистра мог быть изображен каган Восточно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который мог быть со своим лагерем в Самарканде в момент визита во владения Западно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Поэтому тут в первых рядах данников стоят китайцы и корейцы (Vassiere E., 2005).

Э. де ля Вассиер в дополнениях к этой статье отмечает, что основная согдийская надпись на западной стене противоречит предлагаемому толкованию всей живописи и допускает, что она была нанесена позже согдийскими посетителями, когда верхняя часть живописи исчезла, приводит также замечание Б. И. Маршака о противоречии изображений и содержания надписей в отдельных случаях.

7 в. – эпоха утери политической гегемонии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на обширных просторах степной зоны Евразии и подъем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ержавы династии Тан.

Китай вслед за изощр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ей, приведшей к расколу тюркской империи на Западный и Восточный каганаты, в 629-630 гг. осуществляет грандиозный поход против Восточного каганата, завершившегося разгромом его. Вторым этапом

агрессии становятся районы Западного края вдоль трасс торгов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Гаочан, уйгуры, Западный тюркский каганат (История Китая, с. 76-80). После смерти Тун-шеху в 630 г. небольш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раздробленные владения Средней Азии – осколки распавшегося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шлют посольские миссии в столицу Китая. Туда же бежит, прос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бежища, наследник Иездигерда III шаханшаха Ирана, павшего под ударами другой мощной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лы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сцене Азии Арабского халифата.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северо-востоке Китай ведет захватническую политик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захваты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уре и Пэкче.

Активная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приводит к войне Китая с Тибетом, которая длится с переменным успехом. На юге и западе Китай воюет с Наньчжао и Вьетнамом. Развиваются посольские и торговые связи с Японией, Индией, Камбоджей.

В эпоху державы Тан окончательно формируются принципы китаецентризма Поднебесной, какое бы посольство ни прибывало ко двору, это государство объявляли вассалом, а дары объявлялись данью.

К этому периоду пика мощи танского Китая и наибольшей активности его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фере и относится краткая запись в Тан-шу, о том, что Фухумань поставлен губернатором (дуду)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Кангю.

Возможно, это произошло после разгрома Западного Танского каганата в 657 г., хотя О. И. Смирнова датирует приход Вархумана к власти 655 г. (Смирнова О. И., 1963, С. 30).

Но в начале 8 в. политиче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Та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еуклонно катится вниз, мелкие владения Средней Азии захватывают арабы и, наконец, битва

751 г. на р. Талас, где были разгромлены войска Китая, прекратили притязания его на земли оазис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вошедшей в состав другой империи – Арабского халифа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активные торговые и культурные связи оазисов Средней Азии с Китаем, достигшие апогея в эпоху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и развитие торговой активности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 Востоку, где особую роль играли согдийцы, сменяется сменой ориентации активных взаимосвязей, как в экономике, так и культуре на юго-запад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Однако, очень скоро уже в эпоху Саманидов-Караханидов связи Средней Азии с Китаем расцветают с еще большей силой, когда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континентального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достигает максимальной интенсивности.

Однако, как отмечает Э. Шефер в своей замечательной книге «Золотые персики Самарканда», эпоха Тан не была просто периодом внешней агрессии Китая, это был период глубокой внутренне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и актив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кита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его экономики и культуры с культурой окружающих, а порой и довольно отдаленных народов и государств. Это была пора увлечения самыми различными новациями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кита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еодоления психологии изоляционизма, приведшая к небывалому обогащению и блестящему расцвету культуры самого Китая эпохи династии Тан (Schefer E. H., 1963). Это была эпоха космополитизма, когда ценилось все экзотическое, иностранное, включая товары, идеи, технологии, когда вошли в моду музыканты, певцы и танцоры Западного края наряду с музыкантами Кореи, когда в высших эшелонах армии Китая в 7 в. мы встречаем Рокшана (кит. Ань Лу-шань) и генерала-корейца Гао Сянь

Чж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и описан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продвижения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с востока Китая и юго-запада Халифата в Самарканде к власти приходит Вархуман, признаваемый танским двором в качестве своего губернатора.

По периодизации монет правителей Самарканда, установленной на основе стратиграфии дворцового комплекса Самарканда, вслед за Вархуманом правил Урк Вартрамук, ему следуют Тукаспадан, Мастич, Тархун и Африг, он же Деваштич (Ахун-бабаев Х., 1999, сс. 65-74). При этом выделяется период безвластия в Самарканде с 675 г. после первого похода арабов, когда они взяли Самарканд по 696 г.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самого дворца автор относит к периоду между 655 – 675 гг., когда правили Вархуман и его преемник Урк Вартрамук, при этом, учитывая, что монет Вархумана было встречено всего 3 экземпляра, а Урк Вартрамука 14 экземпляров, автор приходит к выводу, ч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функционирование дворца относится к периоду именно Урк Вартрамука. Хотя неизвестно, когда последний сменил Вархумана и его генеалогические связи с последним, хотя монеты обоих правителей имеют общую родовую У-образную тамгу.

Правоту Ахун-бабаева Х., кажется, подтверждает то, что живопись дворца оказалась незавершенной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хода арабов 675 г., а также и то, что согдийская надпись на западной стене сообщает о том, что посол Чаганиана обратился к Вархуману, чего сообщать Вархуман сам о себе в третьем лице не мог.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е подсчеты Э. де ля Вассиера о дате живописи не ранее 660 г. совпадают с выводами Х. Ахун-бабаева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дворца

между 655 и 675 гг.

Что же касается содержания самой живописи дворца, возможно, мы никогда так и не получим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ответа, насколько эти сце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т реальным событиям истории Самарканда второй половины 7 в., и насколько они отражают сакральный мир и мифологические сюжеты, в которых протекала жизнь горожан Самарканда, находившихся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целого века под властью Тюркского каганата и его наследников. Но, кажется, что первоначаль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посольствах ко двору Вархумана и принцессах, направляющихся в Самарканд, не выдержали проверку временем, несмотря на текст, повествующий речи дабирпата Чаганиана, обращенной к Вархуману.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 Абдуразаков А. А., Камбаров М. К. Реставрация настенных росписей Афрасиаба, Ташкент, ФАН, 1975.
- Альбаум Л. И. Живопись Афрасиаба, Ташкент, 1975.
- Ахун-бабаев Х. Дворец ихшидов Согда на Афрасиабе, Самарканд, 1999.
- Беленицкий А. М., Маршак Б. И. Черты мировоззрения согдийцев 7-8 вв. в искусстве Пенджикента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М., 1976.
- Бокшанин А. А., Внешняя политика и внешние отношения // История Китая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М, Наука, 1974.
- Джанг Джун Х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узбекистанских 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в изучении настенных росписей Афрасиаба, еще не опубликовано. 2006.
- Мотов Ю. А. Изображение мистерии праздника Михраган в настенных росписях афрасиабского дворца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Семиречья. Сборник статей и публикаций//. Алматы, 1999.
- Ртвеладзе Э. В. Циви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а, культур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Ташкент, 2005.
- Смирнова О. И. Каталог монет с городища Пенджикент, М.-Л., Наука, 1963.
- Смирнова О. И. Сводный каталог согдийских монет, М., Наука, 1981.
- Шишкин В. А. Афрасиаб – сокровищница древней культуры, Ташкент, 1966.
- Compareti M., Cristoferetti. Proposal for a new interpretation on the northern wall of the “Hall of the Ambassadors” at Afrasiyab //Central'naya Aziya ot Ahemenidov do Timuridov. Arxeologiya, istoriya, etnologiya, kultura// Materialy mejdunarodnoy nauchnoy konferencii, posvyashennoy 100-letiyu rojdeniya Aleksandra Markovicha Belenickogo, ed. V. P. Nikonorov, S-Pb, 2005.
- Grenet F. L'Inde astrologiya sur une peinture sogdienne du 7 siecle, dans Religious themes and texts in pre-Islamic Iran and Central Asia //Studies in honour of Professor Gherardo Grolli// eds. C. Cereti, M. Maggi, E. Provasi, Wiesbaden, 2003.
- Grenet F. The self-image of the Sogdians //Les Sogdien in Chine// ed. E. de la Vassiere, E. Tombert, Paris, SFEQ, 2005.
- Kageyama E. A Chinese Way of Depicting Foreign Delegates Discerned in the Paintings of Afrasiyab.//Iran Questions of Connaissances. Vol. 1: La periode ancienne, ed. P. Huysse. (Cahier de Studia Iranica, 25, Paris, Association pour l'avancement des etudes iranniennes, 2002.
- Marshak B. Le programme iconographique des peintures de la Salle des ambassadeurs a Afrasiab (Samarkand)//Arts Asiatiques, XLIX, 1994.
- Marshak B. La thematique sogdienne dans l'art de la Chine de la seconde moitie du 7 siecle//Comptes-

Rendus de l'Academie des Inscriptions et Belles-lettres, séance de l'annee 2001, Paris, 2001.

Mode M., Sogdien und die Herrsher der Welt. Turken, Sassanides und Chinesen in Historiengemalden des 7 jahrhunderts n. Chr. And Alt-Samarkand (Europaische-Hochschalschriften, Kunstgeschichte, 162), Francfort, Peterlang, 1993.

Schafer E. H., The Golden Peaches of Samarkand. A study of Tang exotics. Berckley and Los Angeles, 1963.

De la Vassiere E. Les Turks, rois du monde a Samarcande // Royal Nauruz in Samarkand. Proceeding of the conference held in Venice on the pre-islamic painting at Afrasiab. A cura di Matteo Compareti, Etienne de la Vassiere. Supplemento N 1 Alla rivista Idegli stadi Orientali. Nuova serie, vol. LXXVIII. Pisa, Roma, Instituti editorial e poligrafici internazionali, 2005.





세 명의 차가니안인의 모습



인물의 치마자락에 쓰여진 소그드의 문서



사마르칸드 왕의 신하



사마르칸드 왕의 신하로 보이는 남자들



조로아스터교의 새해맞이 축제 묘사 벽화



소그드인들이 말을 끌고 거위가 뒤를 따르는 모습



낙타를 탄 두 남자

도판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판 1 ...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언덕의 벽화 발견 장소이다. 1960년대 소비에트 시절 아프라시압 벽화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이 이뤄졌다.



도판 2 ...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벽화의 서쪽 벽 좌측에 묘사된 3명의 차가니안인들 모습이다. 이들은 사절들로서, 서벽 중앙에 묘사된 바르후만 왕을 알현하고 있다.



도판 3 ... 아프리카시압 벽화 서벽 좌측 인물의 치마자락에 쓰여진 '소그드의 문서'이다. 총 16줄로 쓰여진 소그드의 문서는 동부 이란어의 한 갈래인 아르메니아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도판 4 ... 아프라시아 벽화 서벽 중앙에 묘사된 인물상이다. 이들은 사마르칸드 왕의 신하로서, 차가니안 사절들을 맞이하고 있다.



도판 5 ... 아프라시아브 벽화 서벽 중앙에 묘사된 남자 인물상이다. 얼굴, 복장, 장신구, 위치 등으로 보아 사마르칸드 왕의 신하들로 여겨진다.



도판 6 ... 아프리카시암 벽화 서벽 우측에 묘사된 인물상이다. 우측부터 중국 당나라 사절, 산악 투르크계 사절, 한반도에 서 온 사절들이다. 특히, 우측 맨 뒤쪽 두 명의 남자는 7세기 중엽의 고구려 사절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머리에 깃털을 단 모자를 쓴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조우관'이라고 한다.



도판 7 ... 아프리카시암 벽화 서벽에 묘사된 고구려 사절 두 명의 모습이다. 조우관을 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인다.



도판 8 ... 아프리카인 벽화 남벽에 묘사된 행렬도의 일부이다. 결혼식을 묘사한 것이라는 의견과 조로아스터교의 새해 맞이 '나브루즈'를 묘사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최근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새해맞이 축제를 묘사한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도판 9 ... 아프리카시압 벽화 남벽 중앙에 묘사된 장면이다. 소그드인들이 낙타를 타고, 뒤이어 말을 끄는 사람과 위쪽에 거위가 뒤를 따르는 모습이다.



도판 10 ... 아프리카시암 벽화 남벽 중앙에 낙타를 탄 두 명의 남자가 묘사되어 있다. 이들은 손에 횃불 같은 것을 들고 있고, 목에 감은 망토가 바람에 날리고 있는 모습이다.



도판 11 ... 아프라시업 벽화 남벽 중앙의 일부이다.



도판 12 ... 아프리카시암 벽화 남북 중앙의 일부이다.



도판 13 ... 아프라시압 벽화 북벽에 배를 타고 있는 왕족 여인과 수행원들이 보인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현지 학자가 말한다.



도판 14 ... 아프리카시암 벽화 북벽 중앙의 모습이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수영하는 사람, 그리고 사냥하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



도판 15 ... 아프리카시암 벽화 북벽 중앙의 사냥하는 장면이다.



도판 16 ... 키르기스스탄의 서부 탈라스 계곡을 따라서 쪽 가다 카자흐스탄 국경이 가까워오면서 커다란 저수지가 나온다. '카라부 올라'이다. 이 저수지를 지나서 더 내려가면 탈라스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나온다.



도판 17 ... 탈라스 강이다. 키르기스스탄의 탈라스 계곡에서 발원한 강은 서쪽으로 흘러 카자흐스탄 땅으로 향해 간다.
사진은 키르기스스탄 영토 안의 탈라스 강 앞에 '탈라스'를 알리는 표지판이다.



도판 18 ... 키르기스스탄 영토의 탈라스 강변이다. 저 멀리 보이는 평원이 탈라스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판 19 ... 키르기스스탄의 탈라스 평원으로 이슬람 연합군과 당군의 전투로 죽은 당군의 공동묘지라는 설이 있는 곳이다(현지 향토학자가 우리 조사단에게 공동발굴을 제의했던 지역이다).



도판 20 ... 키르키스스탄 영토의 탈라스 강변이다. 탈라스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탈라스 평원은 카자흐스탄과의 국경을 가르는 '탈라스 알라타우'와 탈라스 평원 남부의 '키르기스 알라타우' 사이에 놓여 있다.



도판 21 ... 200여 무덤 가운데 하나이다. 탈라스 지역 사람들은 쿠르간(지역 세력자의 무덤)을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 뒤로 멀리 보이는 산이 바로 키르기스 알라타우이다.



도판 22 ... 카자흐스탄 영토 안의 탈라스 강변이다. 사진에 보이는 성벽은 탈라스 전투 당시의 성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저 멀리 탈라스 강변의 비옥한 농지와 마을들이 보인다. 이 곳이 그 유명한 탈라스 성안이다.



도판 23 ... 카자흐스탄 영토 안 잠불시 외곽의 탈라스 강변이다. 지금은 지역 성자를 모신 사당(타라즈 사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사자들이 있는 곳이 성벽의 잔해들이다. 그 밑에 보이는 강은 탈라스 강이다.



도판 24 ... 카자흐스탄 잠블시 외곽에 있는 '타라즈 사당'을 따라 탈라스 강이 흘러가고 있다. 주변은 잠블시의 모습이다.



도판 25 ... 카자흐스탄 잠불의 타라즈 사당을 따라 난 성벽을 밑에서 찍은 모습이다. 성벽(언덕)으로 추정되는 곳 밑에 '해자'로 보이는 작은 물길이 있다.



도판 26 ... 조사자들이 카자흐스탄 잠불의 타라즈 사당을 조사하고 있다. 높은 곳은 고구려의 가산을 연상시킨다.



도판 27 ... 카자흐스탄 잠불의 타라즈 사당의 성벽 바로 밑에 있는 '해자'로 추정되는 물길이다.



도판 28 ... 카자흐스탄 잠불의 타라즈 사당 성벽 언덕에서 바라본 잠불시 모습이다.



도판 29 ... 타지키스탄 판치켄트의 루카스 박물관이다. 루카스는 타지크 민족의 저명한 시인이다.



도판 30 ... 타지키스탄 판치켄트 루카스 박물관에 소장된 벽화의 일부. 이 벽화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벽화와 시기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여겨진다. 소그드 왕자의 싸움을 묘사한 벽화의 인물화 눈매가 동양사람의 눈매이다.



도판 31 ... 타지키스탄 판치켄트 루카스 박물관에 소장된 벽화의 일부이다. 벽화인물의 눈매가 동양인처럼 그려졌다.
(도판 30 또는 31)



도판 32 ... 타지키스탄 판치켄트 루카스 박물관에 소장된 벽화의 일부이다. 벽화 제작기 법과 양식이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압 벽화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Abstract



Study on the Delegates of Koguryo Kingdorm Depicted in the Afrasiab Mural Painting

| Kwon, Youngpil

Russian archaeologists discovered the site of a palace from the remains of the Middle Ages in Afrasiab, the capital of the ancient Sogdian Samarkand in 1965. There they found mural painting, 11×11 meters in length, describing delegates from many countries, which has aroused much interest from worldwide academic circles. Especially, two people who are presumed to be delegates from Koguryo depicted in the painting have been occupied our -Korean scholars- attention.

In this essay, I will focus on the chronicle of the wall painting which has been a point at issue along with the possibility of interchanges between Koguryo and Sogdiana among others issues regarding the Afrasiab mural.

First of all, I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of artistic exchanges between Koguryo and Sogdiana. Here, especially focusing on the technique called ‘cao-yi-chu-shui曹衣出水’ [meaning, Cao’s garments which were just out of water. It describes the way the draperies fit to the body line like wet garments], I’ll compare the ways of drapery expression of the characters in the Koguryo murals to those of the deities depicted in Sogdian ossuary [cinerary urn]. Also, I’d like to interpret the advance of Koguryo to Samarkand as a result of the westward foreign policy called ‘yuan-jiao-jin-gong遠交近攻’[a policy to form a friendly relationship to the countries in a long distance but to attack the ones in a closer distance] by Minister Yon Gesomun which raised trouble with Tang Dynasty. Therefore, first, I assum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Koguryo and Sogdiana was formed during the regime of Yon Gesomun(act. 642~665), and second, this was possible through Western Turk during 651~657 when it once had been restored out of Tang's regime.

Second of all, I will examine the date of the mural painting. Many experts, such as Boris Marshak, say that it might have been produced in the 3/4 period of the 7th century. In this essay, on the basis of the general theory, I presume the date like the following.

From the 7th century, the Kingdom of Samarkand could not ignore the two big countries around it, West Turk and the Tang Dynasty. Especially around the mid-7th century, it seems that it had to start the equidistance diplomacy toward them. The specific date must be between 651~657 when the West Turk had the first period of restoration getting out of Tang's regime and also between 650~655, the period when the Tang Dynasty invested the regime to the king of Samarkand. In the murals, we can find that the Turks and Chinese were given a great deal of weight. From this, we can analogize that the beginning of the mural production might have been sometime between 651~657.

Keywords

the mural painting of Afrasiab 'cao-yi-chu-shui曹衣出水'(meaning, Cao's garments which were just out of water. It describes the way the draperies fit to the body line like wet garments) / the Koguryo mural of the Tomb no. 4 of Ohoe-Tumli / Tang Dynasty investing the regime to the king of Samarkand / the West Turk in the 7th century / Koguryo envoy to Afrasiab / Minister Yon Gesomun / Russian archaeologist L. Alabum / Russian archaeologist Boris Marshak

The Significance of Kao Hsien Chih's Military Expedition to Seok-Kook in the History of Civilization Exchange

| Jeong, Suil

Paper, as a material mainly writing the letters, is divided into two kind, one of it is the paper including the whole of the writing material in the world through all ages in a broad sense, and in a narrow sense, is the paper using the botanical celluloses as a main material. The latter is the popular paper which has well known by 'Chae-Hoo-Ji' invented in China A.D. 105.

Since the invention, 'Chae-Hoo-Ji' had quickly spreaded to all parts of the East and the West. It seems to that the paper had spreaded to Korea Peninsula about 4c, and to Japan, by way of it, around 5c. eastward, and to the Shin-Jang area headed by Lu-Lan around 3c, this is the first stage of the paper spread westward.

The opportunity causing the chinese paper to be spreaded to the Arab-Islamic World which was still in use of some parchment and papyrus and to Europe, through it, was the 5th military expedition to Ce-Yeok(the Western Regions), namely the military expedition to Seok-Kook(Tashkent), commanded by Kao Hsien Chih in 751. This expedition ended by the Battle of Talas between Tang army and the Islam-Seok-Kook allied forces. By some paper manufacture technicians of Tang army whom was captured in the battle, more than 300 paper mills had built for the first time in Se-Yeok at the Siab river valley of Samrkand, and what is called the 'Samarcand Paper' good quality was produced. At once, this place developed into a center of the paper industry and the paper become a important trade

merchandise. All this facts had certainly proved according to the records and the research of medieval Arab-Islam scholars including al-Jahiz and Mustashriq (the Researcher of Arabian Studies) in Europe. It was verified also by the reappearance of the paper making progress from an authoritative transmission of the paper making technic in the very spot.

With the exportation of 'Samarkand Paper', the paper making technic was getting spread gradually to various parts of the Arab-Islam World and was eventually came to Europe, keeping up a close correlation with that world, the knowledge about it. In general, the paper spread is ahead of the paper making technic spread. Though the paper streamed in the Arab-Islam World in 7c, yet it acquired the paper making technic and the paper can be produced in 8c. Likewise, Europe began to meet the paper in 10c, but produced it by oneself only in 12c after 2 centuries.

After Samarkand, Baghdad, the capital of the Abbasids Islamic Empire, became the second center of the paper industry. In the end of 8c, a governmental paper mill established and began to produce the 'Baghdad Paper'. Damascus, located in the main artery of traffic, was had also a paper manufactory in the first half of 9c and exported the famous 'Damascus Paper' to Europe. In Cairo, one of the 3 cultural centers of the Arab-Islam World, the traditional papyrus was enfeebled gradually and the flaxen paper began to produce in the first half of 10c. The other side, Fes of Morocco, located in the important point linking the Islam World to Europe in Africa, become a big city of the paper industry since the beginning of 12c and supplied Europe with the paper.

In this way, the paper and the paper making technic was spreaded from Arab to Europe, and there are 3 routes for that. The first route have started from Damascus and got to Fes

via the districts washed by the Mediterranean and sailed across Str. Gibraltar and arrived at Espana and France. The second route is which have departed from Damascus and passed through Istanbul and arrived in Italy via Balkan Pen. by land. The third route is a route started from Damascus and Alexandria and reached Italy and France via Sicilia I., after that, attached to various parts of Europe.

Passing through this 3 routes, the paper and the paper making technic introduced into Europe. The first paper mill built in Xativa(Shativah) of Espana the middle 12c. In Italy, the country underwent the much meandering, for example prohibition of the use of paper, the paper mill built for the first time in the latter half of 13c. The production of paper by self-effort was realized in France and Germany in the first half of 14c, and in Netherland and England in the middle of 16c. Mexico and Middle America, the countries had give instruction of the paper and the paper making technic by the some emigrants from Europe, was successful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per mill in the latter half of 16c, and likewise U.S.A. in North America the latter of 17c and Canada the beginning of 19c.

It's took much time around 2 thousand years since the botanical celluloses paper originated in 'Chae-Hoo-Ji' of China, has been played as a civilization means worthy of the name with it's spread to all over the country in the world. In this process, the military expedition to Seok-Kook commanded by Kao Hsien Chih in the middle of 8c have a particular significance. With this expedition as a momentum, the first paper mill built in Samarkand and in consequence of it marked a turning point in the spread of the paper and the paper making technic into the world extent.

Rightly, the spread of the paper was an impossible thing without a route, a physical

medium. It can be named this route 'the Paper Road'. This road Should be set up taking Jung-Wen of China in which invented the paper in 2c as a starting

point and Samarkand which had arranged a momentum for the paper spread as a linking ring and stretched to each end of the East and the West. The distance of this road have extended from Jung-Wen(2c) to Korea(4c) and Japan(5c) eastward, and from Jung-Wen(2c) to Shin-Jang(3c), Central Asia(Samarkand, 8c), Arab-Islamic World(9c), Europe(12c) and finally America(16c) westward.

Keywords

Chae-Hoo-Ji / Seok-Kook expedition / Battle of Talas / Samarkant Paper / the Paper Road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Koguryo and the Central Asia

| Choe, Kwangsik

Koguryo has developed its diverse yet distinctive culture while it has exchanged with various countries around it. In addition to China, Koguryo also has sustained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northern tribes and enlarged the range of interchange. This aspect of interchange is not much shown in the written documents, but on the wall paintings of Koguryo.

The relationship between Koguryo and the Central Asia can be inferred from the Central Asian figure painting, the banquet scene and the musical instruments played during the banquet, and the costumes of the people depicted on the wall. There are the Central Asian figures with highly-bridged aquiline nose and deep-set eyes depicted on the walls of Anak Tomb No. 3, Muyong Tomb (Tomb of the dancers), Samsil Tomb, Jangcheon Tomb No. 1, and Susan-ri Tomb. Bakhi wrestlers shown on the walls of Muyong Tomb, Gakjeo Tomb, and Jangcheon Tomb No. 1 also seem to be of the Central Asian origin. The musical instruments and the costume show the influence of the Central Asian culture. Therefore, it seems that the cultural influences from the Central Asia have spread over the life and culture of Koguryo people in general from comparatively early period.

The figures wearing the feathered headgear which are depicted on the wall painting of Afrasiab Palace are important motives that enable to infer the direct exchange between Koguryo and the Central Asia. This wall painting is known to be made between 650 and 655, the Yonghui era, since the content of the paintings seems to be the scene of the

appointment of King Varxuman as the ruler of the region in the mid-7th century and his appointment was during the reign of Emperor Gaozong of Tang, China. Accordingly, two figures with feathered headgear are the emissaries of Koguryo. At that time,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ang and Koguryo, Koguryo seems to have dispatched the emissaries to Samarkand where Göktürks came into power and tried the diplomatic negotiations. In other words, Koguryo have strived for the prosperity both diplomatically and culturally through the interchange with the Central Asia.

Keywords

Koguryo Maral Painting / Central Asia / Cultural Exchange / Samarkand / the mural painting of Afrasiab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hilological Research of Kao Hsien-chih's Shih-kuo Expedition.

| Ji, Baesun

The fact that Kao Hsien-chih is one of the two persons who played the major role in the enlarge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Tang territory in Hsi-yu means that his trace in Asian history is too great to be erased. As Aurel Stein argues, he is considered to be more influential than such heroes as Napoleon, Hannibal, and Suvorow. To track the trace of this historical figure, I made field investigations of Ko-route three times.

After the final investigation from August 1 to August 16, 2006, my inference of Kao's Army's route is as the followings: It departs from Su-le, the west site of An-shi-ssu-chun; it passed Torugart Pass, the Chatyr-Kul Lake and Kyrgyzstan Plain ; it may have encamped in Naryn after having a rest around a fortless made of rectangular stones ; it later was joined by Kerluk-band, which was living around Kyrgyzstan of today ; after that it was provided in the wide lake in Issyk-kul; still later, it passed through Bishkek, Tuz-Ashu Pass, Utmek Pass, and Suusamyр Valley, to the origin of Talas River; 230 km from there, it must have collided with the Arab Army in the Talas-Z Plain. As is revealed in the research paper of George Soros Foundation, It is assumed that Kurgan, the grave of the war dead of this war, exists in Z Plain, though it has never been excavated.

Atlah Plain in Kazakhstan is another battlefield of Arab United Army and Kao's Tang Army. Located 10 km inside Kazakhstan, there is The Castle of Talas, the underground secret passage of which reminds me of the castles of Koguryo. Although never been recorded, that

Kao had been to Samarkand as well as The Castle of Talas has been orally handed down.

The First Battle of Talas started around The Castle of Talas; The Second Battle was in Atlah after the revolt of Kerluk-band. Tang Army led by Kao lost the third battle against Arab United Army and Kerluk-band in the Z Plain. Many soldiers were dead and lost ; some skilled technical manpowers were taken to Arab. As a result, Chinese civilization such as paper manufacture was spread over Arab. Another example of this spread is Chinese art of drawing in Panjikent of Tajikistan: the eyes of people in the picture depicting the fight between two Sogud princes resemble those of Asians.

Keywords

Kao Hsien-chih, Shih-kuo, Tang, Su-le, An-shi-ssu-chun, Samarkand, Sogud

A Cultural anthropological Interpretation on Samarkand Afrasiab wall painting

| Jang, Junhee

Since An Afrasian wall painting was made public in Samarkand, Uzbekistan in Central Asia in 1965, many studies have been progressed. According to a result by this time, opinions about a korean delegate are coincided. And debate of a time and a era when the afrasiab wall painting was drawn are narrowed into from mid to late 7c roughly with small differences. On the biggest issue until now that the delegate in the Afrasiab wall painting is from Koguryo or Shilla, almost all scholars concentrat on possibility that two delegates in the Afrasiab wall painting come from Koguryo.

In thisthesis, however, we got a purpose to look into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nd racial features in Central Asia in Mid-era, and to reinterpret through an Cultural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Afrasiab wall painting based on that fact. A political and economical relationships between Central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were bloomed in the early middle age. Especially 6c to 8c,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intervened in economical and cultural relationships with Central Asia. A racial diversity and harmonious relationship were also another feature of middle age.

The delegate of Korean peninsula described on the west part of the Afrasiab wall painting wore Choukwon(조우관) which is one of traditional fashion and remained from the early bronze age to the iron age. Besides, even these days, Choukwon notifies that young

Kazakhstan women wear hats decorated with feathers. And also, we try to interpret this via Zoroastrianism. At the last, we examined various interpretations of other scholars about the southern and northern walls of the Afrasiab wall painting and interpreted these related to Mithra faith in Buddhism. In other words, the southern and northern walls can be interpreted by Mithra faith, and this was embodied mysteriously and gloriously.

Keywords

Zoroast / Sogd / Tyran / Anaxita / Choukwan / Turk / Chachi / Buhara / Barxuman / Altai / Panjkent / Tajikistan / Turkistan eagle / Abest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찾아보기

ㄱ

가게야마 328
가. 아. 푸가첸카바 322
감군 180
감신총 116
갑골문자 67
강국(康國, 사마르칸드) 62, 151
강락(康樂) 175
게르세비치 236
고구려 15, 25, 57, 58, 102, 103, 105, 124, 125,
126, 130, 132
고구려 관 27
고구려 미술 34
고구려 사절 14, 50, 59
고구려인 48, 129, 197
고분벽화 10, 103, 104, 105, 114, 133
고사계 142, 153
고선지 10, 62, 76, 97, 135, 138, 139, 140, 141,
142, 143, 145, 146, 149, 150, 151, 152, 155, 158,
159, 161, 167, 168, 169, 173, 174, 177, 178, 179,
180, 189, 191, 228, 263
고임천장 117
고창(高昌) 18
광물학 240
구당서 154, 162
구안 인 217

구와바라 지쓰조우[桑原隙藏] 178
궁룡식 천장 117
권영필 52, 124
그르네(F. Grenet) 54, 328
기미주부(羈糜州府) 19
김원룡 47, 123
까즈위니(Zakriyā Ibn Mohammad al-Qazwīni) 81
귀임천장 117

ㄴ

나구차비시 157
나나 여신 326
나브루즈 324, 330
네덜란드 94
노태돈 53, 124

ㄷ

다마스쿠스 87
다마스쿠스지 87
단수실 184, 185
당 18, 144, 166
당서 322, 331
당초문 117
대도(大刀) 196
대식 189
덕흥리 고분벽화 29
독수리 208
독일 93
돌궐 16, 46, 124, 130, 131
돌기시 163, 168
돌의 도시 237

동돌궐 17
둔황 28
둔황 285호굴 벽화 29
둔황 429호굴 벽화 29
둔황 석굴 220호굴 49
디오니시 페리에기트 231

ㄹ

라다르 알바움(Альбаум Л.И.) 197, 309
라우페르 239
라펜 232
로브노르 212
루코니나 234
르트벨라제 244
리. 이 렘펠 322
리프시치 247
립시츠 321, 329

ㄱ

마라칸다 196
마르샤크(B. Marshak) 15, 41, 48, 322
마베르나흐르(트렌스악시아나) 199
마송 244
말각조정 117
모데(M. Mode) 41, 51, 327
모토프 324
몽골족 215
무사카에바 244
무용총 108
무용총 벽화 29
미타 의식 216

미트라 215, 326
민구류크 성터 255
밀향지 74

ㅂ

바그다드 86
바그다드지 87
바라흐샤 201, 202,
바라흐시 323
바락샤 36
바르후만(Бархуман) 39, 40, 43, 46, 52, 120, 121,
122, 124, 198, 312, 321, 333
바시에르 329, 330
바인베르크 244
반초(班超) 138
베. 게. 가푸로프 322
베르트라근 208
베트남 74
벨렌츠키 322
보로브코바 236
부르굴류크 문화 231
부하라 199
북방기류 28, 57
북사(北史) 246
불교 320
불교전입시기설 70, 71
비. 이. 마르샤크(Б. И. Маршак) 197, 322
비추린 238

ㅅ

4개의 세계 327, 329

- 사라센 170, 174, 179, 182
 사마광 156
 사마르칸드 14, 23, 44, 54, 58, 82, 85, 87, 97, 118,
 120, 130, 132, 160, 186, 191, 194, 308, 323
 사마르칸드의 금복숭아 332
 사마르칸드지 63, 76, 77, 82, 83, 85
 사마르칸드행 48
 사발나가한 51
 사바니 239
 산악백희 110, 112
 삼실총 108
 삼실총 벽화 29
 샤푸르 1세 234
 서돌궐 17, 51, 58, 59
 서사시 211
 서역 57, 102, 103, 105, 132, 140
 서역원정 62, 76
 석국(石國, 타슈켄트) 62, 143, 145, 146, 149, 150,
 152, 158, 159, 162, 164, 169, 170, 174, 177, 178
 석국원정 97
 선비 212
 세미레치에 219
 세세 238
 세페르 332
 소그드 14, 16, 19, 20, 35, 46, 57, 228
 소그드 문화 194
 소그드 미술 34
 소그드 벽화 49
 소그드어 200
 소그드 의사록 327
 소발룰국 159, 167
 쇄엽성 146, 147, 190
 수박회 107
 수산리 벽화 109, 111
 수서(隋書) 246
 수(隋) 131
 슈안 잔 252
 스키타이인 215
 스트라본 231
 스페인 92
 시 235
 시르다르야 199, 229
 시칠리아 91
 신당서 39, 154, 171
 신장[新疆] 75
 신화 215
 실크로드 25
 ○
 아나자와(穴澤) 45, 46
 아나히타(Анахита) 195
 아랍 206
 아메리카 대륙 95
 아무다르야 195
 아미디즘 216
 아미타 216
 아미타불 216
 아베스타 208, 236
 아부 만수르 앓 사알리비 78
 아부 만수르 이스마일 앓 사알리비(Abū Mansūr
 Ismāil al-Tha'libī) 79
 아부 오스만 알 자히즈(Abū Othmān al-Jāhiz) 77

- 아프라시아 10, 14, 24, 36, 45, 49, 103, 119, 121,
160, 161, 194, 257
- 아프라시아 궁전벽화 118, 134, 308
- 아프라시아 벽화 53, 54
- 아훈바바예프 311, 333
- 안록산 185
- 안서도호부지인(安西都護府之印) 139
- 안악 3호분 105, 106, 114
- 알마야타 212
- 알바움 37, 40, 43, 44, 45, 118, 309, 324
- 알타이 201
- 암각화 212
- 앗-타바리 229
- 야크사르트 233
- 얏센코 54
- 양피지 66
- 에두아르 샤반 162
- 에티엔 데 라 바시에르 329
- 연개소문 160
- 연운보 167
- 연운보 전투 140, 141, 145
- 연화(수련) 116
- 열개 화살 249
- 영국 94
- 예빈도 126, 127
- 오이노코에 32
- 오이노코에병 20
- 오회분 4호묘 32
- 웃수아리(ossuary) 30, 34
- 용선 328
- 용선 축제일 330
- 우르크 바르트라무크 312, 333
- 우스트루산 323
- 우즈베키스탄 194
- 유럽 90
- 유마경변상도(維摩經變相圖) 127, 128
- 의사록 314, 319
- 이븐 알-아시르 262
- 이븐 하우칼 230
- 이븐 호르다드베흐 256
- 이사업 183, 184
- 이사미디노프 232
- 이시크 쿠르간 208
- 이오샤 232
- 이탈리아 92
- 이현료 126, 127
- 이흐타흐리 230
- 일라크 253
- 일본 73
- ㅈ
- 자랍산 강 201
- 자리프 무흐타로프(Zarif Muhtarov) 83
- 자치통감 155, 165
- 장천 1호분 109, 110, 111, 113
- 전과 62
- 정수일(무하마드 칸수) 50, 124
- 제도로 및 제왕국지 80, 81
- 제체 235
- 제이말 244
- 제지법 186
- 제지술 188

- 조가양(曹家樣) 22, 30
 조로아스터교 195, 324
 조우관(鳥羽冠) 123, 125, 127, 128, 129, 134, 196
 조의출수 22, 30, 32, 57
 조중달(曹仲達) 21
 종이 62, 64
 종이의 길(Paper Road) 96, 97, 98, 99
 종이의 동진 70, 72
 종이의 서진 85
 종이의 초진 69
 중국 102
 중앙아시아 10
 지오그래피카 237
 지하드 이븐 살리(Ziyad ibn-Salih) 170
 진순신(陣舜臣) 178
- ㄷ**
 차우후초이 문화 231
 차치 199, 228, 234, 262
 채후지 68, 96
 철기 초기 213
 철마교역 26
 청동기 213
 체간 244
- ㅋ**
 카가나트 248
 카라마자르 229
 카라바체크(J. Karabacek, 喀拉巴塞客) 81
 카라칼파키스탄 205
 카바르나 시 242
- 카슈가르 23
 카슈 234
 카슈카다르야 199
 카아베 조로아스터 승전비 234
 카이로 88
 카자흐스탄 204
 칸규이 232
 칸카 203, 247
 케르룩 180
 케르룩 부중 170
 콤파레티(M. Compareti) 41, 328
 쿠다마 이븐 자파르 256
 쿠 유안 214
 크리스토퍼 베크위즈(Christopher I. Beckwith) 156
 키르기스스탄 10
- ㅌ**
 타슈켄트 오아시스 229, 231
 타슈켄트 191
 타지크 205
 타지키스탄 202
 탈라스 172, 174, 175, 179, 180, 181, 186, 190, 191, 262, 332
 탈라스 전투 62, 164, 188
 터키옥 230, 239
 토번 166, 189
 토화라(吐火羅) 148
 투둔 250
 투란(Туран) 194
 투르크인 196

투르크족 201
투르크스탄 204
투바 샤먼 208
트랑블레 247

표

파피루스 65
판치켄트 36, 201, 323
팔메트 문양 117
페르가나 182
페르시아어 200
페스(Fes) 89
평천장 117
프랑스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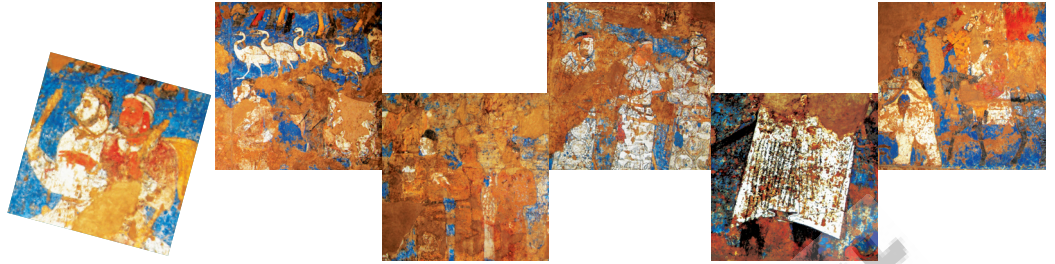
프루게르 241
피혁지 66

ㅎ

하라슈케트 243
한사군시기설 70
한혈마(汗血馬) 153
할랏 314, 319
할리파트 262, 331
현교(袞敎) 22
호선무(胡旋舞) 20
흥노 212
후의대식 176
히르트 23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초판 1쇄 인쇄 | 2008년 1월 10일

초판 1쇄 발행 | 2008년 1월 18일

지음 | 권영필 · 정수일 · 최광식 · 지배선 · 장준희 · 유리 F. 부라코프 · 루스탐 X. 슬레이마노프
펴낸이 | 김용덕
펴낸곳 |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 제 312-2004-050호 (2004년 10월 18일)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미근동 267) 임광빌딩 본관 11~12층

전화 | 02-2012-6065

팩스 | 02-2012-6175

e-mail |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8

ISBN 978-89-6187-026-9-9391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든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